장편소설

불타는 바다

김 대 성

—이 글을 근위 제2어뢰정대 대원들에게 드린다—

문학예술출판사
주체100(2011)

1

일요일 아침.

미태평양함대의 각종 군함들과 수백대에 달하는 전투기들, 수천명의 해군장교들과 함선승무원들, 해병대원들, 비행사들, 보장성원들이 집결되여있는 진주만으로 난데없이 백수십대에 달하는 함재기들이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무서운 기세로 날아들었다. 날개밑에 일장기를 그린 이 까마귀들은 주도기가 신호탄을 발사하자 각기 자기가 맡은 대상을 향하여 급강하하며 줄폭탄과 항공어뢰를 떨구고 기총탄을 퍼부었다. 고사무기를 장비한 수십척에 달하는 군함들이 맞불질을 하기는 고사하고 미처 출항도 하지 못한채 부두에 계류한 상태에서 직탄을 맞고 산산쪼각이 나거나 불길에 휩싸였다.

미해군에게 있어서 실로 청천벽력같은 공습이였다. 제노라고 으시대던 양키들은 쪽발이들의 불의의 타격에 혼비백산하여 어쩔바를 몰라했다. 그들이 미처 정신을 차릴 사이도 없이 동북쪽으로 백수십마일이나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일본항공모함들이 두번째로 날려보낸 까마귀떼가 재차 공습을 들이댔다.

쾅! 짜르릉!—

진주만의 전함거리는 순식간에 불바다로, 페허로 변했다.

유흥에 들떠서 아침부터 술이나 마시고 계집들과 춤을 추던 미해병들은 변변히 저항도 못해보고 아우성치며 쓰러졌다. 파철더미로 된 비행기와 함선의 잔해들, 불타고 찢겨진 해병들의 시체가 아름다운 풍치를 자랑하던 진주만에 한벌 쭉 깔렸다. 도처에서 검은 연기가 타래쳐오르고 불길이 널름거렸다. 련이어 울리는 폭음과 아우성소리…

7년전 12월초에 있은 태평양전쟁의 서막인 진주만전투진행정형을 이처럼 방불하게 학생들의 눈앞에 펼쳐보이고있는 사람은 수상보안간부학교 학생들이 《뽀쫌낀》이라고 부르는 교원 한백천소좌였다.

그는 수상보안간부학교가 개교하자 인상적인 첫 수업으로 학생들의 인기를 모았었다. 출석을 부르고난 그는 칠판에 큼직하게 제 이름을 쓰고 곁에 괄호를 치고 로어로 뽀쫌낀이라고 썼다. 그리고는 호기심이 어린 눈길로 지켜보는 학생들에게 자기 소개를 했다.

《내 이름은 한백천입니다. 쏘련에서는 나를 한뽀쫌낀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시 아는 동무들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리 알렉산드레예비치 뽀쫌낀은 18세기 유명한 로씨야장군으로서 짜리를 도와 흑해함대를 창설했습니다.

로씨야가 흑해함대를 창설하지 못했더라면 오늘까지도 서방의 멸시를 받는 락후한 봉건국가로 남아있었을겁니다.

해방된 우리 조국은 빨리 함대를 창설해야 합니다. 그래야 령토를 튼튼히 지키고 조국을 통일할수 있습니다. 나는 조선의 〈뽀쫌낀〉이 되고싶어서 조국에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전심전력하여 조선함대의 첫 창설자들로 력사에 기록되여봅시다.》

미구하여 창설하게 될 함대의 지휘관이 될 포부를 안고 모여든 학생들은 격동을 금할수 없어 바람맞은 파도마냥 뒤설레이며 박수를 쳤다.

《해양대국이 된 로씨야는 당시로서는 최신기술로 장비한 전투함을 건조하고 거기에 뽀쫌낀의 이름을 달았습니다. 이듬해인 1905년 6월 14일 전투함 〈뽀쫌낀〉호에서는 혁명적인 해병들의 폭동이 일어나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뽀쫌낀〉호의 마스트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붉은기가 휘날렸던것입니다.》

한백천은 후에도 여러번에 걸쳐 전투함 《뽀쫌낀》호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하군 했었다.

해방전에 쏘련태평양함대의 구축함에서 항해장으로 복무한 화려한 경력을 가진 그에게는 짜리로씨야를 반대하는 폭동에 가담하여 유명해진 전투함의 이름이 그자신의 이름인듯 잘 어울리는것이였다.

각종 해상전법들과 세계해전사에 정통하고있으며 그것을 더없는 자랑으로 여기는 그는 수업시간은 물론이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열기띤 언변으로 자기의 박식을 시위하군 했다.

《…이처럼 항공모함전단으로 진주만을 불의에 기습하여 거기에 집결되여있던 미해군주력을 불태우고 수장해치움으로써 전쟁 초기에 제

해권을 장악한 일제의 해군무력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항공모함이 열척에 주력전투함은 열다섯척인데 배수량은 척당 수만톤에 달했습니다.

참, 여기에 항공모함이나 주력전투함을 구경해본 학생들이 있습니까?》

학생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수자에 놀라서 눈을 휘둥그렇게 뜬채 숨을 죽이고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항공모함에서 함재기들이 어떻게 리착륙을 하는지 아는 학생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시오.》

학생들은 누구도 손을 들지 못하고 교원의 눈길을 피해 슬며시 고개를 수그렸다.

한백천은 의례히 그럴줄 알았다는듯 아량이 어린 미소를 짓더니 칠판쪽으로 돌아서서 백묵을 들고 항공모함을 큼직하게 그렸다.

《보는바와 같이 활주로는 갑판에 약간 사선으로 놓였는데 250～300메터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때문에 활주로에는 함재기들의 리착륙을 방조해주는 완충장치가 붙어있습니다.》

그는 완충장치의 작용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나서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일본해군은 그외에도 순양함과 구축함, 잠수함이 도합 수백척에 달했고 함대에 소속된 비행기는 1 500대가 넘었습니다.

참, 학생들은 잠수함이 물속에서 어떻게 항해하는지 알고있습니까?》

한백천소좌는 알만 한 학생이 있으면 어서 일어나 대답해보라는 눈길로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평균나이는 스무살, 구성을 보면 대체로 동서해수상보안대에서 선발추천되여온 우수한 젊은이들이다. 드넓은 바다를 활무대로 삼고 힘과 용기를 뽐내며 제노라고 호호탕탕 큰소리를 치던 사내들이 한데 모였으니 누구도 남에게 지겠다고 할리가 없었다. 하기에 개학 첫날부터 학습과 체육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의 경쟁이 벌어졌다. 그 과정에 두명의 학생이 눈에 띄우게 두드러졌다.

한 학생은 서해수상보안대 신의주분소에서 온 김군옥이고 다른 학생은 동해수상보안대 함흥분소에서 온 고준무다.

한백천소좌와 눈길이 마주친 김군옥은 슬며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아직 잠수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보지 못했지만 해군에 대한 자료들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하여 잠수함이 물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정도의 상식은 알고있었다. 그러나 일어나서 대답하고싶지 않았다. 어쩐지 기분이 상해서 그럴 흥이 나지 않았던것이다.

그의 곁에 앉아있는 채기정도 마찬가지였다.

이 학교에서 교무부교장으로 사업하고있는 채기정의 아버지 채정보 상좌는 해방전에 상선의 조타를 잡고 5대양이 좁다하게 돌아친 항해가이고 선박설계에도 조예가 깊었다. 그러니 그의 아들이, 장차 아버지처럼 이름난 항해가가 될 꿈을 지닌 젊은이가 그런 초보적인 상식을 모를리 없겠건만 고집스레 입을 꾹 다물고있다.

소대장인 고준무가 자리를 차며 일어났다.

《예,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한백천은 미더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고준무는 잠수함이 물속에서 항해하는 비결을 상세하게 큰소리로 설명했는데 마치 자기만이 아는듯이 으시대는것이였다.

한백천은 다시금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주 좋습니다. 역시 소대장이 소대장이요. 소대장동무처럼 각이한 전투함선들의 구조와 작용원리에 정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류학을 가면 그런 함선들을 짧은 기간에 솜씨있게 다루어낼수 있습니다.》

고준무더러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을 한 한백천은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처럼 미해군은 유흥에 취해있다가 진주만에서 크게 참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제해권을 상실하다나니 태평양과 인디아양사이의 전략적항로와 필리핀과 부루네이, 쟈바를 비롯한 수많은 섬들을 일본에게 빼앗겼습니다.

미국은 진주만참패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이를 갈며 다시 일어나 수많은 군함들을 건조하고 비행기들을 만들어 해군의 무장장비를 결정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하여 그후에 진행된 미드웨이해전에서 미해군은 오만해진 일본함대를 격파했는데 그 싸움이 볼만 했습니다. 먼저 일본함대가 장기항해하여 항공모함에서 함재기들을 날려보냈는데 미드웨이섬에 있던 미해군은 이를 역리용하여 비행기가 없는 일본

항공모함을 타격했습니다.》
한백천은 무시로 변하는 얼굴표정과 열띤 목소리로 가렬한 해상전을 학생들에게 방불히 펼쳐보였다. 마치도 그자신이 함포가 되여 불을 토하고 항공어뢰가 되여 떨어져내리는것만 같았다. 그는 일단 해상전이야기만 시작하면 이처럼 흥분해서 자감상태에 빠져들군 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야기에 심취되여 입을 하 벌리고 정신없이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그러나 김군옥은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수상보안간부학교의 주변엔 바다가라면 어디에나 있기마련인 해당화대신에 키높이 자란 아카시아나무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 해풍에 설레이고있었다. 겨울엔 죽어버린듯싶던 아카시아나무들이 5월 중순에 들어서자 별안간 생기를 띠면서 한창 물이 오르는 잔가시투성이인 가지마다 다투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포도송이처럼 하얀 꽃잎들이 오롱조롱 매달린 소담하고 탐스런 꽃송이들은 교정에 신선하고 콕 찌르는듯 한 달콤한 향기를 아낌없이 뿌려주었다.
교문을 나서면 곧 바다기슭이다.
바다는 고요했다. 너무도 한적했다. 사나운 기세로 날뛰던 바다는 따스한 봄빛의 애무에 노그라져서 까박까박 졸고있는것 같았다.
우묵하게 패여들어와서 호수처럼 잔잔한 포구에는 초라한 나무잔교가 어설프게 서있다. 거기에 열구기관을 놓은 자그마한 부업선과 전마선 두척이 매달려 잔파도에 흔들리고있었다.
바다가에서 나서자란 젊은이들이 대개 그러하듯이 군옥이도 바다를 바라보면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심장이 쿵쿵 높뛰였으며 탁 트인 저 멀리 수평선을 향하여 뭐라고 큰소리로 목청껏 웨치고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군 했다. 변화무쌍하고 거창한 대자연을 그저 바라보는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흥분을 느껴볼수가 없었다.
해방된지 3년이 되여오지만 우리의 바다엔 지금 무엇이 있는가?
한백천소좌가 이야기하고있는 항공모함이나 순양함이 큰 산이라면 저기 바라보이는 부업선이나 전마선은 자그마한 돌멩이나 가랑잎에 지나지 않을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어쩔수없이 주눅이 들고 기분이 상했다.

앞으로 창설해야 할 해군함대의 지휘관들을 키워내고있는 이 학교에는 학생들의 항해술을 련마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실습선이 아직 없었고 교육용배기관이나 항해기구, 함상포와 수뢰무기들도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못했다.

실정이 이러하다나니 항해학이요, 기관학이요, 병기학이요 하고 진행하는 기본강의가 실속이 있을리 만무했다. 아직은 보지도 못한것을 설명을 듣고 리해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였던것이다. 교원들로서는 학생들에게 리해시키기가 헐치 않았다.

그래서 교원들은 졸릴 정도로 따분하기 그지없는 기본강의도중에 이처럼 세계해전사나 해전사에 자기의 자취를 뚜렷하게 남긴 해군명장들에 대한 일화로 분산된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군 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장차 유능한 해군지휘관이 되여 큰 공을 세우려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부쩍 자아냈다. 군옥이도 그랬다. 그는 강의도중에 교원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귀가 항아리만 해서 정신없이 듣군 했다. 그런데 다 듣고나서 곰곰히 생각해보면 저으기 허망해지고 맥살이 풀리군 하는것이였다.

남들에겐 산같이 큰 전투함선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우리에겐 뭐가 있단 말인가?

지금 동서해에 있는 수상보안대 함선들을 다 합쳐도 발동선은 고작 열척미만이고 나머지는 노를 젓는 목선에 불과했다.

그러니 비교하여 생각해보면 속이 상할수밖에…

하지만 《뽀쫌낀》선생은 성수라도 나는듯이 미해군의 무력에 대하여 일일이 수자를 들어가며 상세히 렬거하고있었다.

그것은 학생들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방대한 무력이였다.

학생들은 너무도 놀라와서 모두 입을 딱 벌린채 굳어지고말았다.

《 내가 왜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가?

그것은 바로 동무들이 앞으로 이런 강대한 적수와 맞서 싸워야 하기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뭐 과장하거나 숨길것도 없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해군무력은 령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해안선이 긴 우리 나라에서 바다를 지키려면 순양함이나 구축함이 동서해에 적어도 대여섯척씩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극은 뭔가?
지금 설사 우리에게 누가 순양함이나 구축함을 준다고 해도 그것을 관리운영할수 있게 준비된 인재들이 없다는것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는 해군함대를 어떻게 건설해야 할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학생들에게 수차 강조한바와 같이…》
이때 공교롭다 해야 할지 다행이라 해야 할지 상학휴식시간을 알리는 함선호각소리가 휫! 또르르— 하고 명랑하게 울려왔다.
학교에서는 채정보부교장이 질서를 세워준대로 신호나팔이 아니라 함선호각으로 함상에서처럼 일과를 집행하고있었다.
한백천소좌는 나라의 해군함대건설과 관련한 자기의 중대연설을 주요대목에서 중지하게 된것이 자못 아쉬웠지만 제꺽 교수안을 접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긴장하게 교원의 태도를 지켜보던 고준무가 벌떡 일어서며 구령을 쳤다.
《일어섯!》
학생들은 일제히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2

교원이 나가자 잠시 못박힌듯 서있던 학생들은 저으기 멋적은 기색으로 입을 다시며 맥없이 털썩털썩 의자에 주저앉았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눈앞에서 폭음을 울리고 화약내를 풍기며 떠돌던 항공모함과 순양함을 비롯한 전투함정들의 모습은 신기루인양 홀연 사라져버렸다. 그러자 실습선은 고사하고 교육용배기관이나 함상포조차 없는 학교의 실정이 별스레 아프게 눈을 자극하는것이였다. 생각해볼수록 허전했고 그래서 주눅이 들었다.
김군옥은 하도 속이 상한김에 저도 모르게 주먹으로 책상을 힘껏 내리쳤다.

《젠장!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 쭈그리고앉아서 아무리 골싸매고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거지?》
《결국은 그 소리지요.》
채기정이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뽀쫌낀〉선생은 상학시간에 왜 그런 소리를 자꾸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젠 듣기가 싫구만요.》
채기정은 나이가 제일 어리나 체통은 큰 열여덟살의 순진하고 무던한 젊은이였다. 그는 비교적 유족한 가정에서 고생이란걸 모르고 무탈하게 자라난지라 자립성이 부족하고 의존심이 강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탐구심과 실천력이 강한 김군옥을 형처럼 따르면서도 은근히 어렵게 대했다.
이때 고준무가 어딘가 모르게 《뽀쫌낀》선생의 말투를 본따서 훈시조로 말했다.
《그러게 우린 소좌동지의 말대로 이 외진 구석에 박혀서 보지도 못한 순양함이나 구축함을 배울게 아니라 모두 류학을 가야 해!》
학생들의 눈길은 소대장인 고준무에게 쏠렸다.
《우리 나라에서 가까운 울라지보스또크에도 해군군관학교가 있다는구만. 하지만 난 이왕이면 오데싸나 레닌그라드에 있는 해군대학에 가서 배우고싶네.》
그는 격동되면 노상 그러하듯이 하늘에 솟구치려는것처럼 발뒤축을 고이며 몸을 한껏 추켜올렸다.
《우리모두 순양함을 타고 수에즈운하와 마젤란해협도 통과해보고 하와이의 진주만과 미드웨이섬에도 가보자구.
그래야 앞으로 함장이 되여도 당당히 제구실을 할수가 있단 말이야.》
김군옥은 순양함의 사령탑에 오르기라도 한듯이 잔뜩 기고만장한 그가 몹시 아니꼬왔다.
전형적인 함흥내기인 고준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를 타고난 배군처럼 행세하는데 그에 걸맞게 체통이 크지 못한게 유감이였다. 그러나 다부지고 파도에서 굴던 조약돌처럼 빤질빤질한데 여간만 승이 세고 이악스럽지 않았다.
고수머리가 드리운 한쪽이마에 엇비스듬히 찍히운 허물자리와 말을 할 때마다 반짝반짝 드러나군 하는 두개의 금이발은 간단치 않은 그

의 성미를 그대로 보여주고있었다.
그는 해방전 보통학교에 다닐 때 함흥일판에 소문을 낸 야구선수였다. 언젠가 그는 경기에서 패하고 행풀이를 하려고 달려든 일본학생들과 싸우다가 야구방망이에 맞아서 이마가 터지고 앞이가 두대나 부스러진적이 있었다. 그런 상태로도 용감히 싸워 일본학생들을 곤죽이 되게 밟아놓았다. 그리고는 억울하게도 류치장생활을 열흘간 하고 나왔는데 모두들 그를 영웅처럼 떠받들었다.
한 녀학생의 발기로 모금을 해서 그에게 금이발을 해주었다. 고준무가 상처자국이 있는 이마를 보란듯이 쳐들고 금이발을 번쩍거리며 나타나기만 하면 일본학생들은 주눅이 들어서 비실비실 곁으로 비켜서군 했다.
그가 동서해의 한다하는 젊은이들이 다 모인 수상보안간부학교에 와서 대뜸 소대장이 된것은 그러한 전적이 있기때문인지도 모른다.
머리가 좋고 꾸준해서 그날 배운 내용은 밤을 새우면서라도 그대로 다 암기하군 하는 김도형이 두눈을 반짝이며 맞장구를 쳤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류학을 보내주기만 한다면 난 선참으로 가겠네.》
여느때는 별로 말이 없던 최정수도 신이 나서 흰목을 뽑으며 소리쳤다.
《동무들! 류학을 보내주기만 바랄게 아니라 보내달라고 제기하자구. 거 이왕이면 소대장동무말마따나 레닌그라드에 있는 해군대학에 보내달라고 말이야.》
침착하고 사색적인 눈매를 가진 리대훈은 그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보다가 미타한듯 고개를 기웃거렸다.
《우리가 한꺼번에 다 류학을 가기는 이모저모로 곤난할것 같애. 그 많은 학생들을 누가 공짜로 배워주겠대. 류학을 가자면 돈이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로어로 뜯개말정도는 할수 있어야 해.》
그러자 떠들썩하던 학생들이 조용해졌다.
《로어보다는 중어를 배우기가 훨씬 쉽겠지?》
《참, 중국엔 해군대학이 없나?》
누군가 이렇게 불쑥 묻자 학생들가운데서 유일하게 장가를 들어 그런지 퍽 듬직해보이는 리완근이 신통치 않은 대답을 했다.

《글쎄… 있는것 같지 않소. 설사 있다 한들 중국은 지금 류학생들을 받을 형편이 못되지.》

《중국엔 해군대학이 없소.》

고준무가 한손을 휘저으며 결론을 짓듯이 확신있게 장담했다.

《청나라는 땅덩이가 크고 인구가 많지만 해군이 약해서 서양놈들과 일본놈들한테 계속 얻어맞았거던.

그래서 신식함대를 창설하는데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려고 젊은이들을 선발하여 넬슨제독의 모국인 영국에 류학을 보냈지. 한편 숱한 금덩이와 은덩이를 넘겨주고 외국에서 군함들을 사들였지.

류학생들이 돌아오자 비로소 북양함대를 창설했는데 일본함대와의 싸움에서 패하고 풍지박산이 났다는거야. 그후 청나라를 꺼꾸러뜨리고 중화민국을 세운 손중산도 함대창설의 절박성을 느끼고 영국과 미국, 도이췰란드 지어는 일본에까지 류학을 보냈지. 제정로씨야도 마찬가지야. 뾰또르1세는 락후하기 그지없는 로씨야를 추켜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강력한 해군함대를 건설하여 흑해와 발뜨해의 제해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하면서 외국기술자들을 대대적으로 초빙해다가 군함들을 건조했거던. 류학도 보내고… 지금 형편에선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였다.

고준무는 언젠가 한백천소좌가 상학시간에 여담삼아 들려준 소리를 되풀이하고있었다.

김군옥은 교원의 그릇된 주장에 덮어놓고 추종하는 고준무의 장황한 말을 더이상 듣기가 역스러웠다.

《소대장동무, 그런 말은 삼가하게.》

화제의 중심이 되였다가 기분잡치게 도전에 부딪친 고준무는 그만 약이 올랐다. 그런데 상대가 자기와 모든 면에서 앞자리를 다투는 김군옥인지라 여유있게 미소를 지으며 짤막하게 물었다.

《어째서?》

《동무의 주장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기때문이요.》

고준무는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아챘다.

《우리 실정이 어쨌다는건가?》

《그걸 몰라서 물어?》

서로를 노려보는 눈초리가 대뜸 사나와져서 교실의 분위기는 긴장해졌다.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질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류학을 가서 남의 배를 타고 세계일주나 하고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며 순양함이나 구축함을 사올 돈을 버는 사이에 적들이 덤벼들면 어쩔셈인가?》

준절한 물음이였다.

그러나 고준무는 대수롭지 않은듯이 여전히 비양조로 대꾸했다.

《이봐! 그런건 자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지금 청진항에 쏘련태평양함대가 분함대를 주둔시키고있지 않나. 일이 생기면 그 분함대가 즉시 출동하지 않으리.》

이것 역시 《뽀쫌낀》선생이 그 무슨 자랑거리나 되는듯이 자주 입에 올리던 소리였다.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해. 남이 지켜주기를 바라는건 어리석은짓이야.》

고준무는 이런 훈시를 받는게 거슬렸다. 그래서 큰일이나 난듯이 금시 눈이 꼿꼿해서 걸고들었다.

《그건 도대체 무슨 소리야? 쏘련군대가 달갑지 않다는거야? 너 어째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거야?》

김군옥은 그만 입이 얼어붙었다.

수세에 몰린 그를 곁에서 채기정이 두둔해나섰다.

《소대장동무, 거 너무 그러지 말자요.

우리 바다를 우리가 지키자는게 뭐가 나빠요?》

고준무는 이마에 찍힌 상처자리를 손으로 매만지면서 마뜩지 않은 눈찌로 채기정을 쏘아보았다.

《여! 동무가 뭘 안다고 참견이야?》

채기정이가 완력에 눌리워 더 어쩌지 못하자 여태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양판익이 나섰다.

《소대장동무, 자중하오. 나도 군옥동무의 말이 옳다고 보오.》

대다수의 학생들도 동감인 기색이였다.

고준무는 소대장으로서 체면이 있는지라 신경질적으로 목청을 돋구어 자기의 그릇된 주장을 고집했다.

《우리 바다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건 물론 옳은 소리지.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지킨다는거야? 도무지 다섯손가락안에도 들지 못하는 구식경비함이나 소해함을 가지고 적들의 항공모함이나 순양함과 맞서자는거야? 아니면 저기 바라보이는 부업선이나 전마선을 몰고 싸움판에 나가자는거야? 왜 대답을 못해?》

말문이 막힌 김군옥은 숨조차 막힌듯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정말이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천적인 방도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속이 상했고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종시 대답을 하지 못한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맥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도전적으로 나오던 상대가 찍소리도 못하고 수그러드니 고준무는 더기가 올라서 소리쳤다.

《그거야말로 닭알로 바위치기야! 자살행위란 말이야! 그러니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한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당신!》

고준무는 금이발을 번쩍이며 감히 삿대질까지 했다. 김군옥은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당신이라는 소리가 별스레 귀에 거슬리며 신경을 자극했다.

당신이란 흔히 부부사이에 무랍없이 부르는 다정한 부름이다. 하지만 생판 모르는 남이나 가증스런 원쑤를 대할 때도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그 부름은 억양이나 말투에 따라 때로는 심히 모욕적인것으로 느껴지는것이다.

지금의 경우가 그러했다.

하지만 학생들모두가 지켜보는 교실에서 여느 학생도 아닌 소대장과 야비하게 싸울수는 없었다.

김군옥은 가까스로 자제력을 발휘하며 상대방을 어디까지나 말로써 설득시키려고 했다.

《소대장동무, 하여간 우리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과 지혜로 가능한껏 해보면 될게 아니요.》

고준무는 댕댕해서 코웃음을 쳤다.

《글쎄 어떻게 한다는건지 방도를 내놓으라구.

륙지에선 혹 어쩔런지 모르겠지만 해상에선 함선의 배수량과 속도와 무장장비가 승패를 결정하는 법이야.》

이것 역시 《뽀쫌낀》선생이 자주 강조하는 소리였다.

《하자고 마음을 먹고 애를 쓰면 방도는 생기더구만.

난 서해수상보안대에 있을 때 전마선에 오토바이기관을 설치하고 막심중기를 놓고서 해상경비근무를 수행했는데…》

김군옥은 이야기를 마저 할수 없었다.

고준무가 어이없었던지 금이발이 확 드러나도록 입을 쩍 벌리며 교실이 떠나갈듯 앙천대소했기때문이였다.

《하하! 여, 그런 감탕내가 나는 소리는 꺼내지도 말라구. 여긴 동해야! 동해!》

일종의 텃세랄가. 고준무를 비롯하여 동해출신들은 서해에서 온 학생들을 이런 식으로 하대하거나 깔보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해방직후 수상보안대가 먼저 조직된 곳은 서해였다. 남포에서 서해수상보안대가 창설된 주체35(1946)년 6월 5일이 후날 해군절로 되였다.

해방된 이듬해 여름 자기가 보람찬 새삶을 시작한 서해수상보안대에 고향이나 가정과도 같은 소중한 애착을 간직하고있는 김군옥은 고준무의 비양을 더는 참을수 없는 모욕으로 간주했다.

졸지에 리성을 잃어버린 그는 하마트면 벌떡 일어나 고준무의 면상을 후려칠번 했다. 상대방을 쏘아보는 그의 두눈에선 불이 펄펄 일었다. 그 눈빛에서 위협을 느낀 고준무는 당장 치고받을듯 한 공격자세를 취했다.

《군옥이! 너 어쩌자는거야? 생각이 있으면 어디 덤벼들라구.》

김군옥은 가까스로 자제하며 눈길을 떨구었다.

고준무는 상대방이 숙어드는것 같이 보이자 더 기세를 올렸다.

《왜 그러고있어? 덤벼들라는데두. 여! 서해감탕판에서 벌벌 기던 동무가 어디에 와서 큰소리를 치는거야.》

이런 모욕까지 참자니 김군옥은 속에서 불이 이는것 같았다. 그렇다고 교실에서 완력행사를 할수는 없었다. 그는 눈길을 떨군채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책상을 꽉 틀어쥔 손이 푸들푸들 떨렸다. 곁에 있던 채기정은 자기가 모욕을 당한것만 같아서 눈을 흘기며 고준무를 나무랐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건 옳지 않소.》

고준무는 가소로운지 픽 코웃음을 쳤다.

《너도 서해수상보안대에서 왔다고 편역을 드는거야? 꼭뒤에 피도 안 마른게 재수없게스리.》

고작 두살차이인데도 고준무는 상대방을 이렇게 하대했다. 그는 김군옥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채기정을 마깝지 않게 여기던터이다. 채기정이 군옥을 친형처럼 깍듯이 대하면서도 소대장인 자기에게는 너나들이로 나오니 과연 기분이 상했다.

채기정은 왈칵 얼굴을 붉혔다.

《뭐가 어째? 재수가 없다구?》

평소엔 순하고 어질던 그가 일단 성을 내니 무서웠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사태를 지켜보고있었다. 고준무는 가소로운듯 금이발을 번쩍이며 여유작작하게 이죽거렸다.

《음, 재수가 없단 말이야. 당신같은 코흘리개는 저리 비켜!》

채기정은 불이 번쩍나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 찰나에 김군옥은 튕기듯 일어나며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뒤미처 고준무도 주먹을 내질렀다. 김군옥은 다른 손으로 그 주먹을 붙잡았다.

《이걸 놔요!》

《비켜서지 못해!》

《싸우면 안돼! 그만두라!》

다른 학생들도 와 하고 달려들어 싸움을 말리다가 《뽀쭘끼》선생이 들어오자 흠칫 굳어졌다.

한백천은 복도에서 학생들의 그 언쟁을 지켜보고있었던것이다.

3

한백천은 학업성적이 높고 학습열의도 대단해서 자기가 기특하게 여기며 각별히 믿고 사랑하던 고준무와 김군옥이 다른 장소도 아닌 교실에서 서로 싸운것이 못마땅하고 불쾌했다. 여기에 말려든 학생은 자기와 사이가 그닥 좋지 않은 채정보부교장의 아들이니 이 또한 난처하고 공교로왔다. 그래서 엄하게 추궁하려다가 그런 정도로 수습할 일

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홱 돌아섰다.

그는 부교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채정보에게 격해서 부르짖었는데 마치도 함상포가 련발사격을 하는것 같았다.

《난 이걸 그저 언쟁이라고만 볼수 없습니다.

김군옥학생의 발언은 매우 엄중합니다. 그는 감히 쏘련을 빗대고 남이 제 나라를 지켜주기를 바라는건 어리석은짓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쏘련을 시끄러운 존재로 여기면서 배제하자는건데 유감스럽게도 채기정학생은 그에 동조했습니다.》

한백천은 모욕이라도 당한듯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볼편이 푸들푸들 떨렸다.

자기만 똑 제일이고 원칙적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그도 남들이 범하는 결함은 사소한것도 융화하거나 묵과하지 않고 엄중하게 분석하여 즉석에서 되게 문제를 세워 두들겨패기를 좋아했다. 이처럼 목청을 돋구어 열변을 토하는걸 보면 자신의 원칙성을 과시할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온것을 무척 기뻐하는것 같았다.

그의 입에서는 침방울이 막 튕겨나갔다.

그와는 반대로 노상 시간이 모자라 애를 태우며 어쩌다 짬이 생기면 함선설계도면에 손을 대군 하는 채정보는 사색적이고 침착한 일군이였다.

그에게는 부교장이라는 직무가 어울렸지만 별이 세알이나 박힌 누런 견장이 달린 해군군관복은 그닥 어울리지 않았다. 오늘도 모처럼 생긴 짬시간에 경비함설계도면을 펴놓은 그는 한창 사색을 무르익히다가 이런 방해군과 맞다드니 골이 났다.

한백천이 큰일이나 난듯이 법석 떠들어대는 소리를 시끄러운대로 들어보니 그렇게까지 격분해서 송사할 일이 아니였다. 채정보는 군옥학생이 옳게 말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설계도면에서 마지못해 눈길을 떼며 나직이 물었다.

《그래서 어쩌자는거요?》

《되게 문제를 세워야지요. 군옥학생은 학과실력이 높기는 하지만 일부 교원들의 그릇된 영향을 받아서인지 탈선하고있습니다.》

한백천소좌를 피곤한 기색으로 쳐다보던 채정보의 눈까풀이 알릴듯말듯 떨렸다.

상대방이 한 말은 결국 자기에 대한 로골적인 비난이였기때문이다.
지금 학교에서는 교육기자재도 걸렸지만 보다는 교원진영이 약해서 애를 먹고있었다. 채정보처럼 해방전에 상선학교를 나오고 조타를 잡아본 사람들이 몇명 있었고 나머지는 한백천이처럼 쏘련에서 해군에 복무하던 사람들이였다. 경력이 서로 다른 이들은 학교운영과 교수안작성으로부터 시작해서 해군함대창설전망을 놓고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채정보는 함대창설에 필요한 인재를 자체로 육성하며 전투함정들도 자체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백천을 비롯한 일부 교원들은 그것을 실현불가능하거나 시기상조로 여겼다. 여기에는 그들의 우월감이 다분히 작용했다. 자기들은 정규적인 함대에서 이미 복무해보았다는데로부터 오는 우월감이였다.
더우기나 한백천은 태평양함대에서 대위견장을 달고 세계혁명을 해온 자기가 지금 고작 소좌견장을 달고 교원노릇이나 하는데 해방전에 상선이나 타던 채정보가 부교장자리에 앉아있으니 심사가 편치 않았다.
《김군옥학생을 당장 출학시킵시다!》
채정보의 눈까풀이 다시금 푸들 떨렸다.
《나는 그 학생을 장차 함대사령관도 할수 있는 전도유망한 해군지휘관으로 지목하고있소.
참, 동무도 언젠가 나에게 그런 생각을 터놓은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인지라 한백천은 말을 못했다.
《실력이 제일 높은 학생을 출학시키면 다른 학생들에게 주는 영향이 좋지 않을텐데 그 후과를 동무가 책임지겠소?》
사실 한백천은 자기도 실력을 인정하고있는 김군옥을 출학까지 시킬 생각은 없었다. 그럼에도 그런 제기를 한것은 부교장에게 심리적인 압력을 가하고싶었기때문이였다.
그는 이미 작정한대로 한걸음 물러섰다.
《그럼 한주일 영창처벌합시다.》
《나머지 두학생은?》
한백천은 저으기 난처해졌다.
소대장 고준무는 교원의 립장을 지지하고 옹호했으니 문제될게 없

는것이고 김군옥의 편역을 든 채기정은 부교장의 아들이니 고려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들은 크게 잘못한게 없으니 영창처벌을 주는건 가혹한 처사라고 봅니다.》

채정보는 별안간 두눈을 홉뜨며 언성을 높였다.

《크게 잘못한게 없다구? 교실에서 큰소리로 언쟁하며 소동을 피웠는데도 잘못한게 없단 말이요? 이건 혁명군대의 교육기관에서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망동이요!》

한백천은 선비같은 부교장이 이렇게 큰소리를 칠줄은 몰랐다.

《세 학생을 다 처벌로 한달동안 해상부업에 동원시키시오.》

채정보는 맺고끊듯이 지시하고나서 아무런 일도 없은듯이 두눈을 가느스름히 쪼프리며 다시 설계도면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말뚝처럼 서있던 한백천은 부교장이 더는 자기와 상대하려 하지 않자 눈만 껌벅거리다가 슬며시 물러나고말았다.

이튿날 아침 상학준비검열시간에 세 학생은 대렬앞에 불리워나갔다.

김군옥은 수치감에 얼굴이 타는듯싶어 차마 고개를 들수 없었다. 그는 시범동작을 보여주거나 훈련성적이 높아 칭찬을 받으려고 대오앞에 나선적은 여러번 되지만 이처럼 처벌을 받으려고 나서긴 처음이였다. 생각할수록 자신이 원망스럽고 후회되였다.

고준무와 채기정도 어깨가 축 처져서 고개를 떨구고 처분만을 기다리고있었다.

한백천은 교권을 시위할수 있는 이 기회에 또 한번 열변을 토했다.

《동무네 머리속에 배겨있는 낡은 사상잔재가 언제야 뿌리뽑히겠소. 여긴 함대지휘관들을 키워내는 신성한 교육기관이지 승벽내기나 하고 패싸움을 하는 어수룩한 뒤골목이 아니란 말이요. 특히 강의에서 취급한 내용을 놓고 이러니저러니 시비질을 하는건 매우 옳지 못한 태도요.

앞에 나온 세 학생은 해상부업을 통하여 자신을 단련하고 뉘우쳐야하겠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지금 거의나 비여버린 수산물창고를 한달동안에 다 채워놓으시오. 알겠는가?》

세 학생은 여전히 고개를 떨군채 겨우 알릴듯말듯 대답했다.

《예.》
《사민들처럼 〈예〉가 뭐야? 다시!》
한백천이 감때사납게 소리치자 그제서야 세 학생은 번쩍 고개를 들며 일제히 큰소리로 대답했다.
《알았습니다!》
《부업창고로 갓!》
세 학생은 뒤쫓기듯 부업창고로 갔다.
말이 부업창고지 쓸만 한 어구가 눈에 띄우지 않았다. 지난 3월에 청어를 잡노라 쓰던 덤장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띄우개도 변변치 않았다. 김군옥은 난감한 기색으로 구석구석을 둘러보다가 손에 잡히는대로 노대를 하나 둘러멨다. 김군옥의 눈치를 살피던 채기정은 《하여간 뭔가 담을게 있어야 하겠지.》라고 중얼거리며 청어비늘과 소금알갱이들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빈 목통을 어깨우에 힝 올려놓았다. 철띠로 단단히 테를 두른 참나무통에서는 쩔대로 쩔은 물고기비린내가 역하게 풍겼다.
마뜩지 않은 기색으로 밖에 그냥 서있던 고준무는 그들이 밖에 나오자 창고문을 쾅! 하고 소리나게 닫아버렸다.
운동장에서 학생들은 두패로 갈라져 바줄맺음훈련과 련락삭던지기훈련을 하고있었다. 바줄맺음훈련은 한백천소좌가 직접 집행하고 련락삭던지기훈련을 부소대장인 리완근이 집행하는중이다. 고준무가 보기엔 리완근이 오늘따라 별스레 으쓱해진것 같았다.
《련락삭 준비!》
리완근의 구령에 따라 두 학생이 나와 련락삭을 각기 량손에 갈라쥐고 수류탄을 던질 때처럼 웃몸을 비스듬히 뒤로 제꼈다.
《던져!》
두 학생은 련락삭을 쥔 두손을 률동적으로 흔들다가 힘껏 뿌려던졌다. 련락삭끝에 달린 연추가 포물선을 그으며 날아간다.
고준무는 야구공던지기명수인지라 련락삭도 잘 던졌다. 이번에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시범동작을 하며 훈련을 멋지게 집행할텐데 참 일이 공교롭게 되였다.
그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잔교로 가는 김군옥과 채기정을 마지못해 뒤따르며 게두덜거렸다.

《젠장, 남들은 훈련을 하는데 우린 이게 뭐야. 도대체 뭘 가지고 해상부업을 하라는거야? 한달이 아니라 석달이라도 수산물창고를 채우긴 코집이 글렀어. 빌어먹을…》
이때 무엇인가 휙 날아왔다. 그는 와뜰 놀라며 날쌔게 비켜섰다. 곁에 떨어진건 련락삭이 매달린 연추였다. 자칫하면 연추에 맞아 머리가 깨질번 했다. 그는 약이 올라서 홱 돌아서며 감때사납게 동무들을 쏘아보았다.
방금전에 련락삭을 던지다가 그만 실수를 하여 왕청같은 방향으로 연추를 날려보낸 학생은 김도형이였다. 감고장인 안변이 고향인 그는 감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동그란 얼굴에 량볼이 오동통하고 발기우리한데 방금전의 실수로 당황한지라 얼굴이 더 빨개져서 홍시처럼 익어버렸다. 그는 어쩔바를 몰라하며 소리쳤다.
《미안해! 소대장동무.》
고준무는 쓰거워서 입을 다시며 돌아섰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억울했다.
어째서 나에게 군옥이와 꼭같이 처벌을 주나?
《정말 너무해!》
속에서 부글거리던것이 자꾸만 입밖으로 튀여나갔다.
《부업선이라는건 기관이 고장나서 움직이지 못하지, 그물은 죄다 헝클어지고 찢겨진 상태지, 그러니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으라는건가?》
자존심이 강하고 명예를 귀중히 여기는 군옥이도 처벌을 받고 심사가 편할리 없었다.
고준무가 자꾸만 곁에서 징징거리니 더 화증머리가 났다.
《무슨 말이 그리도 많아? 해상부업을 하라면 해야지 별수 있어.》
《글쎄 뭘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말이야?》
《궁리해보자구. 무슨 방도가 생기겠지.》
고준무는 코웃음을 쳤다.
《흥! 여긴 동해야. 망둥이잡이나 하는 서해와는 조건이 다르단 말이야.》
그 소리는 가뜩이나 팽팽해진 김군옥의 신경을 아프게 건드렸다. 그는 턱 멈춰서서 여차하면 한대 후려갈길 자세로 고준무를 쏘아보았다.

아름드리참나무목통을 혼자서 둘러메고 수걱수걱 걸어가던 채기정이 자꾸만 불집을 일구는 고준무를 나무랐다.

《소대장동무 쩍하면 동해니 서해니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되나요?》

《알겠네. 난 그저 속이 상한김에 아무 생각없이 한 소리야. 그러니 량해하게.》

고준무는 화해조로 말하고나서 먼저 부업선에 올라갔다. 조타실안을 들여다보고 발판을 제끼고 기관실안을 굽어보던 그는 케가 글렀던지 입을 쩝쩝 다시며 현측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바다물속을 들여다보았다.

바다물이 맑아서 두어길이나 깊은 물속바닥까지도 빤히 들여다보였다.

우죽뿌쭉한 바위짬들에 이악스레 뿌리를 박은 기다란 다시마들이 춤을 추듯 소리없이 너울거렸다. 사이사이에 다보록하게 돋아난 발그스레한 김이나 약간 검누런 미역도 보인다. 잡아먹을나위도 없는 줄도미와 새끼보가지, 열기따위의 잔고기들이 바다풀사이를 누비며 재롱스레 헤염치고있었다. 오각별모양의 삼바리와 말성게도 더러 눈에 띄였다.

《에라! 모르겠다! 다시마나 건지세!》

고준무는 갑판에 놓여있던 삿대를 쥐고 활촉모양의 쇠갈구리가 달린쪽을 물속에 들이밀고 다시마를 휘감아당겼다.

누르스름하면서도 푸르끼레한 살진 다시마가 수면에 떠올라 번들거리는 제모습을 보란듯이 드러냈는데 흡사 레스장식을 한 기다란 혁띠같았다.

고준무는 삿대끝에 감아올린 다시마를 추켜들고 의기양양해서 소리쳤다.

《여! 뭘 멍청히 서있어? 어서 목통을 가져와!》

채기정은 독촉을 받고서야 잔교에 놓았던 목통을 들고 뚱기적거리며 부업선에 올라갔다.

고준무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다시마를 목통안에 던져넣고 또 허리를 잔뜩 굽히고 삿대질을 했다. 별다른 수가 없어 채기정도 내키지는 않았지만 삿대를 들고 다시마를 건져내기 시작했다.

사실 배군들은 다시마따위를 먹지도 않는다.

김군옥은 다시마국을 퍼줄 때마다 상판을 찡그리던 동무들이 생각나서 고준무가 하는 일에 합세하지 않고 두다리를 드리우고 잔교끝에 앉아 부시럭거리며 담배쌈지를 꺼냈다.

보라색공단으로 곱게 기운 담배쌈지에는 파도를 헤치며 내달리는 어뢰정이 흰 실로 정히 수놓아져있었다. 그것을 보니 불시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이 담배쌈지를 기념으로 준 그 처녀가 처벌을 받고 주눅이 든 자기의 꼬락서니를 지켜보는것만 같아서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지난 1월초.

수상보안간부학교 개교식을 며칠 앞두고 동서해의 수상보안대에서 선발된 젊은이들이 커다란 포부를 안고 모여들 때였다.

김군옥은 기차가 연착되는 통에 하루 늦어서 원산역에 내려 예비집결장소인 동양려관에 찾아갔다. 입학생들로 흥성거릴줄 알았던 려관이 예상외로 조용했다. 접수에 알아보니 공교롭게도 입학생들은 려객선을 타려고 한시간전에 부두에 나갔다고 했다.

그는 속이 철렁해서 허둥지둥 부두로 달려갔다. 야속하게도 려객선은 지각생을 골려주듯이 부웅!— 하고 배고동을 길게 울리며 장덕섬을 에돌아 저 멀리로 미끄러져간다.

견장이 없는 군복차림을 한 웬 처녀가 부두에 홀로 서서 려객선의 뒤모습을 안타까이 지켜보고있었다.

《동무, 말 좀 물읍시다.》

처녀가 고개를 돌렸다. 군옥을 마주보는 처녀의 시원하게 생긴 두 눈엔 물기가 어려있었다. 보아하니 무슨 속상한 일이 생겨서 혼자 울던것 같았다. 아름답게 생긴 처녀가 눈물을 머금은걸 보니 군옥은 대뜸 동정심이 생겼다. 처녀가 무엇때문에 그러는지 자기가 가능한껏 도와주고싶었다.

《동문 어째서 웁니까?》

《예?!》

처녀는 별 싱거운 사람을 본다는듯 미간을 찌프리며 눈을 흘기더니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멋적어진 군옥은 머뭇거리다가 미안쩍은 어조로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저 려객선에 수상보안간부학교에 입학할 동무들이 타지 않

았습니까?》
  처녀는 얼른 고개를 돌리더니 대뜸 반색을 하며 친근한 어조로 되물었다.
  《동무도 그 학교에 추천받아 오는가요?》
  《예.》
  《야! 동문 얼마나 좋겠어요.》
  처녀는 두손을 모두어 쥐더니 발까지 동동 굴렀다. 이럴 때 보니 어린애처럼 천진했다.
  《난 동무가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김군옥은 어리둥절해졌다.
  《도대체 뭐가 부럽다는겁니까?》
  처녀는 솔직히 터놓았다.
  《나도 수상보안간부학교에 입학하려고 왔는데 동무처럼 정식으로 추천받지는 못했거던요. 그래서 동무가 부러운거예요.》
  김군옥은 두눈이 휘둥그래지도록 놀랐다.
  《뭐라구요?!》
  처녀는 두눈이 올롱해졌다.
  《왜 그렇게 놀라세요?》
  《동무야 녀자가 아니요. 그런데두 수상보안간부학교에 입학하러 왔단 말이요?》
  처녀의 얼굴에 가득하던 부러움과 천진란만함이 순간에 가뭇없이 사라졌다. 정색해진 처녀는 엄한 기색을 지었는데 어찌도 도고한지 범접하기 어려울 지경이였다.
  《녀자가 어째서요?》
  콕 찌르는듯 한 그 물음에 김군옥은 대답을 못하고 침만 삼켰다.
  《동문 남녀평등권이 발포된걸 아직도 모르는가요? 아니면 동무에겐 녀성이라면 덮어놓고 업신여기는 봉건사상이 있는가요? 왜 대답을 못해요?》
  마치도 처녀는 교원이 경솔한 학생을 추궁하는듯 한 엄한 목소리로 따져물었다.
  김군옥은 어지간히 급해맞아서 변명조로 구구히 대답했다.
  《오해하지 마시오. 난 녀성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녀자가 전투함정을 탈수야 없잖소. 수상보안간부학교는 해군지휘관들을 육성하는 곳이란 말이요.》
처녀는 보기 좋게 군턱이 지고 감실감실하게 탄 얼굴을 도고하게 추켜들었다.
《해군지휘관은 남자만이 될수 있는가요?
이봐요, 똑똑히 명심하세요! 나도 해군지휘관이 되자는거예요. 이왕이면 전함이나 순양함의 함장이 되자는거란 말이예요.》
김군옥은 어이가 없어서 허허 웃고말았다.
처녀는 바싹 약이 올라서 얼굴을 확 붉히며 야멸차게 쏘는듯이 물었다.
《왜 웃어요? 실없게스리…》
《미안합니다. 난 지금까지 녀왕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녀함장이 있다는 소린 들어본적이 없거던요. 그래서…》
처녀는 조급하게 그의 말을 가로챘다.
《예, 바로 그래서 난 기어코 함장이 되자는거예요. 다음엔 함대사령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어요.》
《뭐라구요?!》
김군옥은 눈이 뒤집혀질 지경으로 놀랐다.
《함대사령관이 되겠다?》
처녀는 어글어글한 두눈과 복스럽게 생긴 입술에 미소를 지으며 어엿이 대꾸했다.
《예, 우리 아저씨가 그러는데 함대사령관이 될 꿈을 꾸지 않는 해병은 제구실을 하지 못한대요.》
음미해보니 과연 심중에 새겨둘만 한 소리였다.
그제서야 김군옥은 이 녀장부가 결코 허영에 뜬 소리나 롱담을 하고있지 않다는걸 더더욱 놀라운 심정으로 알아차렸다.
그는 정색해서 조심스레 물었다.
《아저씨가 누구요?》
처녀는 입술을 찡그리며 픽 웃었는데 그럴 때조차 밉기는 고사하고 더 매력있어보였다.
《아저씨가 아저씨지 누구겠나요.
하여간 동무생각엔 어때요? 내가 수상보안간부학교에 입학하기만 하

면 앞으로 해군지휘관이 될수 있을것 같나요? 솔직히 대답해주세요.》
김군옥은 이 처녀가 높이 세운 그의 포부와 그것을 기어이 성취하려는 강한 지향과 열정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예, 동문 꼭 그렇게 될겁니다!》
처녀는 뜻밖인지 저으기 놀랍고 미덥지 않은 기색으로 군옥을 마주보더니 긴장해서 숨을 죽이고 재차 물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나요?》
김군옥은 크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예, 난 그렇게 믿고싶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될거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저를 놀리는건 아니예요?》
《아니요. 동무의 말을 들으니 내가 부끄럽습니다. 난 동무처럼 그렇게 큰 포부와 희망을 지니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 진심이군요. 정말 고맙네!》
처녀는 활짝 웃으며 군옥의 두손을 무랍없이 덥석 쥐고 환성을 올렸다. 그 모습이 철부지소녀처럼 재롱스럽고 천진란만했다.
《글쎄 동무를 내놓고는 누구나 녀자는 해군지휘관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줄줄 알았던 우리 아저씨까지 그러더란 말이예요. 바다는 남자들의 독점물인것처럼 거만하게 여기거던요. 그래서 난 말이예요. 아저씨의 군관복을 슬쩍 채입고 떠나온거예요.
수상보안간부학교에 아저씨와 가깝게 지내던 〈뽀쫌낀〉소좌가 있거던요. 그를 믿고 왔는데…》
《〈뽀쫌낀〉이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해방전에 태평양함대에서 복무했답니다. 그는 로씨야전투함인 〈뽀쫌낀〉호가 짜리를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킨 이야기를 즐겨하군 하지요. 그래서 그런 별명이 붙은것 같애요.》
과연 흥미가 동하는 소리였다.
《그래서요?》
《마침 그 소좌동지가 입학대상자들을 데리려 원산에 나왔더군요.

나를 보고 몹시 반가워했어요.》
명랑하게 이야기하던 처녀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그러자 주위가 어두워진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내가 수상보안간부학교에 입학하러 왔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큰일이나 난듯이 펄쩍 뛰더군요.
자고로 동서방 어느 나라에서나 녀자가 해군지휘관이 된 례가 없다는거지요.
난 막 떼를 썼어요. 그러자 소좌동진 정색해서 나더러 추천문건을 내놓으라는데…》
말꼬리를 흐린 처녀는 군옥에게 물었다.
《참, 동문 추천문건이 있어요?》
김군옥은 은근한 자부심을 느끼며 점잖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처녀는 서글픈 기색을 지으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였다.
《나에겐 그런게 없어요.
소좌동진 추천문건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받아줄수 없다면서 남동무들은 다 려객선에 태우고 나 혼자만 떨구어놓고 가버린거예요.》
김군옥은 처녀의 처지가 가련하게 여겨져서 동정심을 금할수 없었다.
《거 소좌동지가 정말 너무하구만. 모르는 처지도 아닌데 어쩌면 그럴수 있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셈이지요.
그 사람은 인정도 없거니와 머리속엔 녀성들을 천시하고 업수이 여기는 봉건사상이 꽉 들어차있어요. 바다가 어디 남자들만의 활무대인가요?》
《옳소. 해방이 되니 고기배를 타고 일하는 용감한 녀성들도 있단말이요.》
처녀는 자기의 심정을 진심으로 리해해주는 총각을 정겹고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해방된 새 조선은 우리 녀성들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힘차게 밀고나갈것을 요구하고있어요. 이젠 녀자들속에서 비행사도 나오고 기관사도 나오고 함장이나 선장도 나와야 한단 말이예요.
그래야 내 나라를 튼튼히 지키고 하루빨리 부강조국을 건설할수 있

어요.》
《음,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총각의 고무를 받은 처녀는 억실억실한 눈동자를 빛내이며 다시한번 마음을 도슬러먹었다.
《난 기어이 수상보안간부학교에 들어가겠어요.
자! 어서 가자요.》
김군옥은 어정쩡해졌다.
《어딜 가자는거요?》
《어디긴요, 수상보안간부학교에 가야지요. 배를 놓쳤으니 걸어서라도 가잔 말이예요.》
처녀는 정말이지 여간내기가 아니였다.
《그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나 하고 그러오?》
《딱히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원산만안에 있겠지요. 려객선이 간 방향으로 해안가를 따라 가보자요. 그저 제발로 걸어가는게 제일이예요.》
김군옥은 처녀가 대할수록 마음에 들었다.
포부가 크고 지향이 뚜렷하며 목적을 향하여 자신심에 넘쳐 완강히 돌진하는 이런 처녀와 나란히 행군한다는것은 행운이 아닐수 없었다.
그래서 기꺼이 동의했다.
《좋소, 가기요!》
날은 일찍 어두워졌다.
줄창 해변가를 따라 걷는데 해풍이 어찌도 기승을 부리는지 숨이 컥컥 막혔고 이마와 볼편이 얼어들었다. 하지만 가슴은 불을 안은듯 뜨거웠다.
마치 화창한 봄날에 향기그윽한 꽃동산을 손잡고 거니는듯이 즐겁기만 했다.
그들은 신이 나서 걸으며 통성을 했다.
처녀의 이름은 김정인, 열아홉살, 함흥의전 학생.
고향은 산골인 풍산, 너무도 공부하고싶어 어린 나이에 함흥에 나와 바다일을 하며 학비를 마련하여 중학을 다녔다.
언니도 해방전에 함흥에 나와 간신히 녀학교를 다니고 고향에 갔다가 해방직후 군부녀부장으로 사업하던중 지금 보안간부훈련소에서 부

소장을 하는 홍동철과 결혼하였다고 한다. 아저씨는 젊어 한때 쏘련에 들어가 발뜨함대에서 복무하다가 동방근로자대학을 나오고 국내공작을 하던중 감옥살이까지 했다니 대단한 인물인것 같았다.

《바로 우리 아저씨가 발뜨함대에서 복무할 때 어뢰정을 탔는데…》

자기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리도 동경하여마지 않는 어뢰정이라는 말이 나오자 김군옥은 귀가 번쩍 열리는것만 같았다.

《가만! 이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저씨가 어뢰정을 탔단 말이예요.》

《음, 어뢰정을 탔단 말이지요. 그게 정말입니까?》

김정인은 무춤 멈춰섰다.

《왜요? 믿어지지 않아요?》

《아, 그런게 아니라 동무의 아저씨가 너무 부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난 아직 어뢰정을 말만 들었지 구경도 해보지 못했거던요.》

솔직한 그 말이 마음에 들었던지 김정인은 생긋 웃더니 품속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여 내밀었다.

《자! 그럼 구경하세요. 어뢰정이예요.》

김군옥은 저으기 놀라며 얼결에 그것을 받았다.

사진인데 날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부랴부랴 성냥불을 켜서 비쳐보았다. 해군군관복을 입은 풍채좋은 사나이의 모습이 찍혀있었다.

처녀가 속삭이였다.

《뒤면에 있어요.》

사진을 뒤집어보니 거기엔 파도를 헤치며 내달리는 어뢰정의 모습이 솜씨있게 그려져있었다. 날씬하게 생긴 어뢰정은 칼날같은 배머리를 추켜들고 창공으로 막 나래쳐오르는듯싶었다.

갑자기 성냥개비를 쥔 손끝을 누가 깨무는것만 같아서 김군옥은 손을 털며 비명을 질렀다.

《앗 따거!》

《호호!》

처녀는 소리내여 웃었다.

김군옥은 성냥불에 덴 손끝을 입김으로 불고나서 다시 성냥불을 켜고 어뢰정그림을 주의깊게 보았다. 그러고나서야 사진을 처녀에게 돌

려주었다.
《이 군관이 아저씨요?》
《예, 우리 아저씬 그때 장차 해방된 조국에 나가서 함대사령관이 될 꿈을 안고있었대요.》
《아, 그래서 동무가 함대사령관이 되겠다는 소리를 했구만.》
《예, 얼마나 랑만적인 꿈인가요. 아저씨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내가 실현하자는거예요. 참, 동무의 꿈은 뭐예요?》
김군옥은 시무룩이 웃었다.
《난 동무처럼 감히 함대사령관이 될 꿈은 꾸지도 못했소. 그러나 어뢰정은 타고싶소. 이왕이면 어뢰정정장이 되고싶구만.》
《동문 정장이 아니라 정대장도 될수 있을것 같아요.》
《놀리지 마오.》
《정말이예요. 목표를 그렇게 높이 세우고 아글타글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나 꼭 되는거예요.》
아름다운 처녀의 믿음에 넘친 고무를 받은 김군옥은 사기가 났다.
내가 그렇게 값있는 존재란 말인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암, 그래야 하구말구.
그는 흐뭇한김에 한대 말아 피우려고 엽낭에서 담배쌈지를 꺼냈다. 추위에 곱아든 손으로도 솜씨있게 제꺽 마라초를 말아물고 불을 달았다. 그리고는 멋지게 연기를 내뿜었다.
좀 아연해하는 기색으로 그를 지켜보던 처녀는 코살을 찡그리며 약간 빈정대는 투로 말했다.
《그 담배쌈지에선 령감냄새가 나는군요. 동무에겐 어울리지 않아요.》
김군옥은 별안간 시무룩해져서 나직이 한숨을 내쉬였다.
《그럴수밖에… 이건 우리 아버지가 애용하시던거요.》
본의아니게 상대방의 아픈 곳을 건드린 정인은 몹시 미안해하며 조심스레 물었다.
《저… 지금은 아버지가 안계시나요?》
김군옥은 괴롭게 얼굴을 찡그리며 담배연기를 내뿜었다.
《음, 세살때 어머니를 여읜 나를 아버지가 홀로 키우셨소. 아버진 남포와 신의주로 오가며 상품을 실어나르는 짐배를 부리셨는데 그렇

게 죽기내기로 돈을 벌어 나를 소학교에 보내셨지. 난 고생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하여 제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소. 그러나 돈이 딸려서 중학교에는 갈수 없었소.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다리를 상해서 더는 배일을 할수 없게 됐소. 아버지대신에 내가 짐배에 올랐지. 그러던 어느날 배가 암초에 부딪쳐서 산산쪼각이 났소.》
《저런?! 그래서요?》
《난 널쪽 하나를 붙잡고 날바다에서 며칠간 표류하다가 겨우 뭍에 기여올랐소. 집으로 가니 문밖에 나와 지켜서있던 아버지가 나더러 당장 압록강을 건너 도망치라고 하더란 말이요.》
정인은 두눈이 올롱해졌다.
《어째서요?》
《돈밖에 모르는 일본인선주놈이 깨여져나간 배의 값과 배에 실었던 상품들의 값을 기어코 받아내겠다고 윽윽 벼르면서 선원들중에서 누구인가 살아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는게 아니겠소.》
정인은 치를 떨었다.
《정말 흡혈귀로군요.》
《그통에 난 집안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그달음에 밀선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 이국땅으로 도망쳤소. 헤여질 때 아버지가 이 담배쌈지를 내 손에 쥐여주었는데 안에 지전과 동전이 1원 50전 들어있더군. 난 그 돈을 손에 쥐고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을 정처없이 떠돌아다녔소.
그때 받은 수모와 구박을 잊을수가 없소. 정말 상가집개만도 못한 신세였지. 아버지가 그립고 고향집이 그리워지면 나는 이 담배쌈지를 펼치고 냄새를 맡군 했소. 그러다가 담배를 피우게 됐지.》
정인의 두눈엔 눈물이 가랑가랑 맺혔다.
《난 해방이 돼서야 고향에 돌아왔소. 그런데 아버진 몇해전에 돌아가셨더군. 선주놈이 나 대신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를 배에 태우고 혹사시켰으니 견디여낼수가 없었다는거요.
난 아버지의 원쑤를 갚아드리려고 해방이 되자 어디론가 도망친 쪽발이선주놈을 찾아 서해안을 샅샅이 훑으며 남포까지 내려갔다가 수상보안대에 단속되였소.

수상보안대를 책임진 항일투사동지가 나를 만나 사연을 알아보더니 지금 남조선에서 일본놈들을 대신하여 미국놈들이 또다시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있으니 놈들이 범접을 못하게 바다를 지켜야 한다고 일깨워주시더군. 그래서 난 수상보안대에 들어가게 된거요.》

정인은 눈굽에 맺힌 눈물을 손수건으로 꾹꾹 찍더니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수상보안대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신의주로 드나드는 각종 배들을 단속했소. 처음 우리에겐 전마선밖에 없었소. 전마선으로는 발동선들을 단속할수가 없더구만. 우린 생각하던 끝에 전마선에 오토바이에서 뗴낸 기관을 놓았소.

배머리엔 막심중기를 걸었지. 그랬더니 발동선들도 꼼짝하지 못하더군. 우린 적산물자를 비법적으로 빼내가던 발동선들과 모리간상배들, 파괴암해분자들을 붙잡았소.》

정인은 두눈을 반짝이며 탄성을 올렸다.

《야! 정말 멋있군요. 어쩌면 그런 기발한 생각을 다 했어요?》

《이제야 우리가 바다의 주인이 아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힘으로 바다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런 방법도 떠오르더구만.

어느날 수상보안대 대장인 항일투사 김성국동지가 우리 신의주분소에 왔댔소. 투사동지는 발동선으로 개조한 전마선을 보고 몹시 기뻐하면서 나를 수상보안간부학교에 추천해주더란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된거요.》

《정말 대단해요. 앞으로 함대사령관은 내가 아니라 동무가 될거예요. 난 그렇게 확신해요.》

김군옥은 초면인 처녀에게 지나치게 제 자랑을 한것 같아서 얼굴을 붉혔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함대사령관이 되겠소. 난 어뢰정이 좋소. 투사동지도 나더러 꼭 어뢰정정장이 되라고 했단 말이요.》

《그럼 나도 어뢰정을 타겠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소.》

《그렇게 될수 있게 동무가 힘써주세요. 동무에겐 그럴 힘이 있어요.》

《그럼 어디 노력해보기요.》

성수가 나서 이런 얘기를 나누며 걷다나니 그들은 힘든줄도, 밤이 지새는줄도 몰랐다.

4

김정인의 출현은 개교준비에 분주하던 수상보안간부학교 교직원들과 흥분하여 입학수속을 하던 젊은이들모두를 놀래웠다.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정인이를 거의나 강다짐으로 려객선부두에 떨구어놓고 온 한백천소좌였다. 그는 처녀가 락심천만해서 집으로 돌아갈줄 알았지 밤새 행군하여 여기까지 찾아올줄은 차마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처녀의 고집과 이악성에 탄복할 지경으로 놀랐지만 그렇다고 하여 양보할 그가 아니였다.

가뜩이나 개교준비가 어설프기 그지없어 이런 곳에서 제구실하는 해군지휘관들을 키워낼수 있겠는지 자신심이 생기지 않는데 처녀까지 입학시키면 꼴불견인데다가 될일도 안될수 있었다.

그건 그렇다치고 처음부터 학교의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우기 위해서도 눈 꾹 감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한백천은 관청뜨락에 들어온 암병아리를 쫓듯이 두팔을 벌리고 처녀를 교문밖으로 밀어냈다.

이통에 처녀와 나란히 운동장에 들어섰던 김군옥이도 황황히 뒤걸음쳐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정인은 당장 눈물이 쏟아질 지경으로 애가 타고 약이 바싹 올랐다. 하지만 숱한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자기를 지켜보기에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다분히 응석이 섞인 어조로 항변했다.

《아저씨두 참… 너무하군요.

제가 그렇게두 보기 싫어요? 왜 문전거절을 하는거예요?》

키가 꺽두룩한 한백천은 노상 부은것처럼 보이는 퉁방울같은 눈을 부릅뜨고 엄하게 말했다.

《여기서는 나를 아저씨가 아니라 소좌동지나 선생이라고 불러야 해.》
상대방이 엄하게 나올수록 정인은 생글생글 웃으며 매달리듯 졸라댔다.
《나를 학교에 받아주세요. 예? 선생님.》
《여기엔 녀자들이 필요없어.》
《왜 필요없어요? 해군에도 녀성들이 할일이 얼마든지 있잖나요.》
《간호원이나 무전수, 타자수로는 복무할수 있지.
하지만 이 학교에서는 간호원이나 무전수가 아니라 전투함선을 몰고 풍파사나운 바다에 나가 싸울 함정장들을 키워낸단 말이야.》
정인은 가슴을 내밀며 큰소리로 언명했다.
《나도 함장이 되자는거예요!》
한백천은 앙천대소했다.
《하하! 이거야말로 세상을 웃기겠구만.
정인아, 처녀함장이라는건 동서고금 어느 나라 해군에서도 있어본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수 없어. 붉은군대에도 녀성들이 적지 않지. 그들가운데엔 녀성정찰병이나 녀성비행사는 더러 있어.
그러나 녀성함장은 없어. 함장은 고사하고 녀성조기수나 갑판수도 없단 말이야.》
정인은 모욕감에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만하세요! 난 아저씨한테서 녀성천시로 일관된 연설을 벌써 두번째로 들어요.》
김군옥은 더이상 곁에서 지켜보기만 할수 없었다.
그는 밤새도록 함께 먼길을 걸어오면서 친숙해진 처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도와주어야 할 의무감을 느꼈다. 그래서 대담하게 지원포를 쏘았다.
《소좌동지, 다른 나라 군대는 어떻든 우리 인민군대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녀성함장이 나오면 좋은거지 나쁠거야 없잖습니까.
이 동무의 소원대로 해주십시오.》
한백천은 주제넘게 나서서 훈시를 하는 젊은이를 감때사납게 흘겨보았다.
《넌 누구야? 버르장머리가 없구만!》

첫탕에 다짜고짜로 된욕을 먹은 김군옥은 자세를 바로하며 항의하듯 우정 큰소리로 대답했다.

《서해수상보안대 신의주분소에서 온 김군옥입니다!》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는 그 태도가 한백천의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신발을 바로 신기기 위해 엄하게 추궁했다.

《동문 군사규정도 몰라? 상관에게 할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소좌동지, 물어볼수 있습니까?〉 이렇게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얼핏 보매 어지고 참하게 생긴 젊은이가 튕겨볼수록 짱짱 쇠소리를 냈다.

《음, 입학하러 왔소?》

《예!》

《그럼 문건을 내놓소.》

김군옥은 둘둘 말아 어깨에 둘러멨던 베보자기를 벗어 서둘러 풀고 수속에 필요한 문건을 꺼내 두손으로 정중히 바쳤다.

한백천은 문건을 깐깐히 뜯어보고나서야 감때사나운 표정을 어느 정도 풀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좋소. 동문 들어가 입학시험수속을 하오.》

김군옥은 동행자를 남겨둔채 혼자 들어갈수가 없어서 머뭇거렸다.

한백천은 총각과 처녀를 색다른 눈으로 번갈아보더니 알릴듯말듯 미소를 지으며 흥미있는 어조로 물었다.

《가만, 동무넨 잘 아는 사이요?》

두 젊은이는 불시에 얼굴을 붉히며 몹시 당황해했다.

김군옥은 방금전의 당당하고 어엿하던 자세를 허물며 우물쭈물 변명조로 대답했다.

《저… 려객선부두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럼 남의 일에 싱겁게 상관하지 말고 어서 들어가오.》

운동장에서는 대렬을 지은 입학생들이 잔뜩 호기심이 어린 눈길로 교문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고있었다.

김군옥은 바빠맞아서 허겁지겁 달려가 대오에 들어섰다.

대렬앞에 당돌하게 서있던 앙바틈하고 영악스레 생긴 고수머리가 대

뜸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동무! 보고도 없이 승인도 받지 않고 자의대로 대렬에 막 들어서면 되는가?》
추궁을 받은 김군옥은 일순 어리둥절해졌다.
나이가 자기와 비슷해보이는 상대방은 차림새를 봐도 교원이 아닌게 분명했기때문이였다.
이때 곁에 서있던 체격이 우람진 젊은이가 얼른 귀띔을 해주었다.
《저 동문 오늘 아침에 임명된 소대장이예요.》
소대장이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마수거리로 행사하고싶었던지 금이발을 번쩍거리며 자못 거드름스럽게 다가왔다.
《동문 어디서 온 누구인가?》
키가 작은 소대장이 키가 큰 한백천소좌의 흉내를 내려고 하는것이 가관이였다. 김군옥은 좀 기분이 상했지만 자세를 바로하며 씩씩하게 대답했다.
《서해수상보안대 신의주분소에서 온 김군옥입니다!》
소대장은 무슨 흠집을 잡고싶은지 메밀눈으로 날씬하고 단정하고 온순하게 생긴 김군옥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입학하려고 왔으면 문건을 내놓소.》
이런 요구를 하는것도 신통히 한백천소좌를 본땄다.
《문건은 이미 소좌동지에게 제출했습니다.》
소대장의 메밀눈에 상대방을 시까스르는듯 한 능청스런 기색이 떠올랐다.
《서해에서 왔다는 동무가 동해의 해당화는 언제 꺾었소?》
동해의 해당화란 정인이를 념두에 둔게 분명했다. 김군옥은 당황해졌다.
《그… 그건 무슨 소리요?》
구운 가재처럼 얼굴이 빨개져서 아닌보살하는 군옥이를 바라보며 학생들은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다.
소대장은 씨물씨물 웃으며 큰소리로 말했다.
《저 처녀는 함흥의전의 꽃이란 말이요. 그런데 동무가…》
김군옥은 방금전 한백천소좌에게 그러했듯이 얼른 변명조로 대꾸했다.

《그건 오해요. 우린 어제 려객선부두에서 처음으로 만나 함께 왔을뿐이요.》

《하여간 이제부터는 헛눈을 팔지 마오. 예로부터 꽃향기에 취한 배군은 제구실을 못한다고 했소. 치마바람을 쏘인 배는 영낙없이 산으로 올라간단 말이요.》

소대장이 손짓으로 멀리 바라보이는 나지막한 산봉우리를 가리키자 또다시 와하하! 하고 폭소가 터졌다.

졸지에 웃음가마리가 된 김군옥은 상당할 정도로 모욕감을 느꼈다.

《여보! 거 아무 말이나 탕탕 하지 마오!》

웃음소리가 뚝 그쳤다.

소대장은 그제서야 자기의 언행이 지나쳤음을 느꼈던지 화해조로 버룩 웃었다.

《골을 내긴… 동무하군 롱담도 못하겠구만.》

《시시껍적한 롱담은 삼가하란 말이야!》

《뭐가 어째?》

그들은 눈섭을 곤두세우고 성난 수닭처럼 서로 노려보았다. 눈찌만 봐도 둘다 만만치 않았다. 곁에 있던 체격이 우람지나 얼굴엔 햇복숭아처럼 솜털이 보시시한 젊은이가 두팔을 벌리고 그들사이를 막아나섰다.

《이제부터 함께 공부를 해야 할텐데 이러면 되나요? 그만두라요.》

다른 학생들도 만류하기에 그들은 물러섰다.

그날부터 입학시험이 시작되였다.

인기있는건 오후에 진행한 체력검정이였다.

오전에 진행한 시험들은 주로 종이에 써내는것이여서 누구의 실력이 높은지 아직은 알수 없었다. 그러나 체력판정은 입학생들의 육체적준비정도를 그 자리에서 직관적으로 보여주었다.

달리기와 너비뛰기, 높이뛰기, 장대오르기, 철봉, 평행봉, 조마등 모든 종목에서 김군옥은 평상시에 독을 먹고 꾸준히 련마해온 자기의 우수한 솜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는 정문밖에 오도카니 서서 자기를 줄곧 지켜보는 정인의 고무적인 눈길을 기쁘게 느끼고있었다. 그 눈길앞에서 용감하고 대담해지고 싶었고 모두를 깜짝 놀래울 뛰여난 솜씨를 발휘하고싶었다. 그래서 실

력을 다 과시했는데 스스로도 놀라울 지경으로 몸이 잘 움직여져서 종전에 세운 자신의 기록을 모든 종목에 걸쳐 돌파했다.

백메터달리기로부터 조마에 이르기까지 그와 성적이 어슷비슷한 학생은 벌써 소대장이 돼서 큰소리를 탕탕 치며 대렬관리를 하는 고준무였다.

두 젊은이는 체력검정마당에서 대뜸 쌍벽을 이루며 두드러진 존재가 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군옥은 노상 기쁘거나 즐거울수가 없었다.

녀성함장이 되려는 리상을 안고 자기와 함께 밤길을 인상깊게 걸어온 정인이가 입학시험도 치지 못하고 울상이 돼서 교문밖에 그냥 서있기때문이였다.

벌써 김군옥이에게 반해서 체통에 어울리지 않게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한 채기정이가 왜 그러는가고,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고 은근한 어조로 물었다.

김군옥은 그에게 사연을 솔직히 터놓았다.

채기정은 씩 웃으며 선뜻 장담했다.

《그건 걱정하지 말라요. 우리 아버지에게 부탁하면 될테니까요.》

김군옥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누구야?》

《교무부교장이지요.》

채기정은 조금도 뽐내거나 으시대지 않고 오히려 좀 부끄러워하는 기색으로 대답했다.

김군옥은 막혔던 숨이 활 나갔다.

그는 즉시 채기정을 앞세우고 교무부교장을 찾아갔다. 과연 채기정의 아버지답게 유순하면서도 리지적으로 생긴 부교장은 성칼스럽기 그지없는 한백천소좌와는 달리 입학하러 왔다는 처녀에게 대단한 관심을 표시했다.

《처녀가 해군지휘관을 지망한단 말이지. 거 정말 대단한걸. 그 처녀의 아저씨가 누구라구?》

《해방전엔 발뜨함대에서 복무했는데 지금은 보안간부훈련소에서 부소장으로 사업한답니다.》

채정보는 호인다운 홍동철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자 고개를 끄덕

이였다.

《아! 그럼 전에 해주시당에서 부부장을 하던 홍동철동무로구만. 어서 데려오시오. 그 처녀를 만나보기요.》

이리하여 천만다행스럽게도 김정인은 부교장을 만나게 되였다. 채정보는 처녀의 절절한 소망을 귀담아들어주고나서 난 찬성이다, 그러나 나 혼자의 결심으로 될일이 아니니 그동안 식당료리사아주머니와 함께 지내며 기다려달라고 했다.

정인은 당분간 식당일을 도와주게 되였다.

보기에도 시원하게, 서글서글하게 생긴 처녀가 행주치마를 산뜻하게 두르고 주방에 나타나니 식당이 별스레 환해진듯싶어 인기가 대단했다.

며칠이 지나갔다.

개교식날 오전 9시경에 경비함 한척이 위엄있게 배고동을 길게 울리며 이 외진 포구에 들어왔다.

마침 개교식준비를 끝낸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환성을 올리며 달려나갔다. 학생들이 가슴을 울렁거리며 지켜보는 속에 경비함은 닻을 떨구고 요란하게 닻줄을 풀며 천천히 후진하여 변변치 못한 나무잔교에 맵시나게 꽁무니를 붙이였다.

배다리를 설치하자 개교식에 참가하러 온 중앙과 지방의 일군들과 인민대표단성원들이 한사람한사람 조심스레 잔교에 내렸다.

중절모를 쓰고 외투를 입은 신사풍의 틀진 사나이가 선참으로 바다기슭에 내려섰다. 그는 마중나온 김광민교장, 채정보부교장과 인사를 했다. 한백천소좌와는 각별한 사이인지 서로 포옹까지 했다.

학생들속에서 목을 길게 빼들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군옥은 은은히 풍기는 꽃향기같은것을 감촉했다. 어느새인가 정인이가 자기곁에 나타났다. 처녀는 그의 귀에 대고 따스한 입김을 뿜으며 속살거렸다.

《저분은 강원도당위원장이예요.》

김군옥은 놀랐다.

《동무가 그걸 어떻게 아오?》

《저분도 우리 아저씨와 함께 발뜨함대에서 복무했지요. 아저씨네 집에 몇번 찾아왔댔어요.》

상좌견장을 단 군용외투를 입은 군관이 두번째로 잔교에서 내렸다.

예리한 눈빛, 사려문 입술, 군살이 한점도 없이 깎이운 볼편, 날카로운 턱… 날이 선 해군단검이나 수류탄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였다. 웬일인지 다리를 알릴듯말듯 절었다. 그것이 결사전에 나가는 걸음처럼 매력이 있어 그의 전투적인 용모를 더욱 부각시켜주었다.

그걸 보니 김군옥은 배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심하게 절던 아버지가 문득 생각났다.

그래서인지 초면이지만 상대방에게 대뜸 친근감이 갔다.

《항일투사 조정철동지예요.》

정인이 귀띔해주는 이름이 귀에 익었다.

자기와 신의주에서 친하게 지내다가 평양학원에 간 리활이 생각났다. 그가 보내온 편지에는 자기의 입당보증을 조정철동지가 해주었다는 자랑이 담겨져있었던것이다.

《저분은 나도 아오. 평양학원에서 정치일군을 한다지.》

《지금은 만경대혁명학원에 가있어요.》

세번째로 날렵하게 생긴 사람이 잔교에서 뛰여내려 다리를 저는 조정철을 부축해주었다.

《저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군요.》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본 김군옥은 너무 놀랍고 반가와서 하마트면 환성을 올리며 달려나갈번 했다.

몹시 흥분하여 어쩔바를 몰라하는 그에게 정인이가 물었다.

《아는 사람이예요?》

김군옥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우리 서해수상보안대 대장으로 사업하던 항일투사 김성국동지요.》

고개를 끄덕이던 정인은 웬일인지 흠칫 놀라더니 군옥이의 뒤로 얼른 몸을 숨겼다.

《왜 그러오?》

《이를 어쩌나. 우리 아저씨도 왔어요.》

김성국의 뒤로 잔교에서 내린 나이지숙하고 듬직하게 생긴 상좌를 두고 하는 소리였다. 교원들과 웃으며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첫눈에 호감을 주었다. 정인의 아저씨라니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지도 모른다.

《아저씨가 왔으니 동무의 입학은 결정된거나 다름이 없구만.》

정인은 반가와하면서도 불안한 기색이였다.
《그럴가요? 아니예요. 일이 공교롭게 됐어요.》
《뭐라구?》
《난 아저씨가 승낙하지 않는걸 몰래 여기로 떠나왔거던요. 아저씨는 나를 보면 야단을 칠거예요. 우리 아저씨도 바다를 남자들의 독점물로 여기고있으니까요.》
개교식이 시작되자 도당위원장 한일무가 중절모를 벗어들고 일어났다.
《동무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새 조국건설에 분망하시지만 작년 여름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이 포구에 찾아오셨댔습니다.
그날 제가 길안내를 해드렸는데 이 주변엔 수풀과 갈대가 무성하고 진펄이 있어서 말이 아니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수풀을 헤치고 진펄을 건느시며 여러곳을 돌아보시다가 여기에 수상보안간부학교의 터전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날을 돌이켜보는 한일무의 얼굴엔 감회가 그윽히 어렸다.
《장군님께서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나라에서는 바다를 지키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창설하게 될 해군함대의 골간인 해군지휘관들을 빨리 키워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이의 구상과 가르치심에 따라 오늘 개교식을 하게 됩니다.
나는 미래의 조선함대를 이끌고나갈 동무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모두들 일제히 박수를 쳤다.
다음으로 조정철이 몹시 흥분하여 서두르며 일어났다. 그는 무엇을 노려보는듯 한 예리한 눈초리로 장내를 휘둘러보고나서 빙그레 웃었다. 그러자 칼칼하던 그의 모습은 놀랍게도 유순하고 친절하게 변모되는것이였다.
《오늘 나는 정말 기쁘고 감개무량합니다.》
이처럼 그는 격식을 차려 연설을 하지 않고 친절하고 무랍없이 서두를 뗐다.
《내 고향은 동해와 가까운 덕성군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은 나는 입 하나 덜자고 집을 떠나 북청과 청진으로 떠돌며 칠성판을 지고 바다에 나가 별의별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두만강을 건너 항일유격대에 찾아갔지요.》
고준무가 어깨를 으쓱하며 곁에 있는 리대훈에게 뻐기듯이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보라구. 항일투사동지도 동해출신이야.》
김군옥은 그쪽에 대고 조용하라고 주의를 주고싶은걸 겨우 참았다.
《산에서 싸울 때 나는 바다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조정철의 두눈에 불시에 물기가 어려 번들거렸다. 그는 자꾸만 치밀어오르는 뜨거운것을 가까스로 삼키고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산에서는 제일로 귀한게 소금인데 소금이 없어서 고생할 때면 바다가 더 부쩍 생각나더란 말입니다.
우린 전투와 행군이 끝나면 밀림의 긴긴밤을 우등불로 태우며 사무치게 그리운 조국산천을 그려보며 저마다 고향자랑을 하군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난 북청앞바다에서의 고기잡이를 자랑했지요. 실은 칠성판을 지고 날바다에 나가 죽을 고생을 했는데 조국을 멀리 떠나 밀림속에서 돌이켜보니 그 고생조차 즐거웠던것으로 여겨지더란 말입니다. 난 조국이 해방되면 우선 동해에 찾아가 미역을 감고 물고기도 잡고 섭죽놀이도 하자고 벼르군 했습니다. 정작 해방된 조국에 오니 어찌도 바쁜지 바다가에 찾아가기는 고사하고 지척인 대동강에 나가 숭어잡이를 할 여유도 없더군요.
그래서 개교식을 계기로 이렇게 모처럼 바다가에 찾아왔는데 돌아가고싶지 않습니다. 이 경치좋은 바다가에서 동무들과 함께 해군함대를 건설하고싶습니다. 정말이지 동무들이 부러워서 못 견디겠단 말입니다!》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김군옥은 별안간 코허리가 찡하고 눈물이 흘러내리는것을 억제할수가 없었다.
자기도 이국땅에 가서 고학을 할 때 바다가 사무치게 그리운 심정을 수시로 체험했기때문이였다. 어쩌다 밥상에 오르는 구운 조기나 백하젓을 두고 끓인 호박국을 보아도 그리움이 북받쳐올라 눈시울이 후덥게 젖어들군 했었다. 그럴 때면 인정많은 하숙집할머니는 혀를 찼다.
《젊은인 왜 각종 해산물에 흰쌀도 난다는 살기 좋은 고향을 떠나

소금조차 귀물인 이 산골에 와서 고생을 하노?》

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온것이다.

곁에서 정인이가 눈이 올롱해졌다.

《아니?! 왜 울어요?》

김군옥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황황히 자신을 수습했다.

《그저… 항일투사동지의 연설이 참 감동적이구만.》

정인은 한숨을 호 내쉬였다.

《난 속상해 죽겠어요.》

《왜?》

《내 입학문제가 어떻게 결정될가요?》

《제대로 될거요. 마음을 놓으라구.》

축하연설이 끝나자 학생들의 분렬행진이 진행되였다. 눈보라가 심술사납게 몰아치는데 해군복을 입은 학생들은 어뢰정이나 경비함을 몰고 저 넓은 바다를 주름잡는 심정으로 영예와 긍지가 한껏 차넘친 가슴을 당당히 내밀고 지축을 울리며 나아갔다.

유독 정인이만이 그 행진에 참가하지 못했다.

뒤이어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축하연이 끝나자 경비함은 출항준비를 갖추었다.

손님들은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배웅을 받으며 잔교로 나갔다. 홍동철은 축하연을 할 때 접대를 하면서도 희망이 담겨진 애원의 눈길로 자기를 줄곧 쳐다보던 처제를 붙잡아 거의나 강다짐으로 끌고갔다.

끝내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가는 처녀의 모습은 애처롭기 그지없었다.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처녀를 동정하면서도 막상 도와줄 엄두는 내지 못했다. 김군옥이도 어쩌는 수가 없었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은채 아저씨에게 붙잡혀가는 정인을 허둥지둥 뒤따랐다.

잔교앞에 이른 그는 진작 만나려고 했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해 그저 눈인사만 나누었던 김성국을 붙잡았다.

《아! 군옥동무로구만.》

김성국은 여간만 반가와하지 않았다.

《공부를 잘하라구. 난 동무가 소원대로 꼭 어뢰정정장이 되기를 바라오.》

김군옥은 몹시 서두르며 응대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습니다.》
《뭐요? 동무의 부탁이라면 다 들어주겠으니 어서 말하오.》
김군옥은 아저씨에게 한쪽팔을 잡히운채 마지못해 경비함에 오르는 정인이를 가리켰다.
《저 처녀동무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어망처망한 부탁에 김성국은 눈이 둥그래졌다.
《뭐?! 살려달라구?》
《예, 저 동무가 우리 수상보안간부학교에서 공부하고싶어서 그러는데 도와주십시오.》
김성국은 실눈을 하고 잠시 군옥을 바라보더니 중떠보는듯 한 어조로 물었다.
《동문 저 처녀와 어떤 사인가?》
《그저 좀… 여기 와서 만난 동무입니다.
저 동무가 함장이 되고싶다기에 난 탄복했습니다.
처녀가 정말 함장이 되면 이거야말로 세상을 깜짝 놀래울 일이 아닙니까. 도와주십시오.》
김성국은 빙긋이 웃었다.
《동무의 심정은 알만 하오. 홍동철동지가 그 문제를 놓고 채정보 부교장과 진지하게 의논을 했소. 처녀가 지금 다니고있는 의전을 졸업하면 해군에 입대시키기로 했단 말이요. 해군에도 의사가 필요할게 아닌가.》
이때였다.
경비함에 올랐던 정인이가 잔교로 뛰여내려 군옥이에게로 달려왔다.
《군옥동무!》
이렇게 큰소리로 불러놓고 무슨 말을 하려던 처녀는 모두의 눈길이 자기에게 쏠린걸 알아차리자 얼굴을 확 붉히더니 무슨 천쪼박같은것을 군옥의 손에 쥐여주고는 홱 돌아서서 다시금 경비함으로 달려갔다.
김성국은 의미있게 웃으며 김군옥의 어깨를 툭 치고는 처녀의 뒤를 따랐다.
그가 마감으로 승선하자 경비함은 배다리와 계류바줄을 거두고 닻

줄을 칭칭 감아올리며 미속으로 전진하기 시작했다.
떠나는 손님들과 바래주는 교직원, 학생들이 서로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인사를 주고받았다.
부웅!—
배고동을 길게 울리며 속력을 올린 경비함이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야 김군옥은 처녀가 남기고간것을 남몰래 보았다.
그것은 정성껏 만든 담배쌈지였다. 곤청색공단에 흰 실로 수를 놓은 어뢰정이 많은 의미를 담고있었다. 장차 함장이 아니, 함대사령관이 되겠다는 파격적인 큰 포부를 안은 녀장부가 이처럼 섬세하게 수놓이를 했다는것이 정녕 놀라왔다.

문득 하늘을 썰어대는 동음이 울려왔다.
사연깊은 담배쌈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던 김군옥은 얼른 고개를 들었다.
푸른 하늘에 한쌍의 흰새와도 같은 비행기 두대가 나타났다. 편대를 지어 비행운을 길게 뽑으며 바다쪽 상공으로 날아온 비행기들은 갑자기 기수를 숙이며 급강하했다. 수면에 내리꽂힐듯 하다가 슬쩍 기수를 든 비행기들은 해빛에 은빛동체를 보란듯이 번쩍이며 창공높이 나래쳐올랐다.
김군옥은 그 모습이 정녕 부러웠다.
평양학원 항공반에서는 벌써 조선의 첫 항공대가 창설되였다고 한다.
비행사나 기술근무성원들의 대다수는 조선항공협회 신의주지부에서 선발되여간 청년들이였다. 그들과는 죽마고우라 군옥은 이처럼 비행기들이 상공에 나타날 때면 부럽고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해군함대출항식은 언제가야 진행될는지 막막했기때문이였다.
그는 써레기를 꺼내여 마라초를 굵게 말아 입에 물고 성냥을 탁 쳐서 불을 달았다.
입과 코구멍에서 동시에 연기가 뿜어나왔다.
이건 담배연기라기보다는 속이 타서 나는 연기다. 정말 속이 탄다. 하늘에선 비행기가 날고 땅에선 땅크와 모터찌클이 와릉으릉 내달리는데 바다는 아직도 산중의 호수인양 고요하다.
《뽀쫌낀》선생의 말마따나 함대창설은 욕망만으로는 될수 없는 먼

장래의 일인가? 나는 속이 탄김에 실없이 말싸움이나 하다가 처벌을 받았으니 이 잘난 꼬락서니를 정인이가 보게 된다면 얼마나 실망할것인가.

그는 꺼지게 한숨을 쉬고나서 바라보기조차 부끄러운 담배쌈지를 접어 품속에 소중히 넣었다.

삿대로 다시마를 건져내면서도 군옥을 아니꼽게 자주 흘겨보던 고준무는 그만 짜증을 냈다.

《여! 담배질이나 하고있으면 되겠어? 어서 와서 일을 해야지.》

김군옥은 담배꽁초를 내던지고 일어나 스적스적 부업선에 올랐다. 그는 고준무와 채기정이가 다시마를 건져내는 모양을 잠시 지켜보다가 권고했다.

《소대장동무, 이까짓 흔하디흔한 바다풀이나 건져내선 뭘하겠소. 이왕이면 물고기도 잡고 해삼도 잡자구.》

고준무는 어이가 없어서 코방귀를 뀌였다.

《흥! 까마귀가 꿩 잡아먹을 생각을 한다더니… 무얼 가지고 어떻게 물고기와 해삼을 잡는다고 그래?》

김군옥은 기분이 상했지만 자칫하면 또 싸울것 같아서 내색하지 않고 의논조로 진지하게 말했다.

《그러게 궁리를 하고 의논을 하면서 방도를 찾아보자구.》

고준무는 귀찮아서 잔뜩 오만상을 찡그렸다.

《동문 언제봐도 되지도 않을 일을 하겠다고 부득부득 고집을 쓰거던.》

《이건 고집이 아니라…》

《됐어! 물고기를 잡든 해삼을 잡든 맘대로 하게. 난 상관하지 않겠어. 하지만 우리가 처벌로동을 한다는걸 잊지 말게. 건달을 부리다간 더한 처벌을 받게 될걸세.》

고준무는 이렇게 단단히 주의를 주고나서 더 극성스레 하던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채기정은 마음이 동했던지 삿대를 놓고 군옥에게로 슬금슬금 다가왔다. 김군옥은 그에게 슬쩍 눈짓을 하고 전마선에 뛰여내렸다. 채기정도 그의 뒤를 따랐다.

삐걱삐걱 노젓는 소리가 울렸다.

고준무는 전마선을 몰고 어디론가 가는 그들을 찌글서 흘겨보다가 과연 눈꼴이 사나와서 금이발을 번쩍거리며 버럭 소래기를 질렀다.
《여! 하라는 부업은 안하고 배놀이를 하고있어?》
그들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고준무는 약이 바싹 올라서 그들의 뒤모습을 노려보며 위협조로 으르렁거렸다.
《좋아! 도급제를 하자구.
저녁에 수확물을 놓고 톡톡히 셈을 하잔 말이야.
건달을 부리면 밥술을 쥘 자격이 없게 된다는걸 명심해!》

5

경비함설계도면을 가지고 조선소에 가서 기술합의를 하던 채정보는 정치부교장이 새로 임명되여온다는 소식을 듣고 곧 돌아왔다.
지난 정초 개교식에 참가하여 감동적인 축하연설을 한 조정철이 정치부교장으로 온다니 더우기나 반가와서 한시바삐 만나고싶었던것이다.
해군함대창설과 관련한 두가지 중요한 문제, 즉 인재육성과 함정건조를 놓고 그는 많은 생각을 하고있으면서도 정작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만 한 상대가 없어서 저으기 애가 타던 참이였다. 김광민교장은 해방전 옥중에서 얻은 병이 심하게 도져서 한달째나 입원치료를 받고있으니 더욱 그랬다. 새로 오는 정치부교장을 만나면 이 문제부터 의논하고 필요한 대책을 취해야 했다.
날이 훤히 밝아서야 기차에서 내린 그는 수십리길을 반달음쳐 땀을 철철 흘리며 수상보안간부학교가 자리잡고있는 외진 포구에 들어섰다.
학교에서 좀 떨어진 안침진 야산기슭에는 교직원들의 사택마을이 있다.
채정보는 려장을 풀어놓으려고 먼저 집에 들렸다. 바께쯔에 돼지죽을 퍼담던 안해가 불쑥 나타난 그를 보고 놀라와했다. 조선소에 가서

배무이공정표까지 짜고나면 보름이 걸릴거라던 남편이 사흘만에 돌아왔으니 그럴수밖에…

채정보는 땀배인 군복상의를 벗으며 성급히 물었다.

《여보, 정치부교장이 임명되여왔다지?》

《글쎄요.》

안해는 고개를 기웃거리더니 별안간 울상이 되여 푸념질을 시작했다.

《이거 야단이 났어요.

기정이가 처벌을 받고서도 정신을 차리는것 같지 않아요.》

《그건 무슨 소리요?》

안해는 세면기에 물을 퍼주고나서 바가지를 손에 쥔채 계속 속타는 소리를 했다.

《걔가 군옥이와 함께 물고기를 잡는다, 해삼을 건진다 하고 잔뜩 흰소리만 치고 돌아다니며 정작 미역 한끄리도 건져오지 못한대요.

소대장과는 계속 엇서기만 하구… 그래서 혼쌀을 내우노라 식당에선 그 건달군들에게 밥도 주지 않는다누만요.

너무하지요, 정말 너무해!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부교장의 아들인데 어쩌면 그렇게까지 괄시할수가 있냐 말이예요.》

채정보는 안해의 송사를 귀등으로 들으며 시원하게 세면을 하고 군복상의를 입었다.

《우리 애는 덩치만 컸지 너무 어질어빠졌지요.

식당에서 밥을 안 주면 집에 와야지요. 엎디면 코닿을데 집이 있고 이 에미가 있는데 그녀석은 쫓겨난 이붓자식같이 얼씬도 하지 않으니 이거야 속상해서 어디 견디겠어요.》

안해는 제 심정을 몰라주는 아들의 무정한 처사를 나무랐다.

그러나 채정보는 아들이 그런 면에서는 옳게 처신한다고 생각했다. 부교장의 아들이라고 해서 으시대거나 근처에 있는 제집에 들락날락하면 다른 학생들의 눈에 거슬리고 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었다.

그런 우려가 노상 없지 않아서 아들을 입학시킬 때 단단히 신칙했더니 반년이 돼오는 오늘까지도 집에 얼굴 한번 내밀지 않는다.

안해는 아들이 보고싶으면 교문앞에 가서 고개를 빼들고 지켜서있군 했다. 그러면 운동장에 나온 아들을 구경하거나 아들소식이라도 얻어들을수 있었다.

채정보는 문제의 세 학생에게 처벌을 준 그날 아침에 조선소로 떠났던지라 그후의 일은 알수 없었다.

안해의 말을 들어보니 그들이 처벌로동을 성실히 하지 않고 건달을 부려서 제재를 받는 모양이다.

김군옥은 성실하고 근면한 학생인데 그럴수가 있을가? 모를 일이로다.

안해는 학교에 나가려는 남편에게 서둘러 밥보따리를 꾸려주었다. 배를 곯고있을 아들에게 슬며시 가져다주라는거다.

채정보는 눈을 흡뜨며 거절하고 마당에 나서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돌아섰다.

《여보, 오늘 저녁에 한상 푸짐히 차리오.》

시무룩해졌던 안해의 얼굴이 금시 밝아졌다.

《그 애와 함께 오시겠어요?》

《쯔쯔, 무슨 소릴 하는거요.

새로 온 정치부교장에게 집구경을 시키고 식사도 함께 하자는거지. 성의껏 준비하오, 솜씨를 보이란 말이요.》

채정보는 이처럼 재삼 당부하고 학교에 나갔다.

식당근처에서 어스벙거리다가 그를 띠여본 한백천이 벙글거리며 달려왔다.

《부교장동지,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사업하던 조정철동지가 우리 학교 정치부교장으로 임명되여왔습니다.》

《나도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길이요.》

《듣자니 자진해서 왔다더군요.

그런데 이거 대접할만 한게 없어서 야단입니다.

염장청어는 벌써 동이 났구만요. 있다는건 미역이나 다시마따위니…》

《정치부교장동지는 어데 있소?》

한백천은 웬일인지 주저하다가 대답했다.

《한시간전에 전마선을 타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어째서?》

한백천은 면구스런 기색으로 사연을 말했다.

《정치부교장동지는 오자마자 교직원들을 만나 학교실태를 료해했습니다. 그 과정에 며칠전 세 학생이 여사여사한 일로 대판 다투고 처벌을 받은것도 알게 됐지요.

소대장동무는 채심하고 해상부업을 성실히 해서 다시마와 미역을 산더미처럼 건져내여 말리우고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학생은 물고기를 잡는다고 허풍을 치면서 전마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 빈둥거리다가는 해질녘이면 알짜 빈손으로 돌아오군 했습니다.

이거야 처벌로동에 의견이 있다는거지 뭡니까.

그래서 난 그들에게 밥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난처해서 말허리를 끊고 자기의 눈치를 살피는 한백천에게 채정보는 너그럽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잘했소. 건달을 피우면 먹을 자격이 없지.

그래서 어쨌다는거요?》

《정치부교장은 그 소리를 듣더니 큰일이나 난듯이 펄쩍 뛥디다.》

《그으래?》

《예, 나더러 인간성이 없다는거지요.

교단에 설 자격도 없다고 막 고함을 치더군요.

인상이 좋던 그가 성을 내니까 정말 무섭습디다.》

한백천은 코대가 높고 쩍하면 격하기 잘하는 화약같은 성미인데 새로 온 정치부교장한테 단단히 혼쌀나고 주눅이 든것 같았다.

《정치부교장은 그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는가고 걱정하면서 부랴부랴 운반식사를 꾸려가지고 전마선을 타고 사슴섬쪽으로 갔습니다.》

채정보는 그의 신변이 근심되여 몹시 나무라는 어조로 물었다.

《혼자 보냈단 말이요?》

《그럴리야 있습니까.

믿음성이 있는 리완근과 리대훈학생을 함께 보냈습니다.》

채정보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였다.

리완근은 스물두살인데 학생들가운데서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한다. 이미 장가를 든 그는 매사에 침착하고 성근하며 바다물계에 환

했다.
남쪽에서 살다가 해방직후 북으로 들어온 리대훈도 깨끗하고 청렴하고 대바른 젊은이였다.
《침실은 준비했소?》
《학생들과 함께 숙식하겠답니다.》
《그렇게야 어떻게 하겠소. 정치부교장방에 침대를 하나 들여놓고 식사는 당분간 우리 집에서 하게 합시다. 그리고 빈집을 한채 빨리 손질해야 하겠소. 가족들을 데려와야 할테니까.》
《알았습니다.》
한백천은 여느때없이 고분고분 대답했다.
채정보는 서둘러 잔교에 나갔다. 그는 목을 잔뜩 빼들고 사슴섬쪽을 바라보며 전마선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마음이 조급해졌다.
에라, 모르겠다. 내가 찾아가야지.
그는 부랴부랴 군복을 벗어 부업선의 조타실안에 던져넣고 빤쯔바람에 바다물에 첨벙 뛰여들었다.
뭍에선 한창 봄빛이 무르녹는데 바다물은 아직도 몸이 오싹할 지경으로 차거웠다. 그러나 어린시절부터 바다와 인연을 맺고 살아오는 그는 이처럼 차거운 물속에서도 3마일정도는 수월히 헤염칠수 있었다.
바다풀이 거치장스럽게 두손과 두다리에 휘감겼다. 그는 바다풀을 헤쳐버리며 슬슬 헤염을 쳤다. 문득 앞에 연분홍색의 커다란 꽃이 둥실 떠있는게 눈에 띄였다. 해파리였다. 해파리는 수면에 떠서 수많은 길고 가느다란 촉수들을 뻗치고 너울거리며 로획물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있었다. 해파리의 촉수에 쏘이면 그 자리가 부어오르고 심한 경우엔 생명도 위급하다.
이렇게 헤염을 치다가 큰 해파리를 만나는건 불길한 징조였다.
채정보는 해파리를 슬쩍 에돌았다.
사슴섬이 보였다.
섬에는 사슴을 기르는 자그마한 목장이 있다.
기슭에서 풀을 뜯던 여러마리의 사슴들이 물소리가 나자 일제히 고개를 들고 채정보를 바라보더니 위험을 느꼈던지 들고뛰였다.

채정보는 사슴들이 도망쳐간 반대쪽으로 헤염쳐서 코바위를 에돌았다. 그러자 우묵하게 휘여들어간 작은 만에서 두척의 전마선이 의좋게 나란히 움직이는게 눈에 띄였다.

전마선을 타고있는 학생들은 빤쯔바람이였다.

어릴적부터 힘겨운 로동속에서 단련된지라 그들의 체격은 부러울 정도로 그쯘했다. 해볕에 보기 좋게 탄 구리빛근육이 번들거렸다.

해군샤쯔가 아니라 일반병종의 군인들이 입는 하얀 면내의를 입고 학생들과 바줄을 당기고있는 사람도 보이는데 그는 분명 새로 온 정치부교장일것이다.

무엇때문인지 그들은 노를 저을 대신 섬기슭의 소나무밑둥에 맨 바줄을 당기며 전마선을 움직이고있었다.

그들을 깜짝 놀래워주고싶은 동심이 생겼다.

채정보는 물소리가 나지 않게 은밀히 접근하다가 머리까지 잠그고 물속으로 헤염쳐갔다.

땀을 철철 흘리며 바줄을 당기는데만 정신이 팔렸던 그들은 별안간 전마선의 코앞에서 뭔가 불쑥 솟구치자 모두 깜짝 놀랐다.

《허허! 나요!》

기정이가 먼저 알아보고 소리쳤다.

《아버지! 언제 돌아오셨나요?》

채정보는 밉지 않게 눈을 흘겼다.

《아버지가 뭐냐? 부교장이라고 불러야지.》

그는 아들이 타고있는 전마선이 아니라 정치부교장이 탄 전마선에로 다가갔다.

《반갑습니다!》

조정철은 인사를 하며 허리를 굽히고 전마선에 오르는 채정보를 도와주었다. 채정보는 자기의 손을 잡아당겨준 상대방의 손을 막 흔들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그들이 인사를 나누는통에 잠시 작업이 중지되였다.

채정보는 떡함지에 엎어진듯 대뜸 입이 함지박만 해졌다. 전마선밑창엔 먹음직스런 꽃게와 살진 해삼이 두둑이 깔려있었던것이다.

《히야! 이걸 어떻게 잡았소?》

조정철은 나란히 선 저쪽 전마선에서 한창 뚝심을 쓰며 바줄을 당기고있는 김군옥과 채기정을 대견스런 눈길로 가리켰다.

《저 동무들이 그물쪼박을 기워서 끌망을 만들었더군요. 연추대신에 식당화구칸에서 쓰는 쇠장대를 매달고 이렇게 바다밑을 말끔히 긁어내는중이지요.》

그런즉 두척의 전마선으로 뜨랄작업을 하는셈이였다. 노를 저어서는 무거운 끌망을 끌수가 없어서 이렇게 머리를 써서 바줄로 당기고 있었다.

일손을 멈추었던 리완근과 리대훈도 저쪽에서 힘겨워할세라 바줄을 당기기 시작했다.

《이 동무들은 저기에 드레도 놓았답니다.》

조정철이 가리키는 곳에는 마개를 막은 빈병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떠있었다.

《띄우개가 없어서 저렇게 빈 기름병이나 간장병을 썼다고 합니다.》

칭찬에 린색한 채정보도 탄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거 정말 묘한 생각을 했군요.》

《예. 생각도 묘하지만 그물이 없다, 부업선이 고장이다 하고 타발을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제 손으로 부업을 잘해서 식생활을 개선하려는 그 정신이 좋다고 봅니다.

부교장선생이 장한 아들을 두었단 말입니다.》

채정보는 황급히 도리머리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녀석은 덩치만 컸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창발성과 실천력이 부족한 생둥이지요.

학습과 훈련에서 모범인 군옥학생을 따라다니더니 요즘은 좀 셈이 드는것 같습니다.》

조정철은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는 서해수상보안대 대장으로 사업하던 김성국으로부터 김군옥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듣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있었다. 김성국은 요구성이 높아서 웬간해선 남을 칭찬하지 않는 성미인데 그 학생에 대해서만은 례외였다.

《수상보안간부학교에 가면 그 친구부터 만나보십시오. 여간내기가

아닙니다. 수상보안대창설초기에 우린 경비정은 고사하고 발동선조차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노를 젓는 전마선으로는 발동선들을 단속할 수 없다고 모두들 우는소리를 했지요. 그런데 어느날 내가 신의주대에 가보니 오토바이기관을 놓고 배머리에 중기를 설치한 전마선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게 물갈기를 날리며 내달리는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어뢰정같더란 말이지요. 전마선을 그렇게 개조한 대원이 바로 김군옥동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동무를 수상보안간부학교에 선참으로 추천한겁니다.

두고보십시오, 앞으로 큰일을 할겁니다.》

하기에 조정철은 그 학생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왔었다. 그런데 기대와는 너무도 어긋나는 일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 김군옥학생이 교실에서 소대장과 대판 싸우고 처벌을 받았다는게 아닌가.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처벌로동을 성실히 할 대신에 하루종일 어디에 가서 배놀이만 하면서 허풍을 친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배놀이를 한다는 여기에 직접 와보았다. 그들은 배놀이를 하는게 아니라 창조성과 적극성을 발휘하여 해상부업을 본때나게 하고있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학생들은 바줄을 당겨 전마선들을 섬기슭에 끌어냈다.

들어올린 끌망안에는 번들번들 살진 해삼들과 밤송이처럼 생긴 참성게와 말성게가 한바구니나 들어있었다.

《수확이 대단하구만.

수고들 했소. 좀 쉬고 하기요.》

채정보는 량쪽다리를 다 심하게 저는 조정철을 부축해주며 기슭에 내렸다.

학생들은 아직도 원기가 왕성한지, 아니면 고기잡이에 정신이 팔려 쉬고싶은 생각이 없는지 드레를 털어오겠다면서 전마선을 몰고 다시 나갔다.

두 군관은 모래불에 나란히 앉아 해빛을 쪼였다.

따스한 봄빛아래서 바다는 행복에 겨운듯 찰싹찰싹 즐겁게 노래부르며 춤을 추고있었다. 손과 손을 맞잡고 이랑이랑 밀려오는 줄파도

가 모래불에 기여올랐다가는 레스같은 정교하고 우아한 문양을 그려놓고 물러가군 했다. 파도에 밀려나온 작은 게들과 게골뱅이들이 거품을 보그그 입에 물고서 바삐 게걸음을 친다.

봄날의 따사로운 태양아래서 바다는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처럼 재롱을 부리는것 같았다.

다감한 정서와 동심을 불러주는 바다의 모습을 취한듯이 바라보던 채정보는 호기심이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조동지, 어떻게 돼서 우리 수상보안간부학교에 오게 되였습니까?》

조정철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반문했다.

《뜻밖입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지난 개교식때 조동지는 축하연설에서 우리와 손잡고 해군함대를 건설하고싶은 자신의 절절한 심정을 터놓았으니까요. 나도 그때 조동지와 함께 일하면 얼마나 좋을가 하고 생각했댔습니다. 그러나 정작 동지가 우리 학교의 정치부교장으로 오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조정철은 몸가짐을 바로하고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저를 친히 수상보안간부학교의 정치부교장으로 임명해주시였습니다.》

모래불에 비스듬히 누웠던 채정보는 얼른 상반신을 일으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요?》

조정철의 총기어린 눈동자가 해빛을 반사하며 반짝 빛을 뿌렸다.

《예, 그이께서는 새 조국건설로 매우 분망하시지만 해군함대창설에 큰 관심을 돌리고계십니다.

해군함대창설에서 수상보안간부학교가 노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 어떻습니까? 일이 잘됩니까?》

채정보는 금시 안색을 흐리며 꺼지게 한숨을 내쉬였다.

《함대창설은 해방된지 3년도 채 안된 우리 나라에 있어서 너무도 아름찬 과제입니다. 해군지휘관들과 전문병들을 키워내야지, 군함들을 마련해야지, 군항들을 건설하고 배수리기지와 보급기지를 꾸려야지. 어느거나 준비된 인재들과 거액의 투자가 없이는 성사 불가능한것입니다. 우리 학교의 실태만 놓고봐도 그렇지요.》

채정보는 이처럼 그동안 안타깝고 답답하던 자기의 심중을 솔직히 터놓았다.

《최신과학기술의 성과가 집대성된 전투함정을 능숙하게 다루는 지휘관들을 키워내려면 교육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엔 교원력량도 신통치 않고 해상실습선은 고사하고 교육용무기전투기술기재조차 변변히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실정에서는 몇년이 가도 제구실을 하는 해군지휘관들을 키워내기 곤난합니다.

그래서 한백천동무를 비롯한 일부 교원들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류학을 보내자는건데… 순양함을 사와야 한다는 소리도 있구요.》

채정보는 학교실태와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엇갈린 견해와 립장에 대해서도 실례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말했다.

《글쎄 류학을 보내거나 순양함을 사오는것도 공짜로는 할수 없는건데… 나라에 언제면 그 막대한 자금이 생기겠는지… 지금 형편에서 가능한껏 우리 힘으로 해야 할텐데 정작 어떻게 해야 할지 방도가 떠오르지 않으니 안타깝단 말입니다.

다른 나라를 쳐다보는 일부 교원들과 학생들의 견해가 옳지 않지만 그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제구실을 하는 해군지휘관들을 양성하려면 항해학과, 기관학과, 포병학과 등을 내오고 교육용무기전투기술기재들과 실습함선도 갖추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학교는 중학수준인데 여기서는 기술근무원이나 양성할수 있지 해군지휘관은 키워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고급중학교나 전문학교정도로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이왕이면 해군대학을 내오는것이 좋습니다.》

조정철은 학교의 실태를 정확하면서도 공정하게 보고 편견을 가지지 않으며 제 생각을 솔직하게 터놓는 그가 마음에 들었다.

《지금 실정에서 당장 해군대학을 내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학교를 해군군관학교로 승격시키고 그에 필요한 교육학적조건들을 갖추는 방향에서 가능성을 찾아봅시다.》

《그것도 헐한 일이 아닙니다.

막대한 투자를 하고 교원진영을 더 잘 꾸려야 합니다.》
《필요하면 투자를 해야지요. 빨리 대책안을 작성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보고드립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요?》
조정철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해군함대창설에서 기본은 직접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싸울 해군지휘관양성이라고 하시면서 수상보안간부학교에서는 교육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한두해안으로 학생들을 졸업시켜야 한다고 각별히 당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학교에 내려가보고 걸린 문제가 있으면 다 자신에게 직접 제기하라고, 해군지휘관양성과 관련된 문제는 어느거나 자신께서 직접 책임지고 풀어주시겠다고 하시였습니다.》
채정보의 얼굴이 활짝 밝아졌다.
안타깝고 답답하던 가슴이 툭 터지듯 시원하게 열린다. 파도와 짙은 안개속에서 항로를 잃고 갈팡질팡하다가 등대를 발견한 심정이였다.
《인젠 됐구나! 인젠 됐어!》
그는 모래불을 차고일어나 수평선을 향하여 두팔을 힘껏 벌리며 이렇게 환성을 올리고싶은 충동을 겨우 눌렀다.
《해군지휘관양성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은 해군함정들을 갖추는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른 나라에 가서 순양함이나 구축함을 사올 허황한 생각을 할게 아니라 어려워도 우리의 기술과 힘으로 비록 크지는 않지만 연해를 지킬수 있는 경비정과 같은 함정들을 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참, 조선소형편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애로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다를 지킬 해군함선을 우리 손으로 건조하려는 로동계급의 열의는 대단히 높습니다. 인차 함선건조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조선소에 나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중요하니만치 여기 일은 나에게 맡기고 부교장선생은 이제부터 전적으로 조선소에 나가있어도 되겠습니다.》
조정철의 안색과 목소리는 불현듯 심각해졌다.

《조국의 바다를 우리 힘으로 지킬 해군함대를 창설하는것은 조성된 정세로 보아도 더 미룰수 없는 과업으로 제기되고있습니다.》

채정보는 긴장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 미제는 해안경비대의 명목으로 남조선해군의 기초를 마련해놓고 상륙선과 소해정을 비롯하여 수십척의 함정들로 장비시켜주었습니다. 앞으로 구축함까지 넘겨주려고 한답니다. 요즘 서해안에서 놈들의 해상도발행위가 우심해졌는데 여기 동해안에서도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모릅니다.》

채정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에 눈길을 돌렸다.

문득 아까 사슴섬으로 헤염쳐올 때 맞다들렸던 해파리의 흉물스런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해파리들이 갑자기 물우에 떠오르거나 바다기슭에 밀려나오면 영낙없이 폭풍이 불거나 해일이 일어나는것이다. 그 해파리가 미구하여 들이닥치게 될 그 어떤 위험을 예고해주는듯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바다는 평온했다.

《아버지!》

그는 자랑에 넘친 아들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두척의 전마선이 경기를 하듯이 빠른 속도로 앞을 다투며 섬기슭으로 다가오고있었다. 군옥과 대훈은 률동적으로 상반신을 움직이며 솜씨있게 기운차게 노를 젓고 완근이와 기정이는 배머리에 앉아서 손을 흔드는데 모두들 얼굴이 환했다.

조정철은 그들이 볼수록 대견하고 미더워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말 재간둥이들입니다. 전마선을 가지고도 머리를 써서 해삼이고 물고기고 다 잡아내는군요.》

채정보는 절로 흐뭇해져서 고개를 끄덕이였다.

《예, 거 정말 고기잡이방법이 신통합니다.》

《무슨 일이나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애를 쓰면 묘안을 찾기마련이지요. 그 정신과 열의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 동무들을 보니 정말 힘이 솟습니다. 끌끌하고 총명하고 열정적인 우리 학생들과 함께라면 못해낼 일이 없겠습니다.》

경쟁적으로 달려온 두척의 전마선은 거의 동시에 모래불에 코를 박았다.

《아버지! 만선이예요! 이것 보세요!》

채기정은 량손에 방금 기름독에서 건져낸듯싶은 시누런 노르메기와 거무스레하고 가시가 뿌죽뿌죽 나온 팔뚝같은 우레기를 쥐고 성큼 모래불에 뛰여내리며 어린애처럼 천진란만하게 떠들었다.

《아버지, 이렇게 큰 우레기는 보기에 첨이예요!》

《녀석두… 철두 없지. 또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채정보는 짐짓 아들을 탓하며 우정 소리나게 혀를 찼다.

《너희들이 고기를 얼마나 잡아왔게 큰소리냐? 어디 보자.》

그는 궁둥이에 묻은 모래를 털며 일어나 학생들이 모래불에 반쯤 끌어올린 전마선에로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갔다. 전마선밑창엔 드레로 건진 잡어들이 퍼그나 되였다. 노르메기와 우레기, 열기, 줄도미따위가 태반인데 드문드문 손가락만큼 굵고 먹음직스러운 왕새우와 배가 볼록하게 나온 보가지도 눈에 띄였다.

채정보는 입을 하 벌렸다.

《허! 큰소리를 칠만도 하구만.》

김군옥은 따로 건사했던 손바닥만 한 물고기를 자랑삼아 보여주었다.

《보십시오, 가재미도 잡았습니다.》

조정철이 웃으며 채머리를 흔들었다.

《그건 도다리요, 가재미사촌이지.》

조정철은 아주 으쓱해진 젊은이들에게 자기의 바다지식을 뽐내보고 싶었다.

《군옥동무, 이걸 왜 해삼이라고 부르는지 아나?》

김군옥은 제꺽 어렵지 않게 대답했다.

《말그대로 바다의 삼이라는 소립니다.》

《옳소, 산에는 산삼이 있고 바다엔 해삼이 있으며 하늘엔 비삼이 있지.》

비삼이라는 소리에 학생들은 눈이 둥그래졌다.

《비삼이 뭔지 모르는 모양이구만. 그건 까마귀 열을 두고 하는 소리요.

까마귀란 놈은 300년이나 산다는데 이를테면 신령스러워서 잡기가 헐치 않소. 빈총을 가지고 겨누는 흉내를 내면 꿈쩍도 안하지만 장탄

을 하고 겨눌라치면 제꺽 날아가지.》
처음 듣는 소리여서 모두들 신기해했다.
《까마귀 열은 아침에 온몸으로 퍼져나갔다가 밤이면 다시 열주머니에 모여든다고 하오. 그래서 날이 밝기 전에 까마귀를 잡아야 온전한 비삼을 얻을수 있소.》
리대훈이 비삼을 어디에 쓰는가고 물었다.
《허리병에 특효가 있지.
바다엔 이처럼 해삼이 있는데 종류가 여러가지요. 이러루하게 생긴 해삼은 인삼에 비길수 있소.
산삼과 효능이 맞먹는건 백삼이요. 그건 색갈이 하얗지. 어디 동무들이 잡은 해삼가운데 백삼이 있나보오.》
학생들은 백삼을 찾노라 해산물무지를 마구 뒤적거렸다.
《허허! 공연한 수고는 그만두오.
백삼은 해삼 만개중에 한두개정도 있으나마나한 귀물이요.》
채정보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산에서 싸우던분이 우리 배군들보다 바다물계가 더 환하군요.》
《나두 배군출신이니까요.
동무들! 이왕이면 판을 더 크게 벌리자구.
부업선을 수리하고 덤장을 쳐서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내잔 말이요.
전마선에 오토바이기관을 설치해본 경험이 있는 군옥동무와 배기관에 조예가 깊은 기정동무가 맘먹고 달라붙으면 그까짓 열구기관쯤이야 수리하지 못하겠소, 어때?》
두 학생은 동시에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해내겠습니다!》
《좋소. 우리 순양함타령은 그만두고 우선 우리가 가지고있는 부업선을 수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하나 배우고 손에 익히기요. 그러면 각종 해산물료리로 식탁도 푸짐해질테니 일거량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채선생.》
채정보는 그 말을 못 들었는지 정신이 나간듯이 바다쪽을 유심히 지켜보고있었다.
기정은 민망스러워서 아버지의 옆구리를 건드렸다.
《왜 그래요?》

《가만!》
채정보는 피뜩 고개를 돌렸는데 웬일인지 얼굴표정이 몹시 긴장되여있었다.
《저길 보라구! 잠망경이 나타났소.》
청청하늘에서 마른 벼락이 쳤대도 모두들 이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았을것이였다.
모두들 눈이 휘둥그래져서 채정보가 손짓하는 곳을 바라보았다.
바다는 고요한데 그쪽 수면에 미세한 파문이 일뿐 잠망경은 보이지 않았다.
《벌써 물속에 들어갔구만. 그건 분명 잠망경인것 같은데…》
《그럼 잠수함이 여기까지 들어왔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어느 나라 잠수함일가요?》
《글쎄… 쏘련잠수함이라면 사전에 우리에게 통보하고 여기에 들어와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을텐데…》
고개를 기웃거리며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데 김군옥은 그 장소에 가서 제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싶었다. 그래서 기슭에 반쯤 끌어올렸던 전마선을 재빨리 밀고나가 바다물에 띄우는 동시에 날쌔게 올라타며 노대를 노젖에 박았다.
이것은 눈깜박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였다.
그 행동이 심상치 않아 채정보가 소리쳤다.
《군옥이! 어쩌자는건가?》
김군옥은 힘주어 재빨리 노를 저으며 대답했다.
《잠망경이 나타났던 장소에 가보려고 그럽니다.》
《돌아오시오! 공연한 일이요, 위험하오!》
그래, 이건 공연한짓이다. 그리고 위험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수류탄 한개도 싣지 못한 전마선으로 잠수함을 잡을수야 없지 않는가. 우리에게 구잠함이 있었더라면, 폭뢰가 한발이라도 있었다면 이럴 때 본때를 보이는건데… 분하구나!
김군옥은 너무도 애가 타서 입술을 피나게 깨물며 혹시 잠망경이 나타나면 노대로라도 후려치려고 더 힘껏 노를 저었다.

6

《허, 저놈들이 왜 갑자기 여길 쳐다보는거야?
우리 잠망경을 발견했는가?》
잠망경을 상하좌우로 움직일수 있는 조종간을 량손에 틀어쥐고 감시경에 눈을 바싹 대고있던 웨리크함장은 얼른 물속으로 잠망경을 내리웠다.
그의 곁에는 견장을 뗀 해군장교복차림의 앙바틈하게 생긴 사나이가 앉아서 연어통졸임을 안주로 포도주를 마시고있었다. 사나이는 포크로 연어토막을 찍으며 서툰 영어로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잠망경을 가려보기 어려울텐데요. 저기에 뭐 그런 전문가가 있겠나요?》
《하긴 그래.》
웨리크는 잠망경을 다시 수면우에 내밀었다가 부랴부랴 내리우며 다급히 구령을 쳤다.
《함 전진! 속력 증가!》
여차하면 즉시에 은밀히 빠져나가려고 배머리를 만입구쪽에 돌려놓고있던 미국잠수함 《U－504》호는 물속에서 소리없이 재빨리 기동을 시작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발견된게 분명하오. 한놈이 전마선을 몰고 이쪽으로 급히 오더구만.》
사나이는 코살을 찡그렸다.
《그까짓, 뭐랍니까. 매생이따위로는 감히 잠수함을 어쩔수 없을텐데요.》
웨리크는 언제봐도 얄미울 지경으로 경솔하고 입이 가벼운 이 전형적인 일본인을 마뜩지 않은 눈초리로 흘겨보았다.
북조선에 아직 잠수함을 발견하고 공격할 능력이 없다는건 자기도

잘 아는바이다. 그러나 공연히 그들의 눈에 띄워서 말썽을 일으킬 필요는 없었다. 원산만 깊숙이, 그것도 수상보안간부학교가 빤히 바라보이는 코앞에까지 미군잠수함이 들어왔다는걸 북조선이 알게 되면 즉시 폭뢰는 떨구지 못해도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미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할수 있었다.

그런 사태가 빚어지는 경우 제노라던 웨리크중좌의 위신이 납작해진다.

작전임무수행중의 잠수함을 적측에 서뿔리 로출시키는것은 위험천만한 행위로서 그 경위는 어찌되였든 함장의 무능을 보여주기때문이다. 그러면 중대한 임무를 자기에게 직접 준 해군대장 니미쯔각하가 몹시 실망하게 된다. 자칫하면 전도유망하던 자기의 운명을 망칠 우려가 있었다.

지난 태평양해전에서 악랄하기 그지없는 일본해군을 최종적으로 격파함으로써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미해군의 작전부장이며 오성대장인 치스터 니미쯔는 웨리크에게 있어서 일찌기 해군사관학교시절부터 우상처럼 숭배해온 대상이였다.

장차 5대양을 타고앉아 대륙들을 뜯어먹을 바다승냥이들을 길러내는 이 학교에는 해상실습함선들은 물론이고 교구비품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었다. 교원들 다수가 유명짜한 해전들에서 명성을 떨친 어제날의 해군지휘관들이였다. 현직해군지휘관들도 자주 초빙되여 강의를 했다. 초빙강사들가운데서 유일한 해군제독인 치스터 니미쯔는 전체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였다. 그는 풍부한 군사리론과 실전경험을 겸비한 해군지휘관일뿐만아니라 함선기관분야와 해군기지건설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했다. 그가 집필한 해군건설과 해상작전에 관한 론문들은 해군사관학교에서 교과서처럼 취급되고있었다.

웨리크는 미해군의 거물인 니미쯔앞에서 도저히 기를 펼수가 없었다. 그는 니미쯔에게 말을 걸 엄두도 내지 못했고 타고난 해군제독처럼 위엄있게 생긴 그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감히 바랄수도 없었던 그런 일이, 행운이 생길줄이야…

어느날 일본해군과 북양함대와의 해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던 니미쯔는 문득 무슨 생각이 났는지 학생들을 둘러보며 여기에 혹시 볼티모태생이 있느냐고 물었다.

절호의 이 기회를 놓칠세라 웨리크는 자리를 차고일어나며 큰소리로 씩씩하게 대답했다.

《각하! 제가 바로 볼티모태생입니다.》

니미쯔는 움푹 패여든 눈확안에서 파랗게 불타는 매눈으로 야심만만하게 생긴 젊은이를 자세히 여겨보았다.

《음, 학생은 볼티모경과 모색이 비슷해보이는군. 학생도 앵글로색손족이요?》

웨리크는 하냥 울렁거리는 가슴을 안고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예! 저는 볼티모가문의 자손입니다.》

《아!》

니미쯔는 탄성을 올리더니 거만한 머리를 크게 끄덕이였다.

《나는 게르만족이요. 그러나 앵글로색손족의 귀족이였던 볼티모경을 조상보다 더 존경하오. 볼티모경과 같은 용감한 개척자들이 흘린 피로 오늘의 미국이 생겨날수 있었기때문이요.》

이통에 그저 평범한 학생에 지나지 않던 웨리크의 위신은 그야말로 돛대끝에 올라간듯이 높아졌다.

볼티모는 18세기 20년대에 신대륙에 상륙하여 총칼을 무자비하게 휘둘러 원주민들을 내쫓고 경치좋은 바다가에 자기의 령지를 꾸렸다. 하여 새로 생겨난 이 항구도시는 개척자인 볼티모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영광》을 지니게 된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도시는 번창해졌다. 항구에 있는 대규모의 조선소들에서는 세계제패실현에 이바지할 군함들이 건조되였다. 그중 제일 크고 속도가 빠르며 무장장비가 잘 갖추어진 중순양함에도 볼티모의 이름을 달아주었다.

《나는 자기가 세운 공적으로 도시와 군함에 자기의 이름을 빛나게 새겨넣은 볼티모경처럼 살고싶었소.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자 새로 편성된 아시아함대의 기함이 된 중순양함 〈볼티모〉호에 보내줄것을 열렬히 요청하였소. 몇년후에야 나는 소원대로 〈볼티모〉호에 가서 항해장교로 복무하게 되였는데 바로 그때가 로일전쟁직후였소.》

계속하여 본강의를 진행한 니미쯔는 다시한번 모를 박아 강조했다.

《장차 세계를 타고앉아야 할 미국의 남아들은 누구나 볼티모경처

럼 되여야 마땅하오. 나는 특히 볼티모가문의 후손인 웨리크학생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를 계기로 웨리크의 생활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다른 학생들이 시샘할 정도로 배가의 노력을 하여 해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자진하여 중순양함 《볼티모》호로 갔다. 《볼티모》호는 미해군의 기함이자 대통령전용함으로 인기가 대단했다. 해군에는 그보다 더 크고 무장장비가 좋은 전함들과 항공모함들도 있었지만 《볼티모》호는 이처럼 특수한 지위를 차지했다.

그는 3년이 지나자 니미쯔의 경력을 따라 순양함에서 잠수함으로 이동했으며 항해장을 거쳐 함장으로 승급하였다.

이처럼 그는 한때 니미쯔가 그러했듯이 바다물속에 몸을 푹 잠그고 해군제독이 서있는 사령탑을 향하여 사다리를 한단한단 착실히 톺아오르는중이다.

며칠전 중순양함 《볼티모》호가 푸른 바탕에 흰별이 다섯개나 찍혀진 해군대장기를 위엄있게 펄럭이며 태평양을 횡단하여 도꾜만에 들어왔었다.

요꼬스까항에 정박해있던 7함대 함선들은 맥아더의 명령에 따라 안전항해를 축하하는 신호기를 일제히 마스트에 올리고 쿵! 쿵! 요란하게 례포를 쏘았다. 미련합군 총사령관이라는 요란한 감투를 쓰고 도꾜를 깔고앉아서 태평양너머 본국에까지 감히 호령질을 하는 맥아더가 이런 성대한 환영으로 자기의 경쟁자를 맞이해주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었다.

두 오성장군은 부두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매우 감동적인 포옹을 했다.

치스터 니미쯔는 허장성세의 표본이고 명예욕이 지나친 맥아더를 겉으로는 존중해주는척 했지만 내심 경멸하고있었다. 한편 맥아더는 사업에 지나친 열성을 부리고 작전적두뇌를 시위하여 측근들을 종종 무색케 하는 니미쯔를 시기질투하면서 경계해오는터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표면상 친근한 전우처럼 보였다.

맥아더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역시 성대한 만찬회를 차렸다. 웨리크는 7함대지휘관들과 함께 초대되였다. 연회가 끝나자 니미쯔는 자기가 총애하면서 각별히 그 성장과정을 지켜보고있는 웨리크함장을 데리고 《볼티모》호로 돌아왔다. 잭슨함장이 그들을 도꾜의 초호

화호텔 1등실도 무색하게 꾸려진 함장실에 안내했다.
오래간만에 《볼티모》호의 함장실에 들어선 웨리크는 감개가 무량했다.
자기가 항해장교로 복무하던 때보다 함의 무기기술장비는 갱신되였지만 함장실에는 감람나무잎과 화살을 부각한 금빛액틀에 넣은 볼티모경의 초상화가 여전히 그대로 붙어있었다.
니미쯔는 지난 태평양전쟁때 《볼티모》호를 미해군의 기함으로 승격시키고 오늘도 애용하고있었다.
한때 해군성 차관이였던, 그런 연고로 니미쯔 못지 않게 해군에 애정을 기울인 전 대통령 루즈벨트도 볼티모경의 숭배자였다. 그래서 그도 역시 《볼티모》호를 자기의 전용함으로 정하고 마스트에 대통령기를 날리며 대서양과 태평양을 횡단했고 부인 엘레노아도 전선위문방문을 다닐 때면 꼭 이 함선을 리용하였다.
하지만 대통령과 부인이 타고다니든 해군대장이 타고다니든 이 함선의 진짜주인은 금빛액틀안에서 엄숙한 표정을 짓고 오늘을 지켜보고있는 볼티모경이였다.
니미쯔는 오래간만에 만난 웨리크와 단독으로 할말이 있는지 덤덤히 침묵을 지켰다. 잭슨은 뒤늦게야 눈치를 차리고 알릴듯말듯 얼굴을 붉히며 예비지휘소로 나갔다. 그제서야 니미쯔는 해도를 한장 꺼내여 해도탁에 펴면서 웨리크에게 가까이 오라고 턱짓을 했다.
웨리크는 긴장해서 해도탁에 바싹 다가섰다.
해도를 굽어보던 니미쯔는 손가락으로 조선반도의 등허리를 깊숙이 파고들어간 만을 가리켰다.
《여기가 어딘지 아오?》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알수 없어 웨리크는 의아해하며 대답했다.
《원산만입니다.》
《옳소, 원산만이지.
나는 로일전쟁직후 바로 이 〈볼티모〉호에서 항해장교로 복무했소. 그때 우린 정기적으로 조선동해연안을 순찰했는데 몇번 원산만에 들어갔댔소.
이것 보게, 만이 얼마나 묘하게 생겼나. 북에서 남쪽으로 길게 내리뻗친건 호랑이반도요.

그앞에 있는건 미인섬이고… 그러고보면 호랑이가 미인을 덮치는 형국인데 남쪽 맞은편에서 쑥 올라온건 갈마반도야. 저 안쪽에 유명한 명사십리가 있고 그담엔 항구도시고 계속하여 송도원이지.

언젠가 이른봄에 원산만에 들어가니 살진 청어떼가 다투어 밀려들어와서 그걸 잡노라 법석 끓어대더구만. 우리도 대단한 횡재를 했지. 펄펄 뛰는 청어를 잡아서 그대로 가마안에 넣고 국을 끓이니 그 맛이란 참 혀가 녹을 지경이였어.

아! 난 지금도 그때의 청어생선국맛을 잊을수가 없거던. 정말 못잊겠어.》

명성높은 해군대장이 천박한 미식가처럼 혀로 입술을 연방 감빨며 군침을 삼켰다.

《중좌도 가보면 대번에 반할거요. 경치도 좋지만 조선소적지와 군항으로 그렇게 리상적인 만은 조선반도에 더는 없소. 정말 욕심나는 곳이지. 그러니 중좌도 어서 가보고오게.》

《예?!》

《중좌야 잠수함함장이 아닌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볼수 있지.》

웨리크는 그제서야 해군대장이 지금 자기와 실없는 한담을 하고있지 않다는것을 알아차리고 바싹 긴장해졌다.

《저… 북조선령해에 들어갔다가 혹시 말썽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니미쯔는 정색해지면서 무엇인가를 타산할 때면 노상 그러하듯이 움푹 꺼져들어간 두눈을 가느스름히 쪼프렸다.

《그러게 솜씨를 발휘하여 은밀히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게. 설사 발견돼도 위험할건 없소. 북조선은 아직 잠수함을 추적하고 공격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잠수함을 서뿔리 로출시킴으로써 미해군이 조선동해, 특히는 원산만에 관심을 가지고있다는걸 그들이 눈치차리게 해서는 절대로 안되겠소.》

《명심하겠습니다.》

《중좌도 알고있겠지만 지금 펜타곤에서는 38도선을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밀고올라가 자유세계의 반공보루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고있소. 조선반도를 무대로 한 이 위대한 연극에서 미해군은 지금껏 진행해온 그 어느 전쟁에서도 그러했듯이 주역을 담당

해야 하오. 그러자면 우리와 맞서싸우게 될 적에 대하여 잘 아는게 중요하지.》

니미쯔는 해군정보부가 입수하여 자기에게 제출한 자료를 웨리크에게 보여주었다.

북조선은 정규무력건설을 위한 준비를 맹렬히 하고있다.

륙군은 보안간부훈련소들을 통하여 몇개 사단을 당장 편성할수 있게 되였고 비행대와 땅크병, 포병 등 병종들도 인차 갖추게 된다.

이에 비하면 자금이 많이 드는 해군함대건설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손을 대지 못하고있다.

현재 북조선은 국고를 다 털어도 순양함 한척 사올수 없는 실정이며 설사 사온다고 해도 지휘관과 기술인원이 없어 운영이 곤난하다.

해방된 다음해 6월 5일에 나온 서해수상보안대는 기관총 2문과 보총 10여정을 장비한 발동선 한척과 목선 10여척에 불과하다. 관하 5개 대의 인원을 다 합쳐야 50여명이다.

한달후 동해에도 수상보안대가 생겼는바 기관총과 보총으로 장비한 발동선 3척에 목선 20척, 관하 8개 대의 인원은 도합 270명정도다.

올해 수상보안간부학교를 세우고 동서해수상보안대에서 선발한 젊은이들로 해군지휘관양성을 위한 교육을 시작하였다. 학교는 원산만의 구석진 해안에 자리를 잡고있다. 이전 일본해군의 보급창이 있던 곳이다. 구체적인 학교실정은 아직 알수 없다.

웨리크는 이제야 니미쯔가 자기를 여기로 데리고온 리유를 알게 되였다.

니미쯔는 해군작전부장으로서 관하 함대의 전도유망하고 자신처럼 믿을수 있는 웨리크함장에게 대아메리카의 세계제패를 위한 전략실현에 의의를 가지는 극히 중대한 임무를 직접 주려고 불렀던것이다.

잠수함들은 이러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함장은 이럴 때면 비밀보장을 위해 함대사령부를 뛰여넘어 해군작전부장에게서 직접 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도 해군작전부장에게 직접 보고하는게 관례다.

미국에서 해군장관은 주로 함선건조나 장비를 맡아보고 대체로 작

전엔 관계하지 않는다.
하기에 미해군의 실권자는 작전부장이다.
작전부장에게서 직접 단독임무를 받는 함장은 운수가 좋아서 전도양양해진다. 그는 국가적리해관계와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일련의 작전에 기여하게 되며 이 과정에 함대사령부나 해군작전부에 승급할 길이 열린다.
그런즉 나에게도 쉽지 않은 그런 절호의 기회가 차례진것이다.
웨리크는 처음으로 느끼는 벅찬 흥분에 몸을 떨었다. 심장은 튀여나올듯 흉벽을 쳤고 급작스레 설설 끓는 뜨거운 피가 온몸에 소용돌이쳤다. 그는 자세를 바로잡으며 정중히 입을 열었다.
《부장각하, 믿어주어서 감사합니다!
곧 임무수행에 착수하겠습니다.》
니미쯔는 근엄한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이였다.
《음, 먼저 원산만을 정찰하고 계속 북상하면서 북조선의 해안과 주요 항들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시오. 유사시에 조선동해는 7함대의 활무대가 될것인즉 그러한 사전파악이 매우 중요하오.》
니미쯔는 손수 술병을 들고 혼합주를 만들었다.
그가 술을 부어준 수정유리잔을 받은 웨리크는 너무도 황송해서 몸둘바를 몰라했다.
이제는 둘사이에만 할 꼭 필요한 이야기를 했겠거니 하고 함장실에 들어오던 잭슨함장은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뒤집혀질 지경으로 놀라 말뚝처럼 굳어졌다. 그를 얼핏 돌아본 웨리크는 우쭐해서 큰소리로 사의를 표했다.
《각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에겐 분에 넘친 영광입니다.》
니미쯔는 잭슨함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의 잔을 내밀어 떨리는 웨리크의 잔을 쪼았다.
《중좌, 나는 가까운 몇해안에 원산항이 제2의 볼티모항이 되기를 바라오.》
《그날을 위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어서 마시시오. 성공을 바라오. 맥아더사령부에서 방조자를 붙여줄거요.》
그 방조자가 지금 자기곁에 앉아있는 야마모또 시마무라다.

태평양전쟁에서 쫄딱 녹아난 일본해군의 소해함 함장이였던 그는 패전후 알짜 거렁뱅이가 되여 처에게서조차 버림을 받고 전전긍긍하다가 비밀리에 맥아더사령부의 《KATO》에 흡수되였다. 미제의 조선전쟁계획작성을 담당한 이 특수기관에는 패망한 일제침략군의 고급작전장교들과 실전경험이 풍부한 지휘관들이 망라되여있었다. 이자들은 미군장교복차림을 하고 부산과 서울에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남조선군의 첩보계와 련계를 가지고 북조선에 대한 정탐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넘겨받고있었다.

시마무라는 남조선은 물론이고 북조선의 동해안과 항들을 잘 알고있었다. 특히 일본해군보급기지가 있던 원산만의 요충지는 패망직전에 자기가 자주 드나들던 곳이여서 그야말로 손금보듯 했다.

이런 수로안내자가 곁에 있기에 웨리크는 잠수함을 몰고 원산만으로 깊숙이 들어가 북조선이 해군지휘관들을 양성한다는 학교를 잠망경을 통해 제눈으로 직접 보게 된것이였다.

해군작전부장이 관심하는 그 학교는 자기의 눈으로 보건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다.

바다기슭에 낡은 건물을 손질한게 분명한 단층교사가 서너채, 운동장변두리에 갖춰놓은 체육훈련기재들, 나무잔교에 붙어있는 자그마한 발동선이 한척, 이게 전부였다.

운동장에서는 해군군관복차림인 교원이 해병복차림인 학생들에게 대렬훈련을 주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포구에서 얼마간 떨어진 자그마한 섬의 주변에서는 교원들이 학생들과 쪽배를 타고 희희덕거리며 고기잡이에 정신이 팔렸다. 이런 곳에서 현대과학기술의 성과가 집대성된 전투함선을 지휘할 인재를 양성한다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

《시마무라군, 당신의 말이 옳소.

전마선으로는 잠수함을 잡을수 없지. 그렇다고 잠수함으로 전마선을 잡을수도 없잖소.》

기분이 언짢은지 오래도록 입을 다물고 그 무슨 생각에 골몰했던 웨리크함장이 불쑥 이런 알쏭달쏭한 소리를 하자 저으기 긴장해서 그의 눈치만 보던 시마무라는 그만 어리둥절해졌다.

《그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입니까?》

웨리크는 씁쓸하고 유감스러운 표정을 지으려고 했지만 그의 얼굴

엔 자만자족과 우월감이 감출수 없게 드러났다.
《조선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해군의 골치거리는 맞서 싸워볼만 한 상대가 없다 그 소리요.》
《그럴가요?》
약삭바른 일본인의 얼굴엔 신중한 기색이 떠올랐다.
《전쟁이 오늘 당장 일어나는거야 아니잖습니까.》
《늦어도 이삼년내에 전쟁은 일어날거요.
당신은 그동안에 북조선이 해군함대를 건설할수 있다고 보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웨리크는 픽 웃었다.
《저렇게 락후한 학교에서는 3년이 아니라 30년이 걸려도 제구실을 하는 함장을 양성해낼수 없소. 게다가 북조선엔 조선소도 변변한게 없단 말이요. 그러니 구축함이나 잠수함을 건조하는건 꿈도 꾸지 못할게고… 난 정말 유감스럽소.》
그는 맹랑할 때면 그러하듯이 수염이 텁수룩한 턱을 손바닥으로 썩썩 문지르며 입을 다셨다.
《뭐가 그다지나 유감스러운가요?》
웨리크는 왼손엄지손가락으로 자기의 가슴을 가리키며 두눈을 흡떴다.
《내가, 이 웨리크함장이 잠수함으로 북조선의 쪽배따위나 침몰시키고 만세를 부를수야 없잖소.
정말이지 전쟁이 일어나도 미해군은 여기서 할일이 없소. 고작해서 해안가까이 접근하여 함포사격이나 하면서 륙군의 통쾌한 싸움을 구경이나 해야 할거요. 그게 재미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구경군에겐 월계관이 차례지지 않는 법이지.》
시마무라는 이제야 비로소 과대망상증과 명예욕에 환장이 된 상대방의 속심을 리해할수 있었다.
《지레 실망할건 없다고 봅니다.
조선전쟁이 터지면 쏘련이 가만있지 않을테니까요. 모름지기 조선동해로 쏘련태평양함대가 쓸어들겁니다.》
《내가 바라는게 바로 그거요!》
웨리크는 흥이 나서 주먹을 흔들며 호기있게 웨쳤다.
《그때만이 우리는 진짜해전을 치러보게 될거요. 그러고보면 당신

들이 일으킨 태평양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셈이요. 여기 조선동해에서 결판이 나야 그 전쟁이 진짜로 끝나게 된단 말이요.

당신들은 그 싸움을 구경이나 할셈이요?》

《구경하다니요? 우린 미국의 승리를 위해 전심전력할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잠수함에 타고있는 자체가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거지요.》

웨리크는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다.

《잘 생각했소, 시마무라.

당신들은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북조선과 씨비리라는 큼직한 빵덩이를 베여낼 때 자기의 몫을 요구할 자격을 가지게 될거요.》

시마무라는 상대방의 허장성세가 가소로왔지만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갑삭거렸다.

《함장님, 고맙습니다.

우린 그저 쏘련에 떼운 몇개의 섬들만 되찾으면 됩니다.》

《음, 난 당신들의 심정을 잘 알고있소.》

웨리크는 아주 거드름을 피웠다.

자신은 함장이 아니라 또 한차례의 대전을 승리로 결속하고 동맹국에 분배몫을 나눠주는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이라도 된듯 한 심정이였다.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짓는 일본의 항복문건에 미합중국을 대표하여 니미쯔가, 미군을 대표하여 맥아더가 서명했다면 앞으로 제3차 세계대전을 결속하는 문건에는 내가 서명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웨리크는 허영심에 붕 떠서 수동돌리개로 잠망경을 다시 수면우에로 내밀었다.

잠수함은 그새 원산만에서 거의나 빠져나와 호랑이반도와 려도사이를 지나고있었다.

그는 물속에 숨어서가 아니라 물우에 솟구쳐올라서 이 아름다운 해안을 마음껏 바라보고싶은 충동을 도저히 누를수 없었다.

《부상준비!》

명령을 내리자 인차 준비를 끝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부상!》

물속을 항해하던 잠수함은 고래마냥 길둥그런 선체에 무수히 나있

는 구멍으로 일제히 물을 내뿜으며 부력을 리용하여 서서히 수면으로 떠올랐다.

웨리크는 쪽배 한척 떠있지 않는 해상에서 자기를 쳐다볼 사람이 있을리 만무하지만 금줄장식으로 사치스럽고 으리으리한 례복을 갈아입고 역시 금테장식을 한 군모를 쓴 다음 사다리를 타고올라가 망홀을 열어제꼈다.

창공에서 쏟아져내리는 밝은 해빛에 막 눈이 부셨다. 소금기와 물고기비린내를 머금은 차겁고 맑은 공기가 대뜸 심신을 거뜬하게 해주었다. 아주 상쾌했다.

그는 쌍안경을 들고 이미 잠망경을 통하여 눈독을 들인 항만을 주의깊게 천천히 둘러보았다.

원산만은 볼티모시가 있는 미국의 체써피크만보다 더 아름다왔다. 그러나 시설과 건물들은 너무도 보잘것이 없었다. 백만이 넘는 각이한 피부색의 인종이 들끓고 대규모의 야금기지와 조선소들, 자동차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철강재와 함선들, 자동차를 토해내고 배고동을 울리며 유조선들과 상선들이 꼬리를 물고 드나드는 볼티모시의 번창함엔 비길수 없었다.

앞으로 이 조용한 항구도시는 제2의 볼티모시로 불리우게 될것이니 장차 나의 이름을 큼직하게 새긴 잠수함이나 순양함을 여기서 건조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가슴이 벅차오른 그는 뒤따라 사령탑우에 올라온 시마무라에게 물었다.

《군은 세계적으로 놓고볼 때 력대 해군명장들가운데서 누구를 첫 손가락에 꼽고있소?》

시마무라는 눈이 시그러워서 실눈을 하고 두리번거릴뿐 인차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야마모또 이소로꾸요?》

야마모또 이소로꾸는 진주만을 불의에 기습하여 전쟁초기에 미태평양함대를 거의나 전멸시키고 악명을 떨친 일본해군함대 사령관이였다. 뒤이어 천벌을 받아 패전의 쓴맛을 톡톡히 보고 태평양에 수장되기는 했지만…

시마무라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알릴듯말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누구요? 영국의 웰슨제독인가?》
웨리크는 재차 물으면서도 니미쯔라는 이름이 나오기를 바라마지 않았다. 니미쯔가 력대 해군명장들가운데서 당당히 첫손가락에 꼽힌다는것은 미국에서 이미 공인된것이다. 어제날의 적수인 일본해군의 함장을 통하여 그것을 재삼 확인해보고싶었다.
헌데 이게 뭔가?
시마무라의 입에서는 유감천만하게도 왕청같은 대답이 튀여나왔다.
《리순신입니다.》
《?!》
웨리크는 일순 어리둥절해졌다.
세계해전사의 갈피마다에서 그런 이름을 보았거나 들은 기억이 전혀 없었다.
《그가 도대체 누구요?》
시마무라의 눈가엔 무지한 상대방을 우습게 보는듯 한 묘한 미소가 언뜻 떠올랐다 사라졌다.
《조선사람입니다.》
웨리크는 더욱 놀랐다.
《뭐?! 조선사람이라구?》
《예, 16세기말 세계에서 처음으로 철갑을 씌운 거북선을 만들어 일본수군을 수장시킨 명장이지요.》
시마무라는 당시 3도수군통제사였던 리순신이 불과 12척밖에 안되는 함선으로 수백척에 달하는 일본군함들을 까부신 그야말로 전설같은 이야기를 아주 성수가 나서 실례까지 착실히 들어가며 실감있게 들려주었다.
《흥, 당신은 마치도 조선의 해군명장이 자기 조상이라도 되는듯이 자랑하는구만.》
시마무라는 이런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신적인 존재니까요.
전에도 그랬지만 수백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우린 조선남해의 한산도근방을 지나갈 때면 리충무공에게 제를 지낸답니다. 그래야 맘이 놓여서 안전항해를 할수 있지요.》
웨리크는 어이가 없을 때면 항용 그러하듯이 손으로 아래턱을 문지

르며 코살을 찡그렸다.
그 옛말같은 소리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고 군이 믿기에는 자존심이 상했던것이다.
《하여간 이런 미개한 나라에 세계적인 해군명장이 있었다니 그게 사실이라면 놀라지 않을수 없소.》
시마무라의 눈가엔 상대방을 경멸하고 조소하는듯 한 례의 그 묘한 미소가 또 떠올랐다.
《미개한 나라에서는 명장이 나올수 없지요.》
그 말이 과연 의미심장했다.
시마무라는 얄미운 미소를 입가에 그리더니 이런 기회가 생긴것을 놓치지 않으려는듯 감히 훈시조로 뒤를 달았다.
《조선을 우습게 보고 경거망동하다가는 당신들도 우리 신세가 될수 있지요. 우리가 패전한건 미국의 원자탄때문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바로…》
웨리크는 시마무라의 말을 채 듣지도 않고 코웃음을 쳤다.
《흥! 여보, 당신은 대아메리카를 도대체 뭘로 보는거요. 우리가 당신들 신세가 된다구? 그런 황당한 일은 여태 있어본적이 없거니와 앞으로도 있을수 없소.》
시마무라는 아연해하더니 쓰겁게 웃으며 심한 야유조로 물었다.
《아따! 세계해전사에 도통한 함장님이 유명한 〈셔먼〉호사건도 모르시나요? 혹은 잊으셨는지?》
웨리크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그 질문은 풍선처럼 부풀어올랐던 그의 자고자대와 허영심을 아프게 찌른 송곳과도 같았다.
셔먼은 니미쯔나 자기가 그토록 숭배하여 마지않는 볼티모보다 더 유명한 력사적인물이다. 지난 세기 중엽 완고하고 고루한 남부농장주들을 무쇠주먹으로 두들겨패고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5년간에 걸친 남북전쟁에서 무비의 용맹을 떨쳐 미국력사에 기록된 장군이 바로 셔먼이였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최신기술로 건조하고 기관까지 설치한 군함에 그의 이름을 달아주었던것이다.
군함 《제네랄 셔먼》호는 남북통일로 급작스레 강대해져서 본격적으로 세계의 주인으로 되는 길에 나선 대아메리카의 상징이였다.
그 군함이 태평양을 건너가 마수거리로 조선을 어째보려고 집적거

리다가 화공전술에 걸려들어 불타고 대동강에 수장되였다.
이 사건은 미국의 망신이자 미해군의 수치여서 미국인이라면, 특히 미해군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치고 모르는자가 없었다.
《**김일성**장군의 증조할아버지가 평양사람들의 앞장에 서서 〈셔먼〉호를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웨리크는 내심 놀랐다.
조선인민의 절세의 애국자로, 민족적영웅으로 명성을 떨치고있는 **김일성**장군에 대한 소문을 그도 익히 들었던것이다.
《**김일성**장군의 령도를 받기때문에 북조선은 빠른 기간에 강력한 해군함대를 창설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칫하면 당신들은 〈셔먼〉호의 신세가 될수도 있는거지요.》
태연한체 하고 덤덤히 서있던 웨리크는 자기의 얼굴을 밉살스러울 정도로 빤히 지켜보고있는 간특한 일본인의 끈질긴 눈초리를 감축하자 여유작작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때 〈셔먼〉호는 함장의 실수로 좌초됐기때문에 그런 봉변을 당했던거요. 아무리 유능한 함장도 한두번정도의 실수는 할수 있지.》
시마무라는 랭소를 머금었다.

7

김군옥은 허리가 부러질 지경으로 노를 저으며 여기저기 살펴보았지만 잠망경은 눈에 띄우지 않았다. 노대를 놓고 얼굴에 피가 몰리도록 잔뜩 고개를 숙이고 물속을 들여다보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한참만에야 지쳐서 전마선을 몰고 섬기슭으로 나갔다.
《부교장동지, 잠망경을 분명히 보았댔습니까?》
채정보는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미타해서 고개를 기웃거렸다.
《글쎄… 내 보기엔 그렇게 생겼댔는데…》
채기정이 끼여들었다.

《아마 아버지가 착각했을겁니다.
잠수함이 여기까지 뭘하러 들어왔겠나요.》
《혹시 정찰하러 왔을수도 있지 않을가?》
조정철은 별안간 두눈을 번뜩이더니 날카로운 턱을 손으로 매만지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충분히 그럴수 있습니다. 우리 수상보안간부학교를 노리고온 미국잠수함일수 있지요.》
모두들 가슴이 섬찍해져서 채정보가 잠망경이 나타났다고 하던 쪽을 주시했다. 하지만 아무런 징후도 없었다. 수면은 고요해도 물속에서는 적잠수함이 수상보안간부학교를 겨누고 어뢰를 발사할는지도 모른다. 혹은 그놈이 물우로 불쑥 솟구쳐올라 함포를 쏘거나 기관총을 갈겨댈수도 있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대응할만 한 함선이나 무기가 없으니 난사였다.
채정보는 심각한 기색으로 말했다.
《적들은 우리 코앞에까지 들어와 볼장을 보는데 우리가 눈뜬 소경처럼 그것도 모르고있다면 야단이 아니요. 이러다 큰일이 나겠소.》
김군옥을 비롯한 학생들은 난처하고 억이 막혀서 서로 마주보기만 했다.
조정철은 그들에게 신심을 안겨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려고 마디마디에 힘을 주었다.
《그러게 빨리 배워야지요. 적들의 잠수함을 발견하고 까부시는 법도, 순양함이나 구축함과 맞서 싸우는 법도 배워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자면 행여나 해서 다른 나라를 쳐다볼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여기에 있는 고장난 부업선을 우리 손으로 수리하면서 산지식을 하나하나 습득해야 합니다.》
채정보는 그간 자신의 사업에서 빈틈이 있었음을 자인하며 전적으로 공감했다.
《예, 응당 그래야지요. 먼산에 가서 도라지를 캐먹을바엔 뜨락에 있는 길짱구를 캐서 잘 우려먹는게 낫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조정철은 껄껄 웃었다.
《예, 먼데 있는 처녀만 바라보다가는 장가를 갈수 없는거지요.》

그들은 저물녘에야 전마선에 올라 사슴섬을 떠났다.

잔교로 돌아온 그들은 수확물을 부리웠다. 물고기잡이는 신이 나지만 물고기손질은 시끄러운 법이다. 채정보는 학생들과 함께 물고기를 손질하는 조정철의 어깨를 슬쩍 건드렸다.

《그런 일은 학생들에게 맡겨두고 나와 함께 가십시다.》

조정철은 긴히 의논할 문제가 있나부다 하고 손을 씻고 걷었던 팔소매를 내리우며 따라섰다.

《어딜 가자는겁니까?》

채정보는 사람좋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집을 구경합시다. 집사람이 뭘 좀 차렸을겁니다.》

조정철은 공연히 폐를 끼치고싶지도 않거니와 학생들과 함께 물고기를 손질하고 이왕이면 자기의 료리솜씨도 보여주고싶어서 뒤를 돌아보며 주춤거렸다. 채정보가 재촉했다.

《자, 어서 가십시다. 정치부교장동지가 오신다니 우리 집사람이 아무리 깍쟁이래도 닭이야 한마리 잡았겠지요.》

《그럼 기정학생을 데리고갑시다.》

채정보는 큰일이나 난듯이 펄쩍 뛰였다.

《그건 안됩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요.》

그들이 집에 가니 아닐세라 푸짐하게 생긴 안주인은 삶은 통닭과 터밭에서 방금 뜯어서 씻은 부루와 쑥갓, 고추장단지를 차린 상을 놓고 기다리고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안주인은 손님을 반갑게 맞아들이면서 행여나 아들이 껴묻어오지 않았나 해서 고개를 빼들었다.

두 군관은 단란한 가정적분위기에 잠기면서 상에 마주앉았다. 조정철은 삶은 통닭보다 고추장에 먼저 눈길이 갔다. 새빨간 고추장을 저가락끝으로 살짝 찍어 맛을 보니 맵짜면서도 달콤하고 고소한게 과연 기가 막혔다.

《하! 이거 아주머니 장담그는 솜씨가 여간이 아니군요.》

채정보는 기름진 닭의 다리를 뜯어내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 재간 하나만은 있지요.》

밖에 나갔던 안주인이 샘물에 잠그어두었던 막걸리항아리를 들고 들어왔다.

《저… 이런것도 드시겠는지? 막걸리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목이 컬컬했던지라 조정철은 안주인이 벌떡사발에 퍼주는 막걸리를 받아 꿀꺽꿀꺽 단숨에 시원하게 들이켰다.

《어!》

탄성이 절로 나갔다.

《거 정말 좋구만요. 헌데 부교장선생은 안 드십니까?》

채정보는 시무룩이 웃었다.

《난 그런건 아무리 마셔두 마신것 같지 않습디다.》

《술을 좋아하십니까?》

《배놈치고 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해방전에 내가 상선을 탈때 일본선장놈이 어찌도 못되게 굴던지 하두 속이 상해서 가끔 정비용알콜을 마시며 속을 달래군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마트면 술도깨비가 될번 했지요.》

《그런데 오늘은 왜 안 마십니까? 술이 없습니까?》

《끊었습니다.》

《어째서요?》

채정보는 앉음새를 바로하더니 벽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경건히 우러러보았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나같은걸 다 믿으시고 수상보안간부학교 부교장으로 임명해주시였지요. 정말 분에 넘친 신임입니다. 그런데 내가 학생들앞에서 순간이라도 처신을 바로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임명받은 날부터 술이고 담배고 딱 끊었습니다.》

조정철은 이처럼 지나칠 정도로 고지식하면서도 결단성이 있는 채정보가 대할수록 마음에 들었다.

《거 정말 쉽지 않은 용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애아버지에게 술을 끊으라고 잔소리를 얼마나 했다구요. 술을 끊은 다음엔 이렇게 막걸리나 감주를 만들어드리구있지요.》

이렇게 끼여든 안주인이 저으기 미안쩍은 기색으로 뒤를 달았다.

《우리 기정이가 덩치만 컸지 제구실을 변변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정철은 눈이 둥그래졌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채기정학생은 모범입니다.》
《듣자니 걔가 재구를 치고 처벌로동을 한다던데요.》
《젊은 나이가 아닙니까. 승벽심이 강한 때니 간혹 언쟁도 하고 다툴수도 있는거지요. 기정학생이 처벌을 받고도 주눅이 들지 않고 해상부업을 본때나게 하는걸 보니 대장부답습니다. 해군지휘관이 되려면 배짱도 있어야 합니다.》
안주인은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는지 밝게 웃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참, 학교가 신설이라 이모저모로 불편할텐데 가족이 이사올 때까지는 우리 집에서 숙식하세요. 주인과도 의논이 있었답니다.》
채정보도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조정철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고맙습니다만 난 병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습관이 됐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왜 그런지 더 불편하더군요.》
이것은 사실이였다. 그는 평양학원에서도 그랬고 만경대혁명학원에서도 학생들과 침식을 함께 해온것이였다.
그는 그만 자리에서 일어났다.
채정보내외는 왜 벌써 일어나는가고, 닭을 마저 잡숫고 가라고 팔소매를 잡아당겼다.
《잘 먹었습니다. 거 미안한 부탁인데 고추장을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거야 못 드리겠습니까.》
채정보의 부인은 얼른 그릇을 들고 뒤울안의 장독대에 가서 고추장을 퍼왔다.
고추장그릇을 소중히 들고 학교로 돌아오는 조정철은 신이 나서 코노래를 불렀다.

어디까지 왔니 마을까지 왔다
어디까지 가려니 학교까지 간다
…

맛좋은 고추장이 있으니 달콤새콤하고 얼벌벌하게 해삼회를 치자. 꽃게는 간장에 절여 게장을 만들고 성게로는 운단을 만들며 잡어로는 국을 끓이자.

그는 이런 생각에 흥이 나서 식당으로 갔다.

이튿날 아침식사때 학생들은 구수한 김이 문문 피여나는 생선국과 그 빛갈만 봐도 군침이 절로 넘어갈 지경으로 먹음직스러운 해삼회가 한접시씩 놓여있는 식탁을 마주했다. 어제 고기잡이에 나갔던 학생들을 내놓고는 모두들 뜻밖이여서 놀라는 동시에 입이 귀밑까지 돌아갔다.

《히야! 이거 해삼회가 아닌가? 어디 맛을 좀 보세.》

《기막히구만. 혀까지 넘어가겠어.》

《맛있다고 너무 먹지 말게. 그러다가 그게 용을 쓰면 야단이야.》

하하! 유쾌한 웃음이 터졌다.

《요즘엔 다시마랭채와 다시마국이 보기도 싫었는데 오래간만에 먹으니 잡어국도 별맛이구만. 열기나 망챙이따위가 이렇게까지 맛있을줄은 몰랐네.》

살진 청어떼가 구름처럼 포구에까지 밀려들던 지난 초봄에는 청어생선국에 물린 판이라 이런 잡어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염장청어가 동이 나서 비린내를 맡아본지도 보름이 지난지라 이제는 보잘것 없어보이던 잡어국도 이른봄의 풋절이처럼 제법 구미를 돋구는 것이였다.

김군옥은 내심 흐뭇했다.

처벌을 받고 증이 나면 보리방아 더 잘 찧는다는격으로 물고기잡이에서 솜씨를 보인건데 새로 온 정치부교장의 과분한 칭찬을 받았고 동무들에게도 기쁨을 안겨주었으니 이거야말로 화가 복이 된셈이였다. 그는 의욕이 북받치고 사기가 충천했지만 그럴수록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듯이 점잔을 빼며 말없이 식사를 했다.

뜨거운 잡어생선국을 게눈감추듯 퍼먹고나니 가뜩이나 붉은 량볼이 더 빨갛게 익은 김도형이가 큰소리로 곱배기를 청하고나서 군옥에게 고맙다는 소리를 벌써 세번째로 했다.

《정말 수고했어. 이거 처벌로동을 하는 동무들덕분에 우린 명절을 쇠는구만.》

김군옥은 못 들은체 했다. 곁에 앉은 채기정이가 귀가 간지러웠던지 짜장 눈을 부라렸다.

《거 말조심하라요. 처벌로동이 뭐요? 이건 우리가 새로 온 정치부교장동지와 상봉기념으로 잡은거란 말이요. 어제 밤에 정치부교장동지가 손수 해삼회를 치고 게장도 담그었소. 사나할 지나면 게장과 운단도 맛있게 익을거야.》

그제서야 사연을 알게 된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김도형이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참, 어제 해삼잡이를 하다가 잠수함을 봤다면서? 그게 정말이야?》

채기정은 으쓱해서 뻐기듯이 과장하여 대답했다.

《그렇잖구, 군옥동무가 물밖에 나온 잠망경을 발견하고 노대로 후려치려고 했지. 잠수함은 급해맞아 얼른 물속으로 잠망경을 내리우고 뺑소니를 쳤어.》

채기정은 얌전하고 말이 적은 축이였는데 하루밤사이에 활발하고 언변도 좋은 학생으로 돌변했다.

저으기 멋적은 기색으로 아무 말도 없이 해삼회를 조심스레 집어먹던 고준무는 오늘따라 별스레 수다스러워진 채기정이 눈에 거슬려서 찌글서 흘겨보았다.

《흥,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거짓말이라니?!》

채기정은 눈을 똑바로 뜨고 부쩍 우겨댔다.

《죄다 사실이요. 그렇지 않아요? 군옥동무.》

그의 곁에 앉아있는 김군옥은 그저 소리없이 웃으며 식사만 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그의 어엿한 태도가 오히려 신빙성을 부여해주었다.

고준무는 메사했다. 김군옥이네가 해삼을 잡다가 적잠수함을 발견했다는 그 시각에 자기는 다시마나 건지고있었으니 더 할말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수저를 놀리는데 채기정이 잔뜩 기고만장해서 떠드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사슴섬주위엔 온통 보물이야. 해삼과 성게가 한벌 쭉 깔렸고 열기와 노르메기, 줄도미가 와글와글해. 우린 고장난 부업선을 수리해

가지고 그걸 다 건져내자는거야.》
김도형이 미타해했다.
《부업선을 우리가 수리할수 있을가?》
《있구말구, 그까짓 열구기관따위는 문제없어.》
김군옥이도 듬직하게 한마디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린거야.》
발언권을 잃은 고준무는 나직이 한숨만 내쉬였다. 저혼자 기슭에 밀려난듯 외로운 생각조차 들었다. 그는 식사가 끝나자 홀로 부업창고앞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나서 내키지 않는 동작으로 창고문을 열었다.
다시마냄새가 별스레 역하게 확 풍겼다.
며칠동안 자기가 허리부러지도록 건져내여 대충 말리워넣은 다시마가 창고안에 더미로 쌓여있었다.
다시마따위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으니 수고스럽게 수확한 이것도 창고안에서 묵다가 종당엔 변질돼서 쓰레기처럼 내버려질게 뻔했다. 더는 다시마에 손대고싶지 않았다.
그럼 오늘부터는 고개를 숙이고 군옥네와 함께 부업선을 수리해야한단 말인가? 이건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노릇인데…
한백천소좌가 창고앞을 지나가다가 멈춰섰다.
《아! 소대장동무로군. 이 많은 다시마를 동무가 혼자서 건져냈다지?》
고준무는 느닷없이 얼굴을 붉히며 그렇다고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다.
《군옥이와 기정인 도대체 뭘하고있다오? 계속 허풍을 치며 배놀이만 하다 오는가?》
《아닙니다, 식당에 가보십시오. 그 동무들이 잡아온 해산물로 해삼회를 치고 생선국을 끓이고 굉장합니다.》
한백천은 어마지두 놀랐다.
《그들이 맨손으로 그걸 어떻게 잡았다는거요?》
《글쎄 말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잠수함까지 잡을번 했다고 합니다.》
한백천은 두눈이 휘둥그래졌다.
《뭐?! 잠수함을 잡을번 했다구? 여보, 그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

요?》

《하여간 근거가 있는 소리인것 같습니다. 잠수함은 잠수함이고 오늘 아침엔 그 동무들덕분에 모두 잘 먹었습니다. 군옥이와 기정이는 부쩍 사기가 나서 오늘부터 부업선을 수리해서 해상부업을 더 통이 크게 벌리겠다는데… 나도 그래야 할가 봅니다. 거 보아하니 새로 오신 정치부교장동지가 그들을 적극 떠밀어주는것 같습니다.》

한백천은 맹랑해서 입을 다셨다.

이미 로문판 《세계해전사》를 번역한 그는 계속하여 쏘련해군의 함선규정을 번역하는데 몰두하고있었다. 어제도 상학후에는 그 일에 달라붙어서 시간이 가는줄 몰랐다. 그 일을 끝내면 쏘련해군의 해상전투규정들과 교범들을 번역할 작정이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수상보안간부학교에서는 바로 이런것을 학생들에게 배워주어야 했다.

그런데 고장난 부업선을 수리해서 해상부업을 통이 크게 벌린다구?! 흥, 여기가 뭐 어부들을 양성하는 곳인가? 새로 온 정치부교장이 키를 바로잡게 내가 조언을 주어야지 이러다간 배가 산으로 올라가겠는걸.

한백천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정치부교장을 만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정치부교장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항일투사이다. 듣자니 산에서 싸울 때도 정치일군이였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는 정치부교장앞에 서면 위압감을 받고 저도 모르게 언행을 자중하게 되는것이였다.

부업선을 수리하는 문제는 교직원들속에서도 론의에 올랐다. 또한 교육방법과 교육내용도 실정에 맞게 뜯어고쳐야 한다는 소리도 나왔다. 정치부교장이 새로 오더니 뭔가 달라진다. 채정보부교장과 그를 따르던 김군옥을 비롯한 학생들이 기세를 올린다. 고준무는 주눅이 들었다. 한백천은 자기의 발밑이 꺼져내릴듯 흔들거리는것 같았다.

위구심을 느낀 그는 재고재다가 정치부교장을 찾아갔다.

《정치부교장동지, 부업선이 보기엔 허술해도 수리하자면 간단치 않습니다. 기관만 수리할게 아니라 선체도 수리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상가시켜야지요. 그런데 상가설비가 있습니까?》

한백천은 이처럼 실정을 잘 모르는 정치부교장을 리해시키려고 설득력있게 차근차근 시작을 뗐는데 이야기도중 화약같은 성미가 살아나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며 와짝 언성을 높이였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학생들이 함선규정을 암송하고 외국어단어를 하나라도 더 머리속에 집어넣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류학이라도 보낼수 있을게 아닙니까.》

《류학이라?!》

《예, 지금형편에서 제구실을 하는 해군지휘관들을 키워낼 방도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야 말이 수상보안간부학교지 뭐가 있습니까. 실습선은 고사하고 교육용배기관이나 항해기구도 없거던요.

형체도 없는걸 배워주자니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한백천이 안달아할수록 조정철은 여유있는 미소를 지었다.

《형체가 왜 없다는거요? 부업선이 있잖소.》

한백천은 정녕 어이가 없었다.

물고기비린내가 역하게 풍기는 고장난 부업선을 모델로 하여 현대과학기술이 집대성된 순양함이나 구축함에 대한 강의를 하란 말인가?

《허참… 정치부교장동지두… 이거야말로 고양이를 보면서 범을 그리라는 소리로군요.》

비꼬는 그 소리에 조정철은 흔연히 고개를 끄덕이였다.

《옳소! 바로 그렇게 하자는거요. 호랑이도 족보를 따져보면 고양이과에 속해있소. 그러니 고양이를 잘 연구하면 능히 호랑이를 알수 있소.》

이게 뭐야?!

한백천은 놀라운 눈길로 정치부교장을 바라보았다. 정치부교장의 주장이 옳았던것이다. 고장난 부업선을 놓고서도 전투함선들의 일반적구조와 동작에 대하여 얼마든지 실감있게 설명해줄수 있었다.

《글쎄 그렇긴 하지만… 나는 해군함대를 창설할바엔 세계적인 수준에서 통이 크게 하자는겁니다.》

《욕망이 큰건 좋소. 그러나 현실에 발을 든든히 붙여야 하오. 지금의 조건과 실정에서 어떻게 해야 학생들을 유능한 해군지휘관으로 하루빨리 키워낼수 있겠는가를 여러가지 측면에서 진지하게 연구합시다. 그래야 허공에 뜨지 않은 실천적인 방도가 나옵니다.》

조정철은 썩 달가와하지 않는 한백천의 어깨를 다정히 잡았다.

《동무는 오늘부터 합선건조사업때문에 조선소에 나가게 된 교무부교장의 사업을 대리하여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행정사업을 책임지고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예?! 제가요…》

한백천은 저으기 놀랐다.

그는 항일투사인 조정철이 정치부교장으로 임명되여온 첫날부터 대를 세우자 내심 긴장해졌던것이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믿고 중임을 서슴없이 맡겨주니 감동되지 않을수 없었다. 이렇게 믿고 내세워주는데 계속 투정질을 하며 왼새끼를 꼴수는 없었다. 이 기회에 발벗고 나서서 정치부교장에게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래야 학교교육행정사업도, 학생들을 류학보내는 문제도 자기의 의도대로 해나갈수 있었다.

그는 이튿날 상학장소를 부업선수리장소로 대담하게 옮겼다.

학생들은 나무잔교와 부업선갑판에 빼곡이 올라섰다.

한백천은 갑판을 이리저리 거닐면서 설명했다.

《오늘부터 이 부업선을 교육용전투함선으로 삼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에ㅡ 동물들은 크나작으나 신체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함선구조학상학시간에 왕청같이 동물소리가 나오자 모두들 놀라서 눈이 휑해졌다.

《산중의 왕이라는 범이나 사자에게도 대가리와 몸통, 팔다리, 꼬리가 있고 보잘것 없는 다람쥐나 고양이에게도 그런게 다 달려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순양함이든 부업선이든 함선의 구조는 대체로 비슷하다는 소리입니다.》

학생들은 서로 마주보며 빙긋 웃었다.

과연 귀에 쏙 들어오는 소리였던것이다.

《때문에 이 부업선을 놓고도 함정의 일반구조를 얼마든지 직관적으로 학습할수 있습니다.

선수에서 선미까지 배밑창 중심을 타고 지나간것이 룡골인데 사람에 비유하면 척추입니다. 룡골의 좌우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맞물린것이 륵골인데 달리 말하면 갈비뼈입니다.》

이처럼 배수리작업을 하면서 실물강의를 받으니 좋은 점이 한두가

지가 아니였다.

고준무가 책임진 대다수의 학생들은 선체수리에 달라붙었다.

우선 배밑창에 고여있는 물과 기름찌끼를 말끔히 퍼내고 이음짬이 생긴 곳에 타르를 먹인 삼끈을 박아넣고 꺾어지거나 부식된 부위의 판자를 갈아댔다. 김군옥과 채기정은 기관을 몇번이나 뜯었다맞췄다 하다나니 온몸이 기름투성이였다. 흑인들처럼 얼굴과 두손이 까맣고 번질번질한데 이발만 희게 번쩍거렸다.

조정철은 불편한 몸이지만 비좁은 기관실안에까지 들어가 일손을 거들어주었다.

《수고하오! 여긴 병기창같구만.》

《예?!》

두 학생은 잠시 일손을 놓고 의아한 눈길로 정치부교장을 바라보았다.

《항일유격대에는 야장도구로 폭탄까지 만들어내는 병기창이 있었소.》

김군옥은 어마지두 놀랐다.

《아니?! 폭탄을 자체로 만들었단 말입니까?》

《그렇소, 처음엔 망치로 두드려서 창과 칼을 벼리고 다음엔 고장난 무기를 수리했지. 그 과정에 경험을 쌓아서 폭탄도 만들어냈소. 자력갱생의 창조물인 그것을 장군님의 발기와 지도밑에 유격구의 병기창에서 만들어냈소. 왜놈들을 족치고 근거지를 사수하는데서 연길폭탄이 정말 큰 몫을 했소.》

구수한 그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진 학생들은 선체수리를 하던 일손을 잠시 놓고 저마다 기관실로 다가갔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그때 하자고 결심만 하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혁명의 요구라면 그 무엇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소. 병기창성원들은 그 말씀에 고무되여 더욱 분발했소.

어느해인가 조국진군을 앞두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재봉대에 600여벌의 군복을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소.

재봉대엔 손재봉기가 한대밖에 없었고 재봉기바늘도 하나뿐이였소. 그 손재봉기를 교대로 밤낮없이 돌리다나니 그만 재봉바늘의 귀가 떨어져나갔소. 재봉대원들은 울상이 되였지. 이것을 알게 된 병기창에

선 고심하고 무진애를 써서 야장도구로 재봉바늘을 만드는데 성공했단 말이요.》

모두들 경탄하여마지 않았다.

《그뿐이 아니요. 후엔 국수분틀까지 만들어 국수를 눌러먹기도 했소.

항일유격대원들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바라시는것은 그 무엇도 해냈단 말이요.

김일성장군님께서 바라시는것은 혁명의 요구이며 조국의 요구요.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이 어서빨리 조국의 바다를 지켜갈 유능한 해군지휘관이 되기를 바라고계시오. 항일유격대원들처럼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소. 동무들이 그런 정신으로 이 열구기관을 자체로 수리해내면 앞으로 어뢰정의 고속기관도 척척 다룰수 있게 될거요.》

못 잊을 항일전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추억하던 조정철은 부지중 얼굴을 찡그리며 신음소리를 냈다.

비좁은 기관실에 불편한 자세로 서있으니 부상당한 두다리가 금시 꺾어질듯 아파났던것이다. 그는 놀라는 학생들에게 미안한 어조로 량해를 구했다.

《안됐소. 다리가 말썽을 부리는구만.》

그는 정비작업을 하느라 어지러워진 기관실발판우에 두다리를 쭉 펴고 편안히 앉았다. 그제서야 아픔이 좀 가셔지는듯싶었다.

김군옥은 언제부터 알고싶었던지라 조심스레 물었다.

《다리는 어떻게 상했습니까?》

《언젠가 나는 적후공작을 나갔다가 부대로 돌아오던중 호수가에서 적들을 만나 한바탕 맞불질을 한적이 있었소. 그 전투에서 부상당하고 정신을 잃었댔지. 얼마후에 겨우 의식은 회복했는데 도저히 움직일수가 없더구만. 잔등이 축축히 젖어들기에 호수가에 무성한 갈대를 손에 잡히는대로 꺾어서 깔고 그우에 누웠지. 갈대라도 있으니 다행이였소. 배가 고프면 갈대를 씹어서 즙을 마시고 총상이 쑤셔도 갈대즙을 뱉아 약대신 발랐소.

그렇게 여러날이나 호수기슭에 누워있었더니 젖은 몸이 퉁퉁 불어나더군. 그대로 더 누워있으면 살이 다 문적문적 떨어져나가겠더란 말

이요. 나는 단도로 부상당한 다리를 째고 탄알들을 끄집어냈소. 그리고 피고름을 짜냈지.》

당사자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학생들은 그 광경을 상상해보기조차 끔찍해서 몸서리를 쳤다.

《이렇게 대충 처치하고 나무가지를 하나 얻어쥐고 짚으면서 부대를 찾아 떠났소.

보름후에야 부대를 만났지. 총상은 그런대로 아물긴 했었는데 후에 쩍하면 도지더구만. 그래서 이렇게 다리병신이 된거요.》

김군옥은 상처자리를 보여달라고 간청하며 정치부교장의 바지가랭이를 무작정 걷어올렸다.

자기가 예상했던것보다 상처자리는 더 험해서 보기에 끔찍했다. 이런 다리를 끌고서 산에서 어떻게 유격투쟁을 할수 있었는지 정녕 놀라왔다.

험한 상처자리들을 손으로 하나하나 어루만져보던 그는 흠칠 몸을 떨었다. 무언가 돌멩이나 쇠붙이처럼 딱딱한것이 손끝에 맞혔던것이다.

《이… 이건 뭡니까?》

《그때 미처 빼내지 못한 파편이요.》

모두들 놀라와서 눈이 둥그래졌다.

《이쪽에 또 있지. 오래 된 파편은 굳은살에 싸여서 별로 위험하지 않소.》

조정철은 파편을 손끝으로 문질렀다. 파편이 알릴듯말듯 움직거렸다. 그걸 바라보는 학생들은 끔찍해서 으쓸 몸서리를 쳤다. 조정철은 그들에게 이쯤한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유격대원들속에는 부상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해서 썩어올라오는 두다리를 제 손으로 뭉청 잘라버린 대원도 있었소.》

모두들 눈이 뒤집혀질 지경으로 놀랐다.

《그것도 통졸임통을 잘라서 두드려 만든 톱아닌 톱을 가지고 그랬지.

혁명가를 부르며 제 손으로 절단수술을 한 그 동무는 후날 적들이 후방병원을 〈토벌〉하자 대원들을 피신시키고 싸우다가 자폭했소.》

김군옥은 저도 모르게 두눈을 꽉 감았다.

제 손으로 자기 다리를 자르는 투사의 모습이 눈앞을 꽉 채웠다. 양철톱이 다리뼈를 썰어대는 소리가 아츠럽게 들려오는듯싶었다. 이어 만세소리와 함께 폭음이 요란하게 울린다.

그 소리는 자기의 정신과 육체를 세차게 뒤흔들어놓는것만 같았다.

인간의 정신과 의지가 그렇게까지 강할수 있단 말인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을가요?》

조정철은 미더운 눈길로 학생들을 둘러보며 크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있구말구. 항일투사들이라고 특수한 사람은 없었소.

대다수가 동무들처럼 째지게 가난해서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한 고생꾸러기들이였지.

우린 유격대에 입대해서야 글을 배웠소. 행군의 쉴참이나 전투가 끝난 저녁이면 구대원들이 신대원들을 한명씩 맡아서 배워주었소. 때로는 몇달씩 밀영에서 집중적으로 군정학습을 하기도 했소.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글을 배우고 유격전법을 배우며 혁명가로 자라난 우리들은 그 무슨 사관학교졸업생이니, 륙군대학졸업생이니 하고 우쭐대는 일본장교들이 지휘하는 백만대군과 싸워 이겼단 말이요.

동무들도 항일유격대원들처럼 배우고 훈련하면 구태여 류학을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짧은 기간에 훌륭한 해군지휘관이 될수 있다고 보오.》

이처럼 교직원들과 학생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고무해주고 학교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 조정철은 며칠후 평양으로 올라갔다.

위대한 장군님께 해군지휘관양성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보고드리고 필요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한백천은 선체강의가 끝나자 기관강의로 넘어갔다. 학생들이 갑판에서 들여다볼수 있게 발판을 다 제껴놓았다.

《이것이 요즘 고기배들에서 흔히 쓰는 15마력짜리 기통 두개를 놓은 열구기관입니다. 내연기관으로서는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특징은 노상 뜨겁게 달아있는 열구가 기관안에 들어와 압축되는 연료와 공기에 불을 달아주는것입니다.》

기관수리를 하노라 온몸에 까만 기름매닥질을 한 김군옥과 채기정

이도 잠시 일손을 놓고 한백천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보다 발전된 기관은 반세기전에 디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디젤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김군옥은 이런 사실을 처음 알게 되였다.
《디젤기관에는 기화기와 점화전이 없습니다.
대신 고압연료뽐프와 분사구가 설치되여있습니다. 이로써 기관은 수천마력, 지어는 수만마력도 낼수 있는 길이 열렸던것입니다. 기관의 성능이 높아지자 함선들의 속도가 빨라지고 해상무력은 현대화되였습니다.
실례로 이 부업선보다도 작은 어뢰정에는 800마력짜리 고속기관이 두대 설치되여있습니다.
도합 1 600마력인데 자그마한 어뢰정을 1 600마리에 달하는 말들이 끌고 달리는 셈입니다. 어뢰정의 최대속도는 45놋트입니다.》
어뢰정이라는 소리가 나오자 더 긴장하여 설명에 귀를 기울이던 김군옥은 머리속으로 재빨리 환산해보았다.
45놋트는 시간당 45마일을 간다는 소리다.
45마일은 200여리에 달한다. 바다에서 이 속도는 실로 대단했다.
학생들이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하자 한백천은 신이 나서 설명을 계속했다.
《어뢰정은 400키로그람에 달하는 폭약을 장진한 어뢰를 두발 적재합니다. 어뢰 한발이 명중하면 선체의 파공직경은 무려 7메터나 됩니다. 이러한 파공을 막는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어뢰를 두발 다 명중시키면 구축함은 물론이고 순양함도 침몰시킬수 있습니다.》
통쾌한 그 장면이 금시 눈앞에 펼쳐지는것 같아서 모두들 야! 하고 탄성을 올렸다.
《아직은 세계해전사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적은 일어날수 없습니다.》
김군옥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다가 발판틀에 정수리를 되게 짓쪼았다.
와하하! 웃음이 터졌다.
그는 찡! 울리는 정수리를 두손으로 움켜쥐면서도 갑판우에로 고개

를 쳐들고 항의하듯 큰소리로 물었다.
《어째서 그런 기적이 일어날수 없습니까?》
한백천은 김군옥을 굽어보며 조리있게 설명했다.
《그건 순양함이나 구축함의 화력이 어뢰정과는 대비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강하기때문이요.
지금 일본 도꾜만에 기지를 두고있는 미7함대기함인 중순양함 〈볼티모〉 호를 례들어봅시다.
배수량은 1만 7 300톤이고 길이는 200메터가 넘는데 203미리 주포를 비롯한 함상포들이 무려 69문이나 설치되여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 수자에 모두들 입을 딱 벌리며 숨을 죽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5관식어뢰발사기와 폭뢰투하기를 비롯한 각종 수뢰무기가 장비되여있고 상갑판엔 직승기도 싣고있습니다.
륙군 한개 사단의 화력에 맞먹는 이 함상포들과 수뢰무기가 일시에 불을 뿜으면 쏘구역은 불바다가 됩니다. 어뢰정이 확고한 명중사격을 하려면 이 포탄소나기속을 뚫고 적함으로부터 3까벨트까지는 접근해야 합니다.》
3까벨트면 550메터 정도다.
《때문에 중순양함을 공격하려면 어뢰정이 적어도 40척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어뢰정들이 중순양함을 둘러싸고 공격해야 적함포탄에 맞아서 다수가 깨져도 두세척은 쏘구역을 무사히 뚫고들어가 어뢰를 발사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면밀히 타산한 확률입니다.》
김군옥은 나사틀개를 내던지고 발판틀을 잡고서 갑판우에로 훌쩍 솟구쳐나왔다.
《교원동지, 좀더 자세히 가르쳐주십시오.》
언쟁사건이 있은 후 은근히 자기를 멀리하던 김군옥이 이렇게 바싹 달라붙어 간청하니 한백천은 속에 무죽히 맺혔던것이 쑥 내려가는것 같았다.
그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친절히 물었다.
《뭐가 더 알고싶소?》

《어뢰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이 부업선을 어뢰정이라고 놓고볼 때 어뢰는 어디에 싣습니까?》
한백천은 선미갑판을 가리켰다.
《저기에 나란히 적재하오.》
《기관실은?》
《선수선창에 있소.》
《배수량은?》
《17톤이요.》
그러니 어뢰정의 배수량은 부업선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작은 함선에 고속기관을 두대나 놓고 어뢰를 두발이나 싣는다니 도저히 믿을수가 없었다.
석연치 않아하는 그에게 한백천은 말했다.
《저녁에 나를 찾아오라구, 어뢰정설계도면을 보여주지.》
김군옥은 너무 기뻐서 입이 귀밑까지 돌아갔다.
《교원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버그러졌던 그들의 관계는 다시 친밀해졌다.
《그래 기관수리는 어느 정도로 진척됐소?》
《닦을건 닦아내고 깎아맞출건 다 깎아맞췄는데두 시동이 잘되지 않아 애를 먹고있습니다.》
《그으래?》
한백천은 마음이 동해서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배기름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기관실에 들어갔다.
기관을 자세히 살펴보던 그는 기름걸레에 불을 달아 열구에 올려놓았다.
《이건 말그대로 열구기관이여서 이 머리통을 화끈 달구어야 해.》
한백천은 이새로 침을 찍 내쏘았다.
열구에 떨어진 침은 즉시에 빠지직 끓으며 말라버렸다.
《어서 시동해보오.》
김군옥은 재빨리 시동준비를 하고 시동끈을 감았다가 힘껏 잡아챘다.
기관은 이번에도 마지못해 퉁탕거리다가 푸르륵 꺼지고말았다.
기대와 호기심이 잔뜩 어린 눈길로 기관실안을 굽어보던 학생들은

누구나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고준무는 맹랑해서 입을 쩝쩝 다시며 조타실에 들어갔다. 조타실은 비좁고 초라했다. 하지만 그는 이곳을 장차 자기가 함장이 될 순양함의 지휘소로 상상해보면서 타륜을 잡고 마음속으로 위엄있게 구령을 쳤다.
《함 닻 올렷! 미속으로 전진!》
공상에 한껏 들뜬 미래의 순양함 함장은 지금 기관실에 들어박혀서 기름투성이가 된채 녹투성이 열구기관이나 주물러대고있는 군옥이와 기정이가 가소로웠다.
너희들이 기관을 수리해? 어디 해보게, 기관을 살려내면 내 손바닥에 장을 지질테다.
《함 전속으로! 해상감시를 강화할것!》
고준무는 그려볼수록 달콤한 상상에 잠긴채 마음속으로 계속 구령을 쳤다.
한편 한백천은 기관시동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바싹 약이 올랐다. 자칫하면 학생들앞에서 교원인 자신이 망신을 할수 있었다. 구축함을 타고 대양을 헤가르던 자기가 이따위 녹쓴 열구기관을 살리지 못해서 궁싯거리다니…
《빌어먹을, 이따위도 기관이야?》
그는 저도 모르게 화를 내며 쌍욕을 퍼부었다.
《군옥학생, 이놈의 열구가 새까맣게 타버리던가 엿처럼 줄줄 녹아내리게 더 와짝 달구라구.》
《예.》
김군옥도 속이 타던 판이라 이놈 어디 혼쌀나봐라! 하는 심사로 기름걸레로 불방망이를 만들어 불을 달고 열구를 달구었다.
페유가 타는 지독한 냄새와 연기가 삽시에 기관실안에 꽉 들어차서 도저히 숨을 쉴수도 없었고 눈을 뜨기도 어려웠다. 뿌지직, 뿌지직거리며 타는 불방망이의 열기가 어찌도 세찬지 이러다간 부업선을 통채로 태워버릴것 같았다.
한백천은 옆에 엉거주춤 서있는 채기정을 독촉했다.
《뭘해? 어서 기관을 시동해보오!》
채기정은 부랴부랴 시동끈을 감았다가 팔이 뚝 떨어져나갈 지경으

로 힘껏 잡아챘다.

짱!—

함포를 쏜듯 요란한 폭음이 울렸다.

열구기관의 아가리에서 뭔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터져나갔다. 발사한 포탄같은 화염덩어리는 갑판우에로 뿜겨나가며 조타실의 앞창을 들이쳤다.

쨍가당! 하는 소리와 함께 앞창이 산산쪼각났다.

마침 적함에 대고 함상포 일제사격구령을 치려던 고준무는 별안간 눈앞이 번쩍하면서 뜨거운것이 자기의 얼굴에 확 덮쳐들자 와뜰 놀라며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갑판에 서있던 학생들도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라 혼쭐이 쑥 나가서 돌처럼 굳어져버렸다.

와당 탕탕탕!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기관이 돌아가고있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녹투성이 쇠덩이에 불과하던 열구기관이 생명수라도 마신듯 살아난것이였다.

와당 탕탕탕! 와당 탕탕탕!

순간 산중의 호수런듯 너무도 고요하고 한적하여 외로움과 쓸쓸함조차 안겨주던 바다가 별안간 생기를 띄고 급기야 설레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살았구나! 살아났어!

김군옥은 부업선의 고장난 열구기관이 아니라 마치도 사경에서 헤매던 자기자신이 살아난것만 같았다.

그러한 벅찬 희열이 해일인양 전신을 휩쓸었다.

눈굽조차 쩌릿해진 그는 불망치를 번쩍 추켜들며 저도 모르게 목메인 소리로 웨쳤다.

《만세!—》

채기정도 그처럼 바라던것을 손에 쥔 어린애처럼 환성을 올렸다.

한백천은 기뻐서 춤추듯이 날뛰는 두 학생을 아연해하는 기색으로 지켜보았다. 조타실에 벌렁 나자빠져서 뒤통수에 밤알만 한 혹이 나온 고준무나 선체작업을 하다가 기관시동소리에 와뜰 놀라 눈이 휘둥그래진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에게는 기관을 살려냈다

고 기뻐하는 두 학생의 지나친 격동과 환희가 잘 리해되지 않았다.
모를 일이다. 아무리 기쁘기로서니 만세를 부르며 눈물까지 흘리다니?!
무엇인가를 위해 고심분투하고 전심전력하지 않고서는 그것의 성공을 두고도 벅찬 기쁨을 맛볼수 없다는것을 그들은 아직 모르고있었다.

8

어뢰정!
아, 이게 바로 내가 그처럼 타고싶어하던 어뢰정이로구나. 어뢰정이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겼구나. 멋쟁인데… 정말 미남이야!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어여쁜 처녀의 미모에 반하듯이 김군옥은 설계도면을 보면서 아직은 실물을 구경도 하지 못한 어뢰정에 대뜸 반했다.
그가 처음으로 어뢰정을 동경하게 된것은 수상보안대에 있을 때였다. 대장인 김성국이 신의주분소에 왔다가 오토바이기관을 놓고 중기관총으로 무장한 전마선을 보더니 대뜸 배에 오르며 김군옥에게 어서 바다로 나가자고 했다. 전마선은 요란한 동음을 울리며 배머리를 추켜들고 살같이 내달렸다.
《제법인데, 좋아! 아주 좋소, 신통히도 어뢰정같구만.》
배머리에 선 김성국은 맞받아 불어치는 해풍에 옷자락을 날리며 큰소리로 물었다.
《군옥동무! 어뢰정을 타보았나?》
선미에서 조타를 잡고앉은 김군옥은 어줍게 대답했다.
《말은 많이 들었는데 아직 어뢰정을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뢰정이 바로 이렇게 작으면서도 빠르고 타격력이 강하오. 어뢰에 맞으면 산같은 함선도 즉시 침몰된단 말이요.》
그 소리에 김군옥은 대뜸 반했다.
《어뢰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생기게 될거요. 동문 어뢰정 정장감이야.

수상보안간부학교에 가서 어뢰정을 배우게. 어뢰정을 타야 싸움판에서 한몫할수 있소.》

바로 그날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눈앞에 그려보았던 어뢰정이다.

비록 작지만 속도가 빠르고 산같이 큰 적함도 까부실수 있는 강한 타격력을 가진 어뢰정은 마치도 어릴적부터 고생을 함께 하여온 동무처럼 사랑스럽고 친근하게 여겨졌다.

그는 부분도를 통하여 이 신비한 함선의 각 초소들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리해와 표상을 가지기 위해 무진애를 썼다. 잠자리에 누워도 어뢰정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얼른거려 잠들수 없었다. 잠들어도 꿈속에서 어뢰정의 마스트로부터 사령탑과 고사총, 라침기, 묘새고와 기관실, 연막장치와 어뢰, 연유탕크와 추진기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두손으로 살틀히 어루만져보게 되는것이였다.

어뢰정의 모습은 간혹 놀랍게도 그 처녀, 김정인의 모습으로 슬쩍 바뀌여지기도 했다.

그럴 때면 그는 화닥닥 잠자리를 차고 일어나 누가 훔쳐보지나 않았는지 두려운 눈길로 잠든 동무들을 둘러보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군 했다. 아마도 그 처녀가 그림과 수놓이솜씨로 자기에게 어뢰정의 모습을 먼저 선보였기때문이리라.

그는 이처럼 련인을 사랑하듯 어뢰정을 사랑하게 되였다. 어뢰정에 대한 그의 애정은 평양에 올라갔던 정치부교장이 돌아오자 선풍을 만난듯이 더 활활 불타올랐다. 조정철은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는 교직원, 학생들에게 격정에 넘친 목소리로 웨쳤다.

《동무들! 기뻐하시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우리 학교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시고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조국의 바다를 지킬 해군함대를 빨리 창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해군지휘관양성에 필요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시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강구던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약속이나 한듯 일제히 환성을 올렸다.

《그이께서 친히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수상보안간부학교는 항해학부와 기관학부, 함상포 및 해안포학부 등을 갖춘 해군군관학교로 승

격되게 됩니다.》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모두들 껑충껑충 뛰면서 목청껏 만세를 부르는데 붉게 상기된 얼굴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기쁠 때도 눈물이 쏟아진다는걸 김군옥은 오늘에야 비로소 알게 되였다.
《해군군관학교 청사와 후방건물들은 학생들이 각종 전투함선을 타고 해상실습을 하기에 유리한 수상보안사령부가 있는 청진항에 건설하게 됩니다.》
그곳 군항에는 어뢰정들, 소포정들, 소해함을 비롯한 전투함정들이 렬을 지어서 자기의 타를 잡아줄 주인들을 기다린다고 했다.
이건 정말 듣기만 해도 눈이 번쩍 트이고 온몸에 뜨거운 피가 설설 끓어넘치게 해주는 희소식이였다.
며칠후에는 평양학원을 졸업한 끌끌한 군관들이 내려왔다. 그들은 새로 편성하는 학부의 학부장 겸 중대장으로 임명되였다.
학부편성을 앞두고 학생들은 썰썰 끓어댔다.
채기정이 어디서 들었는지 구체적인 내막을 알려주었다.
《항해학부에서는 소해함과 경비함 그리고 어뢰정과 소포정의 함정장들을 양성한대요. 기관학부에서는 기관장들을 키워내고 함상포 및 해안포학부에선 포병장들과 해안포지휘관들을 키워낸대요. 난 기관학부에 가겠어요. 기관은 전투함정들의 심장이거던요.》
잔뜩 긴장해서 그 말을 듣던 고준무가 몹시 조급해서 물었다.
《여, 순양함 함장은 어느 학부에서 양성한대?》
코가 큼직하고 눈이 부리부리한 양판익이 대답했다.
《물어보기나새나. 그것두 항해학부에서 양성하겠지.》
고준무는 금이발을 반짝거리며 고수머리를 흔들었다.
《그럼 난 항해학부에 가겠어.》
고준무와 딱친구인 마진규도 덩달아 소리쳤다.
《나도 항해학부에 가겠어.》
두눈을 가느스름히 쪼프리고 무엇인가를 타산해보던 리대훈은 씩 웃으며 주먹을 휘저었다.
《난 함상포 및 해안포학부가 마음에 들어. 포는 전쟁의 신이란 말

이야.》
최정수가 도리머리를 저었다.
《아니, 바다에선 포보다도 어뢰나 폭뢰가 더 위력해. 난 어뢰정을 타겠어.》
리완근과 김도형도 어뢰정을 타겠다고 소리쳤다.
여태 침묵을 지키던 김군옥은 닭알침을 꿀꺽 삼키고나서 좀 주저하며 나직이 물었다.
《채동무, 항해학부안에 학과들이 있겠지? 어뢰정정장은 어느 학과에서 양성하나?》
《2소대가 어뢰정정장들을 양성하는 학과라고 하더군요.》
《그럼 1소대는?》
《거기선 소포정장들을 양성한대요. 함정장들은 높은 항해술을 소유함과 동시에 함상포에 정통하고 그 사용에 능란해야 한다는거예요. 그래서 소포정장양성소대를 1소대로 정했대요. 1소대장은 항해학부 부중대장을 겸임한대요.》
김군옥은 기어이 2소대에 가리라 마음먹었다.
채기정이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게 알려지자 너도나도 항해학부 2소대를 지망하는통에 학부편성이 소란스러워졌다.
어뢰정은 김군옥이만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의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였던것이다.
김광민교장은 정치부교장과 의논하던 끝에 제일 실력이 높은 학생들로 항해학부 2소대를 편성하겠다고 선포했다. 모두의 관심과 호기심이 집중된 속에서 평상시 시험성적을 종합한 결과가 발표되였다. 1등은 김군옥, 2등은 고준무, 3등은 리대훈이였다. 한개 소대에 몰아보내긴 아까운 대상들이다.
《이 동무들을 순위대로 1, 2, 3학부의 부중대장 겸 1소대장으로 임명하는게 어떻소?》
그게 좋겠다고 모두들 박수갈채로 찬성했다.
일이 별나게 번져지는통에 김군옥은 거의나 울상이 되여 하소연을 했다.
《제발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 저는 소대장이나 부소대장을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니 약속대로 항해학부 2소대에 꼭 보내주십시오.》

김광민교장은 못마땅해서 미간을 찡그렸다.

그는 군사지휘관들이 다 그러하듯이 자기가 일단 결정한 문제를 놓고 아래서 이러쿵저러쿵하는걸 달가와하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나 한백천은 군옥이가 어뢰정에 얼마나 반했는지 잘 아는지라 제꺽 지원포를 쏴주었다.

《본인의 요구대로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정철도 벙글서 웃으며 맞장구를 쳐주었다.

《1등을 한 학생에겐 선택의 권리가 있지요.》

김광민교장은 입을 다시고나서 어쩔수없이 동의했다.

《그렇게 하기요.》

그러자 불방석에라도 앉은듯 엉치를 들썩거리던 고준무가 벌떡 일어나 볼부은 소리를 내질렀다.

《저를 기관학부가 아니라 항해학부에 보내주십시오.》

한백천은 또 지원포를 쏘았다.

《저 동문 순양함함장이 되겠다고 하는데 본인의 요구대로 해줍시다.》

김광민교장은 정치부교장을 돌아보았다.

조정철은 잔뜩 긴장해서 자기를 지켜보는 고준무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2등을 한 학생에게도 선택의 권리를 주어야지요.》

김광민교장은 동의했다.

이리하여 청진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학부편성이 끝났다.

항해학부 부중대장 겸 1소대장으로 고준무가, 기관학부 부중대장 겸 1소대장으로 채기정이, 함상포 및 해안포학부 부중대장 겸 1소대장으로 리대훈이 정식 임명되였다.

항해학부 2소대장인 김군옥은 실습어뢰정대장이다. 그는 아직 어뢰정을 구경도 하지 못한채 정대장이 된 셈이였다. 하기에 그토록 바라마지않던 소원을 성취한듯 흡족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였다.

학생들과 교구비품들을 잔뜩 실은 경비함은 원산만을 빠져나가 북으로 배머리를 돌리고 장시간의 항해끝에 드디여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 군항에는 그들이 타고온 경비함보다 더 큰 함선들이 여러척이나

있었다. 그러나 김군옥에게는 한쪽 부두에 렬을 지어 계류한 다섯척의 어뢰정들만이 눈에 보일뿐이였다. 도면에서 보고 마음속으로 그려온 어뢰정들을 실물로 직접 보게 되니 너무도 반갑고 기뻐서 숨이 막힐 지경이였다.

김군옥이만이 아니였다.

경비함에서 내린 학생들모두가 갈증에 시달리던 끝에 샘을 만난듯 환성을 올리며 어뢰정부두로 달려갔다.

《섯!》

부두입구에 서있던 보초병이 세워총 하고있던 장총을 들어올리며 석쉼한 목소리로 엄하게 소리쳤다.

와와 소리치며 기슭으로 장쾌하게 밀려가던 파도가 앞을 가로막은 방파제에 부딪친듯 턱 멈춰섰던 학생들은 비실비실 뒤걸음쳤다.

보초병이 내드는 장총이 무서워서가 아니였다. 전투적용맹을 번뜩이는 어뢰정들의 모습앞에서 너나없이 위압되고 기가 질렸기때문이였다.

끄떡없이 뻗치고 서있는 학생은 김군옥이다.

부두보초는 약이 올라서 감때사납게 눈을 부라리며 귀청이 째지게 고함을 질렀다.

《여! 당장 물러가지 못하겠어?》

잔뜩 을러메는걸 보니 여차하면 한방 갈기거나 총창으로 찌르는것도 서슴지 않을것 같았다.

대체로 배심이 약한 친구들이 상대가 그것을 알아차릴세라 겉으로는 위세를 부리군 한다.

김군옥은 구면친구나 만난듯이 싱글벙글 웃으며 반죽좋게 나왔다.

《여 친구, 수고하는구만.

우리가 좀 가까이에 가서 어뢰정을 구경할수 없을가?》

보매 채기정이 또래가 분명한 보초병은 더 위세를 부리며 거만하게 턱을 추켜들었다.

《어뢰정은 누구에게나 함부로 보여줄수 없소. 썩 물러가오, 경치기 전에…》

《그러게 사정을 하는게 아니요. 참, 나는 해군군관학교 실습어뢰정대장 김군옥인데 동문 누구요?》

부두보초는 그 말을 선뜻 믿으려 하지 않았다.
《뭐라구?! 실습어뢰정대장이라는 사람이 아직 어뢰정을 구경도 하지 못했단 말이요?》
김군옥은 창피스러웠지만 그럴수록 더 어엿하게 처신했다.
《그렇소. 어뢰정을 구경했든 하지 못했든 내가 실습어뢰정대장인건 사실이요. 동문 누구요?》
그제서야 좀 믿음이 갔던지 부두보초는 정색해서 응대했다.
《난 해군기술원양성소 학생 박원협이요.》
《그런데 왜 여기서 보초를 서고있소?》
위엄을 느꼈던지 박원협은 슬며시 말투를 바꾸어 공손히 대답했다.
《우린 공부를 하면서 어뢰정대를 관리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어뢰정승무원이 돼야 하니까요. 전 실습갑판장입니다. 고사총수를 겸합니다.》
《나를 어뢰정으로 안내하오.》
《저… 조금 있다가 오십시오. 지금 해군대좌동지가 어뢰정을 돌아보는중입니다.》
이때 부두 안쪽에 계류한 어뢰정21호의 사령탑에서 흡사 땅크의 룩크처럼 생긴 망호루가 불쑥 열리더니 혈기왕성하고 위풍이 당당하게 생긴 해군대좌가 물속에서 솟구치듯 상반신을 내밀었다.
그가 익숙된 동작으로 날렵하게 갑판에 뛰여내리자 해병복차림의 중발머리처녀가 그자리에 나타났다.
아니?! 저게 누구야? 정인이가 아닌가?!
김군옥은 놀라도 이만저만 놀라지 않았다.
정인은 이 장소에서 군옥을 만난것이 조금도 놀랍지 않은듯, 마치 이런 상봉을 예견하고있기라도 한듯이 스스럼없이 마주보며 생글생글 웃었다.
김군옥은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내가 잘못 본게 아닐가? 하는 의심이 들어 다시 여겨보았지만 살랑살랑 불어오는 해풍에 중발머리를 날리며 사령탑에 의젓하게 서있는 처녀는 자기에게 어뢰정을 수놓은 담배쌈지를 주고 떠나간 정인이가 분명했다.
눈이 류별나게 큰 처녀, 호수처럼 깊고 그윽해보이는 눈에서 노상 미소가 흘러나오는 처녀, 어뢰정의 전투적인 용모와 꽃처럼 아름답

고 싱싱한 처녀의 모습이 신기하게도 조화를 이루었다. 자기는 감히 접근조차 할수 없는 어뢰정의 사령탑에 서있기에 정인이는 더 담차고 어여쁘게 안겨오는것이였다. 앞으로 함장을 뛰여넘어 함대사령관이 되겠다던 그 처녀의 욕망도 노상 막연하거나 허황한것 같지 않았다.

정인은 살며시 갑판에 내려서더니 대좌의 곁으로 스스럼없이 다가가 뭐라고 귀속말로 속삭이였다. 미간을 잔뜩 찌프리고 군옥을 엄하게 주시하던 대좌의 얼굴에 반기는 기색이 헨둥하게 어렸다.

《동무, 이리 오게.》

대좌의 부름을 받은 김군옥은 얼른 자세를 바로잡고 보초소를 통과하여 씩씩하게 걸어갔다.

어뢰정의 현측옆에 멈춰선 그는 패기있게 거수경례를 했다.

《대좌동지! 해군군관학교 항해학부 2소대장 김군옥 명령대로 왔습니다.》

대좌는 둥싯한 아래턱을 손으로 어루쓸며 벙그레 미소를 지었는데 좀전의 엄하던 인상과는 달리 인심좋은 아바이처럼 무던하고 푸수해 보였다.

그래서인지 낯익은감이 들었다.

《항해학부 2소대장이라?! 음, 그럼 동무가 실습정대장이겠군.》

여느 군관도 아닌 대좌가 자기를 알아보니 김군옥은 흐뭇하기에 이를데 없었다.

《그렇습니다!》

《반갑소. 난 동무들이 오기를 기다리던 참이요.》

김군옥은 이제야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대좌는 수상보안간부학교 개교식에 왔던 김정인의 아저씨가 분명했다. 당시 상좌견장을 단 보위색군관복차림을 했던 그가 지금은 대좌견장을 단 해군군관복차림을 하고있으니 인차 알아볼수 없었던것이다.

대좌는 위풍당당한 체구에 걸맞는 걸걸한 목소리로 간단명료하게 자기소개를 했다.

《난 원산기지장 홍동철이요.》

김군옥은 어리둥절해졌다.

《원산에 해군기지가 있습니까? 우린 보지 못했는데…》

《아직은 없소. 그러나 곧 생겨나게 될거요.
동무네 학교가 있던 그곳에 말이요.》
멀찌감치 물러나있는 다른 학생들을 얼핏 돌아본 홍동철은 다시금 엄해진 눈초리로 김군옥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깐깐히 훑어보았다.
《어뢰정을 처음 본다지?》
《예.》
《그런데두 실습정대장이라?》
홍동철은 맹랑한듯 입귀를 실룩거렸다.
《그럼 어디 어뢰정에 대하여 아는껏 말해보오.》
그런즉 실습정대장으로서의 김군옥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는셈이였다.
정인은 사뭇 긴장해진 눈빛으로 군옥을 주시했다. 군옥은 그 눈길에서 고무를 받으며 가슴을 내밀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게뻬아찌〉형어뢰정은 주로 연안을 순찰하면서 령해에 접근하는 적 대형함선들을 어뢰로 타격소멸하는 위력한 전투함선이다.》
계속하여 그는 어뢰정의 제원까지 토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히 말했다.
잔뜩 긴장해있던 정인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소리없이 활짝 웃었다.
홍동철은 여전히 엄한 기색으로 물었다.
《어뢰무게는?》
《1.7톤입니다.》
《직경은?》
《53센치메터입니다.》
《틀렸소. 정확히는 533.4미리메터요.》
《명심하겠습니다!》
《장약의 무게는?》
《400키로그람입니다.》
《물조종깊이는?》
《7.5메터입니다.》
별로 막히는데가 없었다.
홍동철은 그제서야 미간을 쭉 펴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보지도 못한 어뢰정에 대하여 그만큼 알고있으니 괜찮군. 왜 그러고 서있나? 어서 갑판에 올라오라구.》
김군옥은 파도치듯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조심스레 어뢰정갑판에 올라섰다.
오로지 이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려왔던 그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저 생각같아서는 당장 갑판에 두팔을 벌리고 어푸러져서 사랑하는 어뢰정을 통채로 그러안고 볼을 비비고싶었다.
홍동철은 첫눈에 마음에 들고 믿음이 가는 젊은이의 억센 어깨를 꽉 잡고 물었다.
《몇살이요?》
《스무살입니다.》
《새파랗게 젊었구만. 어디 함께 생활해보기요.
어뢰정장반 실습은 당분간 내가 담당하겠소.》
《야! 많이 배워주십시오!》
김군옥이 기뻐서 어쩔바를 몰라하는데 직일병완장을 낀 애젊은 해병이 헐떡거리며 달려왔다. 얼굴색이 발기우리하고 솜털이 보르르한 그는 꼭 무르익은 햇복숭아를 련상시켰다. 그는 턱 멈춰서더니 절도있게 거수경례를 했다.
《대좌동지, 실습기관총수 강순봉 만날수 있습니까?》
홍동철은 그를 돌아보며 너그럽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수상보안사령부에 빨리 오시랍니다.》
《알겠소.》
《돌아가겠습니다.》
강순봉은 역시 절도있게 거수경례를 하고 돌아섰다.
《실습정대장동무, 그럼 어뢰정을 마음껏 돌아보라구.》
홍동철은 갑판에 나란히 선 김군옥과 처제를 흡족한 눈길로 바라보더니 부두에 내렸다.
정인은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김군옥은 오래간만에 만난 김정인이 앞에서 왜서인지 주눅이 들어 얼굴까지 붉혔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그런데…》

정인은 어색하게 경어를 쓰면서 여느때의 그답지 않게 우물쭈물하는 상대방을 흥미있는 눈길로 여겨보았다.

《그런데 어쨌다는거예요?》

군옥은 자기들을 지켜보는 동무들의 호기심과 부러움에 찬 눈길을 느끼며 더 얼굴이 벌개져서 헛기침을 했다.

《그런데… 거기선 어떻게 돼서 여기에 왔습니까?》

김군옥이 계속 어색하게 이런투로 나오자 정인은 더 참지 못하고 깔깔 소리내여 웃었다.

《동무두 참, 뭘 선생님앞에 나선 학생처럼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하면서 쭐나게 그래요?》

김군옥도 제풀에 어이가 없어 허허 웃었다.

《난 수상보안사령부 군의소에 실습을 나왔어요.

방금전에 원산기지장동지와 나는 어뢰정승무원들에 대한 해상에서의 군의보장대책을 의논하던중이였지요.》

《기지장동지야 동무의 아저씨가 아니요.》

정인은 곱게 눈을 흘겼다.

《실습을 나왔으니 나도 아저씨를 기지장동지라고 불러야지요. 참, 그곳을 떠나오기 서운하지 않았어요?》

《왜 서운하지 않겠소. 거긴 정말 경치가 좋고 해산물도 많은 곳이지. 수상보안간부학교시절도 잊을수 없소.》

《너무 서운해마세요. 기지장동지가 그러는데 동무들이 해군군관학교를 졸업하면 여기에 있는 전투함정들을 몰고 원산해군기지에 가게 된대요.》

김군옥은 바람맞은 돛처럼 가슴이 막 부풀어올랐다.

드디여 해군함대창설은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들어섰구나! 이날이 오기를 내 얼마나 기다렸던가. 기다려다오, 원산기지여, 머지않아 우리는 전투함정들을 몰고 배고동높이 울리며 정다운 그대 품으로 돌아가리.

시조차 한수 읊고싶은데 갑자기 부두에서 법석 떠드는 소리가 났다.

기지장이 자리를 뜬 기회를 타서 용기를 내여 어뢰정으로 우르르 몰려오던 다른 학생들이 보초병에게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웠던것이다.

《동무! 우린 해군군관학교 학생들이요!》

《우린 여기서 해상실습을 하게 되였단 말이요.》
모욕이라도 당한듯이 누구보다 약이 올라서 고아대는건 고준무였다. 그는 어뢰정갑판우에 함흥의전의 꽃으로 불리우던 정인이와 나란히 서있는 김군옥을 가리키며 보초병에게 결고들었다.
《여! 어째서 저 친구는 통과시키고 우리는 막는거야? 우린 다 해군군관학교 학생들이야.》
키는 꺽뚜룩하지만 버쩍 말라서 마른 명태처럼 보이는 부두보초는 고준무의 항의에 한풀 죽어서 주저주저 변명하듯 대꾸했다.
《저 동무는… 실습어뢰정대장이라기에 통과시켰소. 그게 뭐 잘못됐소?》
실습어뢰정대장이 어뢰정에 오르는건 당연한거다.
말문이 막힌 고준무는 쓰거워서 입만 실룩거렸다. 뒤에 있던 김도형이 고준무를 밀어제끼고 당당히 한걸음 나서며 위엄있게 소리쳤다.
《보초병동무! 난 실습어뢰정장이요.》
보초병은 미타한듯 고개를 기웃거렸다.
《그게 정말이요?》
《여보! 그런 거짓말도 하는가?》
곁에 있던 리완근이도 가슴을 쑥 내밀며 당당히 웨쳤다.
《나도 정장이요, 우린 저 어뢰정들의 주인이란 말이요.》
난처하게 된 부두보초는 두눈만 껌벅거리다가 어쩌면 좋은가고 묻는 눈길로 김군옥을 흘끔 바라보았다.
김군옥은 방금전에 원산기지장이 그랬던것처럼 짜장 엄숙한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여주었다.
부두보초는 좀 망설이다가 가로막았던 장총을 수직으로 들어올리며 마지못해 승낙을 했다.
《그럼 실습어뢰정장들만 통과하시오.》
김도형과 리완근을 비롯한 항해학부 2소대 학생들은 의기양양해서 보란듯이 활개를 치며 보초소를 지나 어뢰정갑판에 껑충껑충 뛰여올랐다. 어뢰정도 반갑다는듯이 기우뚱 기우뚱 춤을 추었다.
마치도 어머니가 귀여운 자식들을 한품에 안고 둥기둥기 팔그네를 태워주는것 같았다.
부러움에 찬 눈길로 그들을 지켜보던 고준무는 어험! 하고 헛기침

을 하고나서 으시대며 자기를 소개했다.

《에— 보초병동무, 나는 실습소포정대장이요.》

보초병은 다시 장총으로 앞을 가로막은채 끄떡도 하지 않았다.

고준무는 바싹 약이 올라서 금이발을 번뜩거리며 고아댔다.

《들었소, 먹었소? 난 실습소포정대장이란 말이야!》

부두보초는 잘은 논다는 식으로 픽 웃었다.

《여긴 어뢰정부두요. 큰소리를 치겠으면 소포정부두에 가서 치라구.》

더 어쩔수 없게 된 고준무는 어뢰정갑판우에서 재수없이 생글생글 웃고있는 함흥의전의 꽃을 결고들었다.

《여! 녀학생은 어뢰정에 올라도 되고 우린 안된다는거야?》

《저 처녀동문 어뢰정승무원들에 대한 군의보장실습을 나왔소.》

고준무는 메사해서 입을 쩝쩝 다시며 돌아서더니 뒤미처 제 할바가 생각났던지 별안간 기세를 돋구며 벼락치듯 웨쳤다.

《실습소포정장들은 날따라 구보로!》

1소대는 고준무를 따라 소포정들이 계류한 부두로 달려갔다.

《실습소해함장들은 날따라 구보로!》

3소대는 소해함들이 있는 부두로 달려가는데 리대훈이가 보초병에게 큰소리로 물었다.

《해안포는 어디에 있소? 어디에 있냐 말이야?》

《저… 저기에…》

늦가을에 젊은 주인들을 맞이한 군항은 고대하던 봄을 이제야 맞은듯 생신한 모습으로 급기야 약동하기 시작했다.

9

외진 포구에서 그동안 착실히 깃을 다듬어온 젊은 갈매기들은 드디여 드넓은 수평선을 향하여 일제히 나래쳐올랐다.

함선생활에 익숙하고 무기전투기술기재에 정통하며 사나운 바다를 정복하는 힘겨우나 보람찬 나날속에 한해가 어뢰정이 고속으로 내달리듯 지나갔다.
8월 28일.
여느 사람들에게는 그저 례사로운 계절의 평범한 하루에 불과한 이날을 해군군관학교 학생들은 각별한 흥분과 격동속에 맞이하였다.
오늘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함대출항식을 하게 된다.
장차 인민해군력사에 대문자로 아로새겨질 출항식에 참가하는 합선구분대 지휘관들은 모두 해군군관학교 제1기 졸업을 사흘 앞둔 학생들이였다. 바로 여기에 그들이 각별히 흥분되고 격동된 까닭이 있었다. 이날 아침 김군옥이 난생처음 면도를 하다가 아차 실수하여 턱을 약간 베고 피를 몇방울 흘린것도 그때문이였다.
함선호각소리가 울리자 산뜻한 흰 웃옷에 나팔바지를 입은 해군군관학교 학생들과 해군기술원양성소를 나온 해병들은 각기 자기 함선의 선수갑판에 정렬하였다.
오늘부터 상학준비검열시간에 잠정적으로 실시하는 함선규정에 따라 국기를 올리는 의식을 진행하게 된다. 오늘은 출항식날이라 국기와 함께 장식기까지 올리게 되여 명절분위기였다.
《정 차렷! 국기와 장식기 올렷!》
소포정11호에서 선참으로 직일관의 구령과 함선호각소리가 울리자 부두에 질서정연하게 계류한 모든 함선들에서도 구령소리와 함선호각소리가 잇달아 일제히 울려퍼졌다.
함정들의 마스트와 선수선미기대를 련결한 장식기가 천천히 오르면서 해풍에 춤을 추었다. 선미기대에는 람홍색공화국기가 올랐다.
어뢰정21호의 선수갑판 맨 우측에 선 김군옥은 공화국기를 우러러 정중히 거수경례를 했다.
볼수록 아름다운 우리 나라 기발이다. 새삼스레 여겨보니 각종 색갈과 문양이 다 있는 장식기에도 공화국기처럼 선명하고 아름다운 기발이 없었다. 작년 가을, 갓 창건을 선포한 내 조국의 그 어디서나 자랑차게 나붓기기 시작한 우리 삼색기는 오늘부터 우리 령해에도 위엄있게 휘날리게 된다.
이글이글 불타는 태양이 수평선우에로 높이 솟아올랐다. 찬란한 해

빛은 쥐색에나멜을 칠한 전투함정들의 선체에 부딪쳐 눈부시게 반사되였다. 마치도 전투함정들은 날이 선 장검처럼 번쩍번쩍 빛을 뿌리는것 같았다.

누구보다 흥분하고 긴장된 사람은 함대출항식을 주관해야 할 홍동철기지장이였다.

당시 동서해에 해군기지가 각각 하나씩 있었다.

그러니 원산해군기지장은 동해함대사령관인셈이였다.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부두입구와 손목시계를 번갈아보던 그는 별안간 두눈을 번쩍이더니 군항이 쩌렁쩌렁 울리게 구령을 쳤다.

《함대 차렷!》

순간 군항엔 숭엄한 정적이 깃들었다.

출렁이던 바다도 일순 숨을 죽인듯싶었다.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소리없이 달려와 부두입구에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자 눈부신 빛이 쏟아져나왔다. 너무도 강렬한 그 빛으로 하여 하늘의 태양이 무색해졌다.

위대한 령장의 미소는 그처럼 밝고 자애로웠다.

김군옥은 갑자기 눈앞이 뿌잇해졌다.

가슴속에서 파도치던 격정과 흥분이 일시에 솟구쳐올라 눈시울을 적시며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아! 망국노의 설음을 안고 이국땅을 정처없이 헤매일 때 희망을 안겨주고 새힘을 안겨주던 그 이름 **김일성**장군님, 신출귀몰한 전법으로 일제의 백만관동군을 혼비백산케 하신 전설적인 영웅 그이께서 오셨구나!

홍동철기지장이 씩씩하게 영접보고를 드렸다.

이어 우렁우렁한 음성이 마치 우뢰소리처럼 하늘과 바다를 뒤흔들며 장엄하게 울렸다.

《력사적인 함대출항식에 참가한 동무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만세! 만세!》

만세를 목청껏 부르는 김군옥은 쇠물같이 뜨거운 눈물을 좔좔 흘리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지금껏 체험해보지 못한 비상하고 신비로운 황홀경에 잠겨 자

신마저 홀연 잊어버렸던것이다. 맑게 개인 군항의 하늘로 흰 갈매기들이 나래쳐올라 춤을 추었다. 해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는 파도도 격정에 못이겨 소리치며 밀려와 부두에 부딪쳐 꽃보라처럼 물보라를 날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병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손저어 답례를 보내시며 부두에 렬을 지어 계류한 전투함정들앞을 천천히 지나가시였다.

200톤급소해정 3척, 45톤급소포정 3척, 17톤급어뢰정 5척, 그리고 몇척의 경비함과 소해함들…

아쉽게도 이것이 전부였다.

이것이 갓 창설된 조선해군함대의 주력이였다.

전투함정들은 너무도 작았고 그나마도 다 합쳐야 열댓척에 불과했다.

하지만 **김일성**동지께서는 매우 만족하시였다.

나라가 해방된지 4년이 되여서야 우리 해군은 드디여 자기의 면모를 갖추고 함대출항식을 거행하게 된다.

해군창설, 이것은 갓 해방된 조국에 있어서 너무도 아름찬 과제였다.

해방직후엔 국고를 다 털어도, 한해국가예산을 다 들이밀어도 어뢰정 한척 장만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즉시에 밀고나가면서도 해군창설에는 당장 손을 댈수 없어 그이께선 몹시 안타까우시였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고 저축이 되면 그것을 해군창설과 관련되는 사업에 아낌없이 돌리시였다. 그야말로 돈을 쏟아붓다싶이 하면서 한척한척의 군함과 장비들을 마련했고 해군지휘관들과 전문병들을 양성했다. 그렇게 군항들을 보수했고 해군기지를 꾸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깊은 감회에 잠기신 눈길로 수행원들을 돌아보시였다.

《동무들, 감상이 어떻습니까?》

김책이 애써 흥분을 누르며 갈린 소리로 말씀드렸다.

《장군님, 이젠… 이젠 됐습니다.》

김책의 뒤에 서있던 민족보위상 최용건과 다른 일군들도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말없이 동감을 표시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시 해군함정들을 둘러보시며 크게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그렇소! 이제야 됐소.》

발동선에 중기를 설치하고 해상순찰을 하던 수상보안대가 이처럼 어뢰정을 비롯한 전투함정들을 갖춘 해군함대로 강화됨으로써 조선인민군은 오늘에 와서야 모든 군종과 병종을 다 가진 현대적인 정규무력으로 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투함정들의 갑판에 정렬해있는 해병들을 한사람한사람 깊은 애정을 담아 여겨보시였다.

모두 스무살안팎의 새파란 젊은이들인데 산뜻한 해병복을 입어서인지 더 젊고 혈기왕성하면서도 씩씩하고 단정해보였다. 과연 모두 미남들이다.

《음, 모두 끌끌하구만.》

홍동철기지장이 실습정대장들과 정장, 기관장들은 해군군관학교 제1기 졸업반학생들이고 승무원들은 해군기술양성소를 갓 나온 동무들이라고 말씀드렸다.

《이 동무들이 학업을 시작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김광민교장이 1년반이라고 말씀드렸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해군지휘관양성이 적어도 5년은 걸려야 한다는데 우린 1년반에 양성했으니 기적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동안 동무들이 정말 수고했습니다.》

과분한 치하에 김광민교장은 몸둘바를 몰라했다.

《저희들은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장군님께서 우리 학교에 항일투사동지와 평양학원졸업생들을 파견하시여 교육방법과 내용을 바로잡아주시고 해상실습조건도 보장해주셨기때문에 학생들은 짧은 기간에 해군지휘관들로 자라날수 있었습니다.》

그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치부교장을 돌아보았다.

조정철은 오래간만에 아버지를 만난 어린애마냥 순진하고 행복에 겨

운 미소를 지은채 한쪽옆에 겸손하게 서있었다.
그는 어떤 어려운 일도 서슴없이 맡아서 해내지만 일을 끝낸 후 평가를 받는 마당에서는 이처럼 다른 일군들을 앞에 내세우군 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자신처럼 믿고 사랑해오시는 전사를 고마움이 담긴 눈길로 바라보시였다.
《동무들이 패배주의에 빠져서 학생들을 류학보낼 생각이나 하고 순양함타령이나 계속했더라면 해군함대창설은 오늘까지도 그저 소원으로 남아있었을것입니다.
동무들이 제때에 정신을 차리고 분발하기를 잘했습니다.
그래 교육을 해보니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모두 머리가 비상하고 배우려는 열의가 높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드렸다.
《그럴겁니다. 조선사람들은 원래 총명합니다.
특히 해방된 조선의 청년들은 다시는 망국노가 되지 않으려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과 자각을 가지고있으며 그러자면 배워야 한다는 불타는 열의를 안고있습니다.
평양학원이나 보안간부훈련소에 가보아도 모두들 열성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해방직후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렵지만 이런 청년들을 믿고 정규무력건설이라는 방대하고 힘겨운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애쓴 보람이 있습니다. 나는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손에 총을 잡던 나날에 바로 오늘을 그려보았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격정과 환희에 넘치시여 한손을 번쩍 들어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을 가리키시였다.
《저 하늘에선 우리 비행기가 날고 바다엔 이렇게 우리 군함이 떠있고 땅에선 우리 땅크와 포차들이 씽씽 내달리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했단 말입니다.
그 소원을 오늘에야 완전히 성취하였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지장의 안내를 받으시며 먼저 소해함갑판에 오르시였다.
김군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뢰정대에 오실 시각만을 애타게 기다리고있었다.

소해정들을 돌아보시고 소포정대에 들리셨던 **김일성**동지께서는 활달하신 걸음으로 어뢰정들이 횡대를 지어 계류한 부두끝으로 다가가시였다.

김군옥은 거수경례를 하며 힘차게 보고드렸다.

《실습어뢰정대장 김군옥.》

김일성동지께서는 구면친구라도 만나신듯 몹시 반가와하시였다.

《동무에 대한 말은 이미전에 들었는데 오늘에야 만나보게 되는구만.》

《?!》

김군옥은 너무도 놀라와 내가 혹시 잘못 듣지나 않았는지 하고 자기의 귀를 의심할 지경이였다.

《나는 동무가 서해수상보안대에 있을 때 전마선에 오토바이기관을 설치하고 해상경비근무를 수행했다는 말을 이미 들은적이 있소.》

김일성동지께서는 수행원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였다.

《어제날엔 전마선을 타던 동무가 오늘은 이처럼 어뢰정대를 지휘하게 되였으니 얼마나 장합니까.》

너무도 분에 넘친 말씀에 김군옥은 눈굽이 저리게 고맙고 한편 송구스러워서 미처 감사의 인사도 올리지 못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총명하고 단정하면서도 강기있게 생긴 그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다가 약간 놀라운 기색을 지으시였다.

《턱에 상처가 생겼구만.》

김군옥은 얼굴을 붉히며 손으로 얼른 턱을 감싸쥐였다.

《오늘 아침 면도를 처음 해보다나니 서툴러서 그만…》

김일성동지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나이가 몇인가고 물으시였다.

《스물한살입니다.》

《젊어서 좋구만.》

그이께서는 한결같이 키꼴이 쑥 빠지고 젊음이 차넘치며 혈기왕성한 승무원들을 바라보시며 대견하게 뇌이시였다.

《모두 젊고 건강하구만. 어디 동무들이 타는 어뢰정을 구경해보기요.》

김일성동지께서는 정대장의 설명을 들으시며 갑판에 있는 전투초소들을 돌아보시고 배기름냄새가 풍기는 기관실안에까지 몸소 들어

가시였다.
《기관이 몇마력이요?》
《800마력입니다.》
《수명은?》
《300시간인데 이미 150시간이상이나 사용한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사용시간은 150시간이 못된다.
《정대장동무, 동해조선소에서는 채정보부교장동무가 로동자들과 합심하여 경비함을 건조해냈소.
우린 앞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어뢰정도 만들고 고속기관도 만들어내자는거요. 하지만 몇해안으로는 그럴수 없소. 그러니 어뢰정기관을 자기의 심장처럼 아끼고 사랑하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게 간곡히 당부하시고 무전실을 거쳐 사령탑에로 오르시였다.
《어뢰정이 신통히 비행기처럼 생겼구만.
기지장동무, 이 동무들에게 식사를 어떻게 보장해줍니까? 여기 내각부수상과 민족보위상동무도 있으니 애로가 있으면 다 제기하시오.》
홍동철은 고기류와 빠다가 걸린다고 솔직히 말씀드렸다. 김책이 자못 난처해했다.
《장군님, 고기류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적으로 공급해주겠습니다. 그런데 빠다는 국내에서 생산하는데가 없어서 곤난합니다.》
《그렇다면 수입을 해서라도 공급해줍시다.》
《예?!》
김책은 물론 동행한 일군들과 그 문제를 제기한 홍동철기지장까지 놀랐다.
그도 그럴것이, 나라에 무슨 외화가 그리도 많아서 빠다까지 수입해온단 말인가? 그럴 돈이 있으면 군함 한척이나 어뢰 한발을 더 장만해야 했다.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해군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군함이나 무기전투기술기재가 아니라 해병들입니다. 그들의 건강이 첫째입니다. 파도가 세차고 습기가 많은 바다우에서 생활하는게 헐치 않습니다. 때문에 해병들에게는 습기와 찬바람을 막을수 있게 모직으로 군복을 해입히고 영양가

가 높은 식사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빠다가 바로 영양가가 높고 비타민이 많으며 몸을 덥게 해주는 항해용식품입니다.
당분간은 수입을 하고 앞으로는 우리도 빠다와 치즈를 생산해서 해병들과 비행사들에게 떨구지 말고 공급해주어야 하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젊은 정대장에게 담배를 피우는가고 물으시였다.
김군옥은 얼굴을 붉히며 미처 대답을 올리지 못했다.
《담배를 즐기는 모양이구만. 어떤 담배를 피우는지 보여주시오.》
김군옥은 망설이다가 담배쌈지를 꺼내드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담배쌈지를 펴시다가 푸른 공단에 흰 실로 유표하게 수놓은 어뢰정을 보시고 정겨운 미소를 지으시였다.
《담배쌈지에까지 어뢰정을 수놓은걸 보니 어뢰정을 몹시 사랑하는 모양이구만. 이건 누구 솜씨요?》
《저…》
김군옥은 수줍음을 타는 처녀처럼 얼굴을 붉히였다.
《그건 수상보안간부학교에 입학하러 왔던 처녀동무가 작별기념으로 만들어준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저으기 놀라와하시였다.
《수상보안간부학교에 처녀가 입학하려고 찾아왔댔단 말이지. 거 정말 보통처녀가 아니로구만. 그 처녀가 지금 어디에 있소?》
《함흥의학전문학교에 다니는데 졸업하면 꼭 해군에 입대하여 어뢰정을 타겠다고 합니다.》
곁에 있던 조정철이 그 처녀가 홍동철기지장의 처제라고 덧붙여 말씀드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그 처녀가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면 소원대로 해군에 입대시키는것이 좋겠습니다.》
김군옥은 이 영광의 자리에 정인이도 함께 있는것만 같아서 기쁘기 이를데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쌈지에서 써레기를 조금 집어 냄새를 맡아보시였다.
《함선승무원들에게는 가치담배를 공급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보

시오, 이 동무들의 손은 늘 바다물에 젖어있거나 배기름이 묻어있어 마라초를 말기가 말쨀거란 말입니다.
정대장동무, 그렇지 않소?》
김군옥은 다시 얼굴을 붉혔다.
《예, 그렇습니다. 손이 젖어있다나니 담배말지가 자꾸만 찢어져 애를 먹습니다.》
《항해를 할 때는 바람이 세차서 담배를 말수 없겠지?》
《예, 그래서 해도실안에 들어가 담배를 말아 불까지 붙여가지고 나오군 합니다.》
《허, 그러다간 배가 암초에 부딪치겠소.》
동행한 일군들이 소리없이 웃었다.
친어버이심정으로 해병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헤아려보시고 즉석에서 다 풀어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 출항식은 참으로 뜻이 깊은데 자신께서도 어뢰정을 타고 바다에 나가보시겠다고 하시였다.
이 순간이 오기만을 내심 기다리던 김군옥은 즉시 출항준비구령을 내렸다. 부두에 정렬해있던 정대원들은 정대장의 구령을 일제히 큰소리로 복창하며 비호처럼 어뢰정갑판에 뛰여올라 각기 자기의 전투초소를 차지하고 출항준비를 불이 번쩍나게 해치웠다. 먼저 보조기관들이 고르로운 소리를 내며 돌아가면서 각 전투초소들에 전원을 공급하더니 뒤이어 주기관을 시동하는 요란한 폭음이 스르릉― 쾅! 쾅! 련이어 울려퍼졌다.
군항의 분위기가 돌변했다. 참하게 정박해있던 어뢰정들은 출발선에 나선 준마들처럼 흥분하여 별안간 선체를 푸들푸들 떨면서 중갑판을 거쳐 선미로 길게 뻗어나간 배기관으로 흰연기를 경쟁적으로 내뿜었다. 어뢰정 다섯척이 내뿜는 연기가 어찌도 요란한지 마치 부두엔 화재라도 난듯싶었다. 배기름이 탄 연기냄새는 몹시도 지독해서 눈이 쓰렸고 숨이 턱턱 막혔다.
멀미를 심하게 하는 약골들은 이 연기만 맡아도 당장 속이 뒤집혀져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토하게 되는것이였다.
김군옥은 항해준비를 지휘하면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신변안전이 걱정되여 마음을 놓을수 없었다. 장군님께서는 역한 연기속에서도 대견

한 미소를 지으시고 해병들의 동작을 지켜보고계시였다. 갑판장이 그이께 항해복과 항해모를 드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해복을 입고 항해모를 쓰시더니 역한 연기를 맡지 않으려고 손으로 코와 입을 싸쥐고 눈까지 질끈 감고있는 수행원들에게 큰소리로 말씀하시였다.

《동무들도 어서 항해복을 입으시오!》

홍동철기지장이 출항준비가 끝났다고 보고드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에게 어뢰정들이 다 출항하는가고 물으시였다.

《예, 다섯척이 다 출항하는데 어뢰발사는 기정인 21호가 하게 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뢰정들의 고속기관수명이 150시간이상이나 지났다고 하던 정대장의 보고를 상기하시였다.

《어뢰정기관을 아껴야 합니다. 21호정만 출항하도록 합시다.》

그이의 지시대로 다른 어뢰정들은 즉시 기관을 세웠다.

어뢰정21호가 먼저 출항하였다.

김군옥은 몹시 흥분했지만 한편 섭섭한감도 없지 않았다. 인민해군력사에 특기할 출항식이지만 부두엔 환영군중이 없었고 군악도 울리지 않았기때문이였다. 너무도 소박한 출항식이였다. 장식기를 거둔 어뢰정21호의 마스트에는 공화국기와 출항을 알리는 신호기들이 올라 불어치는 해풍에 홰불처럼 펄펄 나붓겼다. 어뢰정21호의 뒤를 소포정대와 소해정대가 꼬리를 물고 따라섰다.

미속으로 유유히 방파제를 에돈 어뢰정은 고삐를 당긴 준마처럼 배머리를 번쩍 추켜들고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장검인양 날이 선 배머리는 넘실넘실 밀려오는 파도의 정수리를 쩡쩡 내려치며 내달렸다. 산산쪼각난 파도가 물보라로 뽀얗게 날리며 갑판과 사령탑을 휩쓸었다. 중갑판에서 보호손잡이를 꽉 틀어쥐고 서있는 수행원들은 물론이고 사령탑에 서있는 김군옥이도 순간에 물참봉이 되였다.

김군옥은 곁에 서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로 날아드는 물보라를 막아드리려고 애를 썼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날아드는 물보라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숨막힐듯 불어치는 세찬 해풍을 시원히 호흡하시며 못내 만족하여 말씀하시였다.

《좋소! 아주 좋소! 정대장동무, 속도를 더 올리시오. 내 걱정은 하

지 말고 최대로 올리시오.》

《알았습니다! 전속으로!》

정대장의 명령을 받은 채기정은 전령기의 손잡이를 최대위치에 놓으며 복창했다.

《전속으로!》

최대회전수로 올리는 기관소리는 마치 성난 호랑이가 울부짖는것만 같았다.

따웅! 따웅!

요란한 동음과 함께 어뢰정은 그야말로 쏜살같이 내달리는데 파도를 헤친다기보다는 파도우에로 나래쳐가는듯싶었다. 선수에서 량쪽으로 갈라져 폭풍치듯 뒤로 흩날리는 하얀 물보라가 대공을 가르며 세차게 퍼덕이는 새의 날개처럼 보였다. 선미에서는 두개의 추진기가 련속 힘껏 차올리는 물기둥이 쌍분수처럼 뿜어오른다. 커다란 장검처럼 수면을 찢어놓으며 어뢰정이 달려간 자리에서는 넓다란 폭을 이루며 바다물이 설설 끓어번지는데 마치도 씩씩한 열병대오가 따라선것만 같았다.

폭발적인 질주가 안겨주는 쾌감과 환희가 모두의 전신을 휩쓸었다.

《아!》

탄성이 절로 터져나갔다.

《대단해! 정말 빠르구만. 어뢰정은 바다의 비행기요!》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신에게로 날아드는 물보라를 막아드리려고 사령탑앞으로 상반신을 쑥 내밀고있는 젊은 정대장의 어깨를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시며 큰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정대장동무! 됐소, 이젠 속도를 떨구시오.》

김군옥은 젊은 혈기라 몸이 달대로 달아올라서 이제 당장 눈앞에 적구축함이나 순양함이 나타나지 않는게 유감스러울 지경이였다. 이왕이면 어뢰정을 돌격침로에 진입시키고 어뢰를 발사하여 적함을 단방에 명중하여 침몰시키는 통쾌한 장면을 위대한 장군님께 보여드리고싶었다. 그 심정을 담아 말씀드렸다.

《장군님, 이제 어뢰발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신중한 안색으로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

몇달전에 그이께 어뢰정대에 장비할 어뢰와 어뢰조종설비를 사오기

위한 문건이 올라왔다. 흔히 포탄 한발값이 황소 한마리값이라고 하는데 어뢰값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비쌌다. 어뢰 한발을 사올 돈으로는 온 나라 로동자들에게 작업복을 한벌씩 해입힐수 있었다. 손이 떨려 선뜻 수표를 할수 없으시였다.

어뢰정도 아니고 어뢰 한발값이 이럴진대 해군함대를 꾸리는 사업에 드는 자금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수자였다. 그래도 해군함대는 꾸려야 했다. 그래야 작년 2월초에 정규적인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된 우리 인민군대가 군종, 병종을 다 갖출수 있었다.

그이께서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다가 용단을 내려 그 문건에 수표를 하시였던것이다.

《어뢰는 값이 너무 비싸거던.》

《장군님, 장약하지 않은 어뢰는 발사후 회수하여 다시 사용할수 있습니다.》

《어뢰에 설치한 기관도 어뢰정기관처럼 사용시간이 제한되여있잖소, 그렇지?》

김군옥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뢰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속속들이 알고계실줄은 미처 몰랐던것이다.

《예, 재발사는 두번밖에 할수 없습니다.》

김책과 최용건은 난생처음 어뢰정을 타고 바다에 나와서 기분이 한껏 뜬 상태라 이왕이면 어뢰발사장면까지 보았으면 하는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시였다.

《정대장동무, 어뢰발사훈련은 앞으로 꼭 필요한 때에 하도록 하시오. 오늘은 아쉽지만 어뢰발사는 그만두고 소포정들의 포실탄사격과 소해정들의 폭뢰투하장면을 보도록 합시다.》

어뢰정은 곧 속도를 떨구고 배머리를 돌렸다.

어뢰정을 따라오던 소포정대는 홍동철기지장의 무선전화지휘에 따라 공격대형을 짓고 적함으로 선정한 부표에 포사격을 시작했다. 뒤이어 소해정들이 빠른 속도로 내달리며 일정한 간격을 두고 폭뢰를 떨구었다. 포성과 폭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포실탄사격과 폭뢰투하가 끝나자 바다엔 고요가 깃들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상반신을 돌리시고 선미갑판의 좌우에 나란히 적재한 두발의 어뢰를 대견하게 바라보시였다.

《정대장동무, 이렇게 어뢰정을 타고 바다에 나오니 신심이 생기고 기분도 아주 좋구만. 동무들이 높은 공격정신을 지니고 기묘하고 령활한 전법을 쓰면 이 좋은 어뢰정을 가지고 큰 적함도 얼마든지 까부실수 있겠소.》

그이께서는 이처럼 정대장과 어뢰정대원들을 고무해주시며 저 멀리 남쪽해상으로 시선을 옮기시였다.

《남조선괴뢰해군에 있는 함선들따위는 어뢰정대의 상대가 못되지. 유사시에 어뢰정대의 주타격대상은 지금 일본의 군항들에 있는 미제침략군 제7함대요. 전쟁이 터지면 미7함대의 대형함선집단이 즉시 조선동해로 달려들거요. 어뢰정대는 바로 이놈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하오.》

김군옥은 온몸에 새힘이 용솟음치는감을 느끼며 씩씩하게 대답을 올렸다.

《알았습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소?》

아직은 그에 대한 면밀한 타산과 연구를 해보지 못한 김군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큰소리로 말씀드렸다.

《놈들과 맞다들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빙그레 웃으시였다.

《각오는 좋은데 훈련을 통하여 숙련된 동작과 군사적슬기가 안받침되지 못한 용감성은 객기나 모험에 지나지 않소.》

김군옥은 느닷없이 얼굴을 붉히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지장과 정장을 둘러보시며 감회깊이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는 산에서 싸울 때 총알을 아끼려고 조준훈련을 눈에서 피가 날 지경으로 직심스레 했습니다. 조준훈련을 백번 하면 실탄사격을 한번 한것과 같았습니다. 해군에서는 조준훈련을 강화하여 어뢰발사와 함상포의 명중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한손을 드시여 바다를 가리키셨다.

《자! 보다싶이 망망한 바다엔 은페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적함을 발견하고 즉시에 공격하여 명중사격으로 격침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적함을 먼저 발견하고 먼저 때리겠는가? 이를 두고 고심하면서 여러가지 전투조법들을 찾아내고 훈련을 통하여 숙련시켜야 합니다. 훈련이 기본입니다. 훈련을 통해서만이 용감성과 대담성을 키울수 있고 기묘하고 령활한 전법도 찾아낼수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젊은 정대장을 바라보시며 한번 더 모를 박아 강조하시였다.
《날바다우에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시오. 동무들은 땅우에서 큰소리를 쳐야 소용이 없소. 바다우에서 큰소리를 쳐야 하오. 그래야 적 구축함이나 순양함과 맞다들려도 주도권을 틀어쥐고 대담하게 먼저 공격하여 타승할수 있소. 이것이 바로 항일유격대식공격정신이고 전법이요.》
그 말씀을 들으니 김군옥은 심장의 피가 설설 끓어올랐다. 앞으로 훈련을 어떻게 하고 전쟁이 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도가 눈앞에 선히 떠오르는것만 같았다.
그는 기세충천하여 큰소리로 씩씩하게 말씀드렸다.
《장군님,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정세는 매우 긴장합니다. 남조선괴뢰도당이 북벌소동을 벌리고있는데 방금전에도 말했지만 괴뢰군따위는 우리 상대가 못됩니다. 전쟁이 터지면 남조선괴뢰군을 총알받이로 앞세우고 미제침략군이 덤벼들건 불보듯 뻔합니다. 그놈들에겐 항공모함도 있고 순양함과 구축함, 잠수함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군무력은 어떠합니까?
력량상 너무도 우세한 적과 싸워 이기려면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신출귀몰하는 우리 식의 전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현실정에서 청소한 우리 해군을 강군으로 빨리 키워 조국의 바다를 지킬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김군옥은 자자구구 심장에 새기였다.
《해군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뢰정처럼 작지만 속도가 빠르고 타격력이 강한 함선들과 경비함들을 건조해야 합니다. 동해조선소에서는 채정보동무가 로동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

는 수백톤급의 경비함을 건조하였습니다. 나는 새로 건조한 경비함의 진수식에 참가하기 위해 이제 곧 동해조선소에 가야 합니다.》

김군옥은 얼른 말씀드렸다.

《장군님, 우리 어뢰정을 타고가십시오. 이제 떠나면 날이 저물기 전에 원산항에 들어설수 있습니다.》

《고맙소. 나도 이왕이면 속도가 빠른 어뢰정을 타고가고싶소. 그러나 어뢰정을 될수록 아껴야 하기때문에 소해함을 타고가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뢰정이 입항하자 부두에 내리기에 앞서 젊은 정대장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주시였다.

《정대장동무, 훈련을 통하여 그 어떤 적함과 맞다들려도 까부실수 있게 준비하시오. 나는 조국의 바다를 동무들에게 맡기고 갑니다.》

크나큰 기대와 믿음이 담긴 당부이시였다.

김군옥은 가슴에 바다를 통채로 안은것만 같았다. 바다는 그와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듯 즐겁게 출렁이였다. 파도에 부딪친 해빛이 눈부시게 반사되였다. 여기서 번쩍, 저기서도 번쩍! 마치 보석의 마당이 춤을 추는것 같았다. 그는 너무도 가슴이 벅차올라서 도저히 진정할수 없었다.

바다여! 내 사랑하는 조국의 바다여!

너는 오늘따라 어쩌면 이리도 황홀하고 아름다우냐. 태양이 빛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바다여, 내 너를 지켜 청춘을 바치고 목숨까지 바친들 무슨 한이 있으랴.

10

며칠후 해군군관학교 제1기 졸업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최우등의 성적을 쟁취한 김군옥은 단번에 해군대위의 군사칭호를 수여받고 어뢰정대장으로 임명되였다. 고준무도 해군대위의 군사칭호를 수여받고 소포정대장으로 임명되였다. 젊은 해군지휘관들이 출항식에 참가했던 전투함정들을 몰고 의기양양해서 배고동을 높

이 울리며 원산기지로 떠나가자 청진항은 졸지에 빈 새둥지처럼 되고말았다.

바로 이때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소원대로 해군에 입대하여 청진기지에 온 김정인은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른다. 눈물이 절로 나왔다. 해상실습의 힘겨우나 보람찬 나날에 어뢰정대와 친숙해진 그는 이름도 정다운 어뢰정들과 정대원들이 보고싶어서, 더우기는 정식 정대장으로 임명되였다는 김군옥이 보고싶어 그야말로 몸살이 날 지경이였다.

해군사령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진기지에는 통신소와 수로대, 군의소 등이 있었다. 해군복을 입었지만 륙상에서 근무하는 성원들이 대다수였다. 그들을 《몽고해군》이라고 불렀다. 정인이가 보기에도 그들은 뭔가 모자라는것 같았고 사내답지 못했다. 해군복을 입었으면 전투함정을 타고 바다에 나가야 할게 아닌가.

정인은 그런 연고로 몽고해군들과는 애당초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군의소에 새로 온 녀군의가 활짝 핀 해당화처럼 아름답지만 그 값을 하려는지 도고하기 이를데 없다는 소문이 난건 그때문이다.

어느날 기지곁에 있는 해군군관학교의 군의소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정치부교장의 안해가 해산을 하다가 중태에 빠졌던것이다. 급해맞은 해군군관학교 군의소에서는 기지군의소에 방조를 요청했다. 기지군의소에도 산과의사는 없었다. 이때 김정인이 자진해나서서 아기를 무사히 받아냈다.

그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를 위해 후에도 자주 조정철의 집에 다녔다.

그는 정치부교장인 조정철을 만날 때마다 함선구분대들이 집중되여 있는 원산기지에 가고싶은 심정을 터놓군 했다. 그러면 조정철은 호의적으로 나왔다.

《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이 계셔서 각별히 해군에 입대시켰는데 이왕이면 어뢰정대가 있는 원산기지에 가야지. 그래야 아저씨와 언니도 만나볼수 있고 군옥이를 비롯한 어뢰정대원들과 함께 생활할수 있지. 그런데 가기 전에 할일이 있소.》

《뭡니까?》

《정인동무처럼 아이도 척척 받아내고 치료도 할수 있는 준의를 서

너명 키워놓고 가라구.》

《알았습니다.》

대답은 쉽게 했지만 그것을 정작 실천에 옮기기가 헐치 않았다. 김정인은 준의양성에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듬해 초봄에야 원산기지 군의소로 조동되였다.

원산해군기지는 전투적용맹이 차넘치는 새로운 모습으로 그를 맞이해주었다.

재작년에 왔을 땐 금시 무너질것 같은 나무잔교가 가냘프게 서있던 자리에 든든하고 넓은 콩크리트부두가 일떠섰다. 부업선과 전마선 대신에 새로 건조한 경비함 《로동》호와 소해함들, 소포정과 경비정들이 렬을 지어 계류해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어뢰정은 한척도 눈에 띄우지 않았다.

여기에 오면 의례히 어뢰정대를 보게 될것이고 김군옥을 비롯한 정대원들과 반가운 상봉을 하게 될거라고 생각하며 힘든줄도 모르고 수십리길을 내처 걸어온 처녀는 그만 다리맥이 풀려서 하마트면 주저앉을번 했다.

횡대로 렬을 지어 계류한 소포정들의 선수갑판에서 해병들이 무엇인가를 하고있었다.

정인은 호기심이 동해서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다가갔다. 해병들은 기다란 포소제대끝에 걸레를 감고있었다. 걸레는 사용기간이 지난 속내의따위를 깨끗이 빨아서 말리운것이다.

《포신소제준비를 잘하오. 포신강엔 티 한점도 있으면 안되오. 포신강은 해병들의 근면성과 량심을 비춰보는 거울이란 말이요, 거울!》

야전복차림에 항해모를 멋을 부려 비스듬히 제껴쓴 군관이 선수갑판에 위엄있게 서서 훈시를 하고있었다. 목소리가 귀에 익어 자세히 바라보니 이게 누군가, 수상보안간부학교와 군관학교시절에 김군옥이와 늘 앞자리를 다투던 고준무였다. 고준무는 이 함선에서 저 함선으로 오가며 포신소제준비상태를 검열하고나서 손에 쥔 붉은색수기를 높이 추켜들었다.

《준비!》

구령에 따라 해병들은 함상포의 포신아가리에 걸레뭉치를 감은 소

제대를 간신히 틀어박았다.

《시—작!》

고준무는 포사격구령이나 치는듯 수기를 홱 나꿔챘다. 바줄당기기를 할 때처럼 기다란 소제대를 서로 엇바꿔잡은 해병들은 일제히 《영차! 여엉차!》하고 웨치며 포신소제를 시작했다. 소제대를 동시에 밀고당기는 숙련된 그 힘찬 동작이 어찌도 멋진지 배기관의 크랑크축이 맹렬히 움직이는것만 같았다. 그런가하면 잘 째인 무용장면을 련상시키기도 한다. 기발을 흔들며 련속 구령을 치는 고준무의 모습은 안무가나 교향악단의 지휘자처럼 정열에 넘쳐있었다.

김정인은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저게 바로 지나칠 정도로 영악스럽고 승벽심이 강하고 저만 저라고 우쭐거리던, 그래서 걸핏하면 동무들사이에 불집을 일으키군 하던 수상보안간부학교시절의 고준무가 옳은가?

구령을 칠 때마다 금이발이 번쩍거리고 이마에 엇비스듬히 찍힌 허물자리가 드러나는걸 보니 고준무가 분명했다. 하지만 어제날의 그가 아니였다.

높은 요구성과 통솔력을 지니고 해병들과 친절히 어울리는 지휘관으로 성장한 고준무였다.

정인은 수상보안간부학교에 입학하러 갔을 때 《뽀쫌낀》선생에게 맹목적으로 동조하면서 자기를 본체만체 했던 고준무를 얼마나 야속하게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후에 청진기지에 실습나갔을 때 고준무를 차겁게 대해주었다. 그 야속함과 차거움이 이 순간에 봄눈녹듯 사라지는것이였다.

《그만!》

해병들은 포소제대를 뽑고 긴숨을 내쉬며 일제히 한걸음 물러났다. 고준무는 함상포앞에 다가가 한눈을 지그시 감고 다른 눈으로 포신강을 주의깊게 들여다보았다. 한바탕 용을 쓴지라 땀투성이가 된 해병들은 얼굴에 줄줄 흘러내리는 구슬땀을 훔칠념도 하지 않고 사뭇 긴장해서 정대장을 지켜본다. 김정인도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포신강에서 눈을 뗀 고준무는 해병들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더니 엄지손가락을 쳐들었다.

《아주 좋소! 합격!》

《야!》

해병들은 일제히 환성을 올리며 껑충껑충 뛰였다. 그들은 값높은 표창이나 받은듯이 그저 기뻐서 어쩔바를 몰라했다. 그들이 소포정과 함상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보아도 충분히 알수 있었다.

고준무는 12호정의 갑판으로 훌쩍 뛰여넘어가 포신강소제정형을 검열하였다.

《좋아! 여기도 합격이요!》

해병들의 환성이 터져올랐다.

《아니?! 이게 누구요?》

뒤미처 김정인을 알아본 고준무는 반가와서 어쩔바를 몰라했다.

《함흥의전의 꽃이로구만! 허! 군관복을 입으니 더 매력이 있는걸, 정말 몰라보겠소.》

김정인은 상급인 그에게 규정의 요구대로 깍듯이 거수경례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준무는 훌쩍 부두에 뛰여내렸다.

《정인동무, 우리 기지에 배치되였소?》

《예.》

《군옥이 그 친구가 되게는 좋아하겠는걸.》

김정인은 아닌보살했다.

《그 동무가 어째서요?》

고준무는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동무들은 남다른 사이지. 수상보안간부학교에 입학하러 올 때 있은 일이 생각나지 않소? 그래서 동무는 어뢰정대에서 해상실습을 했겠지. 어뢰정대에선 오늘도 동무를 잊지 않고있더군.

자! 나와 함께 군옥동무를 찾아가기요.》

《고맙지만 저는 먼저 기지지휘부에 도착보고를 해야 합니다.》

《아! 동무 아저씨가 기지장동지지. 전에 수상보안간부학교 교무과가 있던 건물이 기지지휘부요.》

김정인은 고준무에게 사의를 표하고 지휘부로 갔다.

바다기슭에 있는 낯익은 단층건물이 눈에 띄우자 느닷없이 가슴이 두근거렸다. 재작년 정초, 개교식을 앞두고 군옥이와 함께 수십리길을 걸어 수상보안간부학교에 찾아오던 못 잊을 그 밤이 생각났다. 자

기를 문전거절했던 한백천의 얼굴도 떠오르고… 그때 찾아왔던 군옥이또래들이 오늘은 어엿한 해군지휘관으로 자랐다.
　건물안에 들어서니 전에 교장실이였던 방에 《기지장》이라는 표쪽이 붙어있었다. 문기척을 하니 응대가 없는데 분명 말소리는 들렸다. 정인은 언제 봐도 너그럽고 배포가 유한 아저씨의 벙글벙글 웃는 모습을 눈앞에 떠올리며 살며시 문을 열었다.
　대기실은 비여있는데 기지장방에서 어딘가 모르게 귀에 익은 누군가의 목소리가 방그시 열린 문짬으로 새여나왔다.
　《그 동문 정말 안하무인입니다. 내가 그만큼 그만두라는데도 자기는 기어이 원항해타격훈련을 하겠다고 고집이지요. 새로 온 문화부정대장은 실정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맞장구를 치고있습니다.》
　정인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누굴가? 목소리는 분명 귀에 익은데…
　《기지장동지도 아시겠지만 어뢰정은 종류가 여러가지입니다.》
　정인은 어뢰정이라는 말이 나오자 대뜸 긴장해서 귀를 강구었다.
　《원항해타격을 위해 건조한 어뢰정은 배수량이 크고 침실과 취사장, 창고를 비롯하여 숙식조건이 갖추어져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있는 〈게뻬아찌〉는 연안순찰용으로 건조해서 침대도 밥가마도 없단 말입니다. 원항해를 하려면 적어도 사나흘은 걸리는데 허허날바다에서 그동안 밥은 어떻게 먹고 잠은 어데서 잔다는겁니까? 실정이 이러한데 강다짐으로 그런 훈련을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괜히 아까운 연유나 랑비하고 고속기관이나 혹사하며 어뢰정들의 전투성능을 저하시킬뿐이지요.》
　웬일인지 아저씨는 응대가 없었다.
　어뢰정대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게 분명했다.
　《지금 상가대에 올려놓고있는 어뢰정들을 하가하려면 품은 또 얼마나 들겠냐 말입니다. 흘수선아래에 바를 독장만 해도 수십키로에 달합니다. 그게 값이 얼마입니까? 나라사정도 생각해야지요.》
　이제야 비로소 아저씨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보우, 작전과장동무.》
　그런즉 원항해타격훈련의 불가능과 불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한 사람은 해군군관학교에 있다가 원산기지 작전과장으로 간 한백천

이였다.
《동무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소. 하지만 연유나 기관이 아깝다고 어뢰정들을 그 무슨 귀중품이나 장식품처럼 계속 상가대우에 올려놓고 있을수도 없잖소.》
《그래도 그게 상책입니다. 바다에 띄운 어뢰정은 한주일이면 다시 상가시켜야 하니 이게 어디 보통 품이 먹는 일입니까?》
김정인은 한백천이 하는 말을 선뜻 리해할수 있었다.
어뢰정선체의 재질은 비행기처럼 알루미니움합금강이여서 가볍고 견고하지만 바다물에서는 인차 부식될수 있었다. 그래서 하가할 때면 흘수선아래에 부식을 막는 독장을 바른다. 그래도 한주일이상은 견딜수 없어서 다시 상가시키고 청수로 선체를 깨끗이 씻어야 했다.
《어뢰정들은 땅우에 올려놓고 승무원들은 륙상병실에서 한담이나 하다가 전쟁이 터지면 어쩐다?》
한백천은 비양어린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
《그래서 난 어뢰정대장을 지지하는거요.
이젠 동기훈련도 마감에 이르렀는데 어뢰정대는 원항해타격훈련을 꼭 진행해야 하오.
적구축함이나 순양함이 어뢰맛을 보겠다고 여기까지 찾아올리는 만무하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맛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잖소. 범의 굴에 가야 범을 잡을수 있다는 소릴 못 들었소?》
한백천은 어이가 없다는 투로 응대했다.
《토끼가 범의 굴에 찾아가야 먹이감이나 되지요.》
《여보, 하필이면 어뢰정을 왜 토끼에 비유하는거요? 이왕이면 풍산개에 비유해야지. 그래 풍산개 다섯마리가 달려들면 호랑이가 견딜것 같소?》
김정인은 아저씨가 풍산개소리를 우연히 한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저씨의 처가가, 즉 자기의 고향이 풍산이였다.
언니 김정녀는 해방직후 풍산군당에서 부녀부장으로 사업하다가 중앙녀맹에 올라간 기회에 홍동철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다.
한백천은 달갑지 않은 투로 물었다.
《풍산개란건 뭡니까?》

《과장동문 우리 나라의 유명한 풍산개도 모르오? 풍산군에 있는 토종개요.

자그마하지만 령리하고 날쌔게 생겼지. 집을 잘 지키고 사냥을 잘해서 예로부터 소문이 났소.》

《하여간 그 훈련은 심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소. 기지당위원회에서 토의해보기요.》

문이 열리더니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한백천상좌가 나왔다. 그는 기분이 상해서인지 대기실에 있는 정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성급히 밖으로 나갔다. 김정인은 기지장방에 들어가 깍듯이 도착보고를 했다.

홍동철은 군관복을 입고 나타난 처제를 보고 별로 놀라와하는 기색이 없이 웃으며 물었다.

《너 어째서 여기로 왔니? 언니가 보고싶어서 왔니, 아니면 이 아저씨가 보고싶어서 왔니?》

당당한 군관을 어린애처럼 취급하기에 정인은 약이 올라서 아저씨를 흘겨보며 우정 격식을 차려 말했다.

《기지장동지, 무슨 말을 하십니까.

저는 방금전에 보고드리다싶이 조동되여온 준의입니다.》

홍동철은 여전히 이죽거렸다.

《음, 그러니까 언니네 집에 나들이를 온건 아니라는거지?》

《물론이지요. 저는 함선승무원들의 의료보장을 위해 자진하여 여기로 왔습니다. 그러니 기지장동지가 많이 도와주십시오.》

홍동철은 도담하고 고집스러운 처제의 오똑한 코등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었다.

《요건 그저… 내 그러지 않아도 네가 조동되여온다는 련락을 받고 기다리던중이란다. 너를 보면 언니가 무척 기뻐할게다.》

정인은 더이상 공식적인 태도를 견지할수 없었다. 그래서 생글 웃으며 물었다.

《언닌 잘있어요?》

《음.》

《언닌 여기서 무슨 일을 해요?》

《여기서도 부녀부장인셈이지. 녀맹사업에 분주하단다.》

《순이는요?》

《그 애도 앓지 않고 잘 자란다.
이젠 제법 못하는 말이 없어. 쩍하면 이모를 찾군 해.》
홍동철은 귀여운 딸을 가진 아버지들이 다 그러하듯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인의 눈앞에는 이제 세살잡힌 조카애의 모습이 막 얼른거렸다. 어서 빨리 언니네 집에 달려가서 반기며 아장아장 마중나올 그 애를 담쑥 안고 볼을 비벼주고싶었다.
누구나 조카애를 귀여워하지만 그가 순이를 이토록 각별히 귀여워하는데는 그럴만한 리유가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방직후 해주시당에서 사업하다가 중앙당으로 소환된 홍동철에게 보안간부학교 부교장이라는 중임을 맡겨주시였다.
홍동철은 부임지로 갈 때 안해가 만삭이여서 집에 떨구어두었다. 마침 방학기간이라 정인은 언니네 집에 와있었다.
초산부들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언니는 병원에 가기를 몹시 부끄러워했다. 그러다가 어느날 새벽에 해산을 했다. 의전학생이라지만 이런 일에 생둥이인 정인은 어쩔수없이 두팔걷고 나서서 기적적으로 아기를 무사히 받아냈다.
그때 그가 맛본 희열은 참 대단한것이였다.
그래서인지 조카애는 보두룩새 정이 갔다.
《순이 엄마가 네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있는지 몰라. 그럴만한 리유가 있지. 몇달후엔 순이의 동생이 생길게다.》
정인은 너무 기뻐서 철부지소녀처럼 콩콩 뛰였다.
《아이 좋아! 그게 정말이예요?》
홍동철은 싱글벙글하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음, 그 사람은 이번에도 꼭 너한테서 해산방조를 받고싶다는구나.》
《그야 응당 그래야죠. 순이를 받아낼 땐 내가 정말 애를 먹었어요. 그러나 이젠 자신이 있어요.
청진기지에 있을 때 조정철부교장동지의 부인이 해산을 했거던요. 내가 아기를 받아냈어요.》
홍동철은 큰소리를 탕탕 치는 처제에게 진심으로 당부했다.

《정인아, 이번엔 꼭 사내애를 받아내거라.》
《어머! 그거야 어디 내 맘대로 되는 일인가요?》
홍동철은 우정 두눈을 흡뜨며 을러멨다.
《이건 내가 너에게 아저씨로서 부탁하는게 아니라 기지장으로서 명령하는거야.》
《명령이라구요?》
《음, 사내애가 태여나야 앞으로 어뢰정을 타고 한몫 할게 아니냐. 군옥이처럼.》
군옥이소리가 나오자 정인은 저도 모르게 얼굴이 발기우리해졌다.
그는 짐짓 태연한체 하려고 애쓰면서 어뢰정들이 왜 보이지 않는가고 지나가는 소리처럼 물었다.
홍동철은 자못 섭섭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허, 넌 언니나 조카보다도 그 사람부터 만나보고싶다는거냐?》
《아저씨두 참…》
완전히 빨개진 처제의 얼굴을 바라보며 홍동철은 호탕하게 웃었다.
《마침 점심시간이 됐구나, 어서 집으로 가자.》
처제를 데리고 집에 간 홍동철은 반겨맞는 안해에게 능청스레 말했다.
《여보, 정인이가 군옥정대장부터 만나보겠다는걸 내가 억지로 끌고오는중이요.》
이통에 정인은 급해맞았다.
《언니, 그런게 아니예요.》
언니는 즐겁게 웃으며 한수 더 떴다.
《정인아, 여기선 숱한 처녀들이 그 총각정대장만 쳐다보고있단다. 정신을 바싹 차려라.》
김정인은 더 급해맞아 얼굴이 빨개졌다.
《언니두…우린 그런 사이가 아니예요.》
《아닌보살하지 말아라. 애아버지가 그러는데 어뢰정대장은 함대사령관감이래. 사실 함대사령관은 사내번지기인 네가 되고싶어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기적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니 함대사령관의 부인이라도 돼야 할게 아니냐.》
《아유, 그런 소리 마세요. 난 시집 안 가요.》

홍동철이 끼여들었다.

《둘이 같고 같구나. 군옥이도 그런 소리를 하더라.》

언니가 큰일이나 난듯이 눈이 올롱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째서 장가를 안 가겠대요?》

홍동철은 정색해서 대답했다.

《장가를 가면 해군지휘관구실을 제대로 할수 없다는거요.》

언니는 어이없어했다.

《거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요.

당신은 장가를 갔으니 기지장구실을 제대로 못하고있다는거예요?》

정인은 조카애를 다시 껴안고 애무해주면서 내심 긴장해서 언니내외가 주고받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장가를 가고도 기지장구실은 제대로 할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정대장구실은 제대로 하기 어렵지. 어뢰정대장인 경우엔 더욱 그렇소.》

《무엇때문인가요?》

《어뢰정대엔 이미 장가를 간 정장이 한명 있소.》

《거야 리완근 22호정장동지이지요.》

《음, 듣자니 그 친구도 장가간걸 후회한다는구만. 안해요, 자식이요 하고 달린게 없어야 어뢰정을 몰고 적함으로 대담하게 돌진할수 있다는거요.》

정인은 강한 충격을 받고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언니도 놀랐던지 입을 벌린채 굳어졌다.

《지금 어뢰정대가 준비하고있는 원항해타격훈련은 그런 결사의 각오와 희생정신에 기초한거요.

당신네 군관가족들도 그 훈련준비를 적극 도와주어야 하겠소.》

홍동철은 이 말을 하고나서야 담배를 한가치 뽑아물고 성냥을 켜서 불을 달았다.

언니는 호― 하고 나직이 한숨을 내쉬였다.

《치마두른 아낙네들이 무엇을 도와줄수 있을가요?》

《어뢰정엔 숙식설비가 없소. 장기항해를 하려면 미리 음식을 준비해야 하오. 며칠 보관해두어도 쉬거나 변질되지 않는 음식을 만들란

말이요.》
《알겠어요.》
정인은 별안간 심장이 높뛰고 가슴이 벅차올라 견딜수 없었다.
《아저씨, 나도 그 훈련에 참가할수 있게 해주세요.》
홍동철은 저으기 놀란 눈길로 처제의 몹시 흥분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훈련을 할 때 해상에서 의료보장을 해야지요. 해군군관학교 학생들이 실습항해훈련을 할 때처럼 말이예요.》
정인은 그때 학생들과 함께 실습함선을 타고 자주 바다에 나가군 했었다.
어째서인지는 알수 없지만 녀성들대다수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멀미를 심하게 해서 옴짝을 못한다. 그러나 정인은 아무리 파도가 세차도 끄떡없었다. 그래서 군옥을 비롯한 해군군관학교 학생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홍동철이 역시 그때 바다사나이 못지 않은 처제를 무척 대견하게 생각했었다.
《어뢰정대엔 비편제위생지도원이 있어.》
《만약 항해도중에 구급환자가 생기면 어쩌겠어요? 위생지도원이 치료해낼수 있어요? 그러니 제가 꼭 있어야 해요.》
처제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자 홍동철은 양보하는척 했다.
《그럼 어뢰정대장에게 부탁하려무나. 원항해타격훈련을 할 때 군의소 준의도 참가시켜달라고 그가 정식으로 제기하면 난 눈 꾹 감고 승인해줄테다.》
《알았습니다! 기지장동지.》
정인은 사기가 나서 이렇게 소리쳤다.
하지만 막상 언니네 집을 나서니 곧장 어뢰정대에 찾아가 김군옥을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젠 어엿한 정대장이 된 그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기만 해도 가슴이 활랑거리고 얼굴이 확 달아오른다.
첫눈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법이다.
김군옥이 그랬다. 총명하고 어질고 단정해보이면서도 억센 의지가 느껴지는 이런 총각을 싫어할 처녀가 어데 있으랴. 그래서 대뜸 믿음

이 갔고 서슴없이 속을 터놓고 의지하고싶어진것이다.
가까이 지내보니 그에게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다운 높은 지향과 목표가 있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완강한 투지도 겸비되여있었다.
정인은 이것을 해상실습의 나날에 충분히 목격하고 재삼 확인했다.
하기에 그는 해군군관학교 제1기 졸업생들가운데서 제일 우수한 성적을 쟁취했고 대뜸 어뢰정대장으로, 해군 대위로 된것이였다.
정인이도 그렇게 되기를 열렬히 희망했었다. 그래서 용단을 내리고 수상보안간부학교에 입학하러 갔더랬다. 그런데 녀성이라는 당치않은 리유로 입학하지 못하고 자기가 다니던 의전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바로 그때는 김군옥도 자기처럼 수상보안간부학교 입학지망생에 불과했다. 하지만 두해가 지난 오늘에 와서는 둘사이에 아찔한 차이가 생겼다.
그래서인지 정인은 그를 만날 일이 점점 더 난처하고 두렵게 여겨지는것이였다. 하기에 륙상병실옆의 상가장에 주런이 올려놓은 어뢰정들을 보면서도, 가끔 그 주변에서 얼른거리는 군옥의 모습을 보면서도 정작 다가가지 못하고 망설이고있었다.
그런데 어뢰정대에 나가지 않으면 안될 일이 생겼다.
저녁총화모임때 늙수그레한 군의소장이 정인에게 래일부터 어뢰정대를 고정담당하여 예방치료를 하라는 지시를 주었다.
정인은 갑자기 가슴이 막 뛰놀아서 얼굴만 붉혔을뿐 미처 대답을 못했다.
군의소장은 색다른 감촉을 받았던지 돋보기우로 정인을 지꿎게 바라보다가 짜장 불만스러운듯 퉁명스레 물었다.
《준의동무, 왜 대답이 없소?》
정인은 주사바늘에 찔린듯 흠칠 몸을 떨었다.
《어뢰정대를 담당하라는 이 소장의 지시를 듣지 못했소?》
정인은 그제서야 일어나서 어물어물 대답했다.
《저… 들었습니다.》
《헌데 어째서 그러오? 나의 지시가 마음에 들지 않소? 그렇다면 다른 동무를…》
급해맞은 정인은 덤벼치면서 큰소리로 말했다.

《아! 아닙니다! 마음에 듭니다!》
별스레 당황해하며 얼굴을 붉히는 그를 저으기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던 군의들과 간호원들은 군의소장이 능청스레 한쪽눈을 껌벅이자 일제히 까르르 웃어댔다.
군의소장도 일부러 지었던 엄한 표정을 풀며 벙글벙글 웃었다.
《사실 어뢰정대는 동무들이 저마다 담당하겠다고 하는데 어째서 새로 온 김정인동무에게 맡기는가?》
그런 의문이 없지 않았던지라 모두들 정색해서 군의소장을 바라보았다.
《이 동무는 어뢰정대원들과 함께 이미 해상실습에 참가한 전적이 있으며 그때 〈해상에서 합선승무원들에 대한 군의보장사업〉이라는 소론문까지 썼다고 합니다.》
모두들 놀라와하며 새삼스레 정인을 바라보았다.
《이 동문 천성적으로 멀미도 안한다는구만. 그래서 우리 기지에서 제일 중요한 어뢰정대의 군의보장사업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군의들과 간호원들은 일제히 큰소리로 대답하며 박수까지 쳐주었다.
《그럼 모임을 끝냅시다. 모두들 어깨가 근질거리겠는데 어서 마당에 나가서 춤이나 추라구.》
모두들 위생가방을 메고 마당에 나갔다.
그들은 요즘 총화모임이 끝나면 마당에서 가무련습을 하군 했다.
보름전에 민족보위성 문화훈련부에서는 5월초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하게 될 발명 및 미술경쟁대회와 예술경연대회 요강을 《조선인민군》신문에 발표하였다.
륙해공군의 모든 군부대들이 이 경쟁에 참가하여 우승하기 위한 준비로 들끓고있었다.
군의소에서는 간호원들의 생활을 담은 가무 《우리의 생활》을 준비하고있었는데 모두들 열성이 대단했다.
밤이 깊어서야 가무련습이 끝났다.
정인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래일부터 어뢰정대에 나가야 한다

는 생각에 가슴이 진정을 모르고 계속 뒤설레서 통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그와 동갑인 간호장 오봉임도 잠이 오지 않는지 궁싯거리다가 슬며시 상반신을 일으켰다.

《준의동무.》

《응.》

《래일 어뢰정대에 나가면 건국실에 꼭 들려보라요. 새로 온 문화부정대장동지가 발명 및 미술경쟁대회에서 기어이 1등을 하려고 벼른대요. 어뢰정대에선 재간이 있건없건 정대장으로부터 조기수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발명품을 만들거나 연필화라도 한점씩 내놓게 했다더군요. 발명품과 미술작품이 나오는 족족 건국실에 전시하는데 정말 볼만 하대요.

그뿐인줄 아세요. 문화부정대장동지는 예술경연대회에서도 어뢰정대가 1등을 양보할수 없다면서 자기가 직접 합창을 지휘하고 재담에도 출연한대요.》

간호장이 문화부정대장에 대한 소리만 하니 정인은 은근히 섭섭했다.

어째서 정대장에 대한 소리는 하지 않을가?

그는 무심코 물었다.

《문화부정대장이 어디에서 왔어요?》

《청진에서 고기배를 타던 사람인데 해방이 되자 수산합작사를 뭇고 당세포위원장을 하다가 중앙당학교를 나오고 어뢰정대에 왔다고 해요.》

중앙당학교 졸업생을 문화부정대장으로 임명한것만 보아도 당에서 어뢰정대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알수 있었다.

《중앙당학교를 나온 일군이니 수준이 대단하대요. 그런 유능한 정치일군을 만났으니 어뢰정대장은 말타고 견마잡힌셈이지요.

정대장은 요즘 더 부쩍 사기가 올라서 이 군항엔 어뢰정대밖에 없는듯이 큰소리를 탕탕 치고있어요.

코대가 얼마나 높고 건방진지 알아요? 우리같은건 쳐다보지두 않아요.》

《누가 말이예요?》

《누군 누구겠어요. 위신을 차리기 좋아하는 어뢰정대장이지.》
봉임은 슬쩍 정인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비죽이 내밀었다.
《흥, 난 그가 대위를 달고 으시대기에 적어도 스물대여섯은 난 줄로만 알았댔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나와 동갑이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그보다 나이가 많거나 동갑인 정장들과 기관장들이 옴짝을 못하더군요. 통솔력은 있는것 같아요.》
김정인은 애써 무심한듯 한 표정을 짓고 잠자코 있었다.
간호장의 말을 들어보면 젊은 나이에 정대장이 된 김군옥은 기지에 있는 처녀들의 관심사가 된게 분명했다. 그는 처녀들이 표시하는 호감을 받아주지 않아서 원망의 대상이 된것 같았다. 장가를 안 가겠다는 총각이니 그럴수밖에…
《어뢰정대에 나가면 정대장과는 아예 상대를 하지 말라요.
준의동문 미인인데 값을 올리란 말이예요. 건방진 사람은 그렇게 대해줘야 해요. 알겠어요?》
봉임이는 무슨 낌새를 차렸는지 이런 묘한 소리를 하며 새물거렸다.
정인은 태연한척 하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얼굴이 화끈거려서 슬며시 눈을 내리깔았다.
《준의동무, 얼굴을 들고 나를 쳐다봐요. 어서요.》
정인은 겨우 얼굴을 들다가 자기의 속을 빤히 꿰뚫어보는듯 한 간호장의 지꿎은 눈초리와 마주치자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다.
《호호호!》
간호장은 유쾌하게 큰소리로 웃어댔다.
《내가 군옥정대장을 헐뜯으니까 준의동문 기분이 나쁘지요, 예? 솔직히 말해보라요.》
정인은 아닌보살했다.
《나쁘긴, 난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해요.》
《그럼 준의동무가 어뢰정대원들과 함께 해상실습에 참가했다는건 허튼 소린가요?》
《그건 저…》
간호장은 얼굴이 빨개진 정인을 바라보며 깔깔거렸다. 그러다가 문득 웃음을 그치고 정색해서 물었다.
《준의동무가 천성적으로 멀미를 하지 않는다는게 사실이예요?》

정인은 시무룩이 웃었다.

《난 그런 행운을 타고나진 못했어요.》

《그럼 멀미를 하댔나요?》

《예, 난 어렸을 때 학비를 벌어보자고 일자리를 찾아헤매다가 정어리를 잡는 고기배를 타고 취사일을 했단 말이예요. 처음엔 멀미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쓰거운 열물까지 토했댔어요. 그러나 다른 일자리가 없으니 그 고생을 할수밖에요. 멀미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싸워보자 하고 악을 먹고 배를 타느라니 차츰 멀미가 슬며시 사라지더군요.》

봉임은 바다에서 단련돼서인지 건강하고 담차게 생긴 정인을 부러움에 찬 눈길로 바라보다가 불시에 얼굴을 찡그렸다.

《난 멀미라는 말만 들어도 속이 메슥메슥해요. 작년 가을에 어뢰정을 비롯한 전투함정들이 우리 기지에 배속되였지요. 그때 우리 군의소처녀들은 멋지게 생기고 속도가 빠른 어뢰정을 한번 타보고싶어서 어뢰정대에 찾아갔더랬어요. 정대장동무에게 어뢰정을 한번 타보자고 졸랐더니 큰일이나 난것처럼 펄쩍 뛰더군요. 그래서 기지장동지에게 정식으로 제기했지요. 우리도 해군복을 입고있으니 어뢰정을 한번 타봅시다! 하고 말이예요.》

《기지장동지가 요구를 들어주던가요?》

봉임은 방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럼요. 기지장동지가 명령으로 내리먹이니까 그 건방진 정대장도 어쩔수가 없었지요. 소원대로 어뢰정갑판에 오른 우린 너무 기뻐서 애들처럼 와작 떠들었어요. 어뢰정이 물갈기를 일으키며 내달리니 부쩍 사기가 나더군요. 그런데 항만을 벗어나니 숨이 막힐 정도로 해풍이 세게 불면서 파도가 막 밀려드는데 무섭더군요. 속도를 늦춘 어뢰정이 산같은 파도머리로 올라갔다가는 아래로 내려꽂히군 하는데 그때마다 속이 통채로 뒤집히는것 같았어요.

너무도 어지러워서 우린 모두 눈을 꽉 감고 보호손잡이만 틀어쥔채 꼼짝을 못했지요. 그러다가 토하기 시작했어요. 글쎄 우린 잠간사이에 제몸도 가누지 못하고 창피도 느낄줄 모르는 바보가 됐다니까요.

토한게 군복앞자락에 지저분하게 묻어서 주제가 말이 아니였어요.

어뢰정승무원들이 우리를 중환자처럼 다루었지요. 망신을 톡톡히 했어요. 어뢰정들이 입항해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 우린 얼굴을 싸쥐고 군의소로 도망쳤어요. 그때 일을 생각만 해도 얼굴을 들수가 없어서 난 오늘도 어뢰정대근처엔 다가가지도 못해요.》

어느새 날이 밝기 시작했다.

처녀들의 아침일과는 분주한 법이다. 세면을 하고 군복을 다리고 머리단장에 가벼운 화장까지 하고나니 벌써 식사시간이 거의 되였다.

구분대를 담당한 군의들은 밥차림을 하기에 앞서 검식을 해야 한다.

김정인은 위생가방을 메고 서둘러 군의소를 나섰다.

저 멀리 수평선으로부터 습기를 머금은 찬바람이 거칠게 불어와 아침날씨는 자못 쌀쌀했다. 수면을 하얗게 덮은 안개가 자오록이 피여오르며 뭍으로 소리없이 기여나오고있었다. 점차 설피여지는 안개발속으로 부두에 계류해있는 전투함정들의 모습이 위엄있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뢰정대의 부두병실은 부두에서 몇백메터 떨어진 도래굽이의 상가장결에 있다.

부두병실과 운동장을 마주한 새로 지은 아담한 건물이 식당이다. 식당직일관은 25호정기관장인 채기정중위였다. 그는 김정인을 보자 반가와서 어쩔바를 몰라하며 정도이상의 격식을 차려 정중히 맞이했다.

《소위동지, 제2어뢰정대 식당은 검식준비되였습니다. 식당직일관 중위 채기정.》

정인은 대뜸 마음이 즐거워져서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소리내여 웃었다.

《호호! 중위동지가 소위에게 보고하는 법이 어데 있어요?》

채기정은 두팔을 벌리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도 질서야 지켜야지요. 이거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여기에 조동되여왔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는데 왜 이자야 행차를 하십니까?》

《중위동지가 먼저 나를 찾아오겠거니 하고 기다리다가 할수없이 내가 걸음을 한거예요.》

김정인은 정든 고향집에 돌아온듯 한 즐거운 기분에 잠겨 취사장을 둘러보았다.

밥차림대에는 돼지고기편육, 청어찜, 절군 꽃게, 짜배기, 삶은 닭알, 빠다, 고추장 등을 먹음직스레 담은 접시들이 줄지어 놓여있었다. 방금 나무에서 딴것 같은 싱싱하고 빨간 사과도 한버치나 있다.

기름이 동동 뜬 달짝지근하고 고소한 청어생선국이 과연 별맛이였다.

김정인은 검식한 밥그릇과 국그릇, 반찬그릇을 검식함안에 넣고 자물쇠를 잠그고 검식일지를 정리하였다.

《정말 취사장을 깨끗이 거두고 음식도 잘 만들었군요. 늘 이런가요?》

채기정은 시물시물 웃었다.

《정인동무가 온다기에 좀 준비를 했지요.》

정인은 가볍게 놀랐다.

《제가 온다는걸 누가 알려주었나요?》

《문화부정대장동지가요. 우리 정대장동지와 각별한 사이인 정인준의가 래일부터 검식을 나오니 식당을 깨끗이 거두고 식사질도 부쩍 높이라고 하더란 말입니다.》

정인은 얼굴이 발기우리해졌다.

《놀리지 마세요.》

채기정은 웃음을 거두고 정색해졌다.

《이건 정말입니다.

준의동무를 우리 정대에 보내달라고 군의소에 정식 제기한건 바로 문화부정대장동지지요.》

정인은 어리둥절해졌다.

《문화부정대장동지가 나를 어떻게 알기에 그런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글쎄요, 모름지기 정대장동지가 속을 터놓았겠지요. 우리 문화부정대장동진 누구나 그렇게 속을 툭 터놓고싶은 정치일군이지요. 바로 이 식당도 문화부정대장동지의 발기로 지은거랍니다. 우린 작년 가을 여기에 왔을 때 식당이 작아서 애를 먹었지요. 아시겠지만 우리 어뢰

정은 숙식설비가 없어서 룩상에 침실과 식당이 있어야 합니다. 기지에선 우리 어뢰정대의 상가장과 륙상병실은 건설했는데 식당은 미처 짓지 못해서 림시로 후방창고의 방을 하나 리용했는데 좁아서 불편했지요. 식당이야 좁으면 뭐라나, 식사질이 높으면 그만이지, 우린 이렇게 생각했지요.

새로 온 문화부정대장동지가 당장 식당을 짓자고 하더군요. 겨울이 코앞에 다가와서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웃동을 벗어제끼고 석비레를 파서 석회와 섞어 블로크를 찍더란 말입니다. 우리도 따라 하는수밖에요. 고생을 하긴 했는데 제 손으로 이렇게 식당을 큼직하게 지어놓으니 정말 좋구만요.》

이때였다.

범소리를 하면 범이 온다는 격으로 문화부정대장 리학섭대위가 불쑥 취사장에 들어왔다.

치째진 눈꼬리, 두드러진 관골, 거무틱틱한 얼굴색으로 하여 그는 첫인상에 무서울 정도로 감때사납고 파묵해보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다냄새가 확 풍기는 사나이였다.

《준의동무, 정말 반갑습니다.》

리학섭은 무섭게 생긴 인상과는 달리 호감을 주는 선량한 미소를 지으며 먼저 인사를 했다.

《난 문화부정대장입니다.》

정인은 급급히 답례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태여 소개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우선 낯을 익힐겸 우리 함께 식사부터 합시다.》

리학섭은 김정인을 식사칸으로 안내했다.

빈 식탁을 마주하고 홀로 덤덤히 앉아있던 김군옥은 무엇때문인지 취사장에 들어갔던 문화부정대장이 김정인을 데리고 나오자 놀라며 엉거주춤 일어났다.

뜻밖에도 여기서 김군옥을 만나게 된 정인이도 당황해서 일순 어쩔바를 몰라했다.

반가와하면서도 어색해서 수줍어하는 두 군관을 번갈아보던 리학섭은 다정한 형이나 오빠인듯 량손으로 그들의 어깨를 잡아누르며 식탁

에 마주앉았다. 그리고는 취사장에 대고 큰소리로 독촉했다.
《식당직일관동무! 빨리 내오라구.》
《예!》
채기정이 커다란 접시에 담은 훈제한 통오리를 들고 나타났다.
《이건 어제 문화부정대장동지가 동석식사를 위해 각별히 잡은 물오리입니다.》
김군옥은 더 급해맞아서 얼굴까지 붉어졌는데 이럴 때 보면 순진하고 줄난 햇내기같았다.
오히려 김정인이 스스럼없이 사의를 표했다.
《환대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1

군용전화기가 소란스럽게 울었다. 홍동철이 송수화기를 드니 한일무가 인사말도 없이 으르렁거렸다.
《여보! 〈새매〉가 원항해타격훈련을 준비한다는건 도대체 무슨 소리요?》
《새매》는 어뢰정대의 대호다.
기지에서는 아직 이 문제를 해군사령부에 상정시키지 않았다. 해군사령관이 어떻게 알고 노발대발하는지 모를 일이였다.
《그건 정대장이 발기했다지?》
《예.》
《정대장이야 엊그제 해군군관학교를 나온 햇내기가 아니요.
그 나이엔 물인지 불인지도 모르고 그저 막 헤덤벼친단 말이요.
당신이야 발뜨함대의 로병인데 그런 햇내기의 장단에 춤을 춘다니 이게 어디 말이 됐소? 도무지 다섯척밖에 안되는 어뢰정을 가지고 어째보겠다니 이거 군사상식이나 알고 하는 소리요? 이거야말로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자살행위란 말이요.》
한일무는 민족보위성 부상겸 해군사령관으로 승진하자 조폭하고 고

집스럽고 안하무인격인 자기의 성격을 되살리기 시작했다. 해군에 대해서는 자기보다 아는 사람이 있을수 없다는 태도였다. 홍동철은 고분고분 응할수가 없었다.

《1번동지, 우리도 그것이 모험인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한일무는 상대방의 말허리를 꺾으며 노기등등해서 소래기를 쳤다.

《모험인 정도가 아니라 자멸행위요!》

홍동철은 쩍하면 화끈 달아올라서 큰일이나 난듯이 법석 고아대는 그가 한백천과 비슷한데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리해시키려고 애썼다.

《모험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큰 놈을 잡을수 있습니까. 우린 유사시에 어뢰정들을 효과있게 써먹을수 있는 방도를 찾기 위해 모색하고있습니다. 해상전투에서 높은 공격정신을 발휘하며 기묘하고 령활한 우리 식의 전법을 적극 활용하라는것은 함대출항식때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입니다.》

한일무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한결 누그러든 목소리로 약간 비꼬듯이 물었다.

《그래 그런 신통한 전법을 연구했소?》

《예.》

《그럼 어디 실례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오.》

홍동철은 먼저 풍산개전술을 말했다.

풍산개들은 사냥을 할 때 맹수를 발견하면 좌우로 갈라져 겁질긴 추격전을 벌린다. 그러면서 겨끔내기로 맹수의 옆구리와 꼬리를 건드린다. 맹수가 옆구리와 꼬리에 달린 풍산개를 물려고 걸음을 늦추며 고개를 돌릴 때 맨앞에서 달리던 풍산개가 결정적인 이 순간을 노려 맹수의 멱을 물고 늘어진다.

《여보, 그건 어뢰정 다섯척이 모두 적함의 쏘구역을 무사히 뚫고 들어갔을 때 가능한거요. 그런 요행수야 바랄수 없잖소.》

한일무는 이처럼 그 전법의 치명적인 약점을 꼬집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도적고양이전술도 적용하자고 합니다.》

《거 전술제목이 왜 그리 천하오?》

《제목은 어떻든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적들의 대형함선집단이 자주 나타나군 하는 해상로근처에 있

는 섬이나 갑에 어뢰정을 미리 잠복시켰다가 절호의 기회를 노려 들이치는 전술이였다.
한일무는 그것도 불만스러워했다.
《계류설비가 없는 섬이나 갑에 어떻게 어뢰정을 잠복시킨다는거요?》
《섬기슭가까이에 접근하여 앞에는 닻을 떨구고 선미는 섬의 나무밑둥에 계류바줄을 매면 됩니다.》
《잠복기간에 손가락을 빨고있겠소?》
《가마와 쌀을 싣고나가면 밥도 얼마든지 해먹을수 있습니다.》
《태풍이 불면 견디지 못해!》
소래기를 친 한일무는 차라리 적들의 군항을 습격하는게 어떤가고 물었다.
정박장이나 묘박지습격도 이미 론의된 전술방안이였다. 그러나 홍동철은 우정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아! 그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전술을 연구해보오. 몇척밖에 안되는 어뢰정을 효과있게 써먹자면 그게 묘안일거요.》
《예, 그러니 어차피 먼 거리를 항해하여 적의 군항을 타격하는 훈련을 해야 할게 아닙니까.》
한일무는 원항해타격훈련을 반대할 리유가 없어졌다. 대신 그 훈련에 해군사령관인 자기의 낯을 낼수 있는 근거가 생겨났다.
《정 하고싶으면 하오. 명심할건 먼 거리를 항해하여 적들의 군항을 불의에 들이치고 빠져나오는 훈련에 모를 박으라는거요. 그렇게 하면 승산이 있을것 같소.》
《알았습니다. 그러자면 항해도중 연유를 보충받아야 합니다.》
《훈련에 필요한 연유와 유조차는 보장해주겠소.
여보! 내 재삼 강조하는데 훈련도중 사소한 사고도 내면 안되오. 어뢰정은 거액의 자금을 들여 마련한 나라의 귀중한 재산이란 말이요. 한척이라도 잘못되면 정장이나 정대장은 물론이고 당신도 군사재판을 받아야 해!》
홍동철은 송수화기를 놓고 손수건을 꺼내여 대머리에 내밴 땀을 닦았다.

된다거니 안된다거니… 복잡한 론의를 거쳐 해군사령부에 올려보냈던 원항해타격훈련계획이 마침내 비준되여 내려왔다.

기지에서는 김군옥정대장이 발기한대로 어뢰정대가 먼바다에 나가서 우리 령해를 침입하려는 적대형함선집단을 공격하는것으로 훈련계획을 세워서 올려보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멀리에 있는 적들의 군항을 습격하는것으로 수정되였다.

홍동철은 마음에 차지 않아하는 젊은 정대장에게 신중한 어조로 말했다.

《정대장동무, 이 정도로 승인을 받은것도 다행이요. 이번 훈련에서 사소한 결함도 범하면 안되겠소. 사고를 내지 말란 말이요. 책임을 지는게 두려워서 그러는게 아니요. 자그마한 사고라도 나는 경우엔 두번다시 이런 훈련을 할수 없게 된단 말이요. 알겠소?》

김군옥은 내키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이것 보오, 가상적인 습격대상으로 해군사령관이 선정한 곳은 우리 기지에서 2백여마일이나 멀리 떨어진 청진군항이요. 거기로 가자면 동해에서 바다모양이 제일로 나쁜 무수단앞바다를 통과해야 하거던. 아마 해군사령관이 고분고분하지 않는 동무들을 혼쌀내워서 정신을 톡톡히 차리게 해주려고 잡도리를 한것 같소. 항해준비에 사소한 빈틈도 있으면 안되겠소.》

《예, 그런데 아까운 기름을 2백여마일 배길에 태우면서 그냥 갈게 있습니까? 저는 청진군항으로 가면서 여러가지 타격훈련을 하겠습니다.》

홍동철은 여전히 신중한 기색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갈 때는 곧추 가시오. 우선 정박장습격훈련을 실수없이 하는게 기본이요.》

《그럼 돌아올 때 여러가지 타격훈련과 어뢰발사훈련, 부두가 없는 해안에서의 급유훈련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무의 고집은 정말… 정박장습격에서 성공한 다음엔 동무생각대로 해도 좋소.》

김군옥은 기대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승선지도는 기지장동지가 하겠지요?》

홍동철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작전과장이요. 해군사령부에서 그렇게 선정했소. 동무와 내가 짝자꿍을 할가봐 그렇게 한것 같소. 강평은 누가 하는지 아오? 해군사령관이요.》
김군옥은 움찍 놀랐다.
《예?!》
《그래서 잡도리를 단단히 하라는거요. 해군사령관동지는 벌써 오늘 아침에 청진군항으로 내려갔소. 동무네 묘한 수를 써야지 청진군항에 들어가기도 전에 발견되면 끝장이야.》
김군옥은 정말이지 급해맞았다.
원산항과는 달리 청진항은 만이 깊지 못하고 입구에 반도나 섬들이 거의나 없어 개방되여있었다. 항에서 수평선까지의 해상이 휑하니 한눈에 안겨온다.
어뢰정들은 청진항앞바다에 접근하기 바쁘게 《적》기지의 육안감시에 걸려들게 된다. 그러니 야간에 습격해야 하는데 그 경우에도 고속기관의 요란한 발동소리를 감출 방도가 없다.
무슨 뾰족한 수가 없을가?
그는 정장들과 의논해보고싶어서 서둘러 하가준비로 분주한 상가장에 갔다.
해병들은 흘수선아래에 독장을 바르고있었다.
독장은 독성분이 들어있어 살갗에 조금만 묻어도 상처가 생긴다. 그래서 작업모를 쓰고도 그우에 머리수건같은것을 휘감고 얼굴을 가리웠다. 그런 상태로 허리를 굽히고 고개는 들고 칠작업을 하자니 몹시 말쨌다.
모두들 땀투성이가 되여 붓질을 하고있지만 이제야 절반밖에 칠하지 못했다.
독장바르기에 앞서 흰색에나멜로 솜씨있게 흘수선을 그어준 21호갑판장 박원협은 곱지 못한 목청으로 제딴엔 아주 감정을 잡아 노래를 부르며 상가대차권양기의 쇠바줄을 검사하고있었다.
만약 쇠바줄에 가시가 일었으면 그 부분을 보강해주어야 했다. 그 작업도 숙련과 기능을 요하는 헐치 않은 일이다.
기관장들과 조기수들은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은 타래형의 추진날

개를 추진기축에 조립하고있었다. 기계기름냄새가 물씬 풍겼다.

김군옥은 몹시 초조해서 손목시계를 보았다.

오전중에 독장을 다 바르고 권양쇠바줄을 보강해야 점심식사후에 인차 하가할수 있다.

만약 꾸물거리다가 시간을 지체하면 네댓시경부터는 바람이 불고 바다모양이 나빠지기에 애를 먹을수 있었다.

박원협은 쇠바줄검사를 하면서 계속 큰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장하고나 우리들은 힘찬 근로자
새 세기를 창조하는 승리의 주인
…

이것은 그가 즐겨부르는 노래다. 수상보안간부학교 학생들이 청진항으로 이동해갔을 때 어뢰정부두에서 보초를 섰던 그는 목소리가 신통치 않았지만 락천가여서 정비를 할 때에도 노상 노래를 부르는것이였다. 제4차 예술경연대회를 앞두고 그는 정식 오락조장으로 임명되여서 열성이 대단하다.

김군옥은 꿱꿱 내지르기만 하는 그 노래소리가 귀에 거슬려서 얼굴을 찡그리고 잠시 박원협을 지켜보다가 버럭 소리쳤다.

《21호갑판장!》

그제서야 박원협은 노래를 그치고 돌아섰다.

《문화부정대장동무가 어디에 있소?》

《아까 준의동무와 함께 건국실에 갔습니다. 찾아오랍니까?》

《아, 됐소.》

박원협은 또 노래를 부르며 권양도람에서 쇠바줄을 풀었다.

김군옥은 정인이가 어뢰정대를 담당하고 나온것이 반갑기도 했지만 난처하기도 했다.

며칠전에 있은 일이다.

상가보관하고있는 어뢰정들을 돌아보던 그는 누구인가 자기를 주시하는듯 한 감촉이 들어 고개를 돌렸다. 이쪽을 지켜보던 녀군관은 얼른 돌아서더니 도망치듯 바삐 걸어갔다. 군옥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다. 얼굴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다름아닌 김정인임을 몸

으로 느꼈던것이다.
군옥은 이끌리듯 녀군관의 뒤를 따랐다.
군의소마당까지 따라가서는 정인이가 다시 나오기를 기다렸다. 훈련시간이 퍼그나 지난줄도 모르고 서있던 그는 부랴부랴 륙상병실로 갔다.
이번 상학시간엔 정대장인 그가 병실에서 해병들에게 천문학을 강의하게 되여있었다.
다급히 병실에 들어가려던 그는 문화부정대장의 흥분한 목소리가 울려나오자 멈춰섰다.
《동무들!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화국정부에서는 인민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가까운 시일안에 공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김군옥은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남조선에서 공채를 발행하고 강매해서 인민들의 원한이 사무쳤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었다. 그러나 우리도 공채를 발행한다는 소리는 듣기에 처음이였다.
《공채가 뭔지 누가 말해보시오.》
누구도 선뜻 대답을 못했다.
《국가는 필요한 자금을 국내주민들이나 다른 나라에서 림시로 빌려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행하는 증권이 공채입니다. 공채는 돈을 빌렸다는것을 법적으로 확인해주는 증서로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돈을 돌려줄 때 신용을 담보해줍니다.
올해 우리 나라 종합예산은 수입에 있어서 252억 2 274만 8천원에 이를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267억 2 274만 8천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15억원 초과됩니다.
어째서 그런가?》
김군옥은 귀맛이 당겨서 살며시 문을 열고 병실에 들어갔다. 문화부정대장이 돌아보자 그는 이야기를 계속하라고 손짓했다.
《한가지 례를 든다면 올해에 평양방직공장의 생산능력을 대폭 확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참으로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규모의 현대적인 방직공장건설을 친히 발기하시고 대동강기슭에 나가시여 공장터전까지 잡아주신데 대하여 리학섭

은 감명깊게 이야기했다.

작년초부터 3만개의 방추와 1천대에 달하는 직기를 설치하게 될 방직공장건설이 시작되였다고 한다.

《수도시민들이 공장건설에 다 떨쳐나섰는데 내가 다니던 중앙당학교의 학생들도 과외시간엔 공사장에 나가서 애국로동을 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있던 여름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촌에 나가셨다가 농민들에게 나라에서 무엇을 해결해주면 좋겠는지 서슴지 말고 제기하라고 하셨답니다.

이때 한 로인이 어려움도 잊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군님, 해방전엔 입에 풀칠만 해도 다행으로 여기던 우리가 장군님은덕으로 분여받은 제땅에서 농사를 짓고 기와집에서 살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있으니 더 바랄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두 말타면 견마잡히구싶다고 이젠 나들이옷과 이부자리도 좋은걸로 갖춰놓고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에 돌아오시자 일군들에게 강원도농민의 말을 전해주시면서 우리가 토지개혁을 하고 먹는 문제를 풀어주어 인민들이 좋아하는데 이젠 입는 문제를 풀어주자고 하시면서 평양방직공장의 방추수를 3만추가 아니라 6만추로 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들 감격에 겨워 병실에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우러러보았다.

《그래서 건설중에 있는 평양방직공장의 생산능력이 두배로 확장되게 된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라에서는 기계공업을 창설하기 위해 공작기계들을 대량적으로 구입하며 인민소비품생산을 위한 지방산업공장들도 증설하게 됩니다.

또한 평남관개공사를 위한 설계를 하고 농기계임경소들을 새로 내오며 평양역사를 새로 짓고 기관차도 대량 구입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필요되는 돈을 인민들의 여유자금으로 해결하자는것입니다.》

모두들 흥분해서 고개를 끄덕이였다.

《히야! 요란하구만!》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부쩍 올라가겠소.》
《내 누이동생이 평방직에 들어갔습니다. 난 누이동생을 생각해서라도 선참으로 공채를 구입하겠습니다.》
《우리 집엔 분여받은 논이 3천 2백평이나 되는데 이젠 뜨락또르로 농사를 지을수 있게 해준다니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싶습니다. 나는 저금한 돈과 이달생활비까지 다 합쳐서 공채를 구입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도나도 나서는데 리학섭은 그제서야 문지방에 서있는 정대장을 발견하고 다소 미안한 기색으로 량해를 구했다.
《상학시간이 되였기에 내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거 늦어서 안됐습니다.》
김군옥은 이렇게 모두걸이로 사과하고 천문학강의를 시작했다.
시간관념이 철저한 그가 자기가 집행해야 할 상학에 늦어지긴 처음이였다.
문화부정대장은 그것이 이상하게 생각됐던지 그날 밤 잠자리에 눕기 전에 지나가는 소리처럼 묻는것이였다.
《정대장동무, 아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은 무슨…》
《정대장동무가 군의소쪽으로 허둥지둥 가는걸 내가 봤습니다. 꼭 귀신한테 홀리운것 같더군요.》
김군옥은 잠든체 하고 응대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년장자인 문화부정대장에게 속을 터놓고싶었지만 정작 그럴수 없는것이 안타까왔다.
나에게 있어서 김정인이라는 처녀는 도대체 무얼가? 그저 우연히 만나서 사귀게 된 녀동무인가? 어째서 그 처녀의 얼굴이 자꾸만 내 눈앞에서 얼른거리는것일가? 정인이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있을가?
이런 생각에 달콤하게 잠겨든 자신을 발견한 그는 버럭 화를 냈다.
이건 뭐야? 언제 전쟁이 터질지 알수 없는 준엄하고 긴장한 때에 처녀생각이나 하고있으니…
그래 네가 그 처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줄수 있어? 기다

리던 결전의 그 시각이 오면 사생결단하고 적대형합선집단과 맞서 싸워야 할 어뢰정대장인 네가 말이다.

그는 적대형합선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여러가지 전법들을 연구하는 과정에 그것이 사생결단의 비상한 각오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것임을 깨닫게 되였다. 희생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공격하면 승산이 있는것이고 목숨을 아끼면 애당초 시도조차 해볼수 없었다. 그래서 이곳 군의소에 조동되여온 정인이를 만나보고싶지만 애써 참아왔는지도 모른다. 헌데 그 처녀가 어뢰정대 담당준의로 되였으니 기쁘기도 했지만 공교롭고 난처하기도 했다.

모름지기 문화부정대장이 손을 쓴게 분명했다.

김군옥은 새로 온 문화부정대장이 두팔을 걷고 식당을 지을 때부터 그와 배짱이 맞는다고 흐뭇하게 생각했었다. 식당건설을 끝낸 문화부정대장은 원래 식당이였던 건물을 해병들의 교양장소인 건국실로 잘 꾸려놓았다.

그는 요즘 제2차 발명 및 미술경쟁대회와 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할 준비를 다그치고있었다.

대회소집과 관련한 요강이 발표되자마자 대회참가준비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조직한다, 정대오락조장을 임명한다, 필요한 성원들에게 시간과 조건을 보장해준다면서 분주탕을 피웠다.

채기정중위가 자기는 미술경쟁대회에 공화국의 해군무력을 상징하는 조각상을 출품하고싶은데 석고가 없다고 우는소리를 하자 문화부정대장은 멀리에 있는 제요공장에까지 찾아가서 석고를 구해오는 열성을 부렸다.

원항해타격훈련을 앞두고 그 준비에 1분 1초가 귀중한데 문화부정대장이 훈련엔 상관이 없는 그런 일로 들볶아대니 김군옥은 저으기 속이 상했다.

그는 우두커니 서서 자기만 쳐다보는 정장들에게 공연히 신경질을 부렸다.

《뭘 멍하니 서있소? 우리도 어서 독장을 바르기요.》

정대장과 정장들도 도장붓을 쥐고 칠작업에 달라붙었다.

한편 김정인은 건국실에서 문화부정대장의 해설을 들으며 전시해놓은 발명품들과 미술작품들을 보고있었다.

야간조준훈련기재와 연유절약기, 각종 정비도구들을 비롯한 발명품들에는 정대원들의 지혜와 정성과 노력이 깃들어있었다.
미술작품은 발명품보다 더 많은데 정말 볼만 했다.
보람찬 해병생활을 담은 연필화와 수채화, 유화, 조각상도 있고 《조선경제지도》, 《조선의 산업발전면모》를 비롯한 지도와 직관물도 있었다. 또한 미국놈들과 리승만괴뢰도당의 무분별한 북침소동을 풍자한 만화들도 있다.
그중에서 채기정이 형상한 조각상 《바다의 수호자》는 각별히 눈길을 끌었다.
파도를 뚫고 내달리는 어뢰정의 사령탑에서 어뢰조준기로 적함을 겨누고 목청껏 발사구령을 치는 지휘관의 모습을 형상한 반신상이였다.
머리에 쓴 전화모, 미간에 굵게 내리패인 두개의 주름살, 숱진 눈섭아래 부릅뜬 눈, 힘껏 벌린 입, 두드러진 광대뼈, 날카로운 아래턱, 높이 추켜든 무쇠주먹, 해풍에 세차게 나붓기는 군복자락.
대뜸 낯이 익었다.
작품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사람, 어뢰정대장 김군옥대위였던것이다.
《신통히도 정대장동무의 모습이군요.》
리학섭은 자랑에 겨운 미소를 지으며 넌지시 물었다.
《청진기지에선 어떻게 준비하고있습디까?》
《거기서도 불이 붙었답니다. 특히 해군군관학교에서는 예술경연대회에서 기어이 1등을 할 목표를 세우고 준비를 본때있게 하고있어요.》
리학섭은 호기심을 가지고 거기서 어떤 종목들을 준비하고있는가를 꼬치꼬치 캐물었다.
어뢰정대에서는 발명 및 미술경쟁대회에 참가할 준비는 잘되는데 예술경연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있었다. 정대장이 원항해타격훈련준비에만 몰두하면서 예술경연준비엔 전혀 낯을 돌리지 않으니 리학섭은 몹시 안타까왔다.
그런데 해군군관학교에서는 정치부교장이 합창을 지휘하고 합창시와 노래이야기, 군무는 물론 1막 2경으로 된 연극까지 한다니 놀

랍기 그지없었다.

리학섭은 등이 달았다.

《준의동무, 저녁 오락회시간때마다 우리 동무들에게 노래와 춤을 배워주오. 내 그래서 동무를 담당준의로 보내달라고 제기했소.》

이때라고 생각한 김정인은 기꺼이 응했다.

《예, 저도 한가지 부탁이 있어요.》

《뭡니까? 준의동무의 부탁이야 들어줘야지요.》

《원항해타격훈련에 저도 참가시켜주세요.》

예상치 못한 부탁이라 리학섭은 난처해졌다.

《그건 정대장동무와 의논해봐야 하겠습니다.》

《정대장동문 승낙하지 않을겁니다.》

《그럴가요? 하여튼 의논해봅시다.》

리학섭은 상가장으로 갔다. 정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병들과 독장을 바르고있었다. 리학섭은 함께 일손을 잡으며 정대장에게 넌지시 말했다.

《담당준의동무가 그러는데 청진기지와 해군군관학교에서는 예술경연준비에 불이 붙었다는군요. 우리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요.》

김군옥은 중요한 훈련을 앞두고 문화부정대장이 이런 소리를 하니 짜증이 났다.

《그런건 훈련이 끝난 다음에 봅시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언제 한가하게 노래나 부르고 춤을 출새가 있습니까?》

리학섭은 면구스러웠지만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점심식사후에 하가작업이 진행되였다.

어뢰정들은 하가대차를 타고 바다물로 미끄러져내려갔다. 해병들은 바다물에 띄운 어뢰정들을 바줄로 끌고 삿대로 밀며 부두에 가서 연유와 윤활유, 청수를 적재했다. 이튿날에 부두기중기로 어뢰를 적재하고 후방물자도 실었다.

리학섭은 무엇때문인지 평소의 침착성을 잃고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서 신경질을 부리는 정대장에게 원항해타격훈련을 할 때 진행할 문화사업계획서를 보여주었다.

출항에 앞서 군관회의를 소집하고 훈련의 목적과 의의를 해설해주며 있을수 있는 여러가지 정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방도도 가르쳐준다. 다음으로 초급선전원, 오락조장 및 전투소보원모임을 가지고 훈련기간에 독보를 정상화하고 전투소보를 계속 발간하며 특히 저녁오락시간을 리용하여 예술소조공연준비를 다그치도록 한다. 다음은 민청회의를…

김군옥은 알릴듯말듯 미간을 찡그렸다.

《군관모임, 민청회의를 따로 할것없이 공개당총회를 여는게 어떻습니까?》

리학섭은 그 의견을 허심히 받아들였다.

《예, 그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소조공연준비는 훈련이 끝난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훈련과 써클을 혼탕시키면 안되지요.》

리학섭은 의논조로 사근사근 물었다.

《군중문화사업을 더 힘있게 내밀어야 훈련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지 않을가요?》

《하여간 훈련에 지장이 가지 않게 해주시오.》

워낙 자기의 감정을 숨길줄 모르는 김군옥은 달갑지 않은 어조로 말하고나서 지휘소에 올라갔다. 리학섭은 너그럽게 웃으며 따라 올라갔다.

《정대장동무, 한가지 더 의논할게 있습니다.》

김군옥은 해도를 펼치면서 시간이 없는데 어서 말하라는 표정을 지었다.

《이번 훈련에 담당준의동무도 참가시키는게 어떨가요?》

김군옥은 해도를 보면서 마깝지 않게 말했다.

《훈련은 배놀이가 아닙니다.》

《준의동무는 해상에서 군의보장대책을…》

김군옥은 화가 나서 상대방의 말허리를 분질렀다.

《문화부정대장동무! 난 지금 그런 일들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기지장동지가 그러는데 해군사령관동지가 벌써 청진기지로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박장습격을 어떻게 하는지 현지에서 직접 보겠다는거

지요. 우리가 정박장에 들어가기 전에 〈적〉에게 발견되면 해안포사격을 받게 됩니다. 어뢰정은 발동소리가 요란한데 어떻게 은밀히 정박장에 들어갈수 있습니까. 지금 리대훈이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귀를 바싹 강구고 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있을거란 말입니다.》

음, 그래서 정대장이 량볼이 홀쭉해지도록 고민하고있었구나.

리학섭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리대훈이가 도대체 누구인가고 물었다.

《내 동창생인데 해안포학부 부중대장이였지요. 지금 청진항입구를 지키는 해안포중대를 지휘하고있습니다.

까놓고말해서 나는 해군복을 입었지만 륙상에서 포청소나 하게 될 그 친구를 숙보았지요. 그 친구는 우리 항해학부 학생들을 무척 부러워했었구요. 그런데 숱한 연유를 수백마일의 배길에 뿌려놓고 우리가 정박장을 습격하려다가 그 친구에게 발견되여 얻어맞으면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면은 둘째지요. 해군사령관이나 작전과장은 코웃음을 칠겁니다. 정박장습격도 제대로 못하는 너희들이 구축함이나 순양함을 어떻게 까부신다는거야? 그러면 난 할말이 없게 된단 말이요.》

김군옥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정치적식견이 높은 문화부정대장을 내심 어렵게 대하면서 존중해왔다. 그러나 격하니 말투가 곱지 않게 나갔다.

리학섭은 조금도 탓하는 기색이 없이 물었다.

《지휘관동무들과 의논해보았습니까?》

《예, 아무리 의논해야 신통한 방도가 나오질 않습디다.

은밀성을 보장하려고 기관을 끄면 어뢰정이 움직일수 없지요. 그렇다고 전마선으로 어뢰정을 끌고갈수도 없잖소. 참 난사요.》

하도 속이 상한김에 한바탕 우둘렁거린 김군옥은 문화부정대장을 외면하고 정박장습격안을 각종 기호로 표시한 해도에 눈길을 돌렸다.

이때 마침이라 해야 할지 공교롭다 해야 할지 물주전자를 든 김정인이 사령탑으로 올라왔다.

그는 고뿌에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발기우리한 물을 부어서 리학

섭에게 권했다.

《드세요, 오미자단물입니다.》

리학섭은 눈짓으로 정대장에게 먼저 권하라고 했다. 그러나 정인은 정대장쪽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김군옥도 그가 곁에 나타난것을 모르는척 하고 그냥 해도를 들여다보고있었다.

하는수없이 리학섭은 단물을 받아마시고 우정 큰소리로 탄성을 올렸다.

《히야! 그거 정말 달콤하고 시원하구만.》

김정인은 기뻐서 활짝 웃었다.

《원항해훈련때 오미자단물도 싣고가자요. 항해를 할 때 마시면 좋을거예요.》

리학섭은 크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음, 아주 좋지. 가만, 준의동무도 해방전 청진에서 배를 탔다고 했지요?》

《예, 그건 왜 물으십니까?》

리학섭은 눈짓으로 정대장을 가리켜보이며 눈을 끔벅거렸다.

《지금 정대장동무가 까다로운 문제와 맞다들려서 골머리를 앓고있으니 우리가 가능한껏 도와줍시다.》

김군옥은 그들이 곁에서 자기를 빗대고 이러쿵저러쿵하는게 귀찮아서 헛기침을 했다.

《그때 준의동무가 탄 고기배는 어떤거였소?》

《돛배였습니다. 이른새벽에 남서풍을 타고 먼바다로 나가 고기잡이를 하다가 밤에 북서풍이 불 때면 돌아오군 했지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노를 저었습니다. 배가 크기때문에 노를 선미와 중갑판좌우현에 여러개나 설치했답니다.》

무심중 귀를 기울이던 김군옥은 뭔가 번뜩 뇌리를 치기에 피뜩 고개를 돌렸다. 순간 그는 의미심장하게 자기를 바라보는 문화부정대장과 눈길이 마주쳤다. 리학섭은 손바닥을 펴서 들어보였다.

《정대장동무, 우리도 돛을 다는게 어떨가요?》

그래! 그게 바로 묘안이다.

김군옥은 급작스레 흥분이 북받쳤다. 그는 얼음덩이가 갑자기 불덩이로 변한듯 대뜸 얼굴이 환해져서 손으로 해도탁을 탁 치며 환성을

올렸다.

《바로 그거요! 문화부정대장동무, 고맙습니다.》

《허허, 인사를 받을 사람이야 내가 아니라 준의동무지요.》

《거 정말 그렇군요.》

김군옥은 언제 랭담했던가싶게 싱글벙글거리며 김정인을 돌아보았다.

《준의동무, 묘안을 튕겨주어서 고맙소.》

정인은 금시 얼음인가 하면 금시 불같은 변화무쌍한 그 성격이 맘에 들었다. 그래서인지 김군옥과의 관계에서 요사이 어색하고 서먹서먹하던것이 봄눈처럼 일시에 녹아버리는것이였다. 처녀의 마음은 봄날처럼 따스해졌다.

《정대장동무두… 고맙긴요. 우리야 한배를 타고있지 않나요.》

그 말에는 어뢰정대의 담당준의이며 더우기는 전술적묘안의 발기자인 자기에게도 원항해타격훈련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는 암시가 담겨있었다.

김군옥은 그 말을 못 들은척 하고 호기있게 소리쳤다.

《정장동무들은 21호정 갑판에 모이시오!》

제일먼저 김도형정장이 기관실에서 뛰쳐나왔다.

리완근을 비롯한 다른 정장들도 21호정으로 훌쩍훌쩍 넘어왔다.

《동무들! 방도를 찾았소, 이걸 보오.》

김군옥은 갑판에 해도를 펴놓고 손으로 가리켰다.

《우리는 청진항을 멀리 에돌아 북상하여 그우에 있는 고말산뒤에 가서 표류합시다. 그러면서 바람새를 보다가 밤에 북동풍이 불면 슬쩍 돛을 올리고 기관을 시동하지 않은 상태로 청진항에 들어가자는거요.》

김도형이 어리둥절해서 고개를 기웃거렸다.

《돛을 올리다니요? 어뢰정에 무슨 돛이 있다고 그럽니까?》

김군옥은 쩔쩔 혀를 찼다.

《이 코막고 답답한 사람아, 꼭 돛이 있어야 하나. 꿩대신 닭이라고 위장포를 돛대신에 쓰면 될게 아닌가.》

이제야 깨도가 된 김도형은 해도에 있는 청진항을 주먹으로 힘껏 내리쳤다.

《됐습니다, 만세!》

《만세를 부르긴 아직 이르오. 이제 당장 돛을 올려보기요. 어서!》

갑판장과 함께 륙상창고로 달려간 김도형은 위장포퉁구리를 맞들고 왔다.

그가 위장포를 펴서 당장 마스트에 달아보려고 서두르는데 김정인이 나섰다.

《가만, 그냥 매달면 안돼요. 위장포를 네겹으로 접고 아래와 우에 샷대를 붙이고 조종끈들도 달아줘야 해요.》

그들은 김정인이 자신만만하게 시키는대로 했다.

김정인은 그물실을 꿴 돗바늘로 샷대를 감은 위장포의 아래단과 웃단을 누벼나가는데 그 솜씨가 여간이 아니였다. 모두들 신기해서 입을 하 벌리고 지켜보았다.

한뽐, 두뽐 손으로 척척 길이와 너비를 재여가면서 샷대를 달 곳엔 샷대를 달고 조종끈을 달 곳엔 조종끈을 단다. 잠간사이에 돛을 신속히 펴기도 하고 감기도 할수 있게 만든 김정인의 얼굴엔 땀방울이 보기 좋게 돋아났다.

이 순간 처녀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왔다.

홀린듯이 그의 얼굴을 쳐다보던 김군옥은 문화부정대장이 팔굽으로 옆구리를 슬쩍 건드려서야 황급히 자신을 수습했다.

《그래 어떻습니까?》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진 물음에 김군옥은 느닷없이 얼굴을 붉혔다.

《좋구만요.》

리학섭은 꼬집어물었다.

《준의동무도 훈련에 참가할 자격이 있지요?》

김군옥은 긴장하게 자기를 지켜보는 김정인의 눈빛을 느끼며 기꺼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김정인은 유쾌하게 웨쳤다.

《자! 이젠 다 됐어요. 어서 달아보자요.》

그들은 어뢰정21호의 마스트에 돛을 올렸다.

돛이 제대로 펴지자 김군옥은 다른 어뢰정들도 빨리 돛을 만들어서 달라고 명령했다.

저마다 위장포를 가져다가 부두에 펴놓고 돛을 만드는데 눈에는 익

었지만 손엔 설어서 잘되지 않으니 김정인을 찾았다. 담당준의로부터 급작스레 기술교관이 된 김정인은 아주 성수가 나서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지시도 하고 제가 직접 손을 대기도 했다. 워낙 사나이들속에 처녀가 한명 끼워있으면 모든 일이 다 흥겨운 법이여서 부두는 떠들썩했다.

그 모습을 다른 정대의 해병들이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고준무가 뒤짐을 지고 슬슬 다가왔다.

그는 돛을 올린 21호정을 보더니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입을 딱 벌렸다가 쓰겁게 웃었다.

《과연 꼴불견이요. 양복을 빼입은 신사가 베감투를 쓴 격이로군.》

빈정대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지만 김군옥은 태연히 응대했다.

《자네 눈엔 베감투로 보이는것이 내 눈엔 날개로 보이네.》

고준무는 코웃음을 쳤다.

《날개라구? 흥, 속도가 빠른 어뢰정이 돛을 달아선 뭘하겠나. 자네 머리가 돈게로구만.》

《남이 베감투를 쓰든 날개를 달든 자네가 상관할게 있나. 제 코나 씻게.》

고준무는 손으로 주먹코를 매만지며 그냥 지부렁거렸다.

《난 하여간 어뢰정대가 무슨 도깨비짓을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거던.

저런?! 저게 누군가? 함흥의전의 꽃이로구만.

치마바람까지 쏘이는걸 보니 자네 일이 심상치 않겠네. 거 정말 근심이 되는구만.》

김군옥은 이 독설가와 더 옴니암니하기 싫어서 외면하고 문화부정대장쪽으로 돌아섰다.

《돛조종을 해보았습니까?》

리학섭은 자못 신중한 기색이였다.

《예, 그게 헐치 않습니다. 숙련과 요령이 요구되지요.》

《그럴겁니다. 옛날에 대양을 항행하는 큰 돛배들은 돛조종사가 한명만 없어도 출항을 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요. 이제부터 돛조종훈련을 합시다.》

《예, 그게 좋겠습니다.》
고준무가 물러가자 공교롭게도 한백천이 나타났다.
어뢰정대의 원항해타격훈련을 한사코 반대하던 그는 훈련계획이 비준되고 자기가 승선지도를 맡게 되자 마지못해 찾아온것이였다. 심사가 꼬여있던 그는 어뢰정들의 마스트에 달아놓은 돛을 보고 대뜸 생야단을 쳤다.
《여보! 저건 도대체 뭐요? 당장 떼버리시오!》
김군옥이 정박장에 은밀히 들어가려면 돛을 리용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지만 한백천은 막무가내였다. 워낙 성미가 푼푼치 못한 그는 성칼사납게 두눈을 치뜨고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당신 내가 번역한 〈세계해전사〉를 읽어봤지?》
한백천은 수틀리면 군사규정에 어긋나는 당신이라는 부름을 쓰는 고약한 버릇이 있었다.
《거기 어느 페지에 어뢰정에 돛을 달고 싸움을 했다는 소리가 있소, 응?》
김군옥은 속이 울컥했지만 애써 자제하며 침착하게 응대했다.
《그런 소리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더우기나 그렇게 해보자는겁니다.》
한백천에게는 그 말이 도전적으로 들렸다.
《여보! 세계해전사에도 류례가 없는걸 구태여 해보겠다고 부득부득 고집을 쓰는 리유가 뭐요? 당신 정말 틀려먹었구만.》
《전례가 없는 방법일수록 효과가 클게 아닙니까.》
한백천은 그만 말문이 막혔다.
여태 말없이 서있던 리학섭은 은근한 어조로 정대장을 응원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작전과장동지, 돛을 다는건 제가 보기에도 기발한 착상이고 승산이 있어보이니 시험삼아 그대로 해봅시다. 다른 묘안이 없잖습니까.》
한백천은 얼굴을 찡그리며 한손을 홱 내저었다.
《그럼 동무들 맘대로 하오. 거 고집두 정말 너무하구만. 닻을 올리든 돛을 올리든 난 일체 상관하지 않겠소. 그러나 훈련결과를 놓고 총화는 맵짜게 하겠소. 그리 알고 매사에 심사숙고하오.》
그런즉 자기는 승선지도가 아니라 강평을 하겠다는 소리였다.

그는 수상보안간부학교시절부터 제 주장만 고집하고 코대를 쳐들고 다니던 김군옥이 이젠 정대장이 됐다고 승선지도를 나온 작전과장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더우기나 부아가 났다.

꼬부장한 눈초리로 어뢰정들을 둘러보던 그는 해병들과 함께 25호정의 마스트에 돛을 달고있는 녀준의를 보자 실로 아연해졌다.

《여보, 저 녀자는 도대체 뭐요?》

그러지 않아도 김정인이때문에 속을 조이고 작전과장의 눈치를 살피던 김군옥은 억지로 웃어보이며 없는 재간을 부려 슬쩍 넘기려 들었다.

《기억력이 나쁘시군요. 우리 정대 담당준의 김정인동무랍니다.》

《내가 뭐 그걸 모른대. 저 녀자가 왜 어뢰정에 올랐는가 말이요.》

《원항해타격훈련에 참가하겠다고 본인이 너무 간청하기에…》

가뜩이나 기분이 잡쳤던 한백천은 얼굴이 푸르딩딩해서 버럭 언성을 높였다.

《동무 지금 제정신이야? 녀자가 어떻게 전투함선을 탄다고 그래? 세계해전사를 다 뒤져봐도 그런 소리는 없어. 내 언젠가도 말했지만 쏘련에 녀자비행사는 더러 있지만 녀자함장은 고사하고 녀자갑판수도 없단 말이야. 그런 소리를 못 들었어.》

무슨 큰일이나 난듯이 법석 고아대던 한백천은 기지장이 나타나자 얼른 입을 다물었다.

홍동철은 말썽이 없으면 처제가 어뢰정에 오른걸 못 본척 하려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일이 이렇게 번져지자 정대장에게 단호히 말했다.

《준의동무는 바다에 나갈수 없소.》

12

한일무중장은 해군사령부에 올라온 제2어뢰정대의 원항해타격훈련안을 놓고 흡진갑진하다가 정박장을 습격하라는 조건부를 내대고 마

지못해 승인해주었다.

그러고나니 명색이 해군사령관인 자기가 동해에서 멀리 떨어진 평양에 그냥 앉아있을 체면이 없게 되였다.

어뢰정이 다 합쳐야 다섯손가락안에 들지만 어쨌든 갓 창설된 인민해군의 주타격력량이였다. 하기에 어뢰정대가 하는 원항해타격훈련은 자기가 응당 주관해야 했다. 그는 이 훈련을 어뢰정대와 청진기지와의 쌍방훈련으로 폭을 넓히기로 작정하고 즉시 청진기지에 내려갔다.

승용차가 군항에 들어서자 기지장과 해군군관학교 교장이 영접보고를 했다.

차에서 내린 한일무는 영접보고를 받자마자 별안간 두눈을 부릅뜨며 벼락치듯 목청껏 웨쳤다.

《폭풍!ㅡ》

그의 입에서 진짜 폭풍이 터져나오는것 같았다.

해군사령관이 내려와서 직접 전투경보를 내리기는 처음이였다.

청진기지와 해군군관학교는 즉시에 발칵 뒤집혀졌다. 배고동이 울고 뗑뗑 종치는 소리도 났다.

전투장구류를 착용한 해병들과 해군군관학교 교직원, 학생들이 부리나케 전투초소를 차지했다.

한일무는 기지장을 뒤에 달고 그길로 정박장초소에 올라갔다.

군항으로 들어오는 입구의 나지막한 산봉우리에 있는 정박장초소도 게양대에 전투경보기발을 올리고 전투대기근무에 들어갔다.

한일무는 초소장에게서 쌍안경을 받아들고 해상을 둘러보았다. 앞이 탁 트이여서 멀리서 항해하는 배들까지 다 바라보였다.

《초소장동무, 오늘부터 닷새어간에 원산기지에서 떠난 어뢰정대가 청진기지를 습격하게 되오.

눈을 밝히고 귀를 바싹 강구고있다가 어뢰정들이 나타나면 즉시 신호탄을 쏘고 고동을 울리오.》

입대하여 처음으로 해군사령관을 만났고 그에게서 직접 임무를 받게 된 애젊은 소위는 바싹 긴장해서 쟁쟁한 목소리로 패기있게 대답했다.

《알았습니다!》

《동무가 어뢰정을 먼저 발견하고 신호를 하면 표창으로 즉시 중위의 군사칭호를 수여하겠소.
그러나 군항에 돌입하는 어뢰정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면 처벌을 주겠소. 알겠나?》
한일무는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게 초소장을 닦아세우고나서 해안가에 틀고앉은 해안포중대로 갔다.
위장그물을 씌운 포좌지들에서 57미리해안포 다섯문이 당장이라도 포성을 울릴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었다. 감시소에는 장독아가리보다 더 큰 탐조등이 두개나 설치되였는데 그것만 켜면 항입구가 대낮처럼 밝아진다고 했다.
중대장 리대훈은 어뢰정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즉시 집중포화를 들씌워 모두 침몰시키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중위,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이건 훈련이야. 어뢰정을 발견하면 공중에 대고 신호탄을 한발 쏘라구. 그러면 동무네가 어뢰정들을 다 까부신거로 평가하겠소.》
한일무가 이렇게 말했지만 승벽에 몸이 와짝 달아오른 젊은 중위는 쌍방훈련인데 위협사격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졸라댔다.
어뢰정을 탄답시고 우쭐해서 해안포병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 친구들을 이번 기회에 단단히 혼쌀내우자는것이였다. 눈찌가 만만치 않은 중위가 윽윽 벼르는 소리를 들으니 자칫하다간 큰일이 날것 같아서 한일무는 닁큼 뛰였다.
《위협사격은 절대로 안돼!
만약 어뢰정을 한척이라도 상하게 하면 중대장을 당장 군사재판에 넘겨 총살하겠어. 재삼 강조하는데 어뢰정들을 발견하면 신호탄을 쏘라. 알겠는가?》
리대훈은 입을 실룩거리더니 마지못해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했다.
한일무는 통신소와 수로대를 비롯한 직속구분대들을 돌아보고나서 마감으로 해군군관학교에 갔다.
해군군관학교 학생들은 전투복장을 하고 운동장에 렬을 지어서서 전투명령을 기다리고있었다.
한일무는 정치부교장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에 개선하실 때 맞이해드리는 영광을 지닌 그는 그날 낯을 익힌 조정철에게 각별한 호감을 가지고있었다.

《정치부교장동무, 해군군관학교의 해상실습선들은 〈적〉 대형함선집단으로서 이번 훈련에서 어뢰정대의 기본타격대상입니다. 정신을 바싹 차리고있다가 선손을 써야지 자칫하면 제자들한테 되게 얻어맞고 망신을 할수 있소.》

조정철은 위험을 느끼고 긴장해질 대신 오히려 희소식에 접한듯 얼굴이 환해졌다.

김군옥을 비롯한 사랑하는 제자들이 보고싶었고 그들이 몰고오는 어뢰정도 보고싶었다.

작년 가을 졸업식이 진행된 다음날 군옥이네가 전투함정들을 몰고 원산기지로 떠나가자 그는 어찌도 서운하고 아쉬운지 마치 자기의 한쪽팔다리가 뚝 떨어져나간듯 한 심정이였다.

자기도 그들과 함께 함정을 타고 원산해군기지로 가고싶었다. 그곳은 수상보안간부학교시절에 정을 흠뻑 들인 곳이여서 못 잊을 고향처럼 못 견디게 그리웠다. 그래서 그는 청진기지군의소에 배치된 김정인이 원산기지로 보내달라고 간청하자 선뜻 그렇게 해준것이였다.

《난 어뢰정대가 어서빨리 들이닥쳐서 우리 실습선들을 통쾌하게 때리는걸 보고싶습니다.》

조정철이 솔직한 심정을 터놓자 한일무는 어이없어했다.

《정치부교장동문 〈적〉들편인가요? 어뢰정대와 청진기지는 이 시각부터 쌍방훈련에 들어갔단 말이요.》

《어쨌든 난 어뢰정대가 보고싶어서 못 견딜 지경입니다. 다리만 온전하면 난 이제라도 어뢰정을 타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출항식때 말씀하신바와 같이 어뢰정이야말로 사내들이 젊었을 때 한번 타고 싸워볼만 하지요.》

한일무는 상대방의 심정이 충분히 리해됐지만 그런 감정이 자칫하면 훈련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다시금 단단히 못을 박았다.

《정치부교장동무, 해상감시를 등한히 하다가 〈적〉의 습격을 받으면 동기훈련총화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걸 명심하시오.》

조정철은 그제서야 신중한 기색을 지었다.

《그렇다면 어뢰정대와 맞서봐야지요.》
한일무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두눈을 끔벅거렸다.
《그 친구들이 아주 우쭐해서 륙상구분대를 하찮게 여긴다는데 이번에 단단히 혼쌀을 내서 버릇을 가르쳐주기요.》
《알았습니다. 강평은 누가 섭니까?》
《나요. 때문에 난 청진기지편도 어뢰정대편도 아니요.》
한일무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속심은 달랐다.
청진기지는 해군사령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에 그는 기지가 《적》들의 습격을 받는걸 원치 않았다. 그리고 이 기회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원산기지장과 어뢰정대장에게 골탕을 먹여주고싶었다.
한일무는 기지에 올 때마다 사용하는 사무실과 침실이 있었다. 그러나 습격대상인 실습함선 제2특무정에 거처를 정하고 쌍방훈련을 강평하기로 했다.
제2특무정은 남조선괴뢰해군의 함선인데 작년에 의거입북해왔다.
이튿날에도 어뢰정들은 얼씬하지 않았다.
타산해보면 원산기지에서 떠난 어뢰정들이 지금쯤은 청진기지에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이였다. 그는 등이 달아서 무전으로 원산기지장을 호출했다.
어뢰정대가 언제 출발했는가? 라는 물음에 그것은 알려줄수 없다는 건방진 답전이 왔다. 어째서 알려줄수 없느냐고 재차 물으니 군사비밀이기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
이게 해군사령관에게 하는 기지장의 대답이란 말인가?
한일무는 성이 독같이 났지만 꾹 참았다.
다음날도 온종일 어뢰정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뭐야? 항해도중에 사고가 난게 아닐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안절부절하던 그는 다시 무전으로 원산기지장을 호출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엔 응답조차 없었다.
이거 정말 무슨 일이 생긴가부다.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갈마들어 도저히 진정할수가 없었다.
《정치부교장동무, 심상치 않소. 실습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보

기요.》

조정철은 배포유한 어조로 아직 하루가 남아있으니 기다려보자고 했다.

《이거야 어디 속이 달아서 앉아있을수 있소?

난 속성교육을 받은 그 햇내기들을 도대체 믿을수 없소. 어뢰정 한척 값이면 큰 공장을 하나 들여올수 있단 말이요. 사고가 나면 정말 야단이요.》

바글바글 끓어대는 해군사령관을 바라보며 조정철은 소리없이 웃었다.

《이럴 땐 기분을 전환해야 합니다. 우린 예술경연에 내놓을 작품들을 마감단계에서 완성하는중인데 좀 봐주십시오.》

한일무는 벌컥 화를 냈다.

《여보, 언제 한가하게 써클구경을 하게 됐소?

난 지금 바늘방석에 앉은 심정이요. 아무래도 안되겠소. 속시원히 바다에 나가봅시다.》

실습선은 곧 출항했다.

군항을 벗어나자마자 지그자그로 항해하면서 해상을 샅샅이 훑었다. 한일무와 조정철은 해풍이 세찬 감시대에 올라가 쌍안경으로 사위를 둘러보았다. 해무가 껴서 시정이 나빴다. 그러나 1마일내에서 고기잡이를 하거나 짐을 실어나르는 배들은 대체로 가려볼수 있었다. 배들이 다 형편없이 속도가 떠서 그저 파도우에서 흥떡이는것처럼 보였다. 아무리 눈을 밝혀도 어뢰정은 그림자도 없었고 고속기관의 발동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북동풍이 세차게 불었다. 비교적 얌전하던 바다는 별안간 사납게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실습선은 연해연방 밀려오는 세찬 파도에 떠밀려 허공중에 떠올랐다가는 위태롭게 곤두박히고 다시 가까스로 배머리를 추켜들군 했다.

이처럼 바다모양까지 급격히 사나와지니 한일무는 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졌다.

설상가상으로 실습선의 기관상태가 좋지 않았다.

날바다우에서 기관이 꺼지면 난사다. 하는수없이 실습선은 군항으로 배머리를 돌렸다. 군항입구에 들어서는데 해안포중대의 감시소

에서 탐조등의 강한 빛줄기가 뿜어나왔다.
감시대에 있던 갑판장이 그쪽에 대고 불빛신호를 보냈다. 아군임이 확인되자 탐조등빛이 즉시 꺼졌다. 입항하고나니 밤이 퍽 깊었다.
며칠동안 초긴장속에 보낸데다가 오래간만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던 한일무는 기관실에 들어가 기관정비를 하는걸 지켜보다가 너무 피곤해서 침실로 갔다. 기관정비가 끝나면 즉시 출항해야 했다. 눈을 부릅뜨고 해상시계를 지켜보던 그는 저도 모르게 굳잠에 곯아떨어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누군가 자기를 다급히 찾는 소리에 그는 잠에서 깨여났다.
침실에 뛰여든 군관은 조정철이였다.
《어서 일어나시오! 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겨우 상반신을 일으킨채 눈을 비비며 하품을 하던 한일무는 흠칠 놀라며 굳어졌다.
꽈릉! 꽈릉!
우뢰처럼 요란한 그 소리에 군항이 통채로 뒤흔들리는듯싶다.
《이… 이게 뭐요?》
《어뢰정대가 벌써 기지를 들이쳤습니다.》
《뭐라구?!》
한일무는 튕기듯 뛰쳐일어나 헤덤벼치며 부랴부랴 사다리를 타고 갑판으로 올라갔다.
짙은 어둠속에서 사령탑 좌우에 푸른색등과 붉은색등을 켠 어뢰정들이 사나운 맹수들처럼 포효하며 살기등등해서 항만이 좁다하게 빙빙 돌고있었다.
고속기관의 추진기들이 힘껏 비틀어서 차올린 물기둥은 무너지면서 넘실넘실 파도처밀려와 실습선을 당장 뒤집어놓을듯 심술스레 마구 흔들었다. 부두의 배말뚝에 매놓은 팔뚝처럼 굵은 실습선의 계류바줄이 팽팽히 당겨져서 당장 끊어질듯 부르르 떨다가 맥이 풀린듯 축 늦추어지고 다시 팽팽 당겨지군 했다. 실습선승무원들은 해일처럼 들이치는 파도에 배가 부두에 부딪쳐 깨질가봐 예비방현구를 들이대고 삿대로 밀면서 이런 경우 배군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아부재기를 치며 고

래고래 쌍욕을 퍼부었다.
《야! 그만 멈춰서라! 우리 배가 깨지겠어.》
《이거 남의 군항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겠어?》
어뢰정대의 기관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귀가 다 멍멍해졌다.
이럴수가 있나?
눈앞의 현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한일무는 몇번이고 눈을 비비며 다시 쳐다보았다. 그러나 군항안에 들어와 파도를 일으키며 기세등등해서 돌아치는건 어뢰정들이 분명했다. 파도가 어찌도 세찬지 구태여 어뢰를 쏘지 않아도 부두에 붙어있는 배들은 서로 부딪쳐 산산쪼각이 날판이였다.
그는 다급히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다.
《나 해군사령관이다! 어뢰정대장, 대답하라!》
저쪽에서 기다리고있었던지 즉시 대답했다.
《나 어뢰정대장이다! 정박장습격을 방금 끝냈다.》
한일무는 곁에 서있는 조정철이 흐뭇하게 웃는것을 잔뜩 찡그린 눈으로 흘겨보았다.
김군옥은 확성기로 군항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자랑차게 웨쳤다.
《전투가 끝났으니 우린 돌아가겠다!》
조정철이 다급히 어뢰정대를 그냥 돌려보내면 안된다고 권고했다.
한일무도 그들을 만나보고싶었다.
그들이 어떻게 돼서 해안포중대의 감시소와 정박장초소가 알지 못하게 군항에 들어왔는지 알아보아야 했다. 장기항해를 한 어뢰정들을 정비하고 승무원들이 피로를 풀게 해야 했다.
《돌아가지 말고 3호부두에 계류하라!》
《알았다!》
어뢰정들은 속도가 매우 빠르기때문에 입출항을 하는게 헐치 않았다. 자칫 잘못하면 충돌사고가 난다. 입출항을 할 때는 정장들의 대담하고 능숙한 지휘에 승무원들의 기민하고 숙련된 동작이 안받침되여야 했다. 입출항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도 그 함정의 전투력을 평가할수 있다.
한일무와 조정철은 바싹 긴장해서 숨을 죽이고 어뢰정대의 계류장면을 지켜보았다.

파도가 세차고 캄캄해서 조건은 매우 불리했다.
정대장의 지휘에 따라 먼저 25호정이 계류장소를 탐조등으로 비치며 기관공회전을 하고 타력으로 3호부두에 접근하더니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멈춰서서 련락삭을 던졌다. 그들이 련락삭에 달아보낸 계류바줄의 올가미를 부두의 배말뚝에 걸고 영차영차 바줄을 당기는데 뒤따라 24호정이 타력으로 미끄러져들어왔다. 이렇게 어뢰정 다섯척이 자석에 쇠붙이가 달라붙듯이 횡대로 착착 계류하는데 그 솜씨가 과연 놀라왔다.
배 한척이 무사히 계류할 때마다 조정철은 너무 기뻐 주먹으로 허공을 찌르며 소리치군 했다.
《좋다! 잘한다!》
한일무도 흡족해서 깊이 패였던 미간의 주름살을 쭉 펴며 소리없이 웃었다.
서둘러 실습선에서 내린 그들은 떠들썩한 3호부두로 갔다.
김군옥은 파도에 젖은 항해복차림으로 달려나와 거수경례를 했다.
《중장동지, 제2어뢰정대는…》
《수고했소!》
한일무는 보고를 채 듣지 않고 젊은 정대장의 어깨를 툭 치며 못내 궁금해서 성급히 물었다.
《여보! 어떻게 감쪽같이 들어왔나? 도깨비감투라도 썼댔나?》
김군옥은 마스트밑에 둘둘 말아서 묶어놓은 자작 만든 돛을 가리켰다.
《예, 저게 바로 도깨비감투입니다.》
사연을 알게 된 한일무는 탄복을 금치 못했다.
《그거 과연 묘안이요! 어뢰정들이 돛을 달고 들어올줄이야 누가 감히 예상할수 있었겠소. 해안포중대장이 동무네를 모조리 까부시겠다고 큰소리를 치더니 웬걸, 이젠 입두 못 벌리게 됐소.》
요구성이 높고 칭찬에 린색하기로 소문난 그가 이렇게까지 나오니 조정철은 칭찬을 받는 당사자들보다 더 흡족했다.
《해군사령관동지, 속성교육을 해서 내보낸 우리 해군군관학교 졸업생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괜찮소. 해군대학을 나온 사람들보다 낫소. 그런데 승선지

도는 누가 했소?》
《작전과장동지입니다.》
어느 구석에 서있던 한백천상좌가 이제야 스적스적 다가와 거수경례를 했는데 그의 거동엔 활기가 없었다.
《상좌동무, 수고했소. 닻을 올릴 묘안을 동무가 내놓았겠지?》
해군사령관의 기대어린 물음에 한백천은 몹시 당황해했다.
《아, 아닙니다.》
《왜 그러오? 기분이 좋지 않은것 같구만.》
한백천은 대답대신 짤막한 한숨을 내쉬였다.
한일무는 그의 복잡한 심정이 다소나마 리해되기에 이따가 따로 만나 회포를 나누자고 귀띔했다. 그러고나서 정대장에게 큰소리로 말했다.
《모두 수고했으니 이틀동안 푹 쉬면서 항해후정비를 깐깐히 하고 출항하도록 하오.》

그날 해군군관학교 군인회관에서는 어뢰정대의 훈련성과를 축하하는 예술소조공연이 진행되였다.
례복차림을 한 조정철대좌가 합창대앞으로 나와 관람자들에게 정중히 거수경례를 했다.
《기묘하고 대담한 전법으로 원항해타격훈련에서 높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동기훈련의 마감을 빛나게 장식한 제2어뢰정대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교직원, 학생들이 꽉 들어찬 관람석에서는 수천수만마리의 바다새들이 일제히 나래쳐오르듯이 우렁찬 박수갈채가 일어번졌다.
초대석에 앉은 어뢰정대원들은 이 과분한 축하에 몸둘바를 몰라했다.
김군옥은 항일투사이며 스승인 정치부교장이 직접 무대에 나와 감동적인 축하연설을 해주니 고맙고 감사하기 그지없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전투정치훈련을 힘있게 벌려 천리동해에 모교의 영예를 유감없이 떨치고있는 제2어뢰정대원들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며 힘과 용기를 얻고있습니다.

그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될 예술경연무대에 올리기 위해 우리들이 준비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합창 〈**김일성**장군의 노래〉.》

조정철은 합창대앞으로 홱 돌아서면서 팔소매안에 넣었던 지휘봉을 꺼내들었다.

그가 지휘봉을 휘젓자 악사석에서 취주악의 전주곡이 장중히 울려나왔다.

합창대가 동시에 입을 열었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장내엔 감격과 흥분이 차넘쳤다.

김군옥의 눈앞에는 어뢰정21호의 사령탑에 몸소 오르셨던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우렷이 안겨왔다.

휘두르는 장검인양 세찬 파도의 정수리를 쩡쩡 후려치며 쏜살같이 내달리는 어뢰정, 물보라가 날아드는 사령탑에 거연히 서시여 해병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던 강철의 령장 그이께서 허물없이 입으셨던 항해복이 눈에 삼삼 떠오르며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주는것이였다.

아, 그 이름도 그리운 **김일성**장군님을 언제면, 그 언제면 또다시 어뢰정에 모시게 될것인가? 경애하는 그이께 우리 언제면 승리의 보고를 드릴수 있을것인가?

그는 이런 생각으로 가슴을 들먹이며 지금 열정적으로 합창을 지휘하는 정치부교장에게서 눈길을 뗄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혈전만리를 헤치며 장백산 줄기줄기에, 압록강 굽이굽이에 피어린 자욱을 찍은 항일투사가 합창을 지휘하니 더 감동이 컸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소리가 강당을 진감했다.

합창대는 계속하여 씩씩하게 팔을 흔들고 발을 구르며 《해군행진곡》을 불렀다.

장군님품속에서 태여난 함대
내 조국 지켜가는 불패의 함대
백두산천지에서 닻을 올리고
제주도 한끝까지 폭풍쳐간다

듣기만 해도 심장의 피가 펄펄 끓어오르고 어깨엔 나래가 돋쳐 펄럭이는것 같았다.

저도 모르게 합창에 맞추어 박자를 치며 상반신을 들썩이는 그에게 곁에 앉은 리학섭이 귀띔했다.

《저 노래는 정치부교장동지가 학생들과 함께 집체적인 지혜를 모아 가사를 쓰고 곡도 붙였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오?》

리학섭은 그저 빙그레 웃었다.

합창에 이어 경음악과 무용, 독창, 제창 등 작품들이 련속 무대에 올랐다.

마감으로 1막 2경으로 된 연극까지 나오니 김군옥은 어마지두 놀라 입을 딱 벌렸다.

남조선괴뢰해군소속이였던 제2특무정이 의거입북하게 된 경위를 주제로 한 연극은 악질장교들과 사병들간에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계급적모순과 갈등을 첨예한 대립과 투쟁을 통하여 생활적으로 잘 보여주었다.

김일성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행복이 꽃펴나는 공화국북반부를 동경하며 그 과정에 폭동을 일으켜 악질장교들을 처단하고 북으로 배길을 돌리는 사병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였다.

부두에 돌아온 정대원들은 예술공연을 본 흥분이 사라지지 않아서 감상을 토로하느라 떠들썩했다.

《정말 멋진 공연이요.》

《련습을 얼마나 했는지 전문예술인들 못지 않더구만.》

《해군군관학교는 예술경연에서 단연 1등을 하게 될거요.》
오락조장인 박원협이 나서서 소리쳤다.
《남들이 준비한 공연을 보고 감탄만 할텐가?
자! 우리도 노래를 불러보자구.》
그의 선창에 따라 오락회때마다 지정곡처럼 즐겨부르던 《승리의 5월》을 모두 불렀다.
웬일인지 오늘따라 이 노래가 마음에 그닥 차지 않았다.
《이거야 로동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닌가.》
김도형이 불만스러워하자 곁에서들 맞장구를 쳤다. 우린 해군이니 응당 바다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것이였다. 헌데 정작 그러자니 별로 마음에 드는게 없었다. 제노라는 어뢰정대원들이 해녀나 양식공처녀들처럼 《해당화》를 부를수야 없지 않는가.
《동무들, 우리도 해군군관학교 교직원, 학생들처럼 〈해군행진곡〉을 부르기요. 그 노래가 정말 씩씩하고 기백이 있더구만.》
정대장의 제기에 모두들 쌍수를 들어 찬성했다.
그런데 정작 부르자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서로 마주보기만 했다. 오락회책임자노라고 앞에 나선 박원협이도 선창을 떼지 못하고 모래불에 밀려나온 도미처럼 입만 벌름거렸다.
리학섭이 그를 달구어댔다.
《박동무! 빨리 해군군관학교에 가서 그 노래를 배워오든가 가사와 악보라도 베껴가지고오라구, 어서!》
《예.》
해군군관학교로 꽁지에 불이 달린듯 냅다 달려가던 박원협은 일이 될세라 도중에 밥국통을 든 여러명의 학생들과 함께 오는 정치부교장을 만났다. 그는 신바람이 나서 춤을 추며 되돌아왔다.
어뢰정대원들은 고맙게도 어죽까지 쒀가지고 찾아온 조정철을 와! 에워싸고 《해군행진곡》을 배워달라고 졸라댔다.
조정철은 싱글벙글 웃으며 기꺼이 동의했다.
《좋소! 배워주지. 그럼 내가 먼저 한 소절씩 부르면 동무들은 따라부르시오.》
조정철은 부상당한 두다리를 약간 벌리고서서 한손으로 씩씩하게 박자를 치면서 성량이 아주 풍부한 맑은 목청으로 선창을 뗐다.

모두들 신이 나서 목청껏 따라불렀다. 노래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크고 씩씩하게 울려퍼지는데 수평선 저 멀리에 둥근달이 소리없이 솟아올랐다.

달빛을 받은 바다는 커다란 금빛물고기처럼 번쩍거렸다. 서늘한 해풍이 불어왔다. 해풍을 타고 전마선 한척이 삐걱삐걱 노젓는 소리를 내며 3호부두로 미끄러져왔다.

부두에 있는 어뢰정대원들은 모두 노래를 배우는데 정신이 팔려있었다.

맨 바깥쪽에 계류한 21호정갑판에서 감시근무를 서던 위생지도원 오익섭이 전마선을 발견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섯! 누구야?》

전마선에서 누군가 천연스레 응대했다.

《나야, 나!》

《섯! 쏜다!》

경고를 한다기보다는 엄포를 놓는 그 소리에 모두들 노래를 중단하고 전마선이 오는쪽을 일제히 바라보았다.

상대방은 모욕이라도 느낀듯이 화를 내며 두덜거렸다.

《젠장! 친구들! 이젠 내 목소리까지 잊어버렸나? 나 리대훈이야!》

김군옥은 너무도 반가와서 렬을 지어 계류한 어뢰정들을 순식간에 가로질러 21호정갑판에 뛰여들었다.

《여! 대훈이!》

《군옥이!》

21호정 현측에 솜씨있게 전마선을 댄 리대훈은 재빨리 갑판으로 기여올라왔다.

두 친구는 와락 그러안고 뿜어넘치는 반가움을 억제할수 없어 서로 상대방을 들어올리려고 했다. 역시 동창생들인 정장들과 기관장들이 우르르 달려와 리대훈을 그러안거나 주먹으로 툭툭 치기도 했다. 주고받는 상봉인사가 거칠고 완력적이여서 몸이 약한 사람은 나자빠질 지경이였다.

《내 이번에 자네들을 본때나게 두들겨패려고 벼르었는데 그만 놓쳐버렸거던. 돛을 달고 살며시 군항으로 들어가는걸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야.》
리대훈은 그게 분하고 아쉬워서 실실했다.
《하여간 우리 해안포가 졌어. 배상금을 가져왔으니 사양말고 받아주게.》
전마선에 남아있던 두 병사가 철띠를 단단히 두른 아름드리목통을 바줄로 매서 올려보냈다.
목통이 꽤나 무거워서 혼자서는 다룰수 없었다.
《이게 뭔가?》
《고래고기야.》
탐조등을 비치게 하고 뚜껑을 여니 손바닥만큼씩 잘라서 염장한 기름진 고래고기가 가득차있었다. 껍질이 시꺼멓고 비계가 두껍게 붙은게 얼핏 보기엔 검은 돼지고기같았다.
《이걸 어디서 났나?》
호기심이 어린 김군옥의 물음에 리대훈은 뽐내듯이 대답했다.
《보름전에 말일세. 우리 감시소에서 군항으로 들어오는 적잠수함을 발견했지. 감시근무성원들이 비상신호를 울리며 법석 떠들기에 나가보니 잠수함이 아니라 이 어뢰정만 한 고래였단 말이요.》
《그래서?》
《난 이거 마침이다 하고 기지참모부에 제기하여 류동목표에 대한 실탄사격훈련을 했소.
1포순서로 쐈는데 3포가 명중시켰소. 포탄에 얻어맞은 고래가 바다물이 시뻘겋게 피를 흘리며 도망친다는게 해안포진지앞으로 곧추 들어오더구만. 아깝게도 잘생긴 놈이였어.
범도 잡고보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더니 아닌게아니라 그런 멋쟁이를 잡고나니 아쉽더구만. 이거야말로 벼락맞은 소고기나 같은지라 기지에 있는 각 구분대들이 저마다 전마선을 타고 모여들어 고기덩이를 베여냈는데 그 작업이 주야간 사흘이나 걸렸네.
저울에 달아보니 총무게가 열다섯톤이 넘었어.》
모두들 입을 하 벌리고 혀를 내둘렀다.
《우리 해안포중대엔 이런 재미가 가끔 있다네.
참, 여보게 서해친구, 기뻐하게.》
리대훈이가 자기를 서해친구라고 부르며 무작정 기뻐하라니 김군옥

은 어리둥절해졌다.

《나 인차 남포기지로 갈것 같네. 거기에도 해안포구분대가 새로 나오거던.》

수상보안대시절을 상기시켜주는 서해요, 남포요 하는 소리를 들으니 김군옥은 고향바다가의 파도소리를 들은듯 무둥 반가왔다.

《참, 그 친구 잘 있나? 동해친구 말이야.》

《고준무 말인가?》

《응, 그 친구 학교땐 제가 동해출신이라고 꽤나 으시댔지. 〈뽀쫌낀〉 선생도 잘 있나?》

《승선지도로 함께 왔네. 해군사령관동지를 만나러 갔는데 이제 오시겠지.》

함선호각소리가 명랑하게 울렸다.

직일관인 김도형이 소리쳤다.

《정대장동지, 어서 손님들을 데리고오십시오. 저녁식사시간이 두시간이나 지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나니 배가 출출했다.

《대훈이, 함께 식사나 하기요.》

《아니, 우린 이미 했소.》

《어서 가자구. 해군군관학교 정치부교장동지도 오셨소. 함선승무원들의 솜씨가 어떤지 한번 맛을 보라구.》

부두를 식탁삼아 길게 차려놓은 저녁식사는 과연 잔치상에 못지 않았다.

소고기장졸임, 청어찜, 무우오가리절임, 절인 게, 운단 등은 군관가족들이 성의껏 마련해준 반찬이고 고소한 김이 문문 나는 어죽은 조정철이 학생들과 함께 가져온것이였다.

바람은 선들선들 불어오고 잔파도는 가락맞게 배전을 치고 달빛은 유정하게 흘러내린다.

천렵놀이를 하는 기분으로 모두 즐겁게 식사를 하는데 부두입구쪽에서 누군가 춤을 추듯이 비칠거리며 갈지자로 걸어왔다. 그러다가 턱 멈춰서더니 손가락질을 했다.

《여! 동무네 거기서 뭘해?》

목소리를 들으니 거나해서 트집을 잡듯이 소래기를 치는건 작전과

장이였다.
모두들 깜짝 놀라 식사를 멈추고 일제히 그를 바라보았다.
부두에 두줄로 주런이 마주앉은 그들을 잠시 지켜보던 한백천은 뒤늦게야 식사중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언성을 낮추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음, 식사를 하고있군. 많이들 드오.
난 말이요, 평양으로 떠나는 해군사령관동지를 바래주고오는길이요. 에— 중장동지는 동무들이 정박장타격훈련을 아주 잘했다고 대단히 기뻐하셨소.》
한백천은 누가 밀치기라도 한듯 위태롭게 비틀거리더니 가까스로 몸의 균형을 바로잡았다.
《그래서 말이요, 중장동지는 동무들에게 축배를 부어주겠다고 여기에 찾아왔더랬소. 거 있잖소. 모스끄브스까야말이야.
쏘련의 유명한 워드까를 부어주겠다고 해군사령관동지가 직접 찾아왔댔는데 동무넨 없더구만. 무슨 써클구경인지 뭔지 하러 갔댔다면서?
엥이! 동무넨 참 아까운 기회를 놓쳤소.
그러니 어쩌겠소. 동무네 대신에 아니, 어뢰정대를 대표하여 내가 마셨지.》
한백천은 또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자 비틀거리다가 배말뚝에 주저앉았다. 해군복을 입은 사람이 배말뚝에 앉는건 몰상식한 행동이지만 그는 그런것을 념두에 둘 형편이 못되였다.
《해군사령관동지와 나는 동무네 나이때 발뜨함대와 태평양함대에서 복무했소. 우린 전투함 〈뽀쫌낀〉도 순양함 〈아브로라〉도 다 구경했단 말이요. 그때 우린 세계혁명을 수행했소.》
김군옥은 일어나 장광설을 늘어놓는 그에게 다가갔다.
《상좌동지, 함께 식사합시다.》
한백천은 세차게 도리질을 했다.
《싫소! 난 먹고왔소. 오래간만에 흘레브에 빠다를 발라서 맛있게 먹었지. 동무넨 지금 뭘 먹고있소?》
《어죽입니다.》

《어죽은 어디서 났소?》

《정치부교장동지가 가져왔습니다.》

한백천은 흠칠 놀라더니 비틀거리며 엉거주춤 일어났다.

《정치부교장이 어디에 있소? 어디에?》

김군옥은 그를 조정철의 곁으로 부축해갔다.

조정철은 자기앞에 다가온 한백천을 말없이 바라보는데 눈초리가 여간만 엄하지 않았다.

그 눈길을 피하려고 애를 쓰던 한백천은 고개를 푹 떨구며 한숨을 쉬였다.

조정철은 나직하나 엄하게 물었다.

《취했소?》

한백천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몸을 가까스로 바로잡으며 주눅이 든 어조로 공손히 대답했다.

《예, 오래간만에 마시다나니…》

《그럼 해도실에 들어가 좀 누워있소.》

한백천은 공손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김군옥의 부축을 받으며 어뢰정의 지휘소에 올라가 망홀안으로 들어갔다.

조정철은 그제서야 엄한 기색을 풀며 정대원들을 돌아보았다.

《자, 어서 듭시다.》

흥은 이미 깨여진지라 모두들 묵묵히 수저를 놀렸다.

조정철은 식사가 끝나자 젊은 정대장과 함께 조용한 부두끝에 나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정인준의는 잘 있소?》

《예, 그 동문 이번에 원항해타격훈련에 참가하려다가 퇴박을 맞았습니다.》

조정철은 녀장부의 모습을 대견하게 그려보며 빙그레 웃었다.

《정말 괜찮은 처녀야. 훈련을 앞두고 어뢰정마스트에 돛을 달자는 묘안도 정인준의가 내놓은거라지?》

정치부교장이 이렇게 묻는걸 보니 문화부정대장이 그런 말을 한것 같았다.

《아닙니다, 그건 문화부정대장이 발기한거지요.》

《음, 그 동무를 만나보니 정말 진국이더구만.》
김군옥은 자랑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예,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일군입니다.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훈련도 문화부정대장동무가 적극 지지해주어서 성사된것입니다.》
조정철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음, 지휘관과 정치일군은 그렇게 보조를 맞추고 배합작전을 잘해야지. 그런데 혹시 동무가 훈련일면에만 치우치면서 문화사업은 등한히 하는게 아닌가?》
김군옥은 그러지 않아도 해군군관학교에서 준비한 예술공연을 보고 생각이 많았던지라 자책감에 얼굴이 화끈해졌다.
《정대장동무, 문화사업은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고상하고 풍만한 정서와 혁명적락관을 안겨주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요. 이 사업을 등한히 하면 정대원들을 높은 공격정신을 지닌 사상의 강자로 키울수 없소.
그래서 말이요, 최근 놈들의 북침소동으로 정세가 매우 긴장하지만 인민군적인 예술경연과 발명 및 미술경연을 조직한거요.
우린 산에서 왜놈들과 싸울 때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으며 〈한 자위단원의 운명〉과 〈피바다〉를 비롯한 연극도 공연하군했소. 인민군대는 항일의 전통을 이어받았기때문에 훈련도 생활도 빨찌산들처럼 해야 하오.》
조정철은 심각한 자책에 잠겨 고개를 떨구고있는 젊은 정대장의 어깨를 다정히 잡았다.
《어뢰정대는 인민해군을 대표하는 중요한 전투구분대요. 그래서 당에서는 중앙당학교를 나온 일군을 문화부정대장으로 보내준거요. 정대의 쌍기둥인 동무들이 합심을 하고 협력을 해야 정대원들을 펄펄 나는 싸움군으로 키워낼수 있소. 그래야 일단 유사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그 어떤 대적과 싸워도 이길수 있단 말이요.》
김군옥은 고개를 번쩍 들고 가슴을 쭉 펴며 씩씩하게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13

며칠간 조용하던 어뢰정대의 식당이 이른아침부터 별안간 활기를 띠고 흥성거리기 시작했다.

원항해타격훈련에서 성과를 거두고 귀로에 오른 어뢰정대가 이제 두 시간후이면 입항한다는 련락을 받고 김정녀를 비롯한 군관안해들이 식당에 나와 앞치마를 두르고 식사준비에 달라붙었던것이다.

녀맹위원장인 정녀는 지금처럼 군관안해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자연히 책임자가 되군 했다. 그는 만삭이라 남산같이 나온 배를 자랑스럽게 내밀고 뚱기적거리며 주방안을 오가면서 녀인들에게 이것저것 조언을 주거나 잔소리도 했다.

서너명정도로 조촐한 한가정의 밥이나 짓던 녀인들이 한꺼번에 수십명분의 식사를 보장하자니 수월치 않았다. 그것도 특식을 차리자니 일손이 딸려서 모두들 분주히 서둘렀다.

이럴 때 흰 군복상의에 까만 치마를 받쳐입은 녀성군관이 시원한 해풍이 불듯이 신선미를 풍기며 불쑥 들어섰다.

《수고들 하십니다!》

모두거리로 인사를 한 그는 김정인이였다.

군관안해들은 온몸에 탄력이 넘치는 군관복을 입은 처녀를 부러움에 찬 눈길로 바라보았다.

정인은 곧 탈의실에 들어가 취사복을 입고나왔다.

《물고긴 내가 손질할테니 식칼을 이리 주세요.》

그는 서툰 솜씨로 청어를 손질하고있는 리완근정장의 안해에게서 식칼을 넘겨받더니 날랜 솜씨로 잠간사이에 일을 끝냈다.

다음엔 부뚜막앞에 나서서 지져내고 볶아내고 튀겨내는데 그 솜씨가 어찌도 날랜지 그저 번쩍번쩍했다.

녀준의에게 일감을 떼우고 한걸음 물러나 구경하던 녀인들은 저마다 혀를 내둘렀다.

《저런! 고급료리사가 왔다 울고가겠군요.》
《언니네 동생이 군관이기에 밥을 지을줄도 모르겠거니 했더니 솜씨가 대단한데요.》
정녀는 군관안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동생을 정겹게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정인인 어린 나이에 배를 타고 밥짓는 일을 했어요.》
녀인들은 이제야 알만 하다고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랬댔구만.》
《남정네들도 타기 힘든 배를 녀자의 몸으로 어떻게 탔을가?》
《해방이 정말 좋구만요. 배를 타고 고생을 하던 천덕꾸러기가 의학공부를 하고 군관이 됐으니 말이예요.》
《눈이 어글어글한게 얼마나 멀끔하게 잘생겼소. 게다가 의술이 있겠다 료리솜씨도 있으니 저런 처녀에게 장가드는 총각은 정말 좋겠어요.》
정인은 자기를 두고 찧고까부는 소리를 듣는척도 하지 않고 성수가 나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어뢰정대가 훈련에서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다니 그 이상 기쁘고 반가울수가 없었다.
어뢰정대가 없으니 이 며칠동안은 군항이 텅 빈것만 같았다. 그래서 허전한 가슴으로 누구인가를 찾으려고 헛되이 애쓰군 했다. 그가 그립고 보고싶어서 밤이면 잠을 이룰수가 없을 지경이였다. 그가 이렇게까지 보고싶을줄은 생각지 못했었다.
그리움이 넘치는 마음 한구석엔 야속함도 없지 않았다.
어뢰정대와 함께 자기도 원항해타격훈련에 참가했어야 하는데 바로 그가 우유부단하게 나오는통에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데로부터 오는 야속함이였다.
기지장이 초보적인 승인을 했으니 정대장만 결심하고 내밀면 얼마든지 성사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작전과장이 당치않은 리유로 반대하자 그는 찍소리도 못했지, 그러고보면 주대가 없는것 같애, 주대가 없으면 우선 사내답지 못한것이고 지휘관구실도 제대로 할수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가 보고싶고 못 견디게 기다려지는걸가?

식사준비를 불이 번쩍나게 하면서도 정인의 신경은 미구하여 어뢰정들이 기세좋게 울부짖으며 입항하게 될 부두에 쏠려있었다.
밥을 푸고 접시에 여러가지 반찬들을 보기 좋게 담아 렬을 지어놓고나니 날이 활짝 밝았다.
부두에 계류한 함선들마다에서 식사시간을 알리는 함선호각소리가 련이어 울려왔다.
그런데 기다려마지않는 어뢰정들의 발동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이게 어찌된 일이예요?》
《글쎄 말이야, 이젠 입항할 시간이 퍽 지났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긴게 아닐가요?》
남편이 바다에 나가면 입항할 때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는 녀인들이라 걱정스러워서 창밖으로 부두를 바라보며 한마디씩 했다.
김정인은 얼른 검식을 한 다음 탈의실에 들어가 군복을 갈아입고 위생가방을 메고서 부두로 나갔다.
부두에서 경쟁적으로 대렬합창을 하며 기세를 올린 해병들이 줄을 지어 자기 함선의 갑판에 올라가고있었다. 함선들의 갑판엔 아침식사를 차려놓았다. 해병들은 비오는 날이나 추운 겨울을 내놓고는 이처럼 시원하게 해풍이 불고 아름다운 경치를 얼마든지 바라볼수 있는 리상적인 장소인 갑판에서 식사하기를 즐겼다.
소포정11호의 사령탑에서 쌍안경으로 바다쪽을 지켜보던 고준무는 무심결에 고개를 돌리다가 부두에 나타난 녀준의를 발견했다.
《준의동무! 어서 오라구.》
김정인은 고준무정대장에게서 어뢰정대의 소식을 들을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얼른 소포정의 사령탑으로 올라갔다.
《여기서 뭘합니까?》
고준무는 다시 쌍안경을 들고 바다쪽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어뢰정대가 입항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오. 군옥정대장과 아침식사를 함께 하려댔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구만. 준의동무도 그 친구를 맞이하러 나왔겠지요?》
정인은 실무적인 투로 응대했다.
《난 어느 한사람이 아니라 어뢰정대를 맞이하러 나온거예요. 아실테지만 난 어뢰정대를 담당한 준의니까요.》

고준무는 쌍안경에서 눈을 떼더니 금이발을 번쩍거리며 능글맞게 웃었다.

《시치미를 떼지 마오. 동무야 오래전부터 그 친구와 남다른 사이였지. 수상보안간부학교개교식을 앞두고 동무네 둘이서 나란히 학교정문에 들어서다가 〈뽀쫌낀〉선생한테 걸려들던게 아직도 내 눈앞에 생생하단 말이요. 그때 동무가 입학을 하지 못하고 아저씨에게 붙잡혀간건 참 유감스러운 일이였지.》

《그런 하찮은 일까지 기억해주니 고맙군요.》

《그게 왜 하찮은 일이겠소. 난 잊을수 없소. 처녀들은 많지만 수상보안간부학교에 감히 입학하겠다고 찾아온 처녀는 오직 한명뿐이였으니 어떻게 잊을수 있겠소.》

너스레를 피우던 고준무는 갑자기 정색해지더니 부랴부랴 갑판에 내려갔다. 그는 심상치 않은 기색으로 부두에 나타난 기지장을 발견했던것이다.

소포정갑판에 올라선 홍동철은 고준무에게 식사가 끝나면 곧 출항할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고준무는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홍동철은 갑자기 어금이라도 쏘는듯 오만상을 찡그렸다.

《어뢰정대에 사고가 났소.》

속이 조마조마해졌던 김정인의 귀에는 아저씨의 그 말이 폭음처럼 울렸다.

사고가 나다니?!

깜짝 놀란 처녀의 얼굴은 해쓱하게 질렸다.

《호랑이반도앞에까지 와서 25호정이 기관고장으로 턱 멈춰섰다는거요. 그래서 지금 25호정을 끌고오노라 역사질을 한다는구만, 제기랄!》

홍동철의 입에서는 험한 욕이 터져나갔다.

웬간한 일에는 눈섭 한오리 까딱 안하는 그였지만 지금은 속이 탈대로 탔다.

그는 우에서 그리 달가와하지 않는 원항해타격훈련을 억지공사로 벌려놓고서 사고가 날가봐 속이 조마조마해있던 참이다. 다행히도 훈련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귀항의 배길에서 진행한 타격훈련과 부두

설비가 없는 해안에서의 연유보충 그리고 어뢰발사훈련도 무사히 했다. 그런데 군항 코앞에 와서 이런 엄중한 사고가 발생한것이였다.

소포정11호는 부랴부랴 식사를 끝내고 출항하였다.

김정인은 그냥 소포정에 남아있어야 할지 아니면 부두에 내려야 할지 알수 없어서 숨을 죽이고 눈치를 살폈다. 어뢰정대의 비상사고라는 긴박한 정황에 정신이 팔려서인지 누구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안도의 숨을 호 내쉬였다.

소포정은 사납게 울부짖는 어뢰정과는 달리 순하고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방파제끝을 에돌아 호랑이반도쪽으로 배머리를 돌렸다.

한시간 좋이 나가는데 수평선쪽에서 불어오는 해풍에 실려 귀에 익은 어뢰정들의 발동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기운차지 못하고 어딘가 모르게 주눅이 든것 같았다. 이윽고 저속으로 항해하며 마주오는 어뢰정들이 눈에 띄웠다.

앞선 세척의 어뢰정들은 발사했던 어뢰들을 회수하여 끌고오고 뒤에선 21호정이 25호정을 예선바줄에 매서 끌고오고있었다.

소포정은 21호정에로 접근해갔다.

21호정사령탑에 상반신을 내밀고 서있는 김군옥정대장과 한백천작전과장, 김도형정장의 얼굴이 점차 뚜렷이 안겨왔다. 모두 안색이 컴컴하게 질려서 김정인은 마주보기조차 괴로왔다.

김군옥은 속도를 늦추며 마주오는 소포정의 갑판에 서있는 김정인과 눈길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리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선수갑판의 앞코숭이에 나간 홍동철은 소포정과 어뢰정과의 사이가 좁혀지자 날쌔게 뛰여건너갔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그는 속이 탈대로 탔던지라 눈을 부라리며 다짜고짜로 언성을 높여 물었다.

김군옥은 괴롭게 얼굴을 찡그렸을뿐 대답을 하지 못했다.

곁에서 매우 고까운 눈초리로 그를 흘겨보던 한백천이 큰소리로 대답했는데 마디마디에서 울분이 튀여나왔다.

《이 동무들이 돌아올 때 계속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나니 기관에 무리가 가서 고장이 났지요. 난 정대장동무에게 정박장습격훈련이 성과적으로 됐으니 다른 훈련은 하지 말고 무사히 돌아가자

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무가 어디 내 말을 듣습니까? 안하무인이고 고집불통입니다.》

작전과장이 훈련을 하느라 복잡하게 굴지 말고 그냥 가자고 한건 사실이였다.

김군옥은 그럴수 없었다.

값비싼 기름을 수백마일이나 되는 먼 항해길에 뿌리면서 왜 그냥 간단 말인가? 이 기회에 어뢰돌격을 비롯한 각종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야 했다. 그래서 자기 의향을 말하니 작전과장은 그만두라면 그만두라고 소래기를 치고는 고개를 구겨박고 잠을 잤다.

김군옥은 만취된 그와 더 이러니저러니하고싶지 않았다. 어뢰정대는 계속 훈련을 하면서 왔다.

호랑이반도앞에서 어뢰발사훈련을 하고 쏜 어뢰를 찾아서 수색기동을 하는데 25호정의 기관이 둘 다 거의 같은 시간에 저절로 꺼지는 통에 소동이 일어난것이였다.

홍동철은 예선삭에 매여 끌려오는 25호정의 처량한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기관고장의 원인은 뭐요?》

김군옥은 꾹 다물고있던 입을 겨우 뗐다.

《아직은 모르겠답니다.》

한백천이 악에 받쳐서 또 고아댔다.

《모를게 있소? 기관이 과부하를 받아서 선거란 말이요! 준마도 마구 때려몰면 끄꾸라지는 법이요. 다른 함선들도 그렇게 될수 있소.

실정에 맞지도 않는 훈련을 괜히 벌려놓고 값비싼 어뢰정들만 혹사시켰으니 그 책임을 누가 지겠소? 누가?》

김군옥은 가뜩이나 졸아들었던 가슴이 섬찍해졌다.

작전과장의 말대로 장기항해의 부담을 이겨내지 못해서 기관이 고장났다면 정말 야단이다. 다른 어뢰정들도 그렇게 될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홍동철이 지시했다.

《정대장, 25호정을 떼놓으라구.》

김군옥은 공연히 흠칠 놀랐다.

《예?!》
《빨리 떼놓고 정대를 입항시키시오. 25호정은 소포정이 끌고가겠소.》
김군옥은 기지장의 명령대로 25호정을 고준무에게 넘겨주고 어뢰정대를 이끌고 기지로 갔다.
그의 안색이 어찌도 무겁고 어두웠던지 입항한 후에 김정인은 곁에 다가가 위로해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김군옥은 입맛이 쓰거워서 군관안해들이 성의껏 차린 아침식사를 드는둥마는둥했다.
그는 기관장, 조기조장, 조기수와 함께 25호정기관실에 들여박혀서 고장원인을 찾노라 모지름을 썼다. 기관을 해체해놓고 하나하나 조사해보았지만 고장난 부분이 없었다. 기관을 조립하고 시동을 걸었다. 몇번 짜르릉거리더니 이내 발동이 꺼졌다. 파연 맹랑했다.
《젠장! 시시펀펀한 기관이 왜 이래?》
채기정은 악이 나서 씩씩거렸다.
숨죽인 기관을 여기저기 만져보기도 하고 도면을 보거나 나중엔 작업일지까지 뒤적거리던 그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던지 피뜩 고개를 돌리며 정대장을 바라보았다.
《이거 혹시 기관수명이 다된게 아닐가요?》
김군옥은 속이 섬찍했다.
《뭐라구?!》
《이걸 보십시오.》
채기정은 배기름에 뚜껑이 절은 작업일지를 넘겨주었다.
《가동시간을 종합하면 275시간 35분입니다.》
《그러면 아직 24시간이상이 남아있잖소.》
《저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여길 보십시오. 수자를 여러 군데나 틀리게 써넣었습니다.》
채기정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어뢰정을 접수하기 전에 정리한것이였다. 24시간이상의 오차는 거기서 생긴게 분명했다.
그래, 고속기관의 수명이 300시간이지, 나는 왜 여태 그것을 명심하지 못했던가? 이건 고장보다 더 야단이다, 병에 걸린 사람은 치료

하면 된다, 그러나 늙어죽는 사람이야 어쩔수 없지 않는가, 기관도 마찬가지다.

김군옥은 덴겁을 하며 갑판으로 뛰쳐나갔다.

기관실에 들어가는 망홀옆에 쭈그리고앉아 안에서 진행하는 일을 근심스레 지켜보던 다른 어뢰정의 기관장들이 와뜰 놀라며 일어났다.

《동무들! 빨리 기관작업일지를 검토해보시오.

총가동시간을 종합하오. 우리가 어뢰정을 넘겨받기 전부터 오늘까지 기관을 돌린 시간을 1분도 빼놓지 말고 다 계산에 넣소.

정장동무들도 함께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하시오.》

김군옥은 지시나 주고 기다릴수가 없어서 21호정의 기관작업일지를 자기가 직접 검토해보았다.

총가동시간이 260시간 25분이였다.

그러니 수명은 40시간정도 남아있었다. 보고를 들어보니 다른 어뢰정들도 엇비슷했다. 만약 25호정처럼 어뢰정을 접수받기 전에 정리한 부분에서 오차가 생기면 수명은 더 짧을수도 있었다.

아! 이를 어쩌면 좋은가?

절망에 빠진 그는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더니 헉! 하고 흐느끼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이튿날 정대는 어뢰정들을 상가장에 끌어올리고 함선정비에 들어갔다.

한주일나마 파도에 부대껴서 소금투성이가 된 어뢰정을 제때에 깨끗이 씻어주지 않으면 구석구석에 부식현상이 생기게 된다. 알루미니움합금으로 만든 어뢰정선체는 일단 부식이 시작되면 걷잡을수 없다.

상가장은 급유와 급수설비가 되여있는 부두로부터 어지간히 떨어져있어 선체청소를 할 때면 물을 길어오기가 힘들었다.

정대원들은 백리터짜리 도람통을 쇠줄로 꿰여 목고로 물을 긷노라 땀을 철철 흘렸다. 함선승무원들은 물동량을 거의다 목고로 나른다. 그래서 배군들의 뒤덜미나 어깨엔 혹처럼 목고살이 생긴다. 그것만 보아도 배군인지 아닌지 알수 있을 정도다.

《영차! 여이차!》

목고를 할 때 앞뒤에서 이렇게 소리치다나면 어쩔수 없게 발을 맞추게 된다. 그러면 흔들거리던 물통안의 물이 넘쳐나 쏟아지기마련이다.

김군옥과 채기정은 이런 봉변을 당하고 물참봉이 되였다.

《여! 발은 왜 맞추는거야?》

기관사고로 가뜩이나 신경이 예민해진 김군옥은 버럭 역정을 썼다.

채기정은 얼굴에 뿌려진 물방울을 손으로 훔치며 중얼거렸다.

《우정 그런건 아닙니다. 저절로…》

김군옥은 공연히 화를 낸 자신이 민망스러웠다.

《에라! 엎어진김에 쉬여간다는데 우리도 쉬자구.》

그들은 물이 거의 절반이나 쏟아진 도람통옆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숨을 돌렸다.

정대장의 눈치를 살피던 채기정은 기대가 담겨진 목소리로 은근히 물었다.

《저… 정대장동지, 언제 시작할가요?》

인젠 쓸모가 없게 된 25호정을 두고 속을 썩이던 김군옥은 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거냐? 하는 기색으로 채기정의 어줍어하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거 있잖습니까. 발명 및 미술경쟁대회 말입니다.》

대회를 앞두고 어뢰정대에서는 여러점의 발명품과 미술작품들을 올려보냈는데 그중 당선이 기대되는것은 채기정의 작품인 조각 《바다의 수호자》였다.

《동문 속두 편한게로군. 기관을 그 꼴로 만들어놓고 무슨 왕청같은 생각을 하고있어?》

핀잔을 받은 채기정은 얼굴이 벌개졌다.

《거 뭐… 수명이 다된걸 난들 어쩌는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낼 방도를 찾아야지. 조선소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 의논해보라구.》

채기정의 아버지는 올해초에 발족된 합선건조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였다. 그는 합선건조사업을 통이 크게 밀고나가며 노상 조선소들에 나가있었다. 채정보위원장을 만나면 혹시 무슨 수가 생길는지도 모른다.

채기정은 체념한듯 꺼지게 한숨을 내쉬였다.
《아버지를 만나봐야 별수가 없습니다. 수명이 다된 기관은 대수리를 해야 합니다. 크랑크축과 메달들, 기통과 피스톤을 새로 깎아맞춰넣으면 150시간을 더 돌릴수 있다고 합니다.》
김군옥은 귀가 솔깃해졌다.
《음, 방도가 있긴 있구만. 당장 대수리를 하자구.》
《그게 기관을 새로 만드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수리를 하자면 우선 기술과 기능이 문제지요. 강철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이 발전해야 합니다. 피스톤을 만들 합금강재료만 놓고봐도…》
김군옥은 와짝 신경질이 나서 눈을 부라렸다.
《동무가 그런걸 연구하란 말이야, 찍하면 그림이나 그리거나 진흙장난을 하지 말고.》
《정대장동지두…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고속기관을 만들어낼 시기가 오겠지요. 고속기관대수리는 그때에 가야 가능합니다.》
그들은 엉치를 툭툭 털고일어나 다시 목고를 하고 상가장으로 갔다. 선체청소를 하노라 떠들썩하던 상가장이 웬일인지 조용해졌다. 그들이 물통을 놓고 모두들 어디 갔나? 하고 두리번거리는데 21호정에서 문화부정대장이 사다리대용으로 걸쳐놓은 배다리를 타고 재빨리 내려왔다.
리학섭은 싱글벙글하면서 손에 쥐고있던 《조선인민군》신문을 정대장에게 주었다.
《자, 이걸 보시오. 발명 및 미술경쟁대회가 개막됐습니다.》
그 소식을 학수고대하던 채기정이 환성을 올리며 춤을 출듯 기뻐했다.
김군옥은 그와 함께 신문을 펼쳤다.

5월 4일 오후 4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인민군 제2차 발명 및 미술경쟁대회가 개막되였다.
170여점의 발명 및 창의고안품들과 600여점에 달하는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였다.
이는 지난 동기훈련기간에 이룩한 전투력강화의 일대 시위로 된다.

채기정은 좀 아쉬워했다.
《이거 아직 등수는 안 나왔구만요.》
《꽤나 조급해하는군. 벌써 등수가 나올리 있나.》
리학섭은 주전자에서 물을 한고뿌씩 부어주었다.
김군옥은 갈증이 났던지라 사양없이 받아서 단번에 쭉 마셨다.
《어! 시원하다. 거 물맛이 정말 좋군요.》
《준의동무가 저 도래굽이에서 샘을 발견했지요. 이게 그 샘물입니다.》
김군옥은 대뜸 귀맛이 동했다.
해병들은 노상 짜거운 바다물우에서 사는지라 샘물을 그리워했다. 아마 한모금의 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은 해병들일것이다. 먼바다우에서 물은 곧 생명을 의미했다.
《샘이 있다기에 모두들 환성을 올리며 거기로 달려갔답니다.》
《우리도 어서 가봅시다.》
샘터는 부두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었다.
파도가 이랑이랑 줄지어 밀려오는 바다기슭의 모래불에서 샘이 솟구치는것은 정녕 신기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정대원들은 금모래를 바글바글 일구며 쉬임없이 솟구치는 맑은 샘을 둘러싸고 환희에 넘쳐 아이들처럼 법석 떠들어대고있었다. 넙적 엎드려서 코등을 시원히 적시며 꿀꺽꿀꺽 물을 들이키기도 하고 서로 물을 끼얹어주기도 했다.
김정인은 이처럼 기뻐하는 해병들을 바라보며 행복에 겨운 미소를 담뿍 머금고있었다.
김군옥에게는 그 모습이 유정하게 안겨왔다.
김군옥은 처녀에게 다정한 눈짓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고나서 샘앞에 쭈그리고앉았다.
숨쉬는듯 한 맑은 샘을 보니 마음이 맑아지고 머리가 거뜬해졌으며 구태여 마시지 않아도 온몸이 시원해지는것만 같았다.
물량이 적지 않아서 음료수로 쓰고 남아 어뢰정을 청소하기에도 충분해보였다.
그는 두손을 벌려짚고 넙죽 엎드려서 얼굴을 다 적시며 샘물을 량껏 들이켰다.

얼마나 상쾌한지 그야말로 날아갈듯 한 기분이다.

며칠만에 얼굴이 환해진 그를 보며 박원협이 말했다.

《정대장동지, 제가 즉흥시를 한수 읊으랍니까?》

《어디 들어보기요.》

박원협은 샘을 다시한번 정답게 굽어보고나서 고개를 추켜들더니 가슴속에 차넘치는 격정을 석쉼한 목청으로 내뿜었다.

해당화 반겨웃는 백사장에
퐁퐁 솟아나는 맑은 샘
세찬 파도 줄지어 밀려와도
쉼없이 솟아만 나네

정다운 군항에 닻을 내리고
한달음에 달려와 너를 보니
엎드려 한참이고 마시고싶고
어뢰정에도 너를 뿌려주고싶구나

머나먼 항해길에선
네 한모금 귀중해
반모금은 마시고
나머지로 갑판을 닦았거니
그러지 않고서야
너의 귀중함 그 어이 알리

목소리가 변변치 않아도 시내용은 그럴듯했다.

모두들 잘한다고 소리치며 박수를 쳤다.

그쯤하고 그만두려던 박원협은 관중의 고무에 부쩍 기세가 올라서 한손을 높이 쳐들고 바다기슭을 거닐면서 더한층 격조를 높이였다.

파도를 헤쳐 수평선
저 멀리 가면 갈수록
사무치게 그리운 이 땅이

내 사랑하는 어머니조국이기에

파도에 뒹굴다 안긴
이 아들을 위해
너는 풍만한 젖줄기를
맑은 샘으로 뿜어주는가

그래 마실수록 새힘이 솟고
사랑하는 이 땅을 지켜
수평선천리도 단숨에 달릴
억센 용기 용솟음치노라

조국의 아들이 된 본분을
마실수록 새겨주는 샘이여
해병들 마음속엔 네가 있으리
언젠가 울려퍼질 승리의 합성
영광의 그 노래속에도 네가 있으리

또다시 박수갈채가 일어번졌다.

김군옥은 정녕 놀라운 눈길로 박원협을 바라보았다. 그가 노래를 즐겨하는줄은 알고있었지만 자작시까지 읊을 정도로 문학적소양을 겸비한줄은 몰랐던것이다. 그러고보면 문화부정대장이 그를 오락회책임자로 임명한것은 우연이 아니였다.

《시가 좋구만! 예술경연대회에 나갈만 하오.》

《이제라도 평양으로 떠나게.》

저마다 웃으며 한마디씩 했다.

어뢰정대는 원항해타격훈련을 진행한 후 부랴부랴 예술경연대회에 나갈 준비를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어뢰정들을 상가하고 함선정비를 하는 여가에 합창과 중창을 겨우 맞추었는데 기지에서 진행한 시연회에서 불명예스럽게도 락선됐다.

그래 미리부터 준비를 착실히 했다가 다음해에 진행하는 예술경연에는 꼭 참가하여 그 기회에 집체적으로 평양구경도 하자고 벼르는중

이였다.
주변을 둘러보던 리완근정장이 넌지시 시비를 걸었다.
《갑판장동무, 시가 괜찮은데 진실하진 못하구만.》
《예?!》
찬사에 떠받들려 우쭐해졌던 박원협은 비평을 받고 긴장해졌다.
《동무는 서두에서 〈해당화 반겨웃는 백사장에 퐁퐁 솟아나는 맑은 샘〉이라고 했는데 해당화가 도대체 어디에 있어?》
바다가라면 의례히 해당화가 있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정대원들은 새삼스레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래불과 바위들 그리고 키높이 자란 아카시아나무들이 눈에 띄울뿐 해당화는 없었다.
헌데 난처해할줄 알았던 박원협은 벙글서 웃으며 의미있는 눈짓으로 한쪽옆에 서있는 김정인을 가리켰다.
《저기에 있지요.》
모두의 눈길이 녀준의에게 쏠렸다.
김정인은 수줍어서 얼굴을 활딱 붉혔는데 그 모습이 과연 활짝 핀 해당화처럼 아름답고 싱싱도 했다.
모두들 자기네 정대를 담당한 녀준의가 이런 미인인줄 모르고 여태 지내다가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듯 경탄을 했다.
《히야!》
부끄러워 몸둘바를 몰라하던 김정인은 급급히 도망쳐버렸다. 그의 뒤모습을 이윽토록 바라보던 리학섭은 정대장을 넌지시 돌아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생김새도 꽃처럼 곱지만 마음은 꽃보다 더 아름다운 처녀요.》
김군옥은 마음이 즐거워졌다, 마치 자기가 칭찬을 받은듯이…

14

5월은 작년 12월부터 진행하여온 동기훈련을 총화하고 다음달부터

진입하게 될 하기훈련을 준비하는 완충기다. 그렇지만 허리띠를 풀어놓을수가 없었다. 요즘 정세는 긴장할대로 긴장해져서 전쟁접경에 이르렀던것이다.

미제의 조종을 받는 리승만괴뢰도당은 괴뢰군 8개 보병사단중에서 5개 사단을 38도선일대에 집중배치하고 매일과 같이 우리측 지역을 침공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책동을 감행하고있었다. 서해상에서는 괴뢰해군이 경찰선을 비롯한 각종 전투함정들을 우리 연해에 침입시켜 포사격을 하거나 평화적인 우리 어선들을 랍치하려고 혈안이 되여 날뛰였다. 동해상에서도 놈들의 도발이 있을수 있으니 경각성을 바싹 높여야 했다.

일본에 주둔하고있는 미해군의 7함대는 유사시에 여러개의 분함대로 갈라져 조선동해와 서해,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해상을 봉쇄하며 함포사격과 정박장타격, 대대적인 상륙작전으로 미지상군과 남조선괴뢰군을 지원할 작전계획을 짜고있다고 한다. 작전모의에는 패망한 일본해군의 고위장교들도 참가하고있다는것이다. 이처럼 전쟁의 검은구름은 시시각각으로 밀려들고있었다.

김군옥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어뢰정들을 상가시킨 조건에서도 훈련을 계속하기로 결심하고 훈련계획을 작성하여 작전과에 제출하였다. 한백천은 그가 들고온 훈련계획서를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여보, 어뢰정들을 다 상가대에 올려놓고 도대체 무슨 훈련을 한다는거요?》

김군옥은 기분이 상했지만 공손히 대답했다.

《도보항해훈련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도보항해훈련이란 함선을 타고 바다에 나갈수 없을 때 땅에서 걸으면서 하는 훈련이였다.

《그거야 비행사들이 하는 훈련이지.》

《우리도 해보자는겁니다. 도보훈련을 백번 하면 항해훈련을 서너번 한것과 맞먹을수 있지요.》

《태평양함대에서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소. 대신에 지휘관들이 해도를 펴놓고 탁상훈련은 자주 하오. 동무들도 그렇게 하라구.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세계해전사를 연구하오. 배울게 아주 많소.》

한백천은 자기가 자작 만든 커다란 해도사판을 가리켰다.

사판에 깔아놓은 푸른 유리판우에는 순양함과 구축함, 소해함을 비롯한 전투함정들의 모형들이 놓여있었다. 그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합선모형들을 움직이면서 유사시에 대비한 각종 해상전법들을 연구하군 했다. 지금은 비록 대해상작전을 벌릴만 한 큰 전투함선들이 없지만 앞으로는 생기게 될테니 희망을 가지고 미리 전투방안들을 짜놓아야 했다.

김군옥이 보기에는 작전과장이 지난날 수상보안간부학교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제나름의 세계에 잠겨있었다.

《작전과장동지, 래일이라도 당장 전쟁이 터질판인데 언제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여보, 전쟁은 과학이란 말이요. 해상전은 더욱 그렇소.》

《예,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해상전법들을 연구하고 훈련을 통하여 숙련시켜야 합니다. 우린 도보항해훈련을 이달만 하겠습니다.

하기훈련이 시작되면 어뢰정들을 하가하고 원항해타격훈련을 또 하겠습니다.》

《뭐라구?!》

한백천은 화가 잔뜩 나서 표표한 기색으로 눈을 지릅뜨고 무분별하기 이를데 없는 젊은 정대장을 쏘아보았다.

《그게 제정신이 있는 소리요? 전번 원항해타격훈련때 25호정의 기관사용시간이 지나서 페물이 된걸 벌써 잊었어? 다신 원항해타격훈련을 할수 없소!》

《그럼 가까운 바다에 나가서 어뢰발사훈련만이라도 해야 하겠습니다.》

《안돼! 절대로 안돼!》

한백천은 잡아떼듯이 오른손을 홱 내저었다.

《어뢰기관도 수명이 제한되여있는거요. 전번엔 멀쩡한 어뢰정을 페물로 만들더니 이젠 어뢰까지 못쓰게 만들자는건가? 어디 대답해보오!》

어뢰는 장약하지 않은 상태로 발사훈련을 하고 회수리용하는데 기관수명때문에 두번이상은 하기 곤난했다. 그렇다고 모의훈련만 하

면 실지 전투를 할 때 어뢰발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수 있었다.
《기지장동지에게 제기해주십시오.》
《동무가 제기하오. 난 상관하지 않겠소.》
김군옥은 함선정비가 기본적으로 끝나자 전투훈련에 들어갔다.
륙상병실정문옆에 놓인 직일탁을 마주하고 서있던 직일병이 《상학시작! 전투항해준비!》하고 웨치자 정대장으로부터 조기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대원들이 항해복을 입고 전투장구류를 착용하고 운동장에 달려나왔다.
정장들이 앞에 서고 기관장과 갑판장, 무전수, 조기조장, 조기수, 고사총수순서로 섰다.
해병들은 선자리에서 오른주먹을 쳐들며 보고했다.
《지휘소! 제1초소 전투준비 끝.》
《지휘소! 제3초소 전투준비 끝.》
…
초소들에서 올라온 보고를 받은 정장들이 정대장에게 정의 전투준비가 끝났음을 보고했다.
김군옥은 구령을 쳤다.
《출항준비! 21호정부터 리안할것!》
《알았다! 정 리안위치로! 선수바줄 올렷! 선미바줄 올렷! 기관 저속으로 전진!》
김도형정장의 지휘에 따라 21호정대렬이 먼저 도보를 시작했다. 다른 호정들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차례로 뒤따라갔다.
김군옥은 앞장서 걸으며 쐐기대형을 지으라, 벌린대형을 지으라 하고 련속 구령을 쳤다. 정장들은 힘차게 복창하고 대오는 여러가지 대형을 지으며 넓은 운동장을 빙빙 돌아간다. 적함을 발견하고 유인기동을 하다가 전투침로에 들어서자 모두 내달리기 시작했다.
항해복을 입고 전투장구류를 휴대한지라 달리기가 헐치 않았다. 모두들 단김을 내뿜고 땀을 철철 흘리며 내달린다. 부릅뜬 두눈에선 불이 일었다.
《연막을 칠것! 주의! 발사!》
먼저 어뢰를 쏜 기정이 변침하자 뒤이어 다른 어뢰정들도 차례로 어뢰를 발사했다.

기지로 돌아온다, 입항한다, 계류바줄을 던진다.
《전투경보해제! 상학휴식!》
직일병의 구령이 울리자 모두들 그 자리에 풀썩풀썩 주저앉았다.
너나없이 물에 빠졌다가 간신히 기여나온듯 군복이 푹 젖었다. 철갑모나 전화모를 벗으니 젖은 머리칼에서 김이 문문 피여올랐다.
《여, 이거 진짜항해훈련보다 더 급하구만.》
《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야.》
혀를 가로 물고 김빠진 소리를 하는데 정인이가 샘물을 담은 두개의 바께쯔를 량손에 쥐고 잽싸게 달려왔다. 모두 물을 마시며 시원하다느니, 이제야 살것 같다느니 하고 떠들어댔다.
김군옥은 저으기 못마땅한 기색으로 서있었다.
정대원들이 말하듯이 도보항해훈련은 실지 항해훈련 못지 않게 힘들었다. 그러나 소득은 너무 적었다. 이렇게 땅에서 모의훈련을 하며 만세나 불러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함대출항식날에 몸소 어뢰정21호를 타시고 바다에 나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간곡한 당부가 그의 귀전에 되살아났다.
《날바다우에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시오. 동무들은 땅우에서 큰소리를 쳐야 소용이 없소. 바다우에서 큰소리를 쳐야 하오. 그래야 적 구축함이나 순양함과 맞다들려도 주도권을 틀어쥐고 대담하게 먼저 공격하여 타승할수 있소.》
그렇다! 배를 타고 날바다에 나가서 훈련해야 한다, 그런데 어뢰정들을 상가대에 올려놓고있으니 난사다, 설사 하가시킨다고 해도 기관사용시간이 제한되여있으니 문제다, 어쩌면 좋은가?
그는 문화부정대장과 의논해보고싶어 건국실로 갔다. 리학섭은 도보항해훈련때마다 25호정대렬에 서서 함께 훈련하군 했다. 그리고는 휴식시간이 되면 숨돌릴새없이 건국실에 달려가서 라지오를 틀고 새 소식을 듣고 정대원들에게 알려주군 했다.
김군옥이 건국실에 들어가려는데 창문이 활짝 열리더니 환해진 문화부정대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동무들! 예술경연중계방송이요! 해군군관학교가 나온단 말이요!》
휴식을 하던 정대원들은 모두 환성을 올리며 건국실에 달려들어

갔다.

라지오에서는 귀에 익은 녀방송원의 독특하면서도 친근한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 4일 조선인민군회관에서는 예술경연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일째 공연을 중계해드리겠습니다. 해군을 대표하여 흰 군복을 눈부시게 차려입은 조정철소속부대가 무대에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합창 〈**김일성**장군의 노래〉.》

영생불멸의 혁명송가가 힘차게 울려나왔다.

김군옥은 합창대앞에 나서서 열정적으로 지휘봉을 흔드는 정치부교장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것만 같았다.

계속하여 《해군행진곡》이 씩씩하게 울려퍼졌다.

그것은 청진기지에 갔을 때 정치부교장에게서 직접 배운 인상깊은 노래여서 모두들 목청껏 따라불렀다.

예술경연중계가 끝나자 발명 및 미술경쟁대회에 입선한 발명품들과 미술작품들이 소개되였는데 그중에는 어뢰정대가 출품한 고사총야간조준훈련기재와 석고조각 《바다의 수호자》도 들어있었다. 환성이 터져올랐다. 수명이 다된 기관때문에 노상 울상이던 채기정의 얼굴에 오래간만에 웃음이 피여났다. 그는 어제 정대기관장으로 승급한 21호기관장의 후임이 되였다.

김군옥은 문화부정대장을 눈짓으로 밖에 불러냈다.

《이거 도보항해훈련이나 해가지고서는 될것 같지 않습니다. 며칠만 륙상생활을 해도 다시 배를 타면 처음엔 멀미가 나지 않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뢰정을 타고 바다에 나가서 훈련을 해야 할텐데…》

리학섭은 잠시 고개를 기웃거리다가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꼭 어뢰정을 타야 맛일가요. 꿩대신 닭이라는 소리도 있잖습니까.》

김군옥은 귀가 솔깃해졌다.

《가만, 그러니까 다른 함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자는겁니까?》

《예, 이왕이면 소포정이 좋지요.》

《고준무 그 친구가 소포정을 빌려줄가요? 아마 펄쩍 뛰면서 노발대발할겁니다.》
《그러게 잘 설복을 해야지요. 내가 한번 만나볼가요?》
《내가 만나지요.》
김군옥은 그길로 소포정대에 찾아갔다.
거기서는 공교롭게도 함선도장작업을 하고있었다.
여러 색갈의 뼁끼와 기계기름이 군데군데 묻은 작업복을 입고 채양이 없는 작업모를 쓴 해병들이 에나멜이 담겨진 깡통과 도장붓을 들고 마스트와 사령탑, 선수와 선미갑판 등 여기저기서 한창 칠작업에 열중하고있었다. 김군옥이 가까이 다가갔지만 칠작업에 정신이 팔려서인지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다. 고준무는 항해모를 비스듬히 제껴쓰고 여기저기 돌아보며 훈시를 했다.
《붓자리가 나지 않게 칠하라구. 말쑥하게 발라야 해.》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지 사령탑을 칠하는 해병에게 다가가 붓을 빼앗아들고 시범동작을 했다.
《자! 이렇게 살짝살짝 발라야 해. 도장을 하는걸 보면 그가 진짜 배기배군인지 햇내기인지 알수 있소.》
그는 도장붓을 넘겨주고나서 모두거리로 말했다.
《재삼 강조하는데 우린 1정대요. 기지와 함대의 기준정대란 말이요. 어뢰정대를 비롯한 모든 함정들이 우리를 따라배울수 있게 훈련도 함선관리도 잘해야 하오. 그렇지 않소?》
해병들은 붓질을 잠시 멈추고 목청을 합쳐 큰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결정적으로 어뢰정대를 따라앞서야 하오. 그럴수 없다면 1정대자리를 내놔야지.》
보아하니 고준무는 어뢰정대장이 곁에 다가온걸 보고 귀있으면 들으라고 우정 그렇게 큰소리로 말하는게 분명했다.
김군옥은 그에게 말도 붙여보지 못하고 슬며시 돌아섰다. 소포정들에 바른 에나멜이 충분히 마르자면 며칠이 걸려야 했다. 그는 속이 달아서 그쪽만 쳐다보다가 사흘을 못 참고 다시 갔다.
소포정들은 철선이여서 군데군데 시누런 녹물이 배여나와 지저분해보이댔는데 선체녹털기를 진행하고 마스트로부터 사령탑과 갑판,

현측에 이르기까지 쥐색에나멜을 발라서 아주 멋쟁이가 되였다.
장난꾸러기들이 방금 목욕을 하고 방금 새옷을 갈아입은것 같았다. 갑판에 칠한 에나멜이 마를 때까지 정대원들은 불편하지만 림시로 부두에 취사설비를 내다놓고 천막을 깔고 숙식하고있었다.
한낮이라 해빛이 쟁글쟁글 내리쪼이고 갓 피여나기 시작한 아카시아꽃의 향기가 그윽히 풍겼다.
정대원들은 칠감이 묻은 도장붓을 휘발유로 씻거나 불에 태운 뼁끼깡통을 다시 쓸수 있게 닦아내고있었다. 함선관리에서는 도장작업이 제일 힘든데 이처럼 뒤거두매 역시 헐치 않았다.
고준무는 전투예비물자를 넣은 함통들로 대충 둘러막고 우에 방수포를 씌운 이를테면 림시거처에 들어박혀 손가락끝에 침을 바르면서 돈을 세고있었다.
지전들을 단위별로 갈라 종이띠로 묶어놓고 각전들도 갈라서 종이봉투에 넣으면서 종이장에 일일이 기입하는데 그 모양이 돈벌이에 옴한 장사군을 련상시켰다.
김군옥은 다소 의아한 눈길로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헛기침을 했다.
고준무는 그제서야 고개를 들더니 짜장 놀라운 기색으로 빈정거렸다.
《아니, 어뢰정대장님이 어떻게 여느땐 왼눈으로도 쳐다보지 않던 우리 소포정대에 왕림하셨소?》
《의논할 일이 있어서 왔네.》
김군옥은 가치담배를 꺼내 고준무의 입에 물려주고 성냥으로 착실히 불까지 붙여주고나서 눈짓으로 돈봉투를 가리켰다.
《이건 뭔가?》
고준무는 담배연기를 달콤히 들이켰다가 확 내뿜었다.
《공채를 구입하려고 정대원들의 돈을 다 모은거야. 티끌모아 큰 산이라더니 적은 량이 아닐세.》
김군옥은 움쭉 놀랐다.
《벌써 공채가 나왔나?》
고준무는 눈을 흘겼다.
《동문 신문도 안 보나? 어제 나왔네. 군인들도 공채를 요구대로 구

입할수 있단 말이야. 해군에서는 1차추첨을 년말에 가서 한다누만. 자기가 행운아인가, 아닌가를 알아볼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라고 볼수 있지.》

고준무의 금이발이 유난히도 반짝거렸다.

언젠가 그는 금이발이 참 신기하다, 기분이 좋을 땐 반짝거리고 몸이 말째거나 성이 나면 꺼멓게 색이 죽는다고 말한적이 있었다. 그러고보면 지금 그는 기분이 매우 좋은 모양이다.

《그런데 이것 보게. 난 덜퉁하다나니 생활비를 타면 그시그시 다 써버려서 남은건 다 털어도 오백원짜리 공채 석장밖에 살수 없거던. 생활비가 많지 못한 하전사들도 이렇게 저마다 공채를 구입하겠다고 나서는데 정대장인 내가 이 모양이니 망신이 아닌가.

여보게, 내가 오백원짜리 공채를 뒤장만 더 구입할수 있게 돈을 좀 꾸어줄수 없겠나?》

김군옥은 난처했다.

대다수의 독신군관들과 하전사들이 그러하듯이 그도 생활비에 거의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군대에서는 돈을 쓸 일이 거의나 없었다. 하기에 생활비를 받으면 당비를 바치고나서 배낭고구석에 찔러두었다가 어쩌다 외출할 기회가 생기면 꺼내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리군 했다.

지난달에 어뢰정대는 송도원에 나갔었다. 그는 배낭고구석에 있던 여러달분의 생활비를 다 꺼내가지고가서 정대원들에게 강냉이국수와 팔죽, 수수지짐 등을 사먹였다. 정대식당에서는 돼지고기나 동태같은건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입이 높은 그들이 고향생각을 불러주는 토산음식은 사양없이 곱배기를 하는것이였다. 식사후엔 사진도 찍다나니 수중엔 이달에 받은 생활비밖에 남지 않았다.

그것도 인차 공채가 나온다기에 다치지 않은건데 고준무의 신세를 지자니 내놓을수밖에…

《우리사이에 꾸고 말고 할게 있나. 자! 어서 가지게.》

김군옥은 군복안주머니에서 생활비봉투를 꺼내 그채로 고준무에게 주었다.

고준무는 금이발을 반짝거리며 재빨리 봉투에서 돈을 꺼내 세여보았다.

어뢰정대장의 편제군사칭호는 중좌여서 생활비가 천원이 넘었다.
《고맙소! 이젠 체면을 세울수 있게 됐소.》
고준무는 너무 좋아서 입이 헤 벌어졌다.
《만약 추첨에서 당선되면 당첨금을 죄다 자네에게 주겠네. 두고보게, 틀림없이 행운이 차례질거야. 그런데 나와 의논할 일이란 대관절 뭔가?》
김군옥은 우정 대수롭지 않은투로 말했다.
《소포정대를 댓새만 빌려주게.》
실로 왕청같은 청이여서 어안이 벙벙해진 고준무는 미심쩍은듯이 물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 어뢰정들은 기관사용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 그래서 도보항해훈련을 하고있는데 신통치 않아. 소포정은 어뢰정과 비슷하게 생겼으니…》
《걷어치우게!》
고준무는 모욕이나 당한듯이 당장 얼굴이 시뻘개져서 고함을 질렀다.
그렇게 보아서 그런지 반짝거리던 금이발이 시뿌예진것 같았다.
《자네 소포정을 숙봐도 분수가 있지.
저건 훈련용이 아니라 전투함선이야! 당신네가 타고나가서 훈련이나 하라고 저렇게 도장까지 말끔하게 해놓은줄 아나? 썩 물러가게!》
어느새 주위에 소포정대원들이 모여들어 어깨성을 쌓았는데 불청객을 노려보는 눈찌가 사납기 그지없었다.
해병들은 어뢰정을 타든 소포정을 타든, 지어는 자그마하고 보잘것없는 련락정을 타도 자기의 전투초소이자 집인 함선을 제 살붙이처럼 사랑한다. 방금 선체도장을 한 함선에 아차 실수하여 발자국이 찍히거나 손자욱이 날세라 불편한대로 부두에서 침식하는 그들이니 그럴만도 했다.
모두의 눈초리에 찔리운 김군옥은 슬슬 뒤걸음치다가 홱 돌아서서 소해정대를 향하여 재빨리 걸어갔다.
《이보게, 군옥이! 이걸 가져가라구!》
고준무가 돈봉투를 흔들며 소리쳤지만 그는 못 들은체 했다.

소해정대장도 김군옥의 부탁을 즉석에서 거절했다.
《그것두 말이라고 하나? 자네 정신이 쏙 나갔구만.》
상대방에게서 이런 모욕적인 거절을 당하고도 할 말이 없었다. 그는 풀이 죽어서 스적스적 륙상병실로 돌아왔다.
게시판앞에 정대원들이 모여 떠들썩했다.
김군옥은 웬일인가 해서 그리로 슬며시 다가갔다. 게시판에는 《모두다 애국의 마음으로 공채를 구입하자!》라는 구호가 나붙었다.
《나는 180원입니다.》
《나는 250원을 하겠습니다.》
정대원들이 겨끔내기로 자기가 구입할 공채액수를 부른다. 문화부정대장은 그것을 당사자들의 이름우에 도표로 올리고있었다.
《나는 500원입니다.》
《나는 700원!》
흥이 나서 붓질을 하던 리학섭은 뒤를 돌아보다가 정대원들의 뒤에 서있는 정대장을 발견했다.
《정대장동문 얼마를 올리랍니까?》
모두들 그제서야 정대장이 온줄 알고 바라보았다. 정대장의 생활비가 제일 많으니 공채도 제일 많이 구입할거라고 기대하는 눈빛들이였다. 당황해서 대답을 못하고 돌아서던 김군옥은 공교롭게도 자기를 지켜보는 김정인의 눈길과 마주쳤다. 더욱 난처해진 그는 무슨 급한 용무라도 있는듯이 기지 지휘부쪽으로 재빨리 걸어갔다.
하, 이거 야단이 났군, 내가 훈련에 정신이 팔려서 공채생각은 깜박 잊었댔구나. 이걸 어쩐다?!
그가 생각할수록 맹랑해서 자신에게 화를 내는데 누군가 뒤따라왔다.
그는 사뿐사뿐 디디는 발걸음소리를 듣고, 은은하게 풍기는 소독약냄새를 맡고 상대방이 다름아닌 김정인임을 알아차렸다.
별안간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졌다.
여느땐 자신만만하다가도 이 처녀와 맞다들리면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알수 없었다.
김군옥은 멈춰섰다.
《저…》

가까이 다가온 김정인은 무엇때문인지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눈처럼 흰 손수건에 정히 싼것을 내밀었다. 거기서는 향수냄새가 알릴듯말듯 풍겼다.
《이건 뭐요?》
얼굴이 발기우리해진 김정인은 상대방의 눈길을 피하며 나직이 말했다.
《어서 받으세요.》
김군옥은 그것을 받았다.
조심스레 손수건을 펴니 돈뭉치가 나왔다. 얼핏 봐도 수천원이 잘 될것 같았다.
《이게 웬 돈이요?》
무엇때문인지 김정인은 더욱 얼굴을 붉히며 주저주저 말했다.
《아저씨가 저금했던거라는데…》
김군옥은 영문을 알수 없었다.
《그런데 그걸 왜 나에게 주는거요?》
《우리때문에 저금했던거라기에…》
《그건 어째서?》
《나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걸로 공채를 구입하세요. 정대장동무야 이런 일에서도 응당 앞장서야 할게 아니나요.》
김정인은 이렇게 당부하고나서 무거운 짐이라도 벗어놓은듯 안도의 숨을 내쉬더니 어엿한 자세로 식당을 향하여 걸어갔다.
김정인의 뒤모습을 잠시 지켜보던 김군옥은 고개를 기웃거리며 손수건에 싼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곧장 기지장을 찾아갔다.
작전과장과 이마를 맞대고 해도작업을 하던 홍동철은 손에 연필과 량각기를 쥔채 허리를 폈다.
《기지장동지, 소포정대와 소해정대를 우리에게 한주일에 사흘씩만 빌려주십시오. 다른 배를 타고서라도 바다에 나가서 훈련을 하려고 그럽니다.》
홍동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눈길로 작전과장을 바라보았다.
한백천은 그러지 않아도 어뢰정대의 훈련때문에 제나름으로 고심을 하던 중이였다. 어뢰정대원들이 보병들처럼 땅에서 훈련하는걸 그

냥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어뢰정들을 하가시켜서 훈련하게 해달라는 정대장의 요구를 들어줄수도 없고… 과연 난처했댔는데 정대장이 다른 함선을 리용하여 항해훈련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제기하니 그게 신통한 방도인것 같았다.

《기지장동지, 정대장동무의 요구대로 해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작전과장이 뜻밖에도 자기를 지지해주니 김군옥은 욕심을 부렸다.

《지금 당장은 다른 함선으로 훈련을 하고 하기훈련마감에 가서는 아무래도 어뢰정들을 하가시켜 어뢰발사훈련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한걸음 양보했던 한백천은 당장 우거지상이 되여 소리쳤다.

《여보, 또 그 소리요? 그건 절대로 안된다고 내 이미 말했지.》

《모의훈련만 하다가는 정작 어뢰를 발사해야 할 순간에 실수할수 있습니다. 적함의 코앞에까지 뚫고들어갔다가 어뢰발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런 야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뢰정대는 우리 해군의 귀중한 주타격력이고 나라의 재부요! 동문 그저 훈련, 훈련하면서 어뢰정과 어뢰를 아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것 같애. 기관사용시간이 지나면 25호정처럼 다른 어뢰정들도 폐물이 될수 있소. 그 책임을 그래 동무가 지겠소?》

김군옥은 애가 타서 소리나게 한숨을 내쉬였다.

《그야 물론이지요. 그렇다고 어뢰정들을 땅에 올려놓고 구경이나 하고있을수야 없잖습니까.》

《그러게 래일부터 당장 소포정들을 타고나가서 훈련하오.》

《고준무정대장이 펄펄 뜁니다.》

《그건 내가 책임지고 보장해주도록 하겠소.》

호인다운 미소를 지은채 옥신각신하는 두 군관을 번갈아보던 홍동철은 허리를 굽히고 해도작업을 마감하고나서 수표를 해주었다.

김군옥은 기지장앞에서 어제날의 스승인 작전과장과 더 언쟁을 하고싶지 않아서 불끈거리는 속을 누르며 잠자코 있었다.

한백천은 기지장이 수표한 해도를 두르르 말아쥐더니 깍듯이 거수경례를 하고 나갔다.

김군옥은 주저하다가 군복주머니에서 손수건에 싼 돈을 꺼내놓았다.

홍동철은 눈이 둥그래졌다.

《이게 웬 돈이요?》
《모릅니까? 기지장동지가 저금했던거랍니다. 우리 정대 담당준의동무가 나에게 주더군요. 공채를 구입하는데 쓰라고 말입니다.》
《음.》
홍동철은 이제야 알만 해서 보기 좋게 벗겨진 대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럼 그렇게 하라구.
사실 그 돈은 처제를 시집보낼 때 쓰려고 저축했던건데 처제의 손을 거쳐 동무에게 넘어갔으니 주인을 찾아간셈이로구만.》
김군옥은 몹시 급해맞았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겁니까?》
홍동철은 불쑥 정색해졌다.
《왜? 동문 우리 정인이가 마음에 들지 않소? 오늘 내앞에서 솔직히 말해보라구.》
《거야 뭐…》
김군옥은 급해맞아서 돈을 싼 손수건을 손에 쥔채 돌아가겠다는 인사도 없이 문밖으로 뛰쳐나갔다.
홍동철은 우정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정대장!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돈을 여기에 놓고가라구, 놓고가라는데두!》
젊은 정대장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도망쳤다.
며칠후인 5월 18일 아침, 라지오로 재정성의 보도가 발표되였다.
《지난 5월 15일 오후 다섯시에 15억원분을 목표로 발행한 인민경제발전채권은 동월 17일 오후 6시 현재 18억 1천만원분이 매급됨으로써 총발행액보다 3억 1천만원이 초과되였다.
이것은 공화국 전체 인민들과 군인들의 건국열의가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주고있다. 그들의 한결같은 요망에 따라 채권보급사업은 계속되게 된다.》
건국실에서 보도를 들은 정대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치며 만세를 소리높이 불렀다.
라지오에서는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나왔다. 먼저 새장고를 메고 마당에 뛰쳐나간 박원협이 거쉰 목청으로 《어! 좋다!》하고 장단을 치며 돌아가자 정대원들은 다투어 춤판에 뛰여들었

다. 손풍금을 메고 나온 리학섭은 능란한 솜씨로 혁명가요련곡을 흥취나게 치면서 두리번거리다가 방금 검식을 하고 식당에서 나오는 녀준의를 보자 소리쳐 불렀다.

《준의동무! 어서 오시오!》

김정인은 발씬 웃더니 기꺼이 달려와 당실당실 두손을 흔들며 사뿐사뿐 춤판에 들어갔다. 한송이의 꽃처럼 아름다운 녀준의를 축으로 해병들은 크게 원을 지으며 물결처럼 출렁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김군옥은 자기가 어느새 춤판에 휩쓸려들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손풍금반주에 맞추어 혁명가요를 목청껏 부르며 으쓱으쓱 어깨춤을 추기도 하고 힘껏 발을 구르기도 했다.

부두에서도 춤판이 벌어졌다.

기지는 아침부터 경축일색이였다. 모두들 땀이 흠씬 나게 춤을 추고나서 식당에 들어갔다. 군관안해들이 떨쳐나와 요란하게 특식을 차려놓았다. 뜻깊은 날이니 한마디 하라고 문화부정대장이 자꾸만 추기기에 가뜩이나 흥분했던 김군옥은 기꺼이 일어났다.

《동무들! 오늘은 공화국의 륭성번영과 인민경제발전에서 특기할 력사적인 날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새로 확장된 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에서 울리는 동음이 들려오는것만 같고 현대적으로 신축한 평양역에 들어서는 렬차의 모습이 보이는것만 같습니다.

그 동음, 그 모습에는 우리의 애국의 지성도 담겨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떳떳하고 자랑차고 기쁘기 그지없는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은 성실한 아들딸들의 애국의 지성에 떠받들려 더 살기 좋고 아름다운 락원으로 변모되고있습니다.》

모두 박수를 쳤다.

《그런데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은 북침준비에 더욱 광분하고있습니다. 놈들의 무분별한 책동으로 인하여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였습니다.

이에 대처하여 우리는 전투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며 5월 27일부터 충천한 기세로 하기훈련에 진입해야 합니다.

하기훈련 첫달에 우리는 소포정대와 소해정대를 리용하여 항해훈련을 적극적으로 벌리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귀가 번쩍 열리는 소리여서 모두들 얼굴이 환해졌다.
《경상적전투준비를 견지하는것, 이것이 하기훈련의 기본과제입니다. 명령이 내리면 즉시 어뢰정들을 하가하고 항해길에 오를수 있게 항상 준비합시다.》
또다시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김군옥은 그날 오래간만에 흥그럽고 기분이 붕 떠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랐다. 자기가 정대장임을 홀연 잊어버린 스물두살의 젊은이는 정대원들과 팔씨름과 목침당기기도 하고 장기를 두거나 윷놀이도 했다. 바다도 흥분한듯 설레였다. 넘실넘실 소리없이 잔뜩 부풀어올랐다가는 꺼져내리고 다시 부풀어오르고…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그는 불처럼 달아오른 몸을 식히려고 바다가에 나갔다. 그러나 도저히 진정할수가 없었다. 그 처녀를 만나고싶었다. 만나서 열정적으로 사랑을 속삭이고싶었다. 가슴을 탁 풀어헤치고 만단사연을 다 터놓고싶었다.
모래불을 짓뭉개며 서성거리던 그는 저도 모르게 도래굽이의 샘터로 이끌려갔다.
맑은 샘은 여전히 금모래를 바글바글 일구며 솟구치고있었다. 흘러넘치고있었다. 하기에 샘은 보면 볼수록 유정도 했다. 늘쌍 미소가 흘러넘치는 그 처녀의 맑은 눈동자같았다.
정인은 어뢰정대에 나왔다가 저녁이면 여기에 들려 샘물을 길어가지고 군의소로 돌아가군 했다.
모름지기 오늘도 그러리라.
김군옥은 별안간 긴장해서 숨을 죽였다.
귀에 익은 노래소리가 울려왔던것이다.

어서 가자 가자 바다로 가자
출렁출렁 물결치는 명사십리바다가
안타까운 젊은 날의 새 희망을 찾아서
…

물통을 쥔 정인이가 코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듯이 한들한들 다가왔

다. 그러다가 인기척을 느꼈던지 주춤 멈춰섰다.
《아니?! 정대장동무가 어떻게?》
김군옥은 못된 장난을 치려다가 들킨것처럼 얼굴이 화끈해졌다.
《아, 정인동무요? 그저 심심해서 산보를 나왔댔소.》
눈길이 마주친 두사람은 황급히 외면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김군옥은 기다리던 처녀가 정작 나타나니 저으기 급해맞아서 어쩔바를 몰라하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으흠. 이리 주오. 내가 물을 담아주지.》
그는 태연한척 하려고 애를 쓰며 쭈그리고앉아 쪽박으로 물을 퍼서 물통에 담았다.
당황하고 어줍어서 허둥거리는 총각을 잠시 지켜보던 처녀는 안도의 숨을 호 내쉬며 생그레 웃었다.
《정대장동문 오늘 아침에 보니 춤도 잘 추고 연설도 정말 잘하더군요.》
《아무리 춤을 추고싶고 연설을 하고싶어도 그럴만한 자격과 체면이 있어야 할수 있지. 그런 의미에서 난 이번에 정인동무 신세를 톡톡히 졌소.》
정인은 두눈이 올롱해졌다.
《신세라니?! 그건 무슨 소리예요?》
김군옥은 군복상의 안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보였다.
《여기에 싸준게 생각나지 않소?
그게 없었더라면 내가 연설이 다 뭐요. 오늘 창피해서 고개도 쳐들지 못했을거요. 정말 고마웠소.》
《아이,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김군옥은 상대방이 받을념을 안하는 손수건을 정히 포개여 품속에 소중히 간수했다.
《나는 해군군관학교시절에 이렇게 생각했소.
지휘관은 모든 면에서 대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할수 있게 준비되여야 한다고 말이요. 그래서 나는 군사기술적인 측면에서나 육체적인 측면에서도 첫자리를 차지하고 모범이 되기 위해 아글타글 애를 썼고 그것으로 정대를 이끌어왔소.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는걸 최근에 깨닫게 되였소.》
김정인은 때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게 신중해진 군옥을 바라보며 호기심이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혁명군대의 지휘관은 사상적각오가 투철하고 감정과 정서가 풍부해야지. 그리고…》
김군옥은 말허리를 끊고 슬며시 눈길을 떨구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정인은 다우쳐물었다.
《또 뭐예요?》
김군옥은 번쩍 고개를 들며 이글거리는 눈동자로 처녀를 바라보았다. 불길같은 그 눈초리에 찔린 김정인은 감전이 된듯 전률하며 그 자리에 꼼짝없이 굳어졌다. 별안간 사위가 고요해졌다. 출렁거리던 파도도 일순 숨을 죽이고 이들을 지켜보는듯싶었다.
정인은 더럭 겁이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듯 다시 물었다.
《뭐예요?》
《사랑할줄도 알아야 한다는거요!》
김군옥은 내뿜듯이 이렇게 웨치며 불쑥 일어났다. 그가 처녀에게 바싹 다가서며 사랑을 고백하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공교롭게도 다리가 물통에 걸렸다. 발길에 채운 물통이 넘어지면서 물이 쫙 쏟아졌다. 마술에 걸린듯 꼼짝없이 서있던 정인은 종다리와 신을 흠빡 적시고서야 불쑥 정신을 차렸다.
《어마나!》
처녀의 비명소리에 이번엔 총각이 떡 굳어졌다.
《이걸 어쩌나? 아이 속상해!》
정인은 눈물이 날 지경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와서 발을 동동 굴렀다.
뭔가 화끈 달았던것이 졸지에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허전했다. 멋적었다. 구멍이 뚫린 구명환에서 바람이 새나가듯이 긴숨을 내쉰 김군옥은 멋적은 기색으로 다시 쭈그리고앉아 넘어진 물통을 바로 세우고 물을 퍼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에 솜씨가 없는 자신에게 속으로 화를 냈다.

15

하기훈련이 시작되자 군항은 전투적인 용맹으로 끓어번졌다. 어뢰정대는 소포정과 소해정들을 리용하여 항해훈련을 하느라 노상 바다에 나가살다싶이했다. 훈련 또 훈련으로 이어지는 나날들이였다. 휴식이 부족해서 아무리 카로리 높은 식사를 해도 모두들 눈에 피발이 서고 살결이 꺼칠해졌으며 신경이 날카로와졌다.

홍동철기지장은 그들을 휴식시키고싶었지만 시시각각으로 악화되는 정세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중순 맥아더는 리승만을 도꾜에 불러다가 일본수상 요시다를 동석시키고 악명높은 《북벌》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한 미, 일, 남조선간의 3각군사동맹이 무어진거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남조선괴뢰군의 무장장비가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괴뢰해군은 구축함 2척을 포함하여 70여척에 달하는 각종 전투함선들과 보조선박을 보유하게 되였다. 일본주둔미군은 6월에 들어와 전쟁준비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기 위해 륙해공군합동훈련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있었다.

며칠전 도꾜의 궁성광장에서는 맥아더와 군부우두머리들이 참가한 가운데 주일미군의 열병식이 요란하게 진행되였다고 한다.

래일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수 없었다.

정세를 주시하며 초긴장속에 훈련을 계속하다나니 지휘관들도 해병들도 모두 지쳤다.

홍동철기지장은 이런 상태를 더이상 지속시킬수 없다고 생각했다.

휴식을 적절히 배합해야 전투력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 그저 잘 먹고 잠이나 자는 휴식이 아니라 체육경기와 오락회와 같은 적극적인 휴식이 결정적으로 필요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강도높은 훈련속에 한달이 폭풍처럼 휘휘 지나가버렸다.

토요일에 진행된 월훈련총화모임에서는 어뢰정대가 단연 1등으로 평가되였다.

어뢰정들을 상가한 조건에서도 방도를 찾아 항해훈련을 계속 진행하여 새로운 전투조법들을 부단히 연구하고 숙련한것이 각별히 우점으로 언급되였다.

소포정대는 2등을 했는데 그래서 고준무는 약이 올랐다. 어뢰정대에 함선을 빌려주다나니 자기넨 항해훈련을 계획대로 내밀수 없었던것이다. 일껏 남좋은 일을 해주고나서 총화마당에 와서는 박수까지 쳐주자니 그 성미에 기분이 좋을리 만무했다.

그가 보기에는 기지에서도 그렇고 해군사령부에서도 그저 어뢰정대만 적극 내세워주고 소포정따위는 거들떠보지 않는것 같았다.

순서를 놓고봐도 우리가 1정대인데 2등을 하다니… 생각할수록 아쉽고 기분이 상했다.

홍동철기지장은 그의 이런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둥실한 얼굴에 호인다운 미소를 지으며 래일은 일요일이니 해상체육경기를 진행하겠다고 선포했다.

과연 귀맛이 당기는 소리여서 고준무는 찌긋이 감고있던 두눈을 번쩍 떴다.

《종목은 바줄당기기, 단정경기, 수영경기, 수구경기입니다. 시상을 크게 하겠소. 해상체육경기에서 정대의 전투력과 집단주의정신이 낱낱이 반영된다는걸 잊지 마오.》

그래! 마침이로다. 해상체육경기에서 단연 1등을 해서 어뢰정대의 코대를 꺾어놔야 한다.

고준무는 자못 흥분해서 속으로 윽벼르다가 공교롭게도 자기를 쳐다보는 김군옥의 눈길과 마주쳤다. 워낙 만만치 않게 생긴 상대방의 눈동자에는 해상체육경기에서도 1등을 양보하지 않으려는 승벽심과 야심이 감출수 없게 비껴있었다.

어디 래일 한바탕 겨뤄보자구!

두 군관은 서로 노려보며 내심 부르짖었는데 마치도 말없이 결투를 거는것 같았다.

훈련총화모임이 끝나니 날은 이미 저물었다.

김군옥은 반달음쳐서 륙상병실로 달려갔다. 저녁식사시간을 앞두고

정대원들은 휴식을 하고있었다.

그들은 총화모임정형이 궁금했던지라 흥분해서 나타난 정대장을 일제히 바라보았다.

《동무들! 월훈련총화에서 우리 정대가 1등을 했소.》

긴장해서 지켜보던 정대원들의 얼굴이 환해졌다.

《래일 해상체육경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모든 종목에 걸쳐 1등을 해야 하오. 만약 지게 되는 경우엔 그가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겠소. 알겠소?》

정대장의 기질을 닮아서 무엇을 해도 이기는데만 습관되여온 정대원들은 자신만만해서 가슴을 내밀고 우렁차게 대답했다.

《알았습니다!》

김군옥은 종목별로 선수들을 선발하고 책임자를 임명했다. 후방사업과 응원은 문화부정대장이 맡기로 했다.

《오늘은 일찌기 잠을 자고 래일 아침에 일어나 훈련을 해야 하겠소.》

김군옥은 이튿날 어뜩새벽에 일어났다. 돌아보니 문화부정대장의 잠자리는 벌써 비여있었다. 그는 내의바람에 밖으로 나갔다.

군항은 고요한 어둠속에 잠겨있었다.

부두에 계류한 함선들의 선미기대에 켠 정박등만이 잠들줄 모르는 초병의 눈동자처럼 반짝거렸다. 바람 한점 불지 않는 군항엔 아늑함과 평온이 짙게 어려있었다.

문득 식당쪽에서 귀에 익은 칼도마소리가 정답게 울려왔다.

가보나마나 문화부정대장의 솜씨다. 오랜 배군들이 다 그러하듯이 그 역시 료리솜씨가 대단했다.

오늘은 후방사업을 맡았으니 솔선 나서서 특식을 준비하는것이다.

려명직전의 어둠을 뚫고 두사람이 재빨리 달려가다가 김군옥을 알아봤는지 턱 멈춰섰다.

《누구요?》

상대방은 숨이 차서 할딱거리며 대답했다.

《저예요.》

김정인의 목소리였다.

《이 새벽에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는거요?》

《언니가 몹시 급해한다기에…》

점차 설피게 밝아오는 새벽빛에 위생복을 걸친 김정인과 위생가방과 둥근 주사기통을 쥔 간호장의 모습이 륜곽적으로 안겨왔다.

《그러니까 기지장동지의 아주머니가 위급하다는거요?》

왜서인지 대답이 없다.

《이런 변이 있나, 함께 가기요.》

김군옥이 무작정 따라서려는데 정인은 덴겁을 했다.

《아이! 정대장동문 안돼요. 간호장동무, 빨리 가자요.》

김정인은 봉임을 뒤에 달고 냅다 달려갔다.

김군옥은 영문을 몰라 얼결에 몇걸음 뒤따르며 소리쳤다.

《난 어째서 안된다는거요?》

《남자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예요!》

키드득거리는 간호장의 웃음소리가 뒤따라 날아왔다.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김군옥은 그들이 사라진 군관사택마을쪽을 잠시 바라보다가 흠칠 놀랐다.

부두쪽이 급작스레 소란스러워졌다. 웅성웅성하더니 첨벙첨벙 물에 뛰여드는 소리, 영차 여이차! 하고 노젓는 소리가 울려왔던것이다.

저 친구들이 벌써 훈련을 하는구나.

그가 마음이 조급해져서 부두병실로 달려가려는데 기지장이 불쑥 나타났다. 김군옥은 어정쩡해졌다.

《아니?! 아주머니가 위급하다던데 여긴 왜 나왔습니까?》

홍동철은 좀 멋적어하면서 손으로 대머리를 어루쓸었다.

《거 뭐 해산을 할 땐 다 그렇게 볶인다누만.》

김군옥은 이제야 깨도가 되였다.

《그런걸 난… 축하합니다.》

《이 사람아, 아이는 녀편네가 낳는데 내가 축하를 받으면 되나. 그건 그렇고… 어때? 오늘 1등할 자신이 있소?》

김군옥은 자신있다고 장담했다.

《소포정대가 가만있지 않을걸, 어제 총화모임때 보니 고준무 그 친구의 눈에 달이 떴더군.》

문득 소리도 없이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홍동철은 손바닥을 펴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난처한듯 중얼거렸다.
《허, 이거 경기날자를 잘못 잡았나?》
《까짓거 비가 내린들 뭐랍니까. 계획된대로 체육경기는 해야 합니다.》
《하기야 바다물에서 하는 경기니 비가 와도 별로 상관이 없지. 허, 저걸 보라구. 저 친구들은 벌써 일어나 련습을 하고있구만.》
안달이 나서 재빨리 병실에 달려들어간 김군옥은 직일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목청을 돋구어 구령을 쳤다.
《정대 기상!》
정대원들은 일제히 잠자리를 박차고 뛰쳐일어났다.
《아침식사시간까지 조단위로 훈련할것!》
김도형정장이 먼저 구령을 쳤다.
《단정경기조 날따라 앞으로!》
어제 밤에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우정 륙상병실에서 잠을 잔 리완근정장도 소리쳤다.
《수구경기조 날따라 앞으로!》
김군옥이 뒤따라가니 먼저 뛰쳐나간 단정경기조는 울상이 돼서 부두에 멍하니 서있었다.
부두에 매놓았던 여러척의 단정들이 하나도 없었다. 다른 정대의 선수들이 타고 바다에 나갔던것이다. 김군옥은 김도형정장에게 모의훈련이라도 하라고 소리쳤다.
단정경기조는 김도형의 구령에 따라 부두에 두줄로 나란히 앉아서 두팔을 한껏 내밀어 노대를 잡은 흉내를 냈다.
김도형은 뒤에 앉아 왼손으로 타를 잡은 자세를 취하고 오른손을 앞으로 힘껏 내밀며 웨쳤다.
《출발!》
조원들은 동시에 상반신을 뒤로 제끼며 두팔을 힘껏 잡아챘다.
《영차! 여이차!》
한편 부두끝에 수구조를 한줄로 나란히 세운 리완근은 손에 쥐고있던 수구공을 있는 힘껏 바다 멀리에 뿌려던졌다.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수영빤쯔만 입고 상반신을 약간 숙이고있던 조원들은 일제히

물에 뛰여들었다. 장쾌하게 물보라가 일어번졌다. 바다물이 와글와글 끓는것 같았다.
저마다 먼저 수구공을 잡으려고 숨도 안 쉬고 냅다 팔다리를 놀리며 헤엄쳐간다.
제일 앞선 조원은 빨헤염을 치는데 두발로 물을 얼마나 잽싸게 차던지는지 마치도 어뢰정의 추진기가 고속으로 돌아가는것 같았다. 그의 수영솜씨가 뛰여나기에 부두에 나와있던 다른 정대의 해병들이 입을 헤 벌리고 바라보았다. 이윽고 먼저 수구공을 잡은 그는 훌쩍 상반신을 솟구치며 따라오는 조원들을 돌아보았다.
부두에선 탄성이 올랐다.
《어뢰정대장동지구만.》
《히야! 정말 빠르다.》
《자유형에선 어뢰정대장을 따를 사람이 없겠소.》
물속헤염을 쳐서 정대장에게 은밀히 접근한 채기정이 불쑥 솟구쳐 오르며 수구공을 덮쳤다. 김군옥은 휙 방향을 돌려 갑판장에게 공을 던져주었다. 박원협은 날아오는 공을 공중에서 재치있게 잡아 상대방의 문대앞으로 길게 던져주었다. 김군옥이 그쪽으로 날쌔게 헤엄쳐가서 공을 잡아 슛을 하려는데 방어를 하던 23호정장 최정수가 그의 빤쯔끈을 자기의 엄지발가락으로 걸어챘다.
김군옥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물속으로 쏙 잠겨들었다. 재빨리 몸을 솟구친 그는 한손을 쳐들고 소리쳤다.
《반칙!》
입에 호각을 물고 부두에서 굽어보는 리완근은 정대장의 목소리를 못들은체 했다. 최정수는 깨고소해서 벙글벙글 웃었다.
수구공이 또다시 휙 날아와 떨어지며 물탕을 튕겼다. 김군옥은 공을 잡으려다가 다시 바싹 접근하여 반칙동작을 하려는 최정수의 아래배를 발끝으로 힘껏 내리눌렀다. 최정수는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정대장의 발을 두손으로 움켜잡았다.
김군옥은 어쩔수없이 물속에 끌려들어갔다.
물속에서 밀치고닥치고 씨름질을 하던 그들은 너무 숨차서 더는 견딜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서로 뿌리치고 부랴부랴 수면우로 솟구쳤다.

숨이 탁 터져나간다. 답답하던 가슴이 순간에 활짝 열린다. 상쾌하기에 이를데 없다.

재미있네, 재미있네 해도 수구경기의 재미를 따를만 한 체육경기가 어데 있으랴. 실로 수구경기장은 바다사나이들이 힘과 용맹을 겨루며 한바탕 갈개보는 마당이다.

수구경기의 재미에 푹 취해서 시간이 가는지오는지도 모르며 물장구를 치던 김군옥은 길게 울리는 호각소리에 이어 다급히 웨치는 리완근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대장동지! 폭풍입니다! 폭풍!》

폭풍이라니?! 난데없이 이게 무슨 소리야?

김군옥은 일순 어리둥절해서 채머리를 흔들어 머리칼을 타고 얼굴에 흘러내리는 바다물을 뿌려던지며 사위를 둘러보았다.

소리없이 내리던 보슬비는 어느새 멎고 날은 활짝 밝아오고있었다.

바람 한점 없는 맑은 아침에 폭풍이란 도대체 무슨 소린가?

폭풍은 비상소집신호이기도 하다.

오늘은 해상체육경기를 하기로 했으니 기지에서 비상소집을 할리 없었다. 아까 기지장을 만났을 때도 그런 말은 없었더랬다.

다른 정대원들도 어리둥절해서 리완근을 바라보았다.

여느때는 침착하고 유순하던 리완근이 불판우에 올라선듯 펄펄 뛰면서 고래고래 소래기를 질렀다.

《뭣들 하고있어? 빨리 나오라! 전쟁이 터졌대, 전쟁이!》

뭐?!

김군옥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 소리에 귀가 멘듯싶었다. 귀안이 징징 울렸다. 그는 물속에 머리를 박고 두팔을 힘껏 내저으며 재빨리 헤염쳐나갔다. 부두벽에 매달아놓은 완충용 다이야를 붙잡고 부두에 기여오르는데 계류해있는 함정들이 배고동과 싸이렌을 요란하게 울렸다.

해상체육경기를 앞두고 그 준비에 흥성거리던 군항의 분위기는 발칵 뒤집혀졌다.

바다물에서 부두로 기여오른 해병들이 저마다 자기의 함선으로 달려갔다. 소포정들은 벌써 함상포의 씌우개를 벗기고 발사준비를 끝

냈다. 어뢰정대원들은 급급히 내의를 주어입고 부두병실로 달려갔다.
김군옥이 부두병실로 뛰여들어가 재빨리 군복을 입는데 직일관이 소리쳤다.
《정대장동지! 빨리 지휘소로 오랍니다!》
《알겠소. 동무들은 하가준비를 하오!》
김군옥은 전투가방을 메고 기지지휘소로 달려갔다. 너무도 정황이 급변해서 그의 머리는 혼란되여있었다. 멘 귀고막이 아직도 열리지 않는것 같았다. 웅웅 울리는 소음속에 《전쟁이 터졌대!》라고 웨치던 리완근정장의 목소리가 확성되여서 자기 머리가 증기빵처럼 막 부풀어나는듯싶었다.
전쟁이 터졌다!
이게 사실인가? 혹시 내가 꿈을 꾸는게 아닐가? 날로 첨예해지는 정세로 보아 조만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거라고 예상은 했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럴줄이야, 그것도 여느날이 아닌 일요일에…
불현듯 한백천작전과장이 입버릇처럼 뇌이던 소리가 되살아나며 귀청을 때렸다.
《명심하시오! 일요일, 휴식일에 전쟁의 불을 지르는것은 놈들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일본놈들이 일으킨 태평양전쟁이 그러했고 도이췰란드놈들이 도발한 쏘도전쟁이 그러했습니다. 만약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우리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날도 모름지기 일요일일것입니다.》
새삼스레 작전과장의 예언이 떠올랐다.
가만, 오늘 아침에 기지장동지의 아주머니가 해산을 한다고 했지. 일두 참… 부디 이런 날, 이런 시각에 아이를 낳다니… 아기가 태여나는 신성한 이 아침에 전쟁이 터졌단 말이지, 전쟁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황없이 지휘소에 들어선 그는 입구에 지켜서있는 작전과장과 부딪쳤다.
한백천은 비장한 기색으로 이를 악물고 두눈을 흡뜬채 지휘소로 들어오는 지휘관들을 지켜보고있었다. 김군옥은 거수경례를 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에게 다급히 물었다.
《작전과장동지, 그게 사실입니까?》

전쟁발발을 념두에 둔 질문이였다.

한백천은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전… 믿어지지 않아서 그럽니다.》

《나 역시 그렇소.》 하며 한백천은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일요일에 전쟁을 일으키는게 놈들의 상투적인 수법인줄은 알고있었지만 설마…

로회한 놈들이 선손을 썼소. 우리 군대가 더 강화되기 전에 선제타격을 한거요. 우리 해군은 아직 전쟁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는데 이걸 어쩌면 좋소?》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한백천은 눈을 부라리며 신경질을 썼다.

《몰라서 묻소? 우리에겐 해상작전을 수행할수 있는 순양함이나 구축함은 고사하고 어뢰정이 도제 네척밖에 없단 말이요. 일본에 주둔하고있는 미7함대가 덤벼들건 뻔한데 다섯손가락안에도 들지 못하는 어뢰정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거요?》

김군옥은 선뜻 대답을 할수 없었다.

적들과의 싸움을 위해 지금껏 훈련과 함선정비로 긴장한 나날을 보내왔지만 정작 전쟁이라는 준엄한 환경에 부딪치고보니 무언가 이에 대처할 준비가 미흡한것 같았다. 전쟁에 대처할 모든 준비를 사전에 완전무결하게 갖춘다는것은 아마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작전과장은 몹시 안타까와했다.

《어뢰정이 40척만 있어도 한번 해보는건데…

그러면 항공대와 협동하여 놈들의 기동분함대를 공격하는 해상전을 본때있게 벌릴수 있단 말이요. 난 그 작전안을 이미 다 세워놓았소. 그런데 우린 항공대와의 협동훈련을 한번도 해보지 못했거던. 다음달에 들어가 이 훈련을 하려고 해군사령관동지에게 제기를 한 상태인데… 놈들이 선손을 썼단 말이요. 선손을…》

작전과장이 신심이 부족한 소리를 하기에 김군옥은 도전적으로 말했다.

《그렇다고 놈들더러 전쟁을 미루자고 하겠습니까? 맞받아쳐야

지요.》
한백천은 큰소리를 치는 젊은 정대장을 좀 아연해하는 눈길로 바라보더니 픽 웃으며 훈시조로 말했다.
《용기는 좋구만. 당신의 젊은 혈기가 정말 부럽소. 그런게 승패를 결정하는게 아니지.》
곁에 서있던 고준무가 불만스러워하면서도 궁금해하는 기색으로 물었다.
《그럼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제서야 한백천은 소해함 함장인 마진규대위를 비롯한 여러명의 군관들이 신중한 눈길로 자기를 지켜보고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넌지시 에둘러 말했다.
《글쎄 뭐라고 꼭 짚기는 어려운건데… 하여간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도 과학이요. 전쟁에는 고유한 자기의 법칙이 있소.》
김군옥은 따지듯이 물었다.
《그러니 미국놈들이 달려들면 우리가 이길수 없다는겁니까?》
《그런건 아니지, 미국함대가 조선동해에 들어오면 쏘련함대도 가만있지 않을테니까. 우린 태평양함대와 협동작전을 해야 하오. 난 이미 이런걸 예견하고 작전안을 세웠소.》
김군옥은 긴장이 지나쳐서인지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다.
지휘관들이 성급하게 련이어 들어왔다.
지휘소의 분위기는 근엄하고 긴장했다. 화약내와 피비린내같은것이 풍기는것만 같았다. 열기띤 눈동자들이 번뜩거리고 거친 숨소리가 높아졌다.
대머리가 보기 좋은 둥싯한 얼굴에 늘쌍 호인다운 미소를 짓고있던 홍동철기지장은 입귀에 주름이 잡히도록 입을 꾹 다물고있는데 험악한 그 인상이 사태의 엄중성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전투복장차림으로 다급히 지휘소에 들어오는 지휘관들을 하나하나 주의깊게 바라보던 한백천은 마감으로 군의소장이 들어오자 벼락같이 구령을 쳤다.
《군관동무들!》
홍동철기지장은 차렷자세를 한 지휘관들을 엄한 눈매로 바라보며 여느때없이 쉬엿구령을 내리지 않고서 본론에 들어갔다.

《동무들! 미제의 사촉을 받아 북침전쟁열에 환장이 된 남조선괴뢰군은 오늘 이른새벽에 38도선전역에 걸쳐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불의의 무력침공을 감행하였습니다.》

김군옥은 숨을 턱 멈추었다.

가뜩이나 긴장됐던 지휘소안의 공기가 그 순간에 쩡! 하고 얼어붙는것만 같았다.

호인이던 기지장의 두눈에선 불이 황황 일었다.

《공화국정부에서는 리승만괴뢰도당에게 동족상쟁의 모험적인 전쟁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괴뢰군을 38도선이남으로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놈들은 전쟁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어찌도 격분했는지 기지장의 입에서는 불이 뿜어나오는듯싶었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즉시 내각비상회의를 여시고 우리 인민군대에 적들의 무력침공을 좌절시키고 결정적인 반공격에로 넘어갈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습니다.》

쾅!— 하고 벌써 승리의 포성이 울린듯 얼어붙었던 지휘소의 공기는 삽시에 확 달아올랐다.

김군옥은 꽉 막혔던 귀구멍이 이제야 쑥 열린것 같았다. 가슴 한구석에 떠돌던 불안과 위구의 구름이 순식간에 가셔졌다. 심장이 쿵쿵 흉벽을 친다. 뜨거운 피가 급기야 설설 끓어오르며 온몸에 세차게 소용돌이쳤다.

아! 우리에게는 백두의 밀림에서 강도 일제를 쳐부신 천출명장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신다. 그이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것이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미국놈들이라고 하시면서 〈미국놈들이 우리를 잘못 알고 서뿔리 덤벼들었소. 오만무례한 미국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줍시다.〉라고 힘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곁에 서있는 고준무와 마진규를 비롯한 모든 지휘관들이 신심에 넘쳐 눈빛을 번쩍이며 뜨거운 숨을 확 내뿜었다.

그렇다! 승리는 확정적이다.

필승의 신념과 철의 의지, 무쌍한 배짱과 담력을 지니신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적들의 불의의 침공에 대처하여 방어만 하는것이 아니라 반공격이라는 대용단을 내리신것이다.

《모든 정대들은 출항준비를 신속히 갖추고 위장을 철저히 하고 차후지시에 따라 움직일것! 어뢰정대는 하가준비를 할것!》

《알았습니다!》

김군옥은 기세충천하여 웨치듯이 큰소리로 대답했다.

16

조선전쟁이 일어나기 며칠전부터 주일미군은 전시태세에 들어갔는데 도꾜만에 기지를 두고 사세보를 비롯한 여러 군항에 널려있는 7함대도 례외로 되지 않았다.

거의 매일같이 시내에 쓸어나가 추파를 던지며 감겨드는 일본계집들을 끼고 술마시고 춤추던 해병들이 명령에 따라 모두 승선하여 출항준비를 갖추노라 분주탕을 피웠다. 전투예비물자를 점검하고 부족되는 어뢰와 폭뢰, 포탄들을 적재했으며 연유탕크와 청수탕크도 가득가득 채워놓았다. 함상포들이 오래간만에 씌우개를 벗기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다섯해가 돼오도록 패전국인 일본에서 주인행세를 하며 진탕망탕 놀아대다나니 이젠 유흥도 싫증이 났다. 포식을 할대로 한 해적들은 렵기와 모험심을 불러주며 어서 오라 출렁이는 대양을 종횡무진하며 함포와 어뢰를 쏴갈기고 화약내와 피냄새를 맡으면서 새로운 정복과 강탈의 희열을 맛보고싶었다. 놀 때는 유쾌하게 놀고 일단 싸울 때는 《용감》히 싸운다는것이 이를테면 미해군용사들의 전통적인 기질이였다.

7함대사령부는 이미 짜놓고있던 작전계획에 따라 사세보항에 정박하고있는 군함들로 조선동해에 급파할 기동분함대를 신속히 편성하였다. 두차례의 세계대전에 참가하여 명성을 유감없이 떨쳐온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기함으로 하고 경순양함 《야이카》호와 원양구축

함이 배속되였다. 경순양함의 화력만 놓고봐도 륙군 1개사단의 화력과 맞먹었다. 그러니 기동분함대는 물우에 뜬 군단인셈이였다.

전쟁이 일어나면 기동분함대를 여러개 편성하여 조선의 동서남해에서 제해권을 장악하고 미지상군의 북상을 강력히 지원할데 대한 이 작전방안의 주작성자는 며칠전에 대좌로 승급한 웨리크였다.

이태전 이맘때 해군대장으로부터 직접 특수임무를 받고 잠수함《U－504》호를 몰고 조선동해의 주요항구들과 쏘련태평양함대의 기지인 울라지보스또크항까지 정찰하고 근 두달만에야 쯔가루해협을 통과하여 기지로 돌아온 웨리크는 곧 함대사령부 작전장교로 조동되였었다. 유감스러운것은 해군대장 니미쯔가 무엇때문인지 트루맨대통령의 눈밖에 나서 사퇴하고 고향으로 간것이였다. 이통에 웨리크는 자기의 출세를 담보해주던 유력자를 잃게 되였다. 그는 실망하지 않고 작전실에 꾹 들여박혀 앞으로 치르게 될 조선전쟁과 관련한 해상작전연구에만 몰두했다.

이 나날에 그는 군부와 정계의 영향력있는 신문, 잡지들에 발표하는 니미쯔의 글들을 주의깊게 읽고 분석해보았다.

…돌이켜보면 내가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간 1901년에 미국의 해군력은 세계의 12위에 불과했다. 나는 그것이 안타깝고 불만스러웠다. 하기에 그때 나의 최종목표는 해군장관이였고 나의 리상은 미국의 해군력을 세계1등급으로 끌어올리자는것이였다.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와서 나는 최종목표에 도달했고 리상을 실현했다. 그러나 결코 만족할수 없으며 해군의 장래운명을 두고 심히 우려하게 된다.

요즘 백악관과 펜타곤에서는 이른바 핵시대의 요구에 맞게 해군무력을 발전시킨다는 미명하에 해군무력을 대폭 축소하려는 위험천만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태평양전쟁을 승리로 결속하여 대아메리카의 강대성을 만천하에 시위하게 해준 해군이 이제 와서는 거치장스럽고 쓸데없는 존재가 되였는가?

세계1등급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미해군을 영광의 단상에서 끌어내리려고 모지름을 쓰는자들의 속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태평양해전시기 미국을 위해 기꺼이 날바다에 몸을 던진 우리의 함장들과 해병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분개하여 통탄할것인가. 나는 바로 이것이 가슴아프다.

웨리크는 니미쯔가 이젠 늙어서인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소유하지 못하고 과거에 지나친 애착을 가지고있으며 리성보다 감성을 앞세운다는것을 괴로운 심정으로 인정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나날에 미친듯이 건조한 대형전투합선들과 무려 300만이 넘는 병력으로 미해군은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졌다.

이것은 맥아더를 비롯한 다른 군종병종의 장성들의 질투를 야기시켰다. 정부도 전쟁이 끝난 오늘에 와서까지 이런 방대한 해군력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고 또 유지할수 있는 힘도 없었다. 낡은 군함들을 퇴역시키고 병력을 축소하며 이에 대처하여 핵동력잠수함을 새로 개발하고 반잠순찰기의 성능을 제고하며 장차 항공모함들도 핵동력화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었다.

니미쯔는 감정상 이런 실태에 불만을 가지고 백악관과 국방성에 엇섰고 나중엔 대통령의 미움을 받아 왕별이 다섯개나 박힌 해군대장복을 벗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이였다.

비록 퇴임은 당했지만 미해군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니미쯔처럼 인생의 목표와 리상을 태평양상우에 높이 세운 웨리크는 작전연구에 전심전력했다.

이 나날 그를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사람은 야마모또 시마무라였다.

그 간특한 일본인은 여전히 극비밀리에 맥아더사령부 작전실에 들여박혀서 지난 시기 대륙침략과 태평양전쟁에서 악명을 떨친 황군의 잔당들과 함께 미군의 조선침략전쟁준비를 위한 작전계획완성에 혈안이 되여있었다. 그자들은 패전후 맥아더사령부에 압수된 황군 총참모부의 문건들을 모조리 들춰내서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는 영어로 번역하여 미군작전 장교들에게 넘겨주었다.

황군의 해군에 관한 자료들은 주로 시마무라가 맡아보고있었다. 웨리크는 시마무라를 통하여 북조선의 해상무력에 대한 정탐자료도 주기적으로 넘겨받을수 있었다.

어느날 시마무라가 함대작전부에 찾아왔다.

《중좌님, 내가 깜짝 놀랄만 한 정보를 가져왔으니 한상 차리십시오.》

웨리크는 그제서야 작전지도에서 눈을 떼며 부석부석해진 눈잔등과 눈시울을 손으로 소리나게 문질렀다. 하지만 얼굴에 거미줄같이 엉켜붙은 피곤은 가셔지지 않았다.

《뭔가?》

시마무라는 흡사 게눈같이 반들반들한 눈을 깜박거리며 값을 올렸다.

《우선 위스키라도 한잔 부어주십시오.》

《여보, 그게 정말 내가 깜짝 놀랄만 한것이라면 만딸라도 아끼지 않겠네.》

너무 좋아 입이 귀밑까지 돌아간 시마무라는 얼른 정보자료를 넘겨주었다.

그것을 보고 웨리크는 정녕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음, 대단한 가치가 있는 정보로군.》

웨리크는 금고를 열고 손에 잡히는대로 두툼한 지페뭉테기를 하나 꺼내여 시마무라에게 던져주었다. 마치 사냥군이 개에게 먹이감을 던져주듯이…

《중좌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시마무라는 흡족하고 황송해서 몇번이고 갑삭갑삭 고개를 조아리다가 도망치듯 사라졌다.

북조선에서 함대출항식을 거행하고 정식으로 해군사령부를 내왔단 말인지. 웨리크는 몹시 흥분했다.

극비. 해군정보부입수.

지난 8월 28일 북조선의 청진항에서는 **김일성**장군의 참석하에 함대출항식이 진행되였다.

출항식에 참가한 함선들은 배수량이 45톤급미만인 소포정과 어뢰정, 소해정들이다.

며칠후에 해군군관학교를 졸업할 학생들이 이 전투함정들을 지휘운영하게 된다.

김일성장군이 직접 어뢰정을 타고 바다에 나가 포실탄사격과 폭뢰

투하를 보면서 실습지휘관들과 승무원들을 고무해주었다고 한다.
출항식이 끝나자 **김일성**장군은 소해함을 타고 동해안의 조선소에 가서 자체의 기술과 힘으로 500톤급 경비함을 건조한 그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축하해주었으며 며칠후에는 조선소에 가서 역시 새로 건조한 경비함을 돌아보며 해군무력강화발전을 위한 중대한 훈시를 했다고 한다.
동서해를 순시하고 상평한 **김일성**장군은 조선함대사령부를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로 개칭하는 문건에 비준하였다.
이로써 한두척의 발동선과 목선들로 초라하게 출범했던 북조선의 수상보안대는 오늘에 와서 작지만 속도가 빠르고 타격력이 강한 공격용함선들과 자체로 건조한 경비함들, 수송선들로 함대의 면모를 갖추고 해병대와 해안포부대, 고사포부대, 해군군관학교와 기술원훈련소, 함선수리기지들을 망라한 정규무력의 한개 군종으로 강화되였다.

부표에는 현재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관하 동서해의 해군기지들에 있는 각종 함정들의 종류와 척수, 배수량과 무장장비정형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었다.
웨리크는 속셈으로 그 배수량을 다 합쳐보았다.
그것은 미해군에 흔한 구축함 한척보다도 배수량이 작았다.
이런걸 놓고 함대요, 해군이요 하는가?
어쨌든 북조선의 해상무력발전속도는 놀랍구나. 우리 잠수함을 추격해오던 쪽배가 한해사이에 어뢰정으로 변했으니… 북조선해군이 이 속도로 계속 발전하면 10년후에는 잠수함과 구축함도 소유하게 될것이고 태평양상에서 무시할수 없는 세력으로 자랄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내버려두지 않을걸.
그는 더욱 분발해서 작전방안을 완성했던것이다.
조선동해에서 활동할 기동분함대가 조직되자 함대사령관은 웨리크를 승선지도장교로 임명하였다.
그가 위엄을 차리며 부두에 나타나자 항해준비를 하던 장교들과 사병들은 기합이나 당한듯이 당장 빳빳이 굳어지며 거수경례를 했다. 웨리크는 그때마다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례해주었다.

《대좌님! 승급을 축하합니다.》
어디선가 불쑥 나타난 시마무라가 게눈처럼 반들거리는 눈동자에 아첨기가 흐르는 미소를 짓고 바삐 다가왔다. 앙바틈한 작자가 안짱다리를 재게 놀리며 오는 모습이 아름드리목통이 기우뚱거리며 굴러오는것 같았다. 그 주제에 대위계급장이 달린 미해군장교복을 입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나타났소?》
《나는 정식으로 미해군에 입대했습니다.》
시마무라는 제가 입은 장교복을 비웃는듯 한 눈길로 훑어보더니 쓰겁게 입을 다셨다.
《대좌님은 승급했지만 난… 어제날 일본해군중좌가 미해군대위로 강급된셈이지요.》
전범자로 교수대에 매달 대신에 살려주고 장교복까지 입혀주니 제딴에 타발질을 한다.
《직무는 뭔가?》
《소해함 함장입니다. 함성원들의 대다수가 미해군복을 입은 일본인들이지요. 전쟁이 터지면 북조선해군이 항구들과 해안을 봉쇄할수 있으니 우리더러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소해작업을 하라는겁니다.》
《당신은 그게 달갑지 않다는거요?》
《물론이지요. 난 대좌님과 함께 기동분함대의 특수작전에 참가하고싶습니다. 우리야 그러자고 이미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웨리크는 잠수함으로 북조선해안을 정찰할 때 시마무라의 수로안내를 받은적이 있었고 후에도 이모저모로 톡톡히 신세를 졌지만 그것을 남들이 알거나 눈치채게 하고싶지 않았다. 그것도 그렇지만 기동분함대를 승선지도할 중임을 지닌 자기가 패전한 일본장교를 모사처럼 달고다니며 일일이 조언을 받는다는건 자존심이 상하고 남들 보기에도 체면이 깎이는 노릇이였다. 그래서 그 요청을 점잖게 거절했다.
《이보게 대위, 중대한 이 시각에 우린 서로 맡은바 임무수행에 전심전력함으로써 전쟁승리에 기여해야 할것이요. 하여간 난 당신을 잊지 않겠소. 전쟁이 끝나면 우리 원산항에서 만나자구. 거기서 축배를

들잔 말이요.》

웨리크의 속심을 알아차렸던지 불시에 어두워진 시마무라의 얼굴에서 아첨기가 씻은듯이 사라지고 랭소가 비꼈다.

《축배를 들자는 말씀은 고맙지만 거 지나친 호언장담은 삼가해야 하지 않을가요?》

지나친 호언장담이라? 가만, 이 작자는 우리 기동분함대가 조선동해에서 혁혁한 전과를 거두는것이 달갑지 않다는건가? 우리가 운수사납게 암초에라도 걸려서 애를 먹으면 내심 깨고소해할 놈이 분명하군.

웨리크는 언제 봐도 늘 자기의 속심은 감추고 겉으로만 복종하는척하는 이 간특한 일본인이 때에 따라 위험한 존재로 될수도 있겠기에 경계하고있었다. 이 패전당한 쪽발이들이 태평양해전에서 미군한테 곤죽이 되도록 얻어맞고 나중엔 원자탄맛까지 톡톡히 본걸 결코 잊을수 없을테지. 그래서 소가지가 삐뚤어진 수작을 하는군. 흥!

웨리크는 코웃음을 쳤다.

《시마무라군, 난 미해군장교로서 명예를 귀중히 여기기때문에 여태 빈말을 해본적이 없소. 우린 선전포고도 없이 달려든 당신네한테 진주만에서 먼저 처참하게 얻어맞았지만 기어이 복수하고 명예를 되찾을 결의를 다졌고 끝끝내 그 결의를 실천에 옮겼단 말이요.》

시마무라는 고통스럽게 얼굴을 찡그렸다.

《이번에도 내가 아니, 미해군이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걸 명심하시오. 내가 당신과 다시 만날 때 원산항은 미국식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될거요. 그럼 안녕히!》

웨리크는 해군단검으로 베여던지듯이 시마무라를 떼버리고 거연히 머리를 추켜들고 기동분함대 기함인 《볼티모》호의 사선으로 경사진 배다리를 짚으며 올라갔다. 갑판에 올라서는 순간 황급히 마중나온 당직장교가 거수경례를 했다.

이 순간 마스트를 바라본 웨리크는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웠다. 자기의 승선을 알리는 기발이 마스트에 오르지 않았기때문이였다. 자기의 기발을 올리려면 지금처럼 작전장교가 아니라 적어도 함대참모장의 직급에 올라야 했다. 그날은 멀지 않았다.

조선전쟁은 그날을 당겨오는 결정적인 기회로 될것이다.

잭슨함장은 전시환경에 어울리지 않게 화려한 례복차림을 하고 맥

아더를 흉내내여 파이프로 려송연을 피우고있었다.

그는 기본지휘소에 짜장 위엄있게 들어서는 웨리크를 보자 격식을 차려 맞이해줄 대신 히물히물 징그럽게 웃었다.

《이보게! 자네 소식 들었나?》

웨리크는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하대하는 잭슨을 불쾌한 기색으로 마주보았다.

물론 군사칭호나 직급상으로 보면 기함인 《볼티모》호 함장은 함대사령부의 작전참모들과는 대비할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해군에는 《볼티모》호 함장의 경력을 반드시 가져야만 해군제독이 될수 있다는 관례까지 생겼다. 하지만 해군제독이 파견한 승선지도장교는 임무수행상 해당 작전이 끝날 때까지 함장우에 있게 된다.

웨리크는 이런걸 감히 무시하고 자기를 하대하는 상대방이 아니꼽기 그지없었다.

《정말 희한한 소식일세.》

잭슨은 한손으로 텁수룩한 턱수염을 매만지며 불손하게도 웨리크앞에 담배연기를 구름처럼 내뿜었다.

《트루맨대통령이 우리 7함대에 출동명령을 내리고나서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였던지 니미쯔각하를 찾아갔다는거야. 그에게 해군작전부장을 다시 해주십사 하고 정중히 요청했다는구만.》

이미 해군제독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은 웨리크는 씁쓸하고 심드렁해서 조타기만 만지작거렸다.

잭슨은 워낙 말이 많은 작자라 성수가 나서 마치 제 자랑거리나 되는듯이 떠들었다.

《니미쯔각하는 그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다는거야. 그통에 대통령은 개코망신을 했지. 하지만 난 아쉽구만. 니미쯔가 자존심을 좀 죽이고서라도 다시 그 자리에 앉아주었으면 좋겠단 말일세.

말이 났으니 말이지 니미쯔는 타고난 행운아야. 꼬막옛적 우리 〈볼티모〉호에서 항해장교로 복무할 때부터 운수가 기막히게 좋았다니 말일세. 아무리 가렬한 해전을 치러도 끄떡없었지. 바다의 신같은 존재였어. 내 경험에 의하면 운수좋은 상관을 만나야지 그러지 않으면 코코에 랑패를 당하기 쉽다네.

니미쯔가 자기 대신에 해군작전부장으로 쎌만을 추천했다는데 이 잭

슨은 그자를 인정하지 않아. 그자는 우리 〈볼티모〉호에 발도 대보지 못했거던. 그자가 타고다니는 함선은 평화시기에도 조난을 당한적이 있단 말이야.

제길, 그런 작자가 해군작전부장이 된다니 어쩐지 께름직하구만.》

웨리크는 조타기에서 손을 떼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마음을 푹 놓으십시오. 내가 승선지도를 하니까요.》

잭슨은 어이가 없는지 코웃음을 쳤다.

《자네가?! 흥, 자넨 니미쯔의 총애는 받았지만 그의 발뒤축에도 못가.》

잭슨은 자기보다 군복무년한이 적고 따라서 경험도 부족한 웨리크가 승선지도하게 된걸 시답지 않아하는 내심을 구태여 숨기려 하지 않았다.

웨리크는 모욕감에 피가 꺼꾸로 흐르는것 같았다. 그렇다고 중대작전을 앞두고 함장과 다툴수도 없었다. 그는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자신만만하게 해도탁앞으로 다가갔다.

《함장님, 이젠 본론에 들어갑시다. 당신은 적수인 북조선해군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있습니까?》

잭슨은 눈을 흡뜨며 어깨를 으쓱하더니 야유조로 반문했다.

《북조선에도 해군이 있소?》

웨리크는 질책의 눈초리로 잭슨을 흘겨보았다.

그 모습이 가히 니미쯔해군대장을 방불케 하는것이여서 잭슨은 저도 모르게 파이프를 놓고 해도탁앞에 공손히 마주섰다.

《조선엔 경적필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깔보면 진다는 소리지요.》

잭슨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였는데 비죽이 내민 입술과 가느스름하게 좁힌 두눈에는 아직도 거만함이 비껴있었다.

《함장님, 부디 명심하기 바랍니다.

북조선해군은 엄연히 존재하고있을뿐더러 그 발전속도가 상당히 빠르기때문에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는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6월 28일현재 북조선해군은 해군사령부의 참모부기능을 수행하는 청진기지와 동해에는 원산기지, 서해에는 남포기지를 두고있습니다. 이외에 해안포부대, 고사포부대, 해상륙전대와 해군군관학교를 비롯한 양성기지들, 배수리공장들을 가지고있습니다.

원산해군기지에는 어뢰정대를 비롯한 네개의 정대와 소해함, 수송선, 경비함들이 있고 어뢰조종대와 통신소, 수로국이 배속되여있는바…》

잭슨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우연히 해군대장의 눈에 들어 함대사령부에 올라가 건달을 치는줄 알았던 웨리크대좌가 북조선해군의 실태를 너무도 환히 꿰뚫고있기때문이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웨리크는 사세보를 떠나 조선해협을 통과하여 북상하는 배길과 북조선의 주요항구들과 군항들의 위치, 그 입구와 묘박지의 수심, 지질상태까지도 다 파악하고있었다.

웨리크는 거만하기 짝이 없는 잭슨함장의 얼굴에 비껴있던 비웃음이 경탄으로 바뀌우는것을 흐뭇하게 감촉하면서 해도작업도구를 쥐고 자신만만하게 쭉쭉 항로를 그어나갔다.

기동분함대의 예비해도작업을 자기가 직접 하는 판이였다.

그는 기항지를 부산항과 울산항으로 정했다.

《인민군은 전쟁 첫날에 반공격으로 넘어가 한국군 8사 10련대를 밀어제끼고 주문진을 탈취하였으며 강릉일대로 계속 남진하고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빨리 강릉앞바다에 진출하여 집중적인 함포사격으로 동해안을 따라 진격해오는 인민군부대들을 저지시켜야 합니다.

지금 출동준비를 갖춘 24사가 부산에 공수하여 북상하게 되면 정세는 즉시 호전될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작전수역을 38도선 이북으로 확대하여 원산항을 들이침으로써 북조선해군의 기본력량을 소멸하고 제해권을 철저히 장악해야 합니다.

뒤이어 원산항에 우리 해병대가 상륙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북상하여 청진항을 탈취하고 거기에 타고앉아 필경 참전의 기회를 노리고있을 쏘련태평양함대를 견제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기동분함대만으로도 이상의 작전수행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웨리크는 계속하여 있을수 있는 여러가지 전투정황에 대처한 작전안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것은 즉흥적인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깊은 연구를 전제로 한

것이여서 빈틈이 없었다. 잭슨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했다.

《우린 서둘러야 합니다.

인민군이 남진하면서 해안을 기뢰로 봉쇄하는 경우 일이 시끄러워질수 있지요.》

《당장 출항하기요. 우린 만전을 기하고있소.》

웨리크는 출항준비정형을 자기가 직접 돌아보고 함대사령부에 보고하겠노라 언명했다. 잭슨은 기꺼이 응했다.

항해준비를 알리는 배고동이 군항을 흔들며 요란하게 울려퍼졌다.

승무원들은 발을 구르며 각기 자기의 전투초소로 달려갔다. 세척의 군함에서 수천명에 달하는 승조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니 핑장했다. 먼저 보조기관들이 돌아가면서 각 초소들에 전원을 공급했다. 높이 치솟은 마스트와 사령탑우에 설치된 여러가지 형태의 안테나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뿌렸다. 함상포들도 휘휘 포신을 휘둘러댔다.

웨리크는 잭슨함장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자못 거룩한 자세로 먼저 함상포들을 돌아보았다.

203미리주포 9문이 선수갑판, 중갑판, 선미갑판에 계단식으로 틀고앉았는데 과연 볼만 했다. 127미리부포는 12문이나 된다. 40미리, 20미리고사포들은 모두 합쳐 49문이였다.

이 함상포들이 동시에 울부짖으면 아마 사세보항이 순간에 재가루로 될것이였다.

그 광경을 상상해보니 매우 흡족했다. 승무원들의 전투동원준비상태도 마음에 들었다. 모두들 규정대로 전투항해복장을 착용하고 자기위치에 지켜서있는데 부릅뜬 눈동자에선 마주보는 사람의 속을 섬찍하게 해주는 살기가 희번득거렸다. 모두들 한바탕 싸워보고싶은 갈망에 불타고있었다.

웨리크는 그들을 둘러보다가 여기에 혹시 볼티모내기가 없느냐고 물었다. 키는 꺽두룩한데 녀자들처럼 살결이 희고 해사하게 생긴 애티가 나는 사병이 한걸음 나섰다.

《이름은?》

《토니입니다.》

《볼티모에서 뭘 했어?》
《선박호텔경비원을 하다가 작년에 입대했습니다.》
토니는 승선지도장교가 하바닥인 자기를 친절히 상대해주는게 자못 황송해서 총소제대라도 삼킨듯이 빳빳한 자세로 씩씩하게 대답했다.
《일본에 와서 실컷 놀았겠구만.》
토니는 헤벌쭉거리며 여긴 지상천국이다, 호텔경비나 서다가 여기 와서는 매일같이 유흥장에 나가 마시고 춤을 추니 흡족했다, 직업이 신통치 않아서 군복을 입었는데 인생의 선택을 잘한것 같다고 제법 희떠운 소리를 했다.
웨리크의 눈앞에는 가렬처절했던 태평양전쟁의 나날들이 불현듯 떠올랐다.
갈가마귀떼처럼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날아오던 날개에 일장기를 그린 함재기들, 미해군이 미처 정신을 차릴새도 없이 상공을 찢어발기며 우박치듯 쏟아져내리던 폭탄과 항공어뢰들, 련속 울리는 폭음, 도처에서 번쩍이는 화광, 솟구치는 물기둥, 순식간에 바다는 불타는 함선잔해들과 물결우에 둥둥 떠도는 시체들의 란무장으로 변했다.
파철더미가 되여 바다밑으로 가라앉는 함선들마다에서 비통하게 울려나오던 《해군행진곡》소리…

주여 보살펴주소서
나의 령혼 천당에 갈수 있게
파도여 나를 도와
바다길이 안내해다오

진주만과 미드웨이섬의 앞바다에서 그렇게 천당으로 간 미해병들은 그 얼마였던가. 그네들의 원쑤를 갚자고, 훼손된 미해군의 명예를 회복하자고 한결같이 분발하여 일떠서서 가증스러운 사무라이해군을 쳐부시던 나날엔 누구나 개인의 생사나 환락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다. 녀인들의 손목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불비가 쏟아지는 거치른 파도우에서 향수내대신에 노상 화약내와 피비린내를 맡으며 혈전을 거듭해야 했다.
그 나날에 미해군은 해군대장인 니미쯔로부터 자기가 몰고다닌 잡

수함의 조기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병들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일본해군을 격파함으로써 진주만에서 당한 최악의 수치를 깨끗이 씻어버리자는 오로지 그 생각뿐이였다.

이처럼 태평양전쟁초기의 패배는 술에 만취되고 환락의 소용돌이속에 깊숙이 잠겼던 미해군을 정신차리게 해주었고 전체 미군과 국민을 단합시켜 대아메리카의 명예와 안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게 해주었다.

그런데 애비가 손끝에서 피나게 번 돈으로 진탕망탕 놀아대는 귀공자처럼 전후에 입대하여 점령군의 특세를 부리는 이 애숭이들이 그것을 과연 알기나 할가?

《자네가 일본에 와서 누린 향락은 지난 태평양전쟁때 흘린 로병들의 피의 대가라는걸 명심하게.》

토니는 무거운 숨을 내그었다.

《대좌님, 제가 그걸 모를리 있겠습니까. 당시 나의 형은 주력전투함인 〈네바다〉호에서 주포의 조준수로 복무했답니다.》

순간 화약내와 피비린내가 물씬 풍기는듯싶었다.

웨리크의 눈앞에는 일본함재기들이 불의에 진주만을 기습할 때 요행 항구밖으로 빠져나가 전속으로 내빼다가 맹폭격을 받고 불길에 휩싸여 가라앉던 《네바다》호의 처참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래서? 형은 어떻게 됐소?》

토니는 응당 그래야 한다는듯이 큰소리로 씩씩하게 대답했다.

《침몰하는 함선과 운명을 함께 했습니다.》

《당신도 그럴 각오가 되여있소?》

《예,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북조선에는 우리 〈볼티모〉호를 침몰시킬만 한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이 없다고 합니다. 난 좀 본때있게 싸워보고싶은데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토니가 희떠운 소리를 줴치자 곁에 있던 해병들도 동감인듯 껄껄 소리내여 웃었다.

웨리크는 그렇다고 해서 북조선해군을 너무 얕보면 안된다, 바싹 긴장하라고 일장훈시했다.

《난 당신들이 이번 전쟁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서 기어이 이기고야마는 미해군의 전통적인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리라는것

을 믿어의심치 않소. 참, 누가 조선에 가보았소?》
대답을 하는 해병이 없었다.
《조선은 경치가 아름답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요. 그래서 예로부터 대국들이 서로 넘겨다보며 군침을 흘려왔소. 우리 미국이 지금 조선반도의 남쪽을 타고앉았는데 세계제패를 위하여 38도선을 압록강기슭과 두만강기슭까지 올려밀자는거요. 나는 당신들이 로병들이 점령해준 이 섬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점령한 북조선의 명승지인 명사십리나 송도원에서 즐기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않소.》
토니와 해병들은 대좌님의 기대에 보답하겠노라고 큰소리로 대답했다.
웨리크는 이런 식으로 경순양함과 원양구축함도 돌아보면서 승무원들을 고무해주었다. 그러고나서 《볼티모》호로 돌아왔다.
《볼티모》호의 사령탑은 3층으로 되여있다.
1층은 예비지휘소고 2층은 기본지휘소이며 3층은 작전지휘소다. 함장실은 기본지휘소곁에 있었다. 웨리크는 자기가 숭배하는 볼티모경의 초상화가 붙어있는 이 방에서 니미쯔로부터 북조선해안을 정찰할데 대한 특별임무를 받던 그날이 생각나서 감개무량했다.
잭슨은 라지오를 켜더니 장을 열고 위스키병과 고뿌 두개를 꺼냈다.
《대좌, 당신이 세운 작전안은 만점짜리요. 난 탄복을 금할수 없소. 그럼 력사적인 출항을 기념하기요.》
웨리크는 잭슨함장이 술을 부어주는 잔을 기쁜 마음으로 받았다.
라지오에서는 녀방송원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공산군은 그야말로 노도와 같이 진격하고있습니다. 전쟁개시 첫날에 개성을 탈취하고 계속하여 옹진반도와 연안을 거쳐 오늘은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압박하고있습니다. 정황이 위급하여 리승만대통령은 새벽 3시에 대전으로 피신했고 무쵸대사도 서울에서 빨리 탈출하라는 미국무성의 지시를 받고 아침에 수원으로 떠났습니다.
무쵸대사는 서울을 떠나기 앞서 기자들에게 미군이 전쟁에 속히 개입하지 않으면 한국은 열흘어간에 붕괴될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트루맨대통령의 긴급지시에 따라 조선전쟁조사단이 수원에 가서 오늘 저녁부터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오늘부터는 미국이 전면에 나서서 《자유세계》를 지켜 공산군과 싸우겠다는 소리였다.

보도가 끝나자 《해군행진곡》이 울려나와 출전을 앞둔 그들의 사기를 더욱 돋구어주었다. 그들은 태평양해전때 즐겨부른 이 노래를 입속으로 따라부르며 잔을 들어올렸다.

잭슨이 자못 친근한 어조로 물었다.

《대좌, 무엇을 위해 마실가?》

웨리크는 액틀속에서 엄숙한 기색으로 자기를 지켜보고있는 볼티모경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북조선의 원산항을 제2의 볼티모항으로 만들기 위하여 듭시다.》

《나 역시 그게 소원이요.》

두개의 수정술잔은 공중에서 마주치며 귀맛좋은 소리를 냈다.

라지오에서는 《해군행진곡》이 계속 울려나오고있었다.

그날 밤 기동분함대는 출항에 앞서 이런 경우에 전통적으로 그러했듯이 모든 승무원들이 각기 자기 함선의 갑판에 정렬하였다.

먼저 하느님께 승전과 축복을 바라는 종군목사의 기도가 있은 다음 잭슨함장의 선창에 따라 《내리워지지 않는 성조기》를 일제히 합창했다.

사세보항을 뒤흔드는 그 우렁찬 노래소리를 들으니 웨리크는 가슴속에서 피가 끓어오르고 눈굽조차 뜨거워졌다.

기동분함대는 조선전선으로 떠났다.

《장엄》한 출항이였다.

17

김정인은 어뢰정대원들의 건강이나 돌보는것으로 만족할 처녀가 아니였다. 그는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위생가방을 메고 어뢰정갑판

에 오를 결심이 되여있었다. 쏟아져내리는 불비속을 뚫고 적함을 향하여 돌진하는 정대원들과 생사운명을 함께 할 각오로 심장을 불태워왔다.

그런데 이게 뭐란 말인가? 공교롭게도 그는 전쟁이 터진 그 시각부터 해산방조를 하느라 언니네 집에 붙잡혀있지 않으면 안되였다.

언니는 당장 해산을 할듯 소동을 피우면서도 정작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러다나니 산모도 준의도 들볶이울대로 들볶이여서 기진맥진해졌다. 어뢰정들은 벌써 하가하고 출항했을수도 있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김정인은 안절부절했다.

정녀는 땀투성이가 된채 이불에 드러누워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진통을 씹어삼켰다.

《정인아, 내 걱정은 말고 어서 군의소로 돌아가렴. 어서!》

이때 군의소에 보냈던 봉입간호장이 되돌아왔다.

《왜 왔어요?》

《군의소장동지가 야단을 하면서 돌려보내더군요.

다른 걱정은 하지 말고 아이를 무사히 받아내래요.》

어느새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김정녀는 웬일인지 남편이 보고싶어서 똑딱거리는 벽시계를 자꾸만 쳐다보며 《왜 상기두 안 들어오실가?》 하고 되뇌이였다.

《언니두 참… 전쟁이 터졌는데 기지장이 어떻게 집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두… 아침식사랑 점심이랑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구나. 난 애아버지가 보고싶어 못 견디겠어. 이러다가 내가 혹시 잘못될수도 있잖니.》

이럴 때 보면 처녀시절에 벌써 군당부녀부장까지 했던 언니가 꼭 어린애같았다.

《아이고! 이거 죽여주는구나.》

김정녀는 또 진통에 몸부림을 치며 비명을 질렀다. 그러다가 딸애를 찾았다.

《순이는 완근정장동지네 집에 가있어요.》

《참 그랬지. 미안해. 나때문에 숱한 사람들이 고생하는구나. 여느날도 아닌 전쟁이 터진 날에 말이야. 이럴줄 알았으면 아이를 가지지

말았어야 하는건데…》
김정녀는 모진 고통속에서도 미안해서 어쩔바를 몰라했다.
봉임간호장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소리없이 웃었다.
언니는 아픔을 참으려고 그러는지, 엄습하는 불안을 털어버리려고 그러는지 땀투성이가 되여 가쁜숨을 몰아쉬면서도 자꾸만 말을 했다.
《전번엔 그이가 딸을 낳았다고 섭섭해하시더구나. 그래서 이번엔 꼭 아들을 낳자고 했는데… 전쟁이 터질줄이야. 이럴줄 알았으면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건데… 아이고!》
김정인은 신음소리를 내는 언니의 볼에 달라붙은 땀에 젖은 머리칼들을 조심스레 떼내여 귀등으로 넘겨주었다.
《정인아, 네 생각엔 어떠냐? 아들일가, 딸일가? 이번에도 또 딸을 낳으면 난 어쩌면 좋아.》
정인은 언니가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자기도 알수 없었다. 그러나 진통에 신음하는 언니를 고무해주려고 이렇게 장담했다.
《이번엔 꼭 아들일거예요. 글쎄 틀림이 없다니까요.》
언니는 안도의 숨을 후련히 내쉬였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러더니 큰 시름이나 놓은듯이 숨소리를 고르롭게 내면서 혼곤히 잠들었다.
정인은 언니가 정말로 생남을 하면 어뢰정대장감이 태여났다고 기뻐서 어쩔바를 몰라할 아저씨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며 방긋이 웃었다.
봉임은 산모가 있다는것도 잊었는지 기세등등해서 큰소리를 쳤다.
《준의동무, 희소식이예요! 우리 인민군대가 전전선에 걸쳐 반공격으로 넘어갔대요.》
《정말?》
《예! 방금전에 개성과 주문진을 해방한 소식이 보도되였어요.》
정인은 자리를 차고 일어나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싶었다.
《기지에선 지금 뭘하고있나요?》
《래일 대규모적인 상륙작전을 진행한대요.》
말만 들어도 가슴에서 피가 끓어넘쳤다.

《지금 모두 떨쳐나 그 준비를 하고있어요.》
《어뢰정대두요?》
《예, 지금 한창 하가작업을 하고있어요. 소해함은 오전에 먼저 출항했대요. 상륙작전에 앞서 배길상태를 알아보러 갔다고 해요.》
어느새 잠을 깼는지 김정녀도 일어나려고 모지름을 썼다. 그 소식을 들으니 기운이 솟구치는 모양이다.
《언니, 가만 누워계세요.》
《전쟁이 터졌다는데 내가 누워있으면 되겠니.
어뢰정대에 항해용식품을 보장해줘야 해.》
《걱정마세요. 다른 군관가족들이 할텐데…》
《그래두 내 몫이야 해야지.》
김정녀는 아픔에 잔뜩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부득부득 일어나려고 했다.
《언니, 정 그러면 지시나 하세요. 우리가 해드리지요.》
상반신을 겨우 일으켰던 정녀는 그 소리에 안심이 된듯 다시 드러누웠다.
《우선 닭을 잡아. 알낳는 닭이 세마리 있는데 다 잡아.》
정인이와 봉임은 난처한 기색으로 마주보기만 했다.
《왜 그래? 닭잡을줄도 모르나?》
정인은 언니에게 닭은 후에 잡기로 하자고 설복했다.
정녀는 부엌의 항아리안에 있는 닭알을 다 꺼내서 삶아라, 터밭에 있는 오이를 따서 김치를 담가라, 고추장도 단지채로 보내자 하고 지시를 했다. 정인은 산모를 그냥 지키고있고 봉임이가 터밭에 나가 손에 잡히는대로 오이를 따가지고 부엌에 들어가 부산스레 돌아갔다.
밤은 계속 깊어가는데 잠시 조용해졌던 산모가 배를 그러안으며 또다시 죽는소리를 쳤다. 눈이 거불거불해서 앉아있던 정인이와 봉임은 해산방조를 하노라 썰썰 끓어댔다.
《언니! 힘을 주라요!》
《응. 응.》
《용을 쓰라요! 좋아요! 한번 더!》

그들은 체육경기를 응원하듯 겨끔내기로 소리쳤다.

정녀는 곁에 앉은 간호장의 손목을 꽉 움켜쥔채 이를 악물고 기운을 썼다.

진통이 도를 넘어 정신이 흐리마리해졌다. 이마가 보기 좋게 벗겨진 남편이 벙글벙글 웃으며 눈앞에 다가온다. 사위를 끔찍이도 위해주던 늙으신 어머니의 모습도 안겨왔다.

《여보! 순이 아버지!》

정녀는 목이 터질 지경으로 소리쳤다. 남편은 여전히 벙글벙글 웃을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 엄마!》

사지가 찢겨나가는듯 한 모진 아픔이 전신을 휩쓸었다. 그 찰나에 뭔가 쑥 빠져나가며 무겁고 지겹던 몸이 홀가분해졌다. 허공에 둥실 떠오른 기분이다. 불쑥 자신의 존재를 시위하려는듯이 힘차게 울어대는 아기의 고고성이 터져올랐다.

《됐어요! 언니, 수고했어요. 정말 용해요.》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고무해주는 동생의 목소리가 꿈결인양 아렴풋이 들려왔다. 뒤이어 여러 사람이 동시에 터치는 탄성이 울렸다.

《야! 사내애군요.》

《실하기두 해라.》

《기지장동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가.》

《간호장동무가 빨리 가서 알려주세요.》

문이 여닫기는 소리, 소곤소곤 속삭임소리…

다음엔 조용해졌다. 고요해졌다.

정녀는 홀가분해진 자기의 몸이 따스한 물결에 실려 어디론가 둥둥 떠가는것만 같았다. 공교롭게도 전쟁이 일어난 날 깊은 밤에 새생명을 창조한 녀인은 궁지에 넘친 행복의 미소를 머금은채 만시름을 놓고 혼곤히 잠들었다.

아기는 크고 실했다. 이마가 번듯하고 코가 큼직한게 신통히도 아버지를 닮았다. 이처럼 아기가 크다나니 해산할 때 산모가 애를 먹은것이였다.

아기구경을 왔던 녀인들이 돌아갔다. 따스한 물에 아기를 목욕시켜 보드라운 천으로 감싸 자그마한 포대기에 눕혀놓은 김정인은 숨을 돌

리려고 밖으로 나갔다.
어느새 날이 바뀌였다. 꼭두새벽이라 캄캄했다.
지칠대로 지친 그는 퇴마루에 앉아 바람벽에 등을 기대고 차거울 정도로 시원한 해풍을 한껏 들이켰다.
불현듯 저기 부두쪽에서 불빛이 반짝거리고 출항준비를 하는 부산스러운 소리가 알릴듯말듯 울려왔다.
그는 손으로 입을 싸쥐며 터져나오는 하픔을 막았다. 긴장이 풀리니 피곤했다. 이대로 눈을 감고 쪽잠에 들면 좋으련만… 아니, 내가 왜 이러고있나. 빨리 밥을 짓고 미역국을 끓여놓고서 군의소에 돌아가야지.
그가 지친 몸을 억지로 일으키는데 누군가 부리나케 마당으로 뛰여들었다.
《정인아! 수고했다!》
아저씨였다. 정인은 놀라운 눈길로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아들을 낳은 소식을 전하려고 간호장이 가긴 했지만 막상 이렇게 아저씨가 집에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아들이라지?》
《예.》
홍동철은 춤을 출듯이 기뻐하며 성급히 방에 들어갔다.
방금 잠에서 깨여나 고개를 드는 안해에게 눈을 끔벅해보인 그는 안해의 곁에서 단잠을 자고있는 아기를 주의깊게 들여다보았다.
뒤따라 방에 들어온 정인이 말했다.
《신통히도 아버지를 닮았어요.》
홍동철은 입술을 비죽이 내밀며 고개를 기웃거렸다.
《그런가? 난 잘 모르겠는걸.》
그는 이런 말을 한게 미안했던지 안해를 돌아보며 벙글서 웃었다.
《여보, 수고했소. 정말 수고했소.
허허! 이제야 해병감이 태여났군.》
흡족해하던 홍동철은 팔목시계를 보더니 서둘러 일어났다.
《그럼 몸조리를 잘하오. 난 가봐야 하겠소.》
김정녀는 가까스로 일어나 웃음을 지으며 말없이 남편을 바래워주

었다.

안절부절하던 정인은 부랴부랴 아저씨의 뒤를 따라 토방에 나갔다.

《기지장동지, 저도 이젠 군의소에 돌아가겠습니다.》

홍동철은 선선히 고개를 끄덕이였다.

《응, 여기 일은 간호장동무에게 맡기고 너는 빨리 군의소장을 만나거라. 기다리고있을거다.》

무엇때문에 군의소장동지를 만나라고 할가?

정인이 물어볼새도 없이 아저씨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정인아, 잠간만 기다려라!》

언니가 서두르며 부엌에 내려갔다.

《언니, 어쩌자구 그래요? 어서 누워계세요. 찬바람을 쏘이면 큰일이예요.》

정인은 언니의 등을 떠밀었다. 그러나 정녀는 방안에 들어갈념을 하지 않고 삶은 닭알을 넣은 광주리와 오이김치를 담은 바께쯔, 깨고추장단지를 동생에게 안겨주었다.

《자, 군의소에 가는 길에 이걸 어뢰정대에 전해주렴. 꽈배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구나.》

《알겠어요. 빨리 방안에 들어가세요.》

《정대장동무에게 놈들을 본때나게 족쳐달라고 해라.》

《알겠다니까요. 자, 어서.》

정인은 언니를 부축하여 방안에 들어가 자리에 눕혀준 다음 아기의 건강상태를 다시금 확인하고나서 봉임간호장과 함께 닭알광주리와 오이김치가 담겨진 바께쯔, 깨고추장단지를 안고 들고 부두를 향해 잰걸음을 쳤다.

새벽의 대기를 요란하게 뒤흔들며 전투함정들의 발동소리가 승벽내기로 울려왔다. 그가운데서 귀에 익은 어뢰정들의 발동소리는 유별나게 기운찼다. 그 소리를 들으니 가뜩이나 조급하던 마음에 불이 이는듯싶었다.

《빨리 가자요.》

《가만, 이러다간 오이김치를 쏟겠어요.》

달려가고싶어도 그럴수가 없어서 아기작거리며 조바심을 치는데 부

두쪽에서 굴러오던 어뢰운반대차가 그들앞에서 멈춰섰다.
《어딜 갑니까?》
반가와서 소리쳐 묻는 해병은 전달에 급성충수염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다가 퇴원한 어뢰조종수였다.
《어뢰정대에 가요.》
《그걸 어서 대차에 실으십시오.》
어뢰조종수들은 그들에게서 오이김치바께쯔와 닭알광주리, 깨고추장단지를 받아서 싣고 다시 부두로 대차를 밀고갔다.
김정인은 봉임간호장을 언니네 집에 돌려보내고나서 대차를 뒤따라 달려갔다.
쫘릉! 쫘릉!
횡대로 계류한 4척의 어뢰정들가운데서 바깥쪽에 붙은 두척이 공회전상태로 기관을 돌리며 당장 뛰쳐나갈듯이 선체를 들썩이고있었다.
부두엔 배기가스가 자옥해서 짙은 안개속인듯 앞을 가려보기 어려웠다. 배기가스냄새가 어찌두 지독한지 눈이 쓰리고 숨이 막히고 구토감이 났다. 그속에서 정대원들이 항해준비를 하고있었다.
정인이가 대차에서 부린 닭알광주리를 안고 서둘러 어뢰정에 오르려는데 누군가 성큼 부두로 뛰여내리며 담벽처럼 앞을 막았다.
《이건 뭐요?》
목소리를 들으니 마침 정대장이다.
《기지장동지네 집에서 보내는 항해식품이예요.》
김군옥은 그제서야 정인을 알아보았다. 그는 박원협갑판장을 불러 항해식품을 받아 배에 실으라고 지시를 주고나서 호기심이 어린 궁금한 어조로 물었다.
《참, 언니는 어떻게 됐소?》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 정말 수고했구만, 수고했어.》
김군옥은 기뻐서 어쩔바를 몰라하다가 정대원들에게 목청껏 웨쳤다.
《동무들! 경사요! 기지장동지의 아주머니가 아들을 낳았다오.》
항해준비를 하던 정대원들이 잠시 일손을 놓고 우르르 몰려왔다.
《수고했습니다! 준의동무.》
《아기가 누구를 닮았습니까?》

《이름은 뭐라고 지었습니까?》
저마다 겨끔내기로 질문을 퍼부었다.
정인은 평화시기도 아닌 지금 억대우같은 바다사나이들이 아기의 출생을 놓고 이다지도 기뻐할줄은 생각지 못했었다. 실은 전쟁시기여서 아기의 출생은 더욱 경사롭고 신비스러운것으로 되였으며 그래서 해병들은 이토록 흥분하고 기뻐하는것이였다.
이때 기지장이 불쑥 나타나서 엄하게 소리쳤다.
《왜 떠들어대는거요? 자기 위치로!》
해병들은 바삐 자기 초소로 달려갔다. 정인은 21호정 지휘소로 올라가는 정대장에게 무슨 임무를 받고 출항하는가고 소리쳐 물었다. 김군옥은 그 처녀를 피뜩 돌아보았지만 대답을 하지 않고 곁에 서있는 김도형정장에게 무슨 지시를 주기 시작했다.
《정대장동지! 저도 함께 가겠어요.》
김정인이 무작정 어뢰정갑판에 오르려는데 아저씨가 엄하게 소리쳤다.
《준의동무는 빨리 군의소장한테 가오!》
김정인은 애원의 눈길로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전…》
홍동철은 벌컥 화를 냈다.
《아저씨가 뭐야? 군의소장한테 가라구, 어서!》
김정인은 하는수없이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군의소로 갔다.
군의소장은 약품들을 준비해놓고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수고했소. 순산했다지?》
《예.》
군의소장은 해산방조를 하노라 수고했다는 소리도 없이 불쑥 물었다.
《준의동무, 이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수 있겠소?》
김정인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며 얼른 대답했다.
《예, 나가겠습니다.》
《오늘 대규모적인 상륙작전을 진행하오. 이 작전에 군의보장을 해야 하는데 기지장동지가 이왕이면 정인동무를 보내달라고 하더군.》

김정인은 너무 기뻐서 춤이라도 추고싶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기야 뭐… 이 약품을 가지고 〈평화〉호에 오르오. 기지장동지도 그 배를 타고가오.》
《평화》호는 해군군관학교에서 실습선으로 사용하던 수송선이다.
김정인이 승선하자 수송선은 배다리를 끌어올리고 부두를 떠났다. 뒤따라 소해정들, 경비함들도 출항했다. 주변에 있는 수산합작사의 고기배들까지 따라섰다. 크고작은 함선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발동소리를 울리며 나가는 모습은 볼수록 장관이였다.
김정인은 먼저 출항한 어뢰정 두척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눈에 띄우지 않았다. 항해모를 단정히 쓴 홍동철이 싱글벙글 웃으며 다가왔다.
《아저씨.》
홍동철은 엄한 기색을 지으며 눈을 흡떴다.
《다시 불러라.》
김정인은 정색해서 거수경례를 했다.
《기지장동지, 소위 김정인 명령대로 약품을 가지고 승선하였습니다.》
《음, 우린 오늘 해상륙전대 한개 련대를 아직 미해방지구인 해안에 상륙시켜야 하오. 적들과 전투를 하는 경우 부상자들이 생길수 있으니 준의동무는 필요한 대책을 세우시오. 담가조를 동무에게 배속시켜주겠소.》
《알았습니다!》
씩씩하게 대답하고난 김정인은 방싯 웃었다.
《아저씨.》
《또 아저씨냐?》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하겠어요?》
홍동철은 그건 무슨 왕청같은 소리냐 하듯이 두눈을 크게 떴다가 뒤미처 오늘 새벽에 안해가 해산을 한 생각이 나서 허허 웃었다.
《그걸 깜박 잊었댔구나. 하여간 상륙작전을 수행한 다음에 아기의 이름을 짓도록 하자꾸나. 너두 이름을 하나 생각해내려무나.》
수송선단은 원산부두에 정박했다.

새벽어스름속에서 구령소리가 울리고 수많은 륙전대원들이 움직였다. 방금 건네놓은 배다리를 타고 누군가 먼저 수송선갑판에 올랐다. 그는 자기를 맞이해주는 기지장에게 거수경례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련대장 최민철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두 군관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홍동철은 보안간부훈련소에 있을 때 항일투사인 최민철과 이미 낯을 익힌 사이였다.

련대는 승선을 시작했다. 전투장구류를 갖춘 륙전대원들이 배다리를 건너 날쌔게 갑판으로 달려올라왔다. 잠간사이에 승선이 끝났다. 수송선단은 곧 출항했다.

한편 먼저 출항한 두척의 어뢰정은 고성앞바다를 지나 38도선이남수역에 들어섰다.

김군옥은 낯선 해안을 유심히 살피다가 갑이나 등대, 섬들이 나타나면 해도실에 들어가 해도에 표시해놓군 했다.

어뢰정이 속초항에 거의 접근했을 때 어디선가 포성이 요란하게 울려왔다.

긴장하게 해상감시를 하던 박원협이 석쉼한 목소리로 웨쳤다.

《지휘소! 좌현 15도, 거리 7마일 불명목표 발견!》

김군옥은 즉시 그쪽으로 변침할것을 명령했다.

어뢰정들은 배머리를 돌리고 속도를 높였다. 포연에 흐려진 수평선쪽에서 이쪽을 향하여 마주오는 함선의 자태가 어렴풋이 드러났다. 어쩐지 낯이 익었다.

박원협이 소리쳤다.

《지휘소, 우리 소해함인것 같다.》

그는 명태처럼 버쩍 마르기는 했지만 키가 껑충하고 눈이 밝아서 리상적인 감시병이였다.

김군옥은 그가 넘겨주는 쌍안경을 받아들고 그 함선을 바라보았다. 소해함이 분명했다. 배머리에 31이라고 쓴 전술번호도 가려볼수 있었다. 100미리주포가 위엄있게 틀고앉은 선수갑판에 해병들이 떨쳐나와 이쪽에 대고 손을 흔들며 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있었다. 무슨 일이 생겼나부다.

《저 친구들이 왜 저렇게 떠들어대는거야?》
김도형정장이 의아한듯 고개를 기웃거렸다.
《글쎄 말이요. 공회전시키고 어뢰정을 바투 들이대라구.》
《알았다.》
김도형은 정대장의 지시대로 기관을 공회전시키고 타력을 솜씨있게 리용하여 어뢰정을 소해함결에 들이댔다.
해군군관학교 동창생인 소해함함장 마진규대위가 아주 성수가 나서 확성기로 소리쳤다.
《동무들! 우린 벌써 놈들과 한판 붙었댔소.》
김군옥도 확성기를 들고 큰소리로 물었다.
《어떤 놈과 붙었댔나?》
《소해함이요!》
괴뢰해군의 소해함은 우리 소해함과 배수량이나 무장장비가 엇비슷했다.
《두척이 량쪽에서 동시에 달려들더군. 우린 오른쪽에서 덤벼드는 놈을 맞받아나가면서 먼저 주포를 쏴서 주도권을 쥐였지. 첫발을 사령탑에 명중시켜 짓뭉개놨거던. 놈들도 부랴부랴 포사격을 해대더군. 한창 싸움을 하는데 어뢰정들의 동음이 울려오자 놈들은 냅다 도망쳤소.
정대장! 그놈들을 추격해서 어뢰를 한발씩 안겨주게나!》
《알겠네!》
김군옥은 쾌히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자기를 바라보는 김도형정장과 의미있게 눈길을 맞추며 픽 웃었다.
《흥! 그깟놈의 소해함이나 때리기엔 어뢰가 너무 아깝지.》
김도형은 자부심에 넘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럼요. 대포로 참새를 잡는 격이지요.》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기요. 송사리들은 놀래워서 쫓아버리자구. 만약 고래나 상어가 나타나면 물론 잡아야지.》
어뢰정들은 다시 남쪽으로 배머리를 돌리고 파도를 헤가르며 씽씽 내달리기 시작했다.
배가 출출한감이 드는데 마침 채기정이가 작업모안에 삶은 닭알을 가득 담아가지고 사령탑에 올라왔다.

《자! 맛보십시오. 광주리채로 기관우에 올려놓았더니 따끈따끈합니다.》

《기관실에 있는 동무들에게 먼저 주었소?》

《예, 어서 드십시오.》

모두들 파도가 날아드는 사령탑에 선채로 삶은 닭알을 한알씩 발가먹었다. 소금대신 사령탑 앞턱에 흐르는 바다물을 찍어먹었다. 별맛이였다.

《자, 이것도 드십시오. 22호정장동무의 아주머니가 해온 남새빵입니다.》

채기정은 인심좋은 안주인처럼 해도실에 들락날락하며 먹을것을 계속 내왔다.

항해를 할 땐 부지런히 먹어야 한다. 멀미가 나면 아무것도 먹을수 없다. 바다에 나오면 식욕이 있다는것이 자랑으로 된다.

오이김치가 각별히 맛있었다. 김도형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기지장동지의 아주머니가 해산을 하면서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보내주었으니 정말 고맙구만. 기관장동무, 인사를 어떻게 한다?》

채기정은 능청스레 응대했다.

《정장동무도 그런 녀성을 안해로 삼으라구요.》

김도형은 능청스레 응대했다.

《그런 녀성은 동생인 준의동무인데…》

《왜? 맘에 들지 않아요?》

《그 처녀 벌써 임자가 있단 말이야.》

채기정은 모르쇠하고 누구냐고 물었다.

《누구긴 누구겠나, 정대장동지지.》

즐거운 웃음이 터졌다. 항해길에서는 이런 실없는 롱담도 육체적부담을 이겨내게 해주는 힘으로 된다.

《정장동문 봐둔 처녀가 없소?》

김군옥의 물음에 당사자는 없다고 하는데 채기정이가 있다고 우겨댔다.

《있지요. 봉임간호장이랍니다.》

아니라거니 그렇다거니 싱갱이를 하는데 박원협이 불쑥 소리쳤다.

《지휘소! 등대 발견.》
김도형은 이내 정색해서 저 멀리 해안가에 알릴듯말듯 바라보이는 등대를 해도와 대조해보았다.
《저건 주문진등대입니다.》
《그럼 1차상륙지점이 멀지 않았소.》
어뢰정들은 강릉앞바다를 지나 정동진해안가를 가까이 했다.
김군옥은 무전수에게 기함과 통신을 결속하라고 했다.
《기지장동지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할것. 1호지점 적정 없음.》
잠시후 답전이 날아왔다.
《알았다. 계속 남하하여 2호지점앞 해상과 해안의 안전상태를 확인할것.》
어뢰정들은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다.
1차상륙장소에 이른 수송선단은 해안가에 바투 들어갔다. 명령에 따라 가슴을 치는 바다물에 뛰여내린 한개 대대가 기슭으로 나갔다. 여기는 어제 해방한 지역이여서 조용했다. 기슭에 오른 륙전대원들은 소대단위로 대오를 짓고 소나무가 듬성듬성 서있는 백사장을 지나 언덕너머로 사라졌다.
빈 발동선들은 북으로 침로를 돌리고 다른 함선들은 어뢰정을 따라 계속 남하했다.
어뢰정들이 묵호항 앞바다를 지나가는데 박원협이 다급히 소리쳤다.
《지휘소! 적함 발견!》
김군옥은 대뜸 긴장해져서 갑판장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출렁이는 파도우에 황급히 도망치는 자그마한 발동선이 보였다. 갑판장이 넘겨주는 쌍안경으로 바라보니 돛대에 나붓기는 기발이 적들의것이였다.
《적발동선을 나포할것!》
정대장의 명령에 따라 두척의 어뢰정은 일정한 간격으로 벌려서서 속도를 올리며 적함을 추격하였다. 급해맞은 놈들이 제법 먼저 불질을 했다.
《위협사격을 할것!》
《알았다!》
박원협은 고사총으로 적함의 마스트에 대고 련발사격을 했다.

22호정에서도 위협사격을 했다.
놈들은 케가 글렀던지 인차 사격을 중지하고 마스트에 부랴부랴 흰기를 올렸다.
21호정은 적함의 꼬리를 바싹 물고 22호정은 적함의 앞을 가로막았다. 놈들은 기관실안에 처박혀서 감히 고개도 내밀지 못했다.
김군옥은 확성기로 소리쳤다.
《손들고 나오라! 불응하면 당장 배를 침몰시키겠다.》
박원협이 고사총으로 한점발 공포를 쏘았다.
그제서야 기관실로 내려가는 망홀이 덜컥 열리더니 장교 한놈과 기름이 얼룩진 정비복을 입은 사병 두놈이 갑판에 나와 번쩍 손을 들었다. 놈들은 저들을 겨누고있는 고사총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덜덜 떨었다. 꼬락서니가 구태여 한방 갈기지 않아도 저절로 쓰러질것 같았다. 김군옥은 쓰겁게 웃으며 소리쳤다.
《소속이 어디야?》
장교는 금시라도 불을 토할것만 같은 고사총구에서 눈을 떼지 못한채 얼어붙었는지 입도 열지 못했다.
《어서 대답해!》
그제서야 간신히 입을 뗐다.
《예, 울진항에 소속된 배입니다. 보시다싶이 전투함선이 아니라 수로안내선입니다.》
《여기엔 뭘하러 왔는가?》
장교는 고개를 굽석거리며 서둘러 대답했다.
《등대를 수리하려고 왔댔습니다. 미7함대소속 기동분함대가 북상하니 이쪽에 설치되여있는 등대들과 해안표식물들을 빨리 정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에…》
그러니 미7함대가 조선전쟁에 개입한다는건가?
김군옥은 대뜸 긴장해졌다.
《기동분함대의 구성은?》
《순양함과 구축함들로 편성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건 모릅니다.》
김군옥은 가슴이 후드득 뛰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천리혜안의 예지로 예견하신바 그대

로 전쟁이 터지자마자 미제침략자들의 대형합선집단이 조선동해에 밀려들고있었다. 그것은 어뢰정대의 타격대상이였다. 지금껏 노려오고 기다려온 적수를 드디어 만나 판가리격전을 벌릴수 있게 되였다.

별안간 가슴속에서 피가 설설 끓어번지는듯싶었다. 그는 애써 흥분을 누르며 해안경비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장교는 지금 증강된 한개 대대가 해안을 지키고있는데 방풍림을 따라 참호를 파고 중기화점들을 설치했다고, 척탄통과 화염방사기도 있다고 그 수자까지 일일이 들었다. 아마 심문에 적극적으로 응하면 행여나 목숨은 건질수 있을거라고 타산한 모양이였다.

김군옥은 채기정에게 포로한 놈들을 련락삭으로 묶어서 마스트에 매놓으라고 지시하고 정황을 무전으로 보고했다. 즉시 응답전문이 날아왔다.

《알았다. 엄호조는 현위치에서 해상감시를 하다가 적함이 나타나면 공격하라.》

이윽고 수송선단이 나타났다. 수송선단은 홍동철기지장의 지휘에 따라 남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경계선에서 그리 멀지 않은 림원진해안에 바싹 들어가 횡대대형을 지었다.

해안은 쥐죽은듯 고요했다. 사람의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았다. 겉보기엔 아무런 위험도 없는듯싶었다.

《교활한 놈들…》

랭소를 머금은 홍동철은 별안간 두눈을 흡뜨며 구령을 쳤다.

《목표, 해안가 방풍림! 발사준비!》

수송선단의 모든 함선들에 장비된 함상포들과 고사무력이 목표를 겨누었다.

《련발로 쏴!》

쿵! 쾅! 꽈르릉—

포성이 련이어 울리고 고사총들이 불을 토하며 울부짖었다. 고요하던 방풍림은 포탄과 총탄소나기를 맞고 칼탕을 친듯이 산산이 휘뿌려졌다. 참호에 매복하고 륙전대가 상륙하기만을 기다리던 적들은 맞불질을 할 엄두도 못내고 혼비백산하여 삼십륙계 줄행랑을 놓았다.

이때만을 기다리던 최민철련대장이 권총을 뽑아들고 선참으로 배에서 뛰여내렸다.
《상륙!》
련대장을 따라 륙전대원들은 련속 바다에 뛰여들었다. 물보라가 장쾌하게 일어번졌다. 바다물이 부글부글 끓는것만 같았다.
《만세!》
륙전대원들은 목청껏 웨치며 가슴을 치는 바다물을 헤치며 기슭으로 나갔다. 무사히 기슭에 오른 그들은 젖은 군복을 벗어서 짜입을새도 없이 적들을 추격하며 신바람이 나서 내달렸다.
《잘한다! 잘해!》
《히야! 저 친구들 사기가 났는걸!》
어뢰정대원들은 통쾌한 그 장면을 재미나게 바라보며 쾌재를 올렸다.
《리승만역도가 아침은 해주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고 희떠운 수작을 하며 전쟁의 불을 지르더니 저 꼴을 좀 보라지. 제 졸개놈들이 썩은 바자 넘어가듯 하는 저 꼬락서니를!》
《전쟁이란게 뭔가 했더니 이런것이였구만.》
《그러게나 말이지.》
어뢰정들이 지키고있어서인지 상륙작전이 다 끝날 때까지도 적함은 한척도 얼씬하지 못했다.
상륙작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수송선단은 유유히 북으로 배머리를 돌렸다. 나포한 괴뢰군함선을 끌고가려고 소해함이 어뢰정들이 있는쪽으로 다가왔다.
《정대장동지! 저걸 보십시오. 담당준의동지입니다.》
박원협이 반가와서 소리쳤다.
모두들 그가 가리키는쪽을 바라보았다. 소해함의 선수갑판에 어엿이 서있는 녀군관의 모습이 이채로왔다. 정인이였다. 처녀는 자기를 지켜보는 어뢰정대원들과 눈길이 마주치자 밝게 웃으며 손저어 반겨주었다. 파도를 헤가르며 달려오는 수송선과 선수갑판에서 군복자락과 중발머리를 해풍에 날리는 그 처녀가 서로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한폭의 그림같았다.

《정말 신바람이 나는데요. 마수걸이가 괜찮단 말입니다.》

잔뜩 사기가 나서 떠들어대는 갑판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수송선의 갑판에 우아하게 서있는 사랑하는 처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김군옥은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전쟁이란 이렇게 쉽게 이기는 랑만적인것인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으랴. 지금 인민군대의 질풍같은 반공격에 괴뢰군놈들은 썩은 바자 무너지듯 하고있다. 이처럼 물밀듯이 밀고나가면 한두달내에 통일은 문제없다. 괴뢰군놈들은 문자그대로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전쟁의 불을 지른 장본인은 세계제패를 노리는 미제침략자들이다.

세계《최강》을 뽐내는 그놈들과의 판가리싸움이 눈앞에 박두했다.

김군옥은 고개를 돌려 저 멀리 남쪽해상을 지그시 노려보았다.

순양함과 구축함들로 편성했다는 미7함대의 기동분함대가 검은 연기를 토하며 북상하는 모습이 보이는것만 같았다. 가슴은 치솟는 분노로 뒤설레고 피가 펄펄 끓어올라 도저히 견딜수가 없었다. 이제 당장 남쪽으로 침로를 돌리고 놈들을 맞받아 전속으로 내달리고 싶었다.

올테면 오라! 우리 어뢰정대는 네놈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서 자라난 인민해군의 본때를 보여줄것이다.

그는 이렇게 내심 부르짖으며 주먹을 꽉 틀어쥐였다.

18

일본의 공군기지들에 긴급대기상태에 있던 미군전투폭격기들은 전쟁이 일어난 첫날부터 조선전쟁에 출격했다. 적기들은 전선은 물론이고 공화국북반부의 후방 깊숙이까지 날아가 전면적이면서도 무차별적인 맹폭격을 들이댔다. 놈들은 이러한 공중타격을 수주일만 들이대

면 북조선을 지도우에서 없앨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적들의 공습에 대처하여 어뢰정들을 부두설비가 되여있지 않은 해안에 은페시키고 위장을 철저히 할데 대한 상급참모부의 지시가 하달되였다.

리학섭은 상륙작전에 동원되지 않은 23호정과 24호정의 해병들과 함께 도래굽이의 샘터앞에 통나무로 림시잔교를 세우고 어뢰정을 이동시킨 다음 위장을 했다. 식당근무병들은 군관가족들의 방조를 받으며 상륙작전에 참가하고 돌아올 동무들에게 푸짐하게 먹일 식사를 준비했다. 하기에 군항에 돌아온 해병들은 림시잔교에 어뢰정을 대고나서 곧장 식당에 가서 배불리 먹고 륙상병실에 가서 잠을 잘수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휴식을 할 때 리학섭은 다른 해병들과 함께 항해후 정비까지 말끔히 해주었다.

바다에 나갔다온 해병들은 너무 피곤해서 저마다 네활개를 벌리고 경쟁적으로 코를 고는데 병실은 항해중인 기관실처럼 소란했다.

그들은 이튿날 훤히 밝아서야 일어났다.

몸이 날아갈듯 거뜬해졌다. 모두 시원하게 세면을 하고 식당에 갔다. 륙상병실은 물론이고 식당도 나무가지를 꺾어다 위장했는데 마치 숲속의 동굴안으로 들어가는듯 한 기분이였다.

풀향기와 나무잎냄새, 송진냄새가 기분좋게 풍겼다. 식탁은 푸짐했다. 검진을 나온 김정인도 정대원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모두 식욕이 부쩍 동해서 맛있게 먹으며 상륙작전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한개 련대의 상륙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덤으로 적발동선까지 나포해왔으니 박원협의 말마따나 마수걸이가 괜찮은셈이였다.

김군옥은 그새 전선형편을 알고싶어 문화부정대장에게 물었다. 리학섭은 인민군련합부대가 어제 밤 9시에 의정부를 해방시켰다, 그 전투에서 포로한 적들만 해도 무려 800여명이나 된다고 구체적인 수자까지 들어가며 대답했다.

《어제 우리 비행대는 룡산과 수색, 영등포역과 적군용렬차들을 폭격하여 적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었습니다.》

모두들 환성을 올리는데 박원협은 짐짓 울상이 되였다.

《허, 그러고보면 우리가 륙군이나 공군보다 형편없이 뒤떨어졌구만요. 이제야 겨우 자그마한 발동선을 한척 나포했으니 말입니다.》

김도형이 그에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어제 포로한 장교놈이 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나? 바다싸움은 이제부터요.》

평소엔 말이 적은 리완근도 눈빛을 번쩍이며 흥분해서 떠들어댔다.

《하긴 속초앞바다에 적들의 소해함들이 나타난것도 심상치 않거던. 괴뢰해군은 지금 미7함대의 기동에 앞서 수로정리를 하고있소.》

리학섭은 신중한 기색으로 그 말을 긍정했다.

《옳소. 미국놈들은 벌써 조선전쟁에 뛰여들었소.

미국비행기들은 공화국북반부의 상공에 날아들어 평화적인 도시와 마을들을 대대적으로 폭격하기 시작했소. 아마 미지상군도 며칠내로 전선에 투입되게 될거요.》

떠들썩하던 식당안이 불시에 조용해졌다.

너나없이 미제침략자들이 본격적으로 무력간섭을 하면 전선형편이 어려워질수 있다는 우려에 잠겨들었다.

김군옥은 수저를 놓고 일어나 정대원들을 둘러보았다. 볼수록 미더운 전우들이다.

《동무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사태발전을 한해전에 예견하시고 함대출항식때 우리들에게 남조선괴뢰해군따위는 상대도 되지 않는다, 전쟁이 터지면 일본에 주둔한 미7함대가 조선동해로 덤벼들텐데 어뢰정대가 맞서싸울 상대는 미제침략군 대형함선집단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기지장동지가 해군사령부의 긴급호출을 받고 올라갔으니 인차 우리 정대에 전투명령이 내릴겁니다. 우리는 어뢰정대의 출동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미7함대의 기동분함대를 타격소멸하기 위한 훈련을 더 힘있게 벌립시다.》

모두들 힘차게 호응했다.

《알았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30분후에 도보항해훈련을 시작하겠소. 모두 전투

장구류를 착용하고 모래불에 정렬하시오.》
김군옥이 식당을 나서는데 문화부정대장이 슬며시 따라와 보기에도 먹음직스런 참미역이 묵직하게 담긴 그물망태를 손에 들려주었다.
《정대장동무, 이건 동무들이 산모를 위해 마련한것인데 얼른 가져다주고 오시우.》
김군옥은 그제서야 전쟁이 터진 날에 태여난 기지장의 아들이 생각났다. 리학섭이 재촉했다.
《어서요. 미래의 어뢰정대원이 태여났는데 정대장동무가 정대를 대표하여 가서 축하해줘야지요.》
《예, 그럼 갔다오겠습니다.》
미역망태를 받아쥔 김군옥은 잠시 망설이였다.
미역은 산모를 위한것이다. 아기에게는 딸랭이와 오또기 같은 장난감을 선물해야 할텐데… 그 애가 사랑하는 처녀의 조카애니 더우기나 빈손으로 갈수 없었다.
어쩐다? 두루 생각하던 그는 자기 방에 가서 수상보안간부학교시절부터 애용하던 함선호각을 꺼냈다.
묘한 곡선을 이룬 동관과 그끝에 매달린 소리방울, 손잡이와 은사슬로 이루어진 함선호각은 해병들의 친근한 벗이다. 은방울을 굴리는듯한 함선호각소리는 그 어떤 소음과 격벽도 뚫고 함선의 어느 초소에도 울려간다. 함선승무원들은 그 소리에 맞추어 일과생활을 해나간다. 그러고보면 미래의 해병에게 줄 멋진 선물이 아닐수 없다.
그는 취사장에서 식당근무병들을 도와 그릇을 가시고있는 김정인을 불러냈다.
《이걸 받소.》
김정인은 참미역이 가득 들어있는 그물망태를 얼결에 받아쥐고 어리둥절해서 김군옥을 바라보았다.
《동무네 언니네 집으로 어서 가기요.》
《그건 어째서요?》
《갓난애기가 보고싶구만.》
《예?!》

김정인은 놀랐다.

그는 어제 소해함을 타고 상륙작전에 참가하고 돌아오다나니 언니가 그제 밤에 아이를 낳았으며 해산방조를 자기가 해주었다는걸 감감 잊어버렸다. 자기보다 더 바쁜 정대장이 그걸 잊지 않고있은것이 자못 놀라왔다.

《그 애야 미래의 어뢰정대원이 아니요. 시간이 없소, 빨리 갔다오기요.》

김군옥은 그리 멀지 않은 사택마을을 향하여 먼저 냅다 달렸다. 정인은 느닷없이 마음이 즐거워져서 뒤따라 달려가며 소리쳤다.

《정대장동무! 함께 가자요!》

김군옥은 뒤돌아보면서 싱긋 웃었을뿐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김정인은 이를 악물고 기를 쓰고 내달려 그를 기어이 따라앞섰다. 언니네 집앞에 먼저 이른 그는 그제서야 멉춰서서 뒤따라 달려오는 김군옥을 으쓱해서 돌아보았다.

《정대장동무가 모든 체육종목에서 정대선수권보유자라고 하더니 짱포였군요.》

《그건 무슨 소리요?》

《방금 달리기에서 나에게 졌으니까요.》

승벽이 여간이 아닌 김정인은 무척 통쾌해했다. 김군옥은 우정 지는척 해주었지만 기꺼이 그것을 인정하였다.

《옳소. 난 동무에게만은 못 견디겠소.》

《청진기지에서 해상실습을 할 때도 나와 수영경기를 해서 졌댔지요.》

즐거운 추억을 불러주는 소리였다.

그때 김정인은 해군군관학교 학생들과 함께 어뢰정을 타고 항해훈련도 하고 3마일극복수영훈련에도 참가하군 했었다. 시오리나 되는 먼거리를 헤염쳐야 하는 이 훈련은 몹시 힘겹고 위험했다.

그래서 정인이만은 이 훈련에 참가시키지 않기로 했는데 그만 소동이 일어났다. 정인이가 모욕이나 당한듯이 발끈해서 도전했던 것이다.

《군옥동무도 나를 녀자라고 깔보는군요. 어디 나와 100메터자유영경기를 해보자요. 만약 내가 지면 3마일극복수영훈련에 참가

할 자격이 없는것으로 인정하고 물러서겠어요. 그대신 군옥동무가 지면 바지를 벗어놓고 치마를 입으라요.》

이리하여 숱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영경기가 진행되였다. 정인은 물에 뛰여드는 동작부터 자신만만하고 맵시가 있었다. 물론 속도에서 김군옥을 당할수는 없었다. 김군옥은 속도를 약간 늦추어 우정 져주었던것이다.

《난 동무에게만은 그때부터 손을 들었소. 그래도 여전히 정대선수권보유자지.》

《어떻게 그럴수 있어요?》

《동문 어뢰정대원이 아니니까.》

《어뢰정대 담당준의예요.》

《어쨌든 정식 우리 성원이 아니란 말이요.》

김정인은 정색해졌다.

《그러니까 전투항해를 할 때 나를 참가시키지 않겠다는건가요?》

김군옥은 저으기 난처해서 타협조로 나왔다.

《글쎄… 그건 그때 가서 보기요.》

《나를 빼놓을 생각은 아예 마세요.》

《알겠소. 어서 들어가기요.》

그제서야 김정인은 싱긋 웃으며 언니네 집의 뜨락에 들어갔다.

터밭에 오이넝쿨이 무성했다. 푸르싱싱한 잎사귀들사이로 한뼘이나 되게 자란 오이들이 먹음직스레 달려있었다. 뜨락에서는 통통 살이 진 씨암닭 세마리가 팥알같은 눈을 되록거리며 땅을 헤집고있는데 사뭇 평화로운 광경이였다. 해산하는 날 하마트면 목을 비틀리울번 한 닭들이다.

아늑한 방안에서는 미역국냄새와 젖냄새가 달콤하게 풍겼다. 아기에게 젖을 먹이던 김정녀는 불쑥 문을 열고 들어서는 동생과 어뢰정대장을 보고 반가와하면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정대장아저씨가 어떻게 우리 집엘 다 오셨나요?》

《안녕하십니까?》

김군옥은 깍듯이 거수경례를 했다.

정녀는 서둘러 아기를 포단에 눕혀놓고 방석을 내놓았다.

《여기 편히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김군옥은 방석을 밀어놓고 입술을 오물거리며 두눈을 깜박거리는 아기곁에 바싹 다가앉아 흥미진진하게 들여다보았다.

김정인은 미역망태를 내밀었다.

《언니, 참미역이예요.》

정녀는 가볍게 혀를 찼다.

《원, 별걸 다 수고스레 들고오는구나. 아무렴 우리 집에 미역이 없겠니.》

《이건 우리 어뢰정대원들이 언니가 생남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다물에 들어가 건져낸거란 말이예요.》

《원, 그런 수고를 다 하다니…》

김군옥이 탄성을 올렸다.

《히야! 이 애의 눈동자가 꼭 바다처럼 푸르고 맑군요. 이거 눈만 보아도 정말 해병감입니다.》

김정녀는 내심 흐뭇해서 빙그레 웃으며 넌지시 물었다.

《총각들도 갓난애가 보고싶은가요?》

김군옥은 방금 미역망태를 부엌에 내려다놓고 방에 올라오는 김정인을 슬쩍 돌아보고나서 엉큼한 기색을 지으며 흔연히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럼요. 이렇게 건강하고 잘생긴 아기를 구경해야 나도 장가를 들면 색시가 이런 아기를 낳게 할게 아닙니까.》

이통에 급해서 얼굴이 빨개진건 김정인이다.

김군옥은 그를 바라보며 한술 더 떴다.

《준의동무, 그렇지 않소?》

김정인은 불판에라도 올라선듯 닁큼 뛰였다.

《어마나! 무슨 말을 하는거예요?》

김군옥은 바빠하는 처녀를 못본체 하고 아기를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며 싱글벙글 웃었다. 김정녀는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가 이따금씩 어뢰정대식당에 나갈 때마다 본 정대장은 아주 단정하고 말쑥하게 생긴 미남자지만 눈빛이 엄해서 감히 말을 붙여보기조차 어려웠다. 엄격성으로만 빚어놓은 조각상과 같다고 해야 할지… 그런데 이제 보니 우스개소리도 잘하고 능청스러운 아주 서글서글한 총

각이였다.
김군옥은 아기를 바라보는데 온 정신이 팔렸다.
아기의 눈동자는 이슬을 머금은 머루알같았다.
정녕 맑고맑았다. 티 한점 없었다. 보면 볼수록 자기의 마음도 맑아지고 깨끗해지는듯싶었다.
문득 불우한 시절에 망국노의 멍에를 쓰고 태여난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자 눈굽이 쩌르르해졌다. 죽지 못해 살아가던 그 세월 태풍은 왜 그리도 세차고 파도는 왜 그리도 기승을 부렸던지…

어야 디야 어야 디야
퍼먹는건 사자밥이요
누우면 칠성판이라
닻 올려라 돛 달아라
어야 디야 어야 디야

굶주린 맹수마냥 입을 쩍쩍 벌리며 달려드는 횡포무도한 날바다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배군들이 기막힌 신세를 한탄하며 처량하게 부르던 배따라기가 어린 자기의 귀에 못처럼 박힌 첫 노래였다. 그렇게 떠나갔다가 돌아온이 몇이던가? 고기배들이 풍파에 산산쪼각이 나서 파도에 밀려오면 어촌엔 통곡소리가 터져올랐다. 어쩌다 신수가 좋아서 물고기를 좀 잡아와도 왜놈선주의 아가리에 다 처넣어주고나면 쩝쩔한 소금물이 배인 제 손가락이나 빠는수밖에 없었다.
이게 타고난 신세요 피할수 없는 숙명이였다.
정녕 그 나날엔 앞이 내다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모지름을 쓰고 발버둥을 쳐도 자기도 배를 부리다가 구사일생으로 병신이 된 아버지의 신세를 면할수가 없었다. 피눈물을 뿌리며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으로 찾아갈 때 어찌도 서럽던지 압록강을 건느느니 차라리 강물에 빠져 죽어버리고싶었다.
그런데 아기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된 좋은 세상에서 태여났으니 행운아요 복둥이였다. 아니, 공교롭게도 전쟁이 터진 날에 태여났으니 무작정 행복을 기약하기 어려웠다. 이 땅을 휩쓸고있는 전화의 불

길이 천진란만하고 앞길이 구만리같은 아기의 운명을 시시각각으로 위협하고있었다. 아기의 요람에 이제 당장 폭탄이 떨어지고 함포탄이 날아들지 모를 아슬아슬한 판이였다.

아니! 아니다! 그래서는 안되며 그럴수 없다.

김군옥은 마음속으로 세차게 도리머리를 저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정의의 성전에 과감히 떨쳐나선 우리가 있기에 아기의 요람엔 단 한발의 총탄도 날아들지 못할것이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니켈도금을 한 사슬이 달린 함선호각을 꺼내여 입에 물었다.

휫! 또르르—

호이요 호이요 호이요—

호이— 또또또 호이—

휫! 또르르— 또또…

오른손에 감싸쥔 소리방울의 구멍을 손가락으로 재치있게 열거나 닫을 때마다 새들이 우짖는듯 한 명랑하고 우아한 음향이 흘러나와 방안에 가득차군 했다.

김군옥은 신기한듯 바라보는 아기엄마에게 함선호각을 주었다.

《난 이걸 아기의 놀이감으로 가지고왔습니다. 이 앤 장차 어뢰정대원이 돼야지요.》

《고마워요.》

《이름은 뭐라고 지었습니까?》

김정녀는 아기를 낳은 다음날 새벽에 불쑥 나타났다가 인차 사라진 남편이 생각나서 시무룩이 웃었다.

《아직 짓지 못했어요. 참, 아저씨가 지어주세요.》

《내가요?》

어떤 일에서나 주저를 모르는 그였지만 이런 부탁은 쉽게 받아들일수가 없었다.

《글쎄… 어디 생각해봅시다.》

정인이 자매는 기대어린 눈길로 정대장을 지켜보았다. 김군옥은 두눈을 지그시 감고 머리를 쥐여짰지만 정작 신통한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애가 났다.

아기의 이름엔 부모들의 소원이 담겨져야 한다.

가문의 전례인 항자돌림도 고려해야 한다. 이름이자 그 사람이다. 그러니 잘 지어야 할텐데…

김군옥은 자기의 이름을 신통치 않게 여기고있었다. 《옥》자가 있으니 사내이름답지 않기때문이였다. 언젠가 아버지에게 하필이면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느냐고 물었더니 너는 《군》자 돌림인데 군철이요, 군석이요, 군성이요 하고 좋은 이름은 먼저 난 아이들이 가지다나니 어쩔수없이 그렇게 지었다고 대답하는것이였다.

종시 신통한 이름을 생각해내지 못한 그는 주섬주섬 일어났다.

《아주머니, 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 량해해주십시오.》

김군옥은 서둘러 밖으로 나가다가 뒤따라나오는 김정인에게 짜증이 어린투로 말했다.

《동문 천천히 오라구, 시끄럽게 졸졸 따라다니지 말고…》

김정인은 어이가 없었다.

《어마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김군옥은 구두를 신고 마당에 성큼 뛰여내리더니 정겨운 눈길로 돌아보며 간곡히 당부했다.

《동문 아기와 산모를 잘 돌봐주고 천천히 오란 말이요.》

《난 어제 상륙작전에 참가하고 돌아온 동무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해야 해요.》

《우린 다 건강하오. 검진이나새나…》

《뭐라구요?! 다시 말해봐요.》

정인은 주먹을 들고 뒤쫓아나가고 젊은 정대장은 도망치듯 냅다 달려갔다.

그들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정녀는 소리없이 웃었다.

이럴 때 보면 정대장과 동생이 철부지애들 같았다. 그럴만도 했다. 이제 겨우 스물두살에 난 젊은이들이다. 너무도 젊었다.

어뢰정대를 제외한 다른 정대와 함선들은 전투임무를 받고 련이어 출항하였다. 어뢰정들만이 위장그물을 뒤쓴채 도래굽이의 가설잔교에 여전히 붙어있었다. 정대원들은 모래불에서 땀을 철철 흘리며 도보항해훈련을 했다.

오늘은 풍산개조법을 숙련하는데 모를 박았다.
기정의 뒤를 따라 어뢰정들은 종대로 항해한다.
목표를 발견해도 못 본척 하고 그냥 기만기동을 하다가 급작스레 회두하여 쐐기대형을 짓고 공격한다. 먼저 어뢰를 발사한 어뢰정은 적함들사이를 빠져나가면서 유인기동을 한다.
《유인기동!》
김도형이 재빨리 앞으로 쑥 나가자 승조원들도 급히 뒤따랐다.
《21호는 연막을 칠것! 24호는 우측에 있는 적구축함을 공격할것!》
24호정장 양판익의 뒤를 따라 승무원들이 재빨리 움직인다. 그들속엔 문화부정대장과 비편제위생지도원인 오익섭도 있다.
《24호정장 부상!》
오익섭은 재빨리 선두에 선 정장에게로 달려가 응급처치를 한다. 리학섭이 정장의 위치에 들어섰다. 능숙하게 어뢰정을 조종한다.
《돌격침로로!》
문화부정대장의 뒤를 따라 24호승무원들이 내달린다.
《발사준비!》
《준비끝!》
《발사!》
반복 또 반복…
이젠 숙련될대로 숙련돼서 모두들 구령에 따라 치차처럼 착착 맞물려 돌아간다.
리학섭은 휴식시간이면 건국실에서 라지오로 들은 최고사령부의 보도를 그시그시 정대원들에게 알려주군 했다.
인민군련합부대들의 서울해방소식에 접한 정대원들은 너무 기뻐 만세를 소리높이 불렀다. 전승소식은 련이어 날아들었다.
《동무들! 동해안을 따라 남진하는 부대들은 해상륙전대와 협동작전으로 괴뢰군 8보병사단을 족치고 강릉을 해방시켰습니다.》
그 해상륙전대는 엊그제 어뢰정들이 호위한 수송선단이 상륙시킨 부대였다.
《서해에서는 오늘 새벽에 백령도를 완전히 해방한데 이어 대청도와 소청도도 타고앉았습니다.》

연해연방 날아오는 전승소식은 정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을뿐만아니라 초조하게도 해주었다.

《하! 이러다가 우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어뢰 한발 쏴보지 못하는게 아닌가.》

《그러게나 말일세. 이거 정말 속이 타는구만.》

모두 속이 달아서 읔읔했다.

이럴 때면 김정인이 방금 길어온 샘물을 권하군 했다.

《자, 어서 마시고 땀을 들이세요.》

몸이 좋아서 남들보다 더 땀을 흘리는 채기정은 물고뿌를 먼저 받아쥐고도 선뜻 마시지 못했다.

《이거 준의동무 볼 낯이 없구만요.》

《왜요?》

《우리야 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전쟁이 터졌는데 배놈들이란게 땅에서 밥이나 조겨대고 건강검진이나 받고있으니 말입니다.》

김정인은 상냥하게 웃었다.

《때가 오겠지요. 꼭 올거예요.》

곁에 있던 박원협이 놀란듯이 소리쳤다.

《저걸 보게! 소포정대도 출항하는구만.》

모두들 부두쪽을 바라보았다.

싸이렌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데 항해복을 입고 전투장구류를 착용한 정대원들이 갑판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뛴다. 함상포가 포신을 좌우로 휘둘러댄다. 쿵쾅! 쿵쾅! 기관이 신나게 돌아간다.

기지장이 해군사령부에 올라가고 없기에 한백천이 부두에 나와 항해준비상태를 검열하고있었다.

고준무정대장은 아주 으쓱한 자세로 기정의 사령탑에서 두손을 허리에 얹고 어뢰정대쪽을 바라보고있었다.

어느 함선이든 출항할 때면 군항에 있는 모든 함선들은 안전항해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진 기발을 올려 배웅해주어야 한다. 박원협은 부랴부랴 어뢰정에 올라가 위장포를 좀 벗겨놓고 안전항해를 바라는 기발을 올렸다. 김군옥은 싸움터로 떠나는 친구를 직접 배웅해주고싶어서둘러 부두로 갔다.

고준무는 그를 보고 사령탑에서 내려 부두로 나왔다. 김군옥은 그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자네가 부럽구만. 무슨 임무를 받았나?》

고준무는 대수롭지 않은듯이 대답했다.

《별게 아닐세. 우리가 상륙시킨 해상륙전대에 포탄과 총탄을 날라주는거지.》

《조심하게. 강릉앞바다에 미7함대 기동분함대가 나타날수 있네.》

《알겠네.》

고준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별안간 두눈을 부릅뜨며 도전적으로 걸고들듯이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해상체육경기는 언제 한다? 승부를 겨뤄야 할게 아닌가.》

《그야 뭐 전쟁이 끝난 후에 해야지.》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린다고 그래. 우리가 포탄수송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면 한번 붙어보자구. 수구경기만이라도 해보잔 말이야.》

고준무의 금이발이 이악스레 반짝거렸다.

김군옥은 도전에 기꺼이 응했다.

《좋아! 그렇게 하세!》

《자네 지면 어쩌겠나?》

《패자야 승자의 그 어떤 요구에도 응해야지.》

고준무는 아주 정색해서 요구조건을 제기했다.

《자네 경기에서 지면 어뢰정대를 내놓게. 대신 소포정대를 넘겨주지.》

보아하니 고준무는 어뢰정대원들의 항해훈련을 위해 소포정대를 빌려주지 않으면 안되였던 그때의 고까움이 아직 속에 맺혀있는 모양이였다.

《좋도록 하자구.》

고준무의 금이발이 다시금 번쩍거렸다.

《그럼 약속했네. 가만…》

고준무는 증인을 찾는지 두리번거리더니 마침 항해준비검열을 마치

고 부두에 내려서는 작전과장에게 성수가 나서 소리쳤다.

《과장동지! 우린 포탄수송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와 어뢰정대와 수구경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군옥정대장이 자기네가 지면 어뢰정대를 나에게 주겠답니다.》

한백천은 흠! 하고 코소리를 내더니 마뜩지 않아하는투로 물었다.

《동무네가 지는 경우엔 어쩌겠소?》

고준무는 꿈쩍 놀라는 시늉을 했다.

《아니, 우리가 지다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야 체육경기만이 아니라 훈련에서도 동무네가 어뢰정대한테 계속 앞자리를 떼우지 않았소.》

작전과장이 야박스레 사실을 빠개놓자 고준무는 생억지를 썼다.

《글쎄 지금까지는 어쩔수없이 그랬지요, 기지나 해군사령부에서도 어뢰정대편만 들어주니까요. 이제부터는 절대로 그럴수 없단 말입니다. 모든 일에서 공정한 과장동지가 심판을 서주십시오. 그러면 문제없습니다.》

한백천은 전쟁판에 왕청같이 체육경기소리를 하는 고준무가 못마땅했지만 전투임무수행에 착수하는 지휘관의 사기를 떨구어서는 안되겠기에 웃는 낯으로 고개를 끄덕이였다.

《좋소, 그렇게 하기요. 시간이 됐소. 빨리 출항하시오.》

고준무는 차렷자세로 정중히 거수경례를 하고 승선했다.

세척의 소포정들은 출항하였다.

두 군관은 소포정들이 설레이는 푸른 물결우에 자그마한 점으로 사라질 때까지 오래도록 지켜서서 바래주었다.

김군옥은 더우기나 속이 상해서 한숨을 소리나게 내쉬고나서 초조하게 물었다.

《과장동지, 아직 소식이 없습니까?》

이것은 해군사령부의 긴급호출을 받고 올라간 기지장을 념두에 둔 질문이였다. 한백천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19

기동분함대는 현해탄을 건너 깊은 밤 부산항에 들어갔다. 불빛가림을 해서인지 캄캄했다. 먹물을 풀어놓은듯 짙은 어둠속에서 도깨비불같은것이 번쩍거리고 군용화물차들의 발동소리와 구두발소리, 쇠붙이가 부딪치는 소리, 악을 쓰며 고아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혼잡을 이루었다.

목적지에 기항하면 함에서 내려 새로운 고장의 풍치를 구경하고 그곳 특산물도 맛보며 피로를 풀고싶은게 배군들의 일반적인 심리다.

하지만 불안과 공포에 싸여 전전긍긍하고있는 부산항의 음산하고 어수선한 분위기는 그런 욕망을 불러일으키기는 고사하고 경계심만 잔뜩 자아냈다. 이제 당장이라도 공습이 진행되거나 공산군습격조가 항구로 뚫고들어와 총질을 하거나 수류탄을 던질것만 같아서 도무지 마음을 놓을수 없었다.

잭슨함장은 고사포들을 전투대기근무에 진입시키고 부두보초를 배로 증강한 다음 부함장에게 항만관리측과 련계를 가지고 음료수와 식료품, 연유를 보충할것을 명령했다.

기동분함대의 총인원수는 무려 4천여명에 달한다. 우선 물소비량이 대단했다. 이틀동안에 소비한 물량은 15톤이 넘었다. 항해용식품은 주로 통졸임인데 그것도 매일 만개이상씩 소비했다. 승무원들이 매일 담배를 한갑씩만 피워도 4천여갑이고 술을 한병씩만 마셔도 4천여병에 달한다.

마침 부산항의 창고들마다에는 전쟁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본토와 일본에서 끌어들인 군수물자가 그득그득 쌓여있었다. 그것이 벼락맞은 소고기는 아니였다. 전쟁이 터진 그날 저녁에 항만관리는 미군측에 넘어갔는데 보급장교가 기동분함대의 요구에 불응했다.

부두에서는 한바탕 옥신각신이 벌어졌다.

잭슨은 성이 독같이 나서 해군을 우습게 아는 그 보급장교나부랭이

를 잡아가두고서라도 당장 창고문을 열고 후방물자를 보충하라고 소래기를 질렀다.

바다에 나가기 전에는 함에 물 한고뿌나 통졸임 한통이라도 더 실어야 한다.

한바탕 욕설을 처먹은 부함장이 보급장교에게 밸풀이를 하려고 푸르딩딩해서 나가려는데 통신장교가 뛰여들어 잭슨에게 무전문을 내밀었다. 그것은 전선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있는 미극동군사령부 전진지휘소에서 보내여온것이였다.

7함대기동분함대 기함 《볼티모》호 함장앞

기동분함대는 트루맨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 시각부터 본지휘소의 지휘에 따를것이다.

오늘 11시 30분 인민군은 한국의 수도 서울과 동해안의 군사요충지인 강릉을 점령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기동분함대는 강릉—삼척계선으로 시급히 북상하여 동해안을 따라 남침하는 인민군부대들을 함포사격으로 저지시키고 륙상 및 해상보급로를 차단할것.

지휘소 소장 준장 존 처치.

잭슨은 무전문을 웨리크에게 넘겨주었다.

《이것 보오, 당신이 예견한대로요.》

웨리크는 자기가 예견한대로 작전이 진행되고있지만 내심 불쾌했다. 태평양전쟁때도 그러했듯이 미해군의 지휘권이 자동적으로 미극동군사령부에 넘어갔기때문이였다. 그는 잔뜩 볼이 부어서 투덜거렸다.

《흠, 우린 이번에도 맥아더장군의 수하에서 둘러리노릇이나 하게 됐군요.》

《어쩔수 없는 일이지. 아마 그래서 니미쯔각하는 해군작전부장직을 다시 맡아달라는 대통령의 청을 거절했을거네.》

잭슨은 웨리크에게서 다시 넘겨받은 무전문을 부함장에게 주었다.

《부함장, 그까짓 창고지기놈들과 옥신각신할것 없이 이걸 가져다

보여주게. 그러면 만사오케이요.》

《예, 이젠 됐습니다.》

부함장은 낯색이 좀 풀려서 무전문을 받아쥐고 달려나갔다.

무전문이 은을 내서 드디여 창고문이 열렸다.

아귀다툼이 벌어지던 곳에서 휙! 휘익 휘파람소리가 나더니 식료품을 실은 운반차들이 굴러나왔다.

웨리크는 잭슨과 함께 경순양함 함장과 원양구축함 함장을 불러다 놓고 강릉—삼척계선에서 진행할 작전에 대하여 토의했다. 내친김에 예비해도작업까지 하고나니 시간이 퍼그나 흘러갔다.

그들은 통졸임을 서너개 까놓고 람술을 뒤잔씩 마신 다음 쌘드위치로 간단히 식사를 하고 헤여졌다.

웨리크는 함장실에 들어가 군복을 입은채로 침대에 드러누웠다. 전신이 녹작지근했다. 편히 누워서 물자보충이 끝나기를 기다리자던 노릇이 그만 깜박 잠들어버렸다. 그는 꿈을 꾸었다.

《볼티모》호를 앞세운 기동분함대가 38도선을 넘어 북상하여 원산만으로 들어가고있었다. 그들은 갈매기반도앞에서 항구에 대고 함상포 일제사격을 들이댔다. 북조선해군의 불과 몇척밖에 안되는 어뢰정들과 소포정이나 소해정따위의 작은 함정들이 포탄세례를 받고 산산쪼각이 나서 가랑잎처럼 날아간다. 적은 맞불질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런데 부두에 계류해있는 덩치가 큰 배 한척은 아무리 함포사격을 해도 끄떡이 없었다.

웬일인가 해서 가까이 가보니 식탁을 주런이 내다놓은 상갑판에 신사숙녀들이 앉아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정신이 팔려있었다.

자세히 여겨보니 노예선 비슷하게 생긴 그 배는 외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선박려관이였다.

그러니 벌써 원산항은 미국의것이 된게 분명했다. 아니, 여기는 원산항이 아니라 볼티모항인것 같았다. 그럼 우리가 자기의 항구에 대고 함포사격을 했단 말인가?

《대좌! 어서 일어나게, 어서!》

잭슨함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웨리크는 찌뿌둥해서 상반신을 일으켰다.

《왜 그럽니까?》
《이것 보게. 맥아더각하가 우리더러 빨리 작전수역에 진출하라고 독촉하누만.》
웨리크는 그제야 알쏭달쏭한 괴이쩍은 꿈에서 말짱 깨여났다.
잭슨이 보여주는 무전문에는 맥아더의 이름이 찍혀있었다.
《맥아더각하는 수원에 있는 전진지휘소에 방금 날아들었다누만. 각하의 긴급명령을 받고 5공군은 즉시 출격했다오. 우리도 서둘러야겠소.》
웨리크는 터져나오는 하품을 손으로 막으며 물자보충이 끝났는가고 물었다.
《채 끝나지 못했지만 출항하기요.》
지휘소에 나간 잭슨은 무선통화기를 들고 경순양함과 원양구축함 함장을 호출하여 빨리 출항할것을 명령했다. 잠시후 당장 출항하기 곤난하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물자적재도중에 수십명의 승무원들이 없어졌다고 했다. 그래서 급히 인원점검을 해보니 《볼티모》호 승무원들도 열댓명이 없었다.
은밀히 출항하려고 했었는데 하는수없이 배고동을 울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뚜!—
아앙!—
세척의 함선들이 큰소리로 울어대니 가뜩이나 어수선하고 음산하던 군항의 분위기는 더 스산해져서 몸서리가 쳐질 지경이였다. 그제서야 헐레벌떡 달려와 배다리를 쿵쿵 구르며 갑판에 올라오는 작자들의 발걸음소리가 어지럽게 울렸다. 웨리크는 배다리곁으로 다가갔다. 거기서 초조히 지켜서있던 부함장은 무단외출자들을 1렬횡대로 세워놓고 잡아먹을듯이 으르렁거렸다.
《망할 자식들! 어디에 가 엎드려있다가 이제야 나타나는거야, 엉?》
무단외출자들은 구구히 변명을 했다.
《우린 후방물자를 실댔습니다.》
《우린 그저 산보를 하댔는데…》
부함장은 회중전지를 켜고 무단외출자들의 뻔뻔스러운 낯짝을 하나

하나 비쳐보았다. 어느 놈에게서나 술냄새와 불고기냄새 그리고 분냄새와 향수냄새가 혼탕되여 역하게 풍겼다. 어떤 작자의 입술엔 방금전까지 누리던 향락의 증거인듯 연지가 묻어있었다.

《자식들! 카페와 유곽에 갔댔구나. 전시라는걸 잊었어?》

규률위반자들이 찍소리도 못할줄 알았는데 웬걸 제놈들이 한짓이 빵짱이 나자 젠장 될대로 되라는 식인지 뻔뻔스럽게 나왔다.

《이거 한잔 마시고 오는데 뭐 그다지나 그러십니까?》

《입항을 했으니 항해피로를 풀어야지요.》

부함장은 규률위반자들을 혼쭐이 쑥 나오게 달구어칠 대신 침먹은 지네처럼 이내 누그러져서 호기심이 어린 목소리로 넌지시 물었다.

《그래 한국의 카페가 어때?》

《일본이나 어슷비슷합니다. 부산인지 사세보인지 분간을 못하겠더군요.》

《여기 술맛은?》

《그것두 마찬가지지요. 전탕 일본제와 미국제 술이니까요.》

부함장은 그냥 꼬치꼬치 캐묻는다.

《써비스는 어때?》

《그것두 그렇지요. 접대부들은 차리고 나선걸 봐도 그래, 아양을 떠는걸 봐도 일본계집인지 조선계집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곁에서 말참견을 했다.

《그런대로 재미를 보려는참인데 재수없게 배고동이 울리더군요.》

《입항한지 기껏 서너시간밖에 안됐는데 왜 벌써 출항한다는겁니까? 거 꽤나 들볶아대는구만요.》

녀석들은 어둠속이라 웨리크가 곁에서 지켜보는줄도 모르고 지껄이며 로골적으로 불평을 부렸다.

망할놈들, 전쟁이 터졌는데 싸움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기신기신 술집계집들이나 찾아다니고있어? 그걸 부러워하는 부함장이란 놈도 한심하지.

그들속에 볼티모내기인 장탄수 토니가 없는게 다행이였다.

웨리크는 이 뻔뻔스러운 녀석들을 발길질로 바다물에 차넣거나 비

류지가 질벅한 배밀창에 가두어넣고싶은걸 겨우 참았다.

올 놈이 다 왔는지 부함장은 당직장교에게 배다리를 올리라고 지시했다. 뒤이어 주기관이 시동됐다. 《볼티모》호는 수로안내선을 뒤따라 먼저 항만을 벗어났다. 한참후에야 경순양함과 원양구축함이 허겁지겁 따라왔다. 기동분함대는 북으로 배머리를 돌렸다.

웨리크는 갑판에 있는 포초소들의 전투준비상태를 돌아보고나서 기본지휘소에 올라갔다.

잭슨은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사치한 례복차림을 하고 조타기옆에 서서 앞창을 내다보며 태연히 파이프를 빨고있었다. 애연가인 그는 바다에 나가면 담배를 곱절이나 피웠다. 담배를 피우지 않을 때에도 손에 쥔 파이프를 노상 장난감처럼 주무르거나 빈 파이프를 빨기도 했다.

구태의연한 그 모습이 오늘따라 웨리크의 눈에 거슬렸다.

《함장님, 규률이 없군요. 무단외출을 했던 사병들을 어떻게 처벌하려고 합니까?》

잭슨은 대뜸 얼굴을 찡그리더니 입에서 파이프를 뽑고 마지못해 대꾸했다.

《대좌, 뭐 그럴 필요가 있겠소. 태평양전쟁이 끝난지도 다섯해가 지났소. 그새 점령군의 자격으로 모두들 잘 놀았지. 오랜 기간 몸에 배인 방탕이 하루 아침에 가셔질리야 만무하잖소. 거기에 지내 신경을 쓰지 마오.》

그러고보니 바다우에 뻐젓이 떠오른 잠수함의 사령탑에서 항복한 섬나라를 궁지높이 바라보며 도꾜만에 들어가던 그 못잊을 가을날이 어제런듯싶은데 5년이란 세월이 어느새 지나가버렸다. 이제와서 새삼스레 생각해보니 승무원들 다수는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에 입대한 햇내기들이였다. 술이나 처마시고 계집질이나 하던 이것들이 죽고살고하는 전쟁판에서 꽤 제구실을 할수 있을가? 그것도 날바다우에서…

《함장님, 이제라도 사병들을 바싹 조이고 각이한 정황속에서의 전투훈련을 부단히 진행합시다.》

잭슨은 웨리크가 승선지도를 한답시고 함의 규률문제와 훈련에까지 간참하면서 이래라저래라 훈시를 주는게 정녕 못마땅했다. 조타수

와 항해장이 곁에 있으니 더우기나 자존심이 상했다.

《대좌, 걱정하지 마오. 그들이 설사 제구실을 못해도 이 함장만 제구실을 하면 되는거요.》

《그래도 작전수역에 도착할 때까지 훈련을…》

잭슨은 신경질을 부렸다.

《공연히 시끄럽게 그럴게 없소. 대좌, 정 할 일이 없으면 가서 잠이나 자오. 작전수역에 들어서면 깨워주지.》

웨리크는 당장 전투경보를 울리고 자기가 직접 훈련을 주고싶었지만 함장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만 물러났다.

함장실에 간 그는 몇해째나 벼르고 별러오던 거사를 앞두고 안일하게 침대에 드러눕고싶지 않아서 진정을 못하고 서성거렸다. 어쩐지 불안했다.

걱정하지 말라. 이 함장만 제구실을 하면 된다고 하던 잭슨의 호언장담이 그냥 귀전에서 맴돌았다. 하긴 일리가 있는 말이다.

《볼티모》호는 조선전쟁을 앞두고 전투기술기재와 무장장비를 현대적인것으로 갱신하였다. 통신설비, 전파탐지설비는 말할것도 없고 주포를 비롯한 함상포들도 반자동화했다. 하기에 몇명의 부실한 사병들이 혹 제구실을 못해도 지장을 받을건 없었다. 함장과 전투부문을 책임진 장교들이 제구실을 하면 그 어떤 정황에도 얼마든지 대처할수 있다. 비록 사병들은 포연내보다 향수내를 더 맡은 햇내기들이지만 함장과 장교들 대다수가 태평양전쟁의 불길을 헤쳐온 로병들이다.

마음이 든든해진 그는 볼티모경의 초상화가 붙어있는 벽쪽에 놓인 탁자에 다가가 탁상등을 켜고 앉아 펜을 들었다.

그는 퇴임후에도 해군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기울여 해전사집필에 열중하고있는 니미쯔에게서 감동이상의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자기도 그처럼 먼 후날에 가서 그러한 력작을 내놓고싶었다. 그래서 조선전쟁이 터진 날부터 매일 기록을 남기군 했다.

극동군사령부의 보도에 의하면 오늘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제2차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형식상 38도선이남에 국한시켰던 미해군 및 공군의 작전구역을 38도선이북으로 확대하고 부산지구의 항구

와 비행장을 방위하기 위해 제한된 보병의 전투병력을 지체없이 투입할데 대한 중대결정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미군이 조선전쟁에 참가하기 위한 이른바 합법적절차가 이루어졌다.
조선전선을 시찰중인 맥아더는 이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백악관에 본격적이고 대대적인 지상군파견을 요구하는 메쎄지를 보냈다고 한다. 한편 한국군의 작전 및 통솔권까지 넘겨받은 그는 륙군참모총장을 비롯하여 무능한 장성들과 고위급장교들을 철직시키고 미국에 충실한 인물들을 등용할데 대한 단호한 조치도 취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지금 내가 승선지도를 하는 기동분함대도 맥아더의 명령에 따라 작전수역으로 항해하고있다.
맥아더의 요구대로 미지상군이 대대적으로 투입되는 경우 전선형편은 즉시 역전될것이다. 미지상군과 한국군이 반격하여 북상하면 우리 기동분함대도 북상하여 북조선해군의 주요기지인 원산항을 타격해야 한다. 이에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배합하면 리상적이다. 서해에서도 해주나 남포에 대대적인 상륙작전을 하면 전승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놓고보면 조선전쟁은 륙군이 아니라 우리 해군이 단독으로 맡아서 해야 했을것인데…

펜을 멈추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던 그는 별안간 두눈을 부릅뜨고 이를 악물며 주먹으로 탁상을 힘껏 내리쳤다.
요글거리던 가슴속에서 질투와 야심이 불길처럼 솟구쳐올랐다.
이번 조선전쟁에서 미군이 이기는건 확정적이다.
그런데 전승의 월계관은 땅에 편안히 앉아서 노상 파이프나 물고 거드름을 피우고있는 그 늙다리가 쓰게 될것이다. 그러면 원산항에는 어처구니가 없이 맥아더의 이름이 붙게 될는지도 모른다.
오, 하느님 맙소서.
이거야말로 통탄하지 않을수 없는노릇이로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전쟁에서 해군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태평양전쟁을 총화할 때 그러했듯이 전승의 마당에서 해군이 륙군과 동등한 자격으로

월계판을 함께 쓰게 된다.
애써 의지를 가다듬고 강심을 먹은 웨리크는 사기를 돋구려고 람술을 한잔 마시고 야심만만히 기본지휘소에 나갔다.
그는 뿌시시해서 입귀가 째지도록 하품을 하는 함장에게 들어가 쉬라고 했다. 잭슨은 군말없이 함장실로 갔다. 웨리크는 무선통화기로 경순양함과 원양구축함에 련계를 취하고나서 쌍안경을 들고 앞창앞에 바투 나섰다.
날이 밝으면서 하늘과 바다의 계선이 점차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산같이 큰 세척의 함선들이 파도를 가르며 내달리는 모습은 볼수록 장관이였다. 함선들이 일으킨 흰물결은 검푸른 바다에 넓은 폭을 이루며 퍼져나간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넘실거리는 파도뿐 북조선해군함정은 고사하고 고기배 한척 눈에 띄우지 않았다. 기동분함대의 위세에 질겁하여 바다새들조차 감히 나래치기를 주저하는지 갈매기조차 보이지 않았다.
웨리크는 쌍안경을 저멀리 해안가로 돌렸다.
해안가의 상공은 검은 연기로 흐려있었다. 거기서는 지금 치렬한 격전이 벌어지고있는것 같았다.
정오무렵, 기동분함대는 삼척을 지나 강릉앞바다에 이르렀다.
함선들은 기관을 끄고 표류했다.
잭슨함장이 기지개를 켜면서 기본지휘소에 나왔다.
《대좌, 출출한데 먼저 요기를 하고나서 일을 시작하기요.》
웨리크는 찬성했다.
그들이 한창 식사를 하는데 전진지휘소에서 당장 함포사격을 진행할데 대한 명령과 사격제원이 날아왔다.
《이거 정말 되게 들볶아대는군.》
잭슨은 두덜거리며 나프킨을 뗴던지고 식탁에서 물러나더니 기본지휘소에 들어가 전투경보를 울렸다.
먼저 배고동이 울렸고 각 초소들과 구간에 붙어있는 싸이렌이 겨끔내기로 자지러지게 울렸다.
식사를 하던 천수백명에 달하는 승무원들이 포크와 나이프를 내던지고 부리나케 자기의 초소로 달려갔다. 즉시에 주기관과 보조기관들

이 시동되였고 전투초소들에 전원이 공급되였다.
《함포사격준비!》
기본지휘소에서 울리는 함장의 구령을 포병장과 포장들이 힘차게 복창했다. 즉시 포탄고들이 열렸다. 포수들은 날랜 동작으로 각이한 구경의 포탄들을 포탑에로 운반하고 장탄했다.
잭슨함장의 지휘에 따라 세척의 함선들은 해안선과 평행으로 나란히 섰다. 함의 위치를 이렇게 정해야 선수와 선미에 설치되여있는 함상포들을 동시에 리용할수 있었다.
기본지휘소에서 내려오는 사격제원에 따라 조준했다.
《기함, 경순양함, 구축함 순서로!
주포 일제사격!》
《볼티모》호의 선수와 선미, 하갑판과 중갑판에 설치된 203미리 주포 9문이 동시에 굉음을 지르며 불을 토했다.
《꽝! 쫘르릉!—》
뒤이어 경순양함에 설치된 157미리 주포 12문이 다투어 울부짖었다. 뒤질세라 구축함의 주포들도 련이어 포성을 울렸다. 포성이 울릴때마다 선체의 두꺼운 장갑철판이 당장 산산쪼각이 날듯 푸들푸들 떨렸다. 하늘이 깨지고 바다가 뒤번져지는듯싶었다. 시꺼먼 포연이 세척의 군함을 휩쌌다. 실로 《장엄》한 광경이였다.
기본지휘소에서 이 광경을 굽어보던 웨리크는 피냄새를 맡은 맹수마냥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살기띤 두눈을 희번득거리던 그는 지휘소를 뛰쳐나가 중갑판으로 급히 내려갔다.
잭슨은 그 무슨 장엄한 의식을 거행하는듯 자못 엄숙한 기색으로 해안선을 주시하며 파이프를 쥔 손을 휘저으며 사격제원을 련속 불러주고 사격구령을 쳤다.
《기함, 경순양함, 구축함 순서로! 부포 일제사격!》
《볼티모》호의 부포 127미리 12문이 동시에 불을 토했다. 경순양함의 부포 127미리 12문도 뒤이어 포성을 울렸다. 구축함의 부포들도 울부짖었다.
사격구령을 받지 못한 고사포들과 어뢰발사관, 폭뢰투하기에서는 포수들과 발사수들이 동료들의 멋진 사격솜씨를 바라보며 등이 달아

서 《잘한다!》, 《쏴라!》, 《갈겨라!》 하고 미친듯이 소래기를 질러댔다.

웨리크도 목이 째지게 고함을 치거나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대로 둘러메치고 마구 두들겨패고싶었다. 그는 그런 광적인 충동에 떠밀려서 헐떡거리며 중갑판에 있는 주포로 달려갔다.

한차례의 사격을 진행한 포수들은 기분이 고도로 상승되여 탄피들이 나딩구는 갑판에 펄썩하니 주저앉아 땀을 들이고있었다. 이럴 때 보니 모두들 캬바레나 무도장에 찾아다니며 술이나 마시고 계집을 껴안고 춤이나 추던 난봉군들이 아니라 포연과 화약내가 물씬물씬 풍기는 해병들, 바다사나이들이였다.

《음, 그래 전투를 해보니 감상이 어떤가?》

모두들 씁쓸히 웃는데 토니가 코살을 찡그리며 대답했다.

《이거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과 싸우자니 싱겁습니다.》

모두 그와 동감인 기색이였다. 웨리크의 심정도 그러했다.

포성은 자못 요란한데 정작 포탄이 날아가서 터지는 모습은 볼수가 없다. 더우기나 포탄에 맞아서 무너지는 전호라든가 적의 지휘소를 볼수 없고 무리로 쓰러지는 적들의 모습도 볼수 없으니 과연 싱겁기 그지없었다.

웨리크는 포장에게서 내부통화기를 받아들고 잭슨함장을 찾았다.

《지휘소! 난 웨리크다.

육안으로 볼수 있는 목표를 소멸하게 해달라.》

만약 잭슨이 이 요청을 거절하면 포수들이 지켜보는 이 마당에서 웨리크는 망신하게 된다. 하기에 그는 즉흥적으로 그런 요청을 한 즉시 내심 후회했다. 다행히도 잭슨은 선선히 동의했다.

잭슨 역시 눈에 보이는 목표를 통쾌하게 박산내고싶었던 모양이다.

《기함, 주포 발사준비.》

203미리포탄은 몹시 무거워서 네명의 장탄수가 맞들어서 장탄해야 했다.

《장탄끝!》

《목표, 포구에 있는 부두와 건물들. 일제사격!》

주포들은 굶주린 맹수마냥 푸들푸들 떨면서 다투어 울부짖었다.

세계제패를 위해 미국의 전쟁상인들이 딸라를 녹여서 부어낸 값비싼 포탄들이 군사시설물이 아닌 어촌을 향해 대기를 썰며 날아갔다. 포구와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즉시에 산산쪼각이 났다. 모래불에 듬성듬성 서있던 소나무들도 뿌리채 파헤쳐져 공중으로 날아갔다.

《명중이다!》

《만세!》

드디여 쾌락을 본 포수들은 철부지애녀석들처럼 야성을 지르며 기뻐서 미친듯이 날뛰였다. 주먹으로 허공을 찌르거나 갑판을 쾅쾅 구르기도 한다. 광적인 희열에 휩싸인 웨리크는 더욱 감질이 나서 조준수를 밀어제끼고 자기가 직접 조준경으로 목표를 찾았다.

아무리 둘러봐야 모조리 부서지고 불타고 산산쪼각이 나서 대구경포탄을 쏴갈길만 한 곳이 없었다. 아쉬운대로 단념하고 조준경에서 눈을 떼려는데 불길과 포연에 잠긴 포구에서 뭔가 아물거리는것이 눈에 띄웠다. 자세히 여겨보니 사람들이다.

어민들이 분명한 그들은 생존수단인 자그마한 고기배에 달린 불을 끄려고 필사의 몸부림을 치고있었다.

웨리크는 이미 파편에 얻어맞고 불길에 휩싸인 고기배를 조준경의 십자선에 올려태웠다.

《발사준비!》

또 한발의 육중한 포탄이 장탄되였다.

《장탄끝!》

《발사!》

쫘르릉!—

핑음을 지르며 날아간 포탄은 면바로 고기배를 때렸다.

물기둥이 하늘을 찌르며 솟구쳐올랐다. 탑모양을 이루었던 물기둥이 분수마냥 흩어져내렸을 때 벌써 그 자리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포수들은 환성을 올렸지만 웨리크는 이 순간 별스레 허무감을 느꼈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고 고개를 떨군채 스적스적 지휘소에 올라갔다.

잭슨이 벙글거리며 물었다.

《그래, 이젠 직성이 풀렸나?》
웨리크는 절레절레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소리나게 내쉬였다.
《이거 싸움같지 않은 싸움을 하니까 오히려 더 속이 타는군요.》
《나 역시 그렇소.》
잭슨은 털이 부시시한 손가락으로 턱을 긁적거리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20

《기지장동무, 중순양함 〈볼티모〉호와 경순양함, 원양구축함으로 편성된 미7함대의 주력인 기동분함대가 북상하여 여기 삼척—강릉 앞바다에 나타났소.》
방금 방에 들어와 도착보고를 한 홍동철에게 해군사령관인 한일무는 인사말도 없이 직팡 적정부터 알려주었다.
《놈들은 해안가까이에 접근하여 동해안을 따라 남진하고있는 인민군부대들과 항구와 포구들, 인민들의 살림집들을 닥치는대로 포격하고있소. 이리 가까이 오시오.》
한일무는 지시봉을 쥐고 커다란 해도가 걸려있는 벽쪽으로 다가갔다.
홍동철은 두눈을 부릅뜨며 해도앞에 다가섰다.
평소엔 노상 미소가 어려있던 그의 얼굴이 무섭게 이그러졌다. 격분을 금할수 없었다. 상륙작전때 어뢰정이 나포한 괴뢰해군 수로안내선 선장놈의 진술에 의해 일본에 기지를 둔 미7함대가 조선전쟁에 즉시 투입될거라는건 예견했던바이다. 놈들은 곧장 원산항으로 달려들수 있었다.
때문에 기뢰부설을 맡은 채정보대좌와 협동하여 대응책을 세웠는데 놈들은 삼척—강릉 앞바다에서 맴돌면서 함포사격을 들이대고있었다.
놈들이 군사시설이 아닌 포구와 살림집들까지 야수적으로 포격하리

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마치도 기지장인 자기가 구실을 못해서 그런 참사가 빚어지고있는것만 같아 마음이 괴로왔다.

그는 해군사령관의 구체적인 정황설명을 들으며 칼끝같이 예리한 눈초리로 해도를 지켜보았다.

미제침략자들의 기동분함대가 날치는 수역은 며칠전 상륙작전을 지휘하며 자기가 소해함을 타고 나가본 곳이였다. 동해에서는 북위38도 40분경에 해상분계선이 지나갔다. 이 선을 넘어 어뢰정으로 두어시간정도 내려가면 속초항이고 거기서 한시간반정도 더 내려가면 주문진항이다. 주문진항에서 묵호항까지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아래가 삼척이다.

정동진에 상륙한 해상륙전대는 동해안을 따라 진격해나오는 인민군부대들과 협공하여 강릉을 해방시키고 대관령과 삼당령을 넘어 남쪽으로 전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었다. 이에 질겁한 괴뢰군8사단은 대관령계선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민군의 진격을 막아보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

한편 삼척아래인 림원리에 상륙한 해상륙전대의 눈부신 활약에 의하여 남강원도의 긴 해안은 거의다 인민군대의 수중에 들어왔다. 바로 이러한 때에 미제침략군 기동분함대가 나타나 무차별적으로 함포사격을 들이대고있다. 남진하는 보병부대들에 위험이 조성되였다. 보병들에게 있어서 적들의 함포사격은 폭격보다 더 위험하고 치명적이다. 항공감시를 강화하면 적기가 날아들기 전에 피신할수 있다. 또 중기나 경기관총으로 적기를 위협하거나 쏴떨굴수도 있다. 그러나 해상에서 임의의 시각에 날아오는 포탄은 피할수가 없다. 적함을 까부시자고 해도 보병들에게는 그러한 수단이 없으니 난사다.

적기동분함대를 빨리 타격하여 소멸하지 못하면 해안가를 따라 남진하는 인민군부대들의 전반적인 전투행동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고 나아가서는 반공격속도를 높이고있는 인민군부대들의 전반적인 전투행동에도 지장을 줄수 있었다.

《어떻소? 이런 정황인데 동무네가 놈들의 기동분함대를 까부실수 있겠소?》

한일무는 안절부절하면서 따지듯이 물었다.

홍동철은 선뜻 대답할수 없어 혀로 바싹 마른 입술을 감빨아 물었다.

《자, 이건 적군연구자료요.》

한일무는 적기동분함대자료를 보여주었다.

홍동철은 지그시 두눈을 감았다. 그 자료는 구태여 보지 않아도 머리속에 수자까지 일일이 기억하고있었던것이다.

중순양함 《볼티모》호의 배수량은 1만 7 300톤, 그러니 어뢰정배수량의 1 000배가 넘는다.

경순양함도 1만 2 000톤급이다. 구축함은 5 000톤급이고… 그런즉 세척의 승무원들을 다 합치면 수천명에 달하고 화력은 륙군 한개군단의 화력과 맞먹는다. 우리 기지에 있는 경비함이나 소해함, 소포정을 가지고는 이놈들과 도저히 맞설수 없다. 어뢰정대가 단독으로 싸워야 하는데… 적아간의 력량대비가 너무도 엄청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제 나에게 미제대형함선집단이 북상하고있다는데 까부실수 있는가고 물으시였소.》

《예?!》

홍동철은 그만 숨이 턱 막히는듯싶었다.

한일무는 고통스런 표정으로 계속했다.

《나는 대답을 올리지 못했소.

장군님께서는 매우 유감스러워하시면서 원산기지장을 빨리 부르라고, 어뢰정대를 거느린 그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자고 하시였소, 그래서 급히 불렀는데 동무도 대답을 못하니… 이거 어쩌면 좋겠소?》

홍동철은 죄송스럽고 난처하기 그지없었다.

군사상식으로는 어뢰정 네척을 가지고 기동분함대는 고사하고 구축함 한척과도 맞설수 없었다.

이거야말로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였다. 한일무는 작전수역에 눈초리를 박은채 말했다.

《어쨌든 놈들의 기동분함대를 까부시는건 우리 해군의 몫이 아니겠소. 나는 모대기고모대기던 끝에 최대한의 가능성을 찾아보았소. 어뢰정대가 은밀히 기동하여 적기동분함대의 묘박지를 불의에 기습하는 경우 기적이 일어날것 같기도 하단 말이요, 어떻소? 그런 훈련이야 동무네가 이미 해보지 않았소.》

홍동철은 그제서야 막혔던 숨이 나갔다.

《예, 그건 가능할것 같습니다. 승산이 보입니다.》

한일무는 여전히 신중한 기색이였다.

《어쨌든 모험이요. 천번중 단 한번의 기회를 노리는것인데 그걸 놓치면 끝장이거든. 심사숙고하여 그런 방향에서 작전을 세워보기요. 시간이 없소.》

몹시 서두르던 한일무는 뒤미처 문득 생각나는게 있어 재빨리 자기의 사무탁앞으로 다가가 송수화기를 들고 군사위원회 서기실을 찾았다.

《서기동무, 원산기지장이 방금전에 도착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장군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럽니까?》

《좀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지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일군들과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고계시는데 대기실에서 기다리고있는 일군들도 적지 않아서 그럽니다.》

서기는 미안해서 량해를 구했지만 한일무는 오히려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접견을 받기 전에 해상작전안을 세워볼 여유가 생겼기때문이다. 그는 송수화기를 놓고 얼른 해도앞에 다가갔다. 홍동철은 입을 꾹 다문채 해도에 부호로 표시된 미7함대 기동분함대를 뚫어지게 쏘아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일군이 드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제정에 관한 정령초안을 보아주시다가 서기의 전화를 받으시였다.

《방금전에 해군사령관이 전화를 해왔는데 원산기지장 홍동철대좌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 서기실에 여러명의 일군들이 접견을 기다리고있다는것을 상기하시였다. 그들가운데는 인민군신문의 편집방향을 주시려고 자신께서 직접 부르신 민족보위성 부상 김일도 있었다. 하지만 해군사령관과 홍동철기지장을 시급히 만나셔야 했다.

《서기동무, 해군사령관과 원산기지장이 오면 먼저 들여보내시오. 다른 일군들은 저녁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지시하시고 상임위원회 일군에게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이 정령을 이제 곧 신문과 방송으로 발표하시오. 영웅칭호가 제

정되였다는걸 알게 되면 우리 전사들이 더 용감히 싸워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조국청사에 빛날 위훈을 세우게 될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선인민군부대들에 수여할 근위칭호를 제정하는 사업도 빨리 끝내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령초안과 근위군기, 근위휘장의 규격과 그림풀이는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럼 래일 이 시간에 가져오시오. 내가 보아주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군이 나가자 잠시후에 해군사령관과 원산기지장이 들어와 차렷자세로 거수경례를 드리였다.

《아! 홍동철동무, 오래간만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듬직하고 여유작작한 그 인상만 봐도 호감과 믿음이 절로 가는 홍동철에게로 다가가 그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였다.

홍동철은 항일무장투쟁시기 국제공산당이 조선인민혁명군사령부와 합의를 보고 국내에 파견한 일군이다. 그는 지하공작도중 적들에게 체포되여 옥중생활을 할 때 박달, 리제순과 함께 혁명가의 절개와 지조를 지켜 잘 싸웠다.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투쟁을 통하여 검열되고 단련된 일군이기에 자신께서는 그를 해방직후 우리 혁명군대의 골간을 육성하는 중요단위에 보내셨다가 동해함대사령관이나 마찬가지인 원산기지장으로 임명하신것이였다.

오매에도 그립던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게 된 홍동철은 너무도 감격해서 눈굽이 후더워졌다. 그는 삼가 축원의 인사를 드렸다.

《고맙소.》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심하신 눈길로 홍동철을 바라보시였다.

《동무는 감옥살이를 할 때 상한 몸을 이젠 완전히 추세운것 같구만. 박달동무는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산에서 싸울 때 만나보니 장수갈던 사람이 놈들의 야수적인 고문으로 페인이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박달동무의 건강을 회복시키겠는지…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홍동철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전쟁의 이 엄혹한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면한 해상전투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한 전사의 건강에 대하여 이토록 마음을 쓰시는

것이였다.
조국이 해방되자 홍동철은 옥중투쟁을 하던 동지들과 함께 페인이 된 박달을 업고 서대문형무소를 나왔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박달과 함께 38도선을 넘어왔다. 그후 해주시당과 보안간부학교에서 사업할 때 그는 박달의 건강회복에 극진한 관심을 돌려왔다. 별식이나 희귀한 약재가 생기면 박달을 찾아가군 했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자 그에 대한 생각을 까맣게 잊었다.
《박달동무가 무사해야 할텐데…》
근심어린 기색으로 뇌이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홍동철에게 부인은 잘있는가고 물으시였다.
홍동철은 그제서야 긴장을 풀며 서둘러 말씀드렸다.
《예, 며칠전에 생남을 했는데 산모도 아기도 다 건강합니다.》
《며칠전이라면 혹시 전쟁이 터진 날이 아닙니까?》
《예, 공교롭게도 그날 밤에…》
김일성동지께서는 환하게 웃으시였다.
전쟁이 터진 날에도 새 생명이 태여났다니, 그것도 해군기지장의 대를 이을 아들이 태여났다니 각별히 기쁘시였다.
《축하합니다! 그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홍동철은 저으기 멋적은 기색으로 아직 이름을 짓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다.
《아무리 전쟁시기라고 해도 아들의 이름이야 제때에 지어주어야지요, 출생등록도 하고… 우리가 왜 놈들과 피흘려 싸우며 남진의 길을 다그치고있습니까? 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조국이 통일되면 남녘의 아이들도 돈 한푼 내지 않고 마음껏 배우며 뛰놀게 됩니다. 백두산과 한나산을 비롯한 명승지들을 찾아 수학려행도 하고… 그날을 그려보면 난 힘이 솟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홍동철은 전쟁의 의미가 새롭게 안겨오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랑에 넘치신 미소를 지으신채 붉은색연필을 쥐시고 작전도앞으로 천천히 다가가시였다.
《동무들도 알겠지만 전선형편은 우리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주타격방향의 아군련합부대들은 지금 한강도하작전을 전개하고있습니다. 해군부대들도 동서해에서 아군의 상륙작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함으

로써 전선부대들의 공격속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의 이 급속한 반공격에 당황한 미제침략자들이 저들의 륙해공군무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인민군대의 맹렬한 반공격을 저지시켜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동해에 기여든 미제7함대관하 기동분함대의 책동에 대하여 각별히 언급하시였다.
《적들의 이러한 책동은 동해연안선을 따라 진격하는 아군련합부대의 전투행동에 적지 않은 장애로 되고있습니다. 만약 동해연안선을 따라 진격하는 아군련합부대의 공격속도를 보장하지 못하면 내륙지대에서 공격하는 주력부대들의 전투행동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전선형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반공격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려면 동해안에서 날치는 미제침략군 기동분함대를 소멸해야 하는데…》
김일성동지께서는 말씀을 멈추시고 해군사령관을 돌아보시였다.
한일무는 자책감을 받으며 고개를 숙이였다.
그는 어제 위대한 장군님께 다른 나라의 전투규정을 실례들면서 적중순양함합선집단을 타격하려면 수십척의 어뢰정들이 비행대의 지원을 받으며 공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침략군 기동분함대가 돌아치는 수역을 잠시 지켜보시다가 문득 알릴듯말듯 안색을 흐리시였다.
《그런데 우리에겐 어뢰정이 네척밖에 없다고 했지요?》
한일무는 물론 홍동철도 죄책감에 가슴이 졸아드는것만 같았다.
《예, 모두 다섯척이였는데 한척은 훈련도중 기관사용시간이 지나서 바다에 나갈수 없게 되였습니다.》
《그래, 다섯척이였지. 작년 가을 함대출항식을 할 때 어뢰정이 분명 다섯척이였습니다.》
못 잊을 그날을 돌이켜보시는 그이의 말씀에 유정한 감회가 그윽히 어렸다.
따웅! 따웅! 하고 성난 호랑이처럼 울부짖으며 파도우에로 나래쳐 가던 바다의 비행기—어뢰정 21호, 마스트에서 홰불처럼 나붓기던 람홍색공화국기, 세차게 날리던 물보라, 그 물보라를 한몸으로 막아나서던 실습정대장의 모습이 오늘도 눈에 선했다. 출항식을 맞으며 난

생처음 면도를 했다는 영민하고 단정하게 생긴 그 젊은이의 모습이…
《난 그날 실습정대장동무에게 높은 공격정신을 지니고 기묘하고 령활한 전법을 쓰면 어뢰정으로 순양함이나 구축함을 얼마든지 까부실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뢰정대가 그동안 훈련을 어떻게 했습니까?》
홍동철은 정대장의 주동적인 발기로 원항해타격훈련을 진행한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드렸다.
어뢰정들의 기관사용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조건에서 다른 함정들을 리용하거나 도보항해훈련을 통하여 적 대형함선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여러가지 전술방안과 전투조법을 완성하고 숙련해온데 대해서도 말씀드렸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대장을 비롯한 미더운 어뢰정대원들을 눈앞에 그려보시며 크게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평상시에 훈련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유사시 적과의 싸움에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결국 훈련도 전투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승리는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마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몹시 긴장한 자세로 서있는 홍동철기지장에게 물으시였다.
《그래, 기지장동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뢰정대가 놈들의 기동분함대를 까부실수 있겠습니까? 승산이 있는가 말입니다.》
책임적인 대답을 올려야 할 이 시각에 홍동철은 주저되는바가 없지 않아 곁에 서있는 해군사령관을 얼핏 돌아보았다. 한일무는 여전히 난감한 기색이였다. 홍동철은 자신없이 말씀드렸다.
《저… 해상에서의 공격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놈들이 항구나 연안에 정박해있을 때 야간에 기습하면 성사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한일무가 곁따라 말씀드렸다.
《그런 경우에도 운수가 좋아야 합니다. 만약 어뢰정대가 먼저 발견되면…》
김일성동지께서는 허구픈 미소를 지으시였다.
운수소리까지 하는걸 보니 해군사령관이나 기지장이나 아직도 신심이 부족한게 분명했다. 그들은 순양함이나 구축함을 지나치게 요란하게 여기고있었다. 적을 과대평가하면 패배주의에 빠져서 애당초 싸워볼 엄두조차 낼수 없는것이다.

그이께서는 미제침략자들과의 본격적인 싸움을 앞두고 첫 전투라고 볼수 있는 이번 해상전에서 기어이 승리해야만 일부 지휘관들속에 잔재해있는 남에 대한 의존심과 패배주의를 뿌리채 뽑아던지고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고 생각하시였다.

《동무들은 두억시니가 뭔지 아오?》

두억시니란 무서운 귀신을 말한다. 야차라고도 부른다.

홍동철과 한일무는 그 말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장군님께서 어째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알수 없어 어리둥절한 눈길로 마주보았다.

《물론 알고있겠지. 두억시니는 겁에 질려 바라보면 볼수록 커보인다고 했소. 동무들은 순양함이나 구축함을 지나치게 요란하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질문의 뜻을 깨달은 두사람은 얼굴을 붉혔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일제는 우리 유격대를 〈창해의 일속〉이라고 하였소. 바다에 비기면 좁쌀처럼 보잘것없다는건데 놈들이 그런 소리를 할만도 했소. 관동군만 해도 백만에 달했고 땅크와 대포는 물론 비행기까지 가지고있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제 손으로 만든 연길폭탄을 가지고 령활무쌍한 전법으로 일제 백만대군과 싸워서 끝내 이겼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어뢰정이라는 좋은 전투함정이 있고 용감한 해병들이 있는데 어째서 조국의 바다에 기여든 침략선들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 해병들이 정치사상적으로 철저히 준비된 조건에서 전술만 잘 쓰면 미제기동분함대와 싸워 얼마든지 이길수 있습니다.

동무들은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이번 해상전투를 잘 조직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한일무와 홍동철은 동시에 큰소리로 대답올렸다.

《알았습니다!》

《신심이 중요합니다.

기지장동무, 기지에 돌아가면 전투임무를 주기에 앞서 정대장에게 네척의 어뢰정으로 적기동분함대를 까부실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시오. 나는 그 동무가 까부실수 있다는 신심에 넘친 대답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크나큰 기대와 믿음에 넘쳐 이렇게 말씀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지

시봉을 드시고 작전수역을 가리키시였다.

《정찰자료에 의하면 적함들이 낮에는 이 수역을 돌아치며 함포사격을 하다가 밤에는 묵호항앞의 묘박지에 정박한다고 하는데 동무들의 타산대로 이때 불의에 타격하면 효과가 클겁니다. 지금 적기동분함대는 우리 해군이 저들과 상대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방심하고있을겁니다. 이게 바로 허장성세하는 놈들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어뢰정대의 주타격대상은 분함대의 기함인 〈볼티모〉호입니다. 자그마한 어뢰정으로 적중순양함과 같은 큰 함선을 타격하자면 근거리전을 해야 합니다. 놈들과 함선척수가 엇비슷한 조건에서 어뢰정대는 기묘하고 령활하게 유인기동을 하며 쏘구역을 뚫고들어가 〈볼티모〉호에 화력을 집중하여 반드시 격침시켜야 합니다.

기지장동무가 어뢰정대장에게 이런 방향에서 전투임무를 구체적으로 주어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찰국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중순양함 〈볼티모〉호는 갑오농민전쟁때도 우리 나라 인천항에 기여든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배는 태평양전쟁때 미해군의 기함이였습니다.

〈대통령〉이나 해군작전부장이 전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결국 〈볼티모〉호는 미국을 상징하는 함선인셈입니다. 우리 어뢰정대가 〈볼티모〉호를 격침시키는것은 군사적으로뿐만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네척의 어뢰정으로 미기동분함대를 족치면 미제침략자들과의 판가리결전을 앞둔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세계해전사에 아직 없는 기적을 창조하게 됩니다.》

미제침략자들과의 본격적인 싸움을 앞두고 진행할 해상전투의 의의에 대하여 각별히 강조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뢰정대의 문화부정대장이 누구인가고 물으시였다.

《리학섭이라구 중앙당학교를 졸업한 유능한 정치일군입니다.》

《음, 그런 동무가 정대장의 곁에 있으니 마음이 놓입니다. 그 동무에게 해병들을 원쑤와의 결사전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동원사업을 잘하라고 하시오. 그리고 비밀보장을 위해 어뢰정들이 전투에 진입하는 순간까지 무선전파를 날리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알았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해상전투와 관련하여 제2어뢰정대에 내리는 자신의 명령문에 활달하신 필체로 수표를 하시였다.

《이 명령문은 어뢰정대가 속초항으로 이동한 다음 해상전투에 나가기 앞서 기지장동무가 전체 정대원들에게 직접 전달하시오.》

홍동철은 그이께서 주신 명령문을 작전가방에 정히 간수하고 삼가 작별인사를 드리려고 했다.

《가만, 동무들에게 한가지 기쁜 소식을 알려주겠소.》

기쁜 소식이라니?!

한일무와 홍동철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듯 한 그 말씀에 다소 어리둥절해졌다.

《이제 곧 신문과 방송으로 공화국영웅칭호제정에 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될거요.》

그 말씀이 쿵! 가슴을 쳤다.

몹시 긴장되였던 홍동철과 한일무의 가슴은 바다처럼 급작스레 뒤설레였다. 솟구치는 감격과 흥분을 누를수가 없었다.

공화국영웅칭호의 제정!

이것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날에 날마다 세상을 놀래우는 위훈을 떨치고있는 인민군대의 전체 장병들에 대한 위대한 령장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진 조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믿음에 넘치신 눈길로 두 지휘관을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그럼 잘 싸우시오. 나는 해군에서 공화국의 첫 영웅들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제정할데 대한 정령이 발표되자 즉시 전군에 폭풍같은 반향이 일어났는데 어뢰정대도 례외로 되

지 않았다.

《어떤 위훈을 세워야 영웅이 될수 있나?》

《작전과장동지가 그러는데 육탄이 되여 적화점을 까부셔야 영웅이 된다는구만. 쏘련 붉은군대에서 마뜨로쏘브라는 병사가 화구를 막고 영웅칭호를 수여받았대.》

《우리도 전쟁 첫날에 불뿜는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은 전사가 있다는구만. 그 동문 틀림없이 영웅칭호를 받게 될거야.》

《보병이 부럽소. 바다엔 적의 화점이 없으니 정말 유감스럽구만.》

《우리야 화점이 아니라 적함을 까부셔야지. 우리가 어뢰정으로 놈들의 순양함이나 구축함을 까부시면 영웅은 문제없을거야.》

전술훈련의 휴식참에 건강검진을 받으며 모래불에서 휴식을 하는 정대원들이 큰소리로 법석 떠들어대고있었다.

김군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모래불에 앉아 해도작업용연필을 깎는 중이다. 그가 날이 예리한 손칼을 익숙한 솜씨로 조심스레 놀릴 때마다 연필밥이 동그랗게 말리며 밀려나 소리없이 모래불에 떨어졌다. 그는 연필심을 뾰족하게 다듬었다.

겉으로는 여유작작하고 태연해보이나 내심은 몹시 초조했다.

《흥! 바다에 나가지두 못하고 림시잔교에 매달려있는 신세에 영웅이 될 꿈을 꾸니 천진들하구만.》

24호정장 양판익이 속상해서 하는 소리다.

23호정장 최정수도 입을 쩝쩝 다시였다.

《그러게나 말이요. 놈들의 기동분함대가 나타나서 날친다는데 우린 왜 여기에 앉아서 말공부만 하는거요? 바다사나이들이야 바다에 나가서 큰소리를 쳐야지.》

곁에서도 속이 달아 윽윽댔다.

《오만한 미제해적들에게 우리 어뢰정대의 본때를 보여줘야 해!》

《해군사령부에 올라간 기지장동지는 왜 아직 돌아오지 않을가?》

《이거 정말 애가 타는구만.》

김군옥의 심정도 정대원들과 다를바 없었다. 그저 생각같아서는 이제 당장 어뢰정에 올라 출항의 배고동을 높이 울리고싶었다. 그러나 아직은 전투임무를 받지 못했으니 기다릴수밖에…

그는 초조하거나 불안할 때면 이처럼 해도작업용연필을 깎든가 권

총을 분해해놓고 손질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군 했다.
(기지장동지가 언제 돌아올가?)
그 생각에 옴했는데 처절썩! 하고 밀려들어 모래불을 휩쓸고나가는 파도소리가 웬일인지 류별나게 크고 소란스럽게 들렸다.
김군옥은 무심결에 고개를 들었다.
파도는 모래불에 잦아들며 밀려나갔는데 파도가 들어왔던 자리에 흰 거품같은것이 한벌 쭉 깔려서 팔딱팔딱 뛴다. 신선한 물고기비린내가 확 풍겼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출항명령을 받지 못해 몸살이 나하던 정대원들은 와! 하고 환성을 올리며 모두 뛰쳐일어나 바다기슭으로 내달리며 그것을 줏노라 야단법석했다. 허리를 굽힌채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서로 지끈 부딪쳐 궁둥방아를 찧기도 한다. 그 승벽내기가 볼만했다.
김군옥은 짐작이 갔지만 우정 큰소리로 물었다.
《그게 뭐요?》
《멸치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살이 통통 올랐습니다.》
펄떡거리는 멸치를 량손에 서너마리씩 쥔 채기정이 아주 성수가 나서 큰소리로 자랑스레 대답했다.
요즘은 멸치철이다.
항만에까지 멸치떼가 밀려들었다. 주변에 있는 수산합작사들에서는 적기들이 날치기때문에 밤에 그물로 멸치를 잡아 젓을 담그어 전선에 보내주고있었다. 떼를 지어 구름처럼 이리저리 밀려다니던 멸치떼들은 맹어에게 쫓기우는지 가끔 파도에 실려 모래불에까지 튀여나오기도 했다. 이럴 땐 땅에서 물고기를 잡는 횡재를 한다.
정대원들이 겨끔내기로 주어낸 멸치를 한데 모으니 거의 한바께쯔나 되였다. 모두들 큰일을 치러낸듯이 흥취가 나서 왁자지껄 떠들어댔다.
《이게 바로 벼락맞은 소고기라는거야.》
《어서 잡숴주시오! 하고 바다가 선심을 쓴거지.》
《이거면 오늘 저녁에 생선국을 푸짐히 끓여먹을수 있겠소.》
《아따, 식당창고에도 멸치가 가득합니다.》
《그래도 제 손으로 잡은게 더 맛있는 법이지.

여! 순봉이! 빨리 바께쯔를 가져오라구.》

건강검진을 잠시 중지한 김정인은 입이 함지박만 해져서 달려나온 취사병과 함께 멸치를 담은 바께쯔를 맞들고 식당으로 갔다.

모두들 흥이 나서 떠들어댔지만 김군옥은 속이 상했다. 어뢰정대원들이 적함은 못 잡고 모래불에서 멸치잡이나 하고있으니 꼴불견이로다.

그는 전투가방에서 해도를 꺼내여 모래불에 펴고 들여다보았다.

21호정의 사령탑에서 무전대기근무를 서던 무전수가 상반신을 내밀고 소리쳤다.

《정대장동지! 즉시 해도작업도구를 가지고 기지지휘소에로 오랍니다.》

《알겠소!》

김군옥은 제꺽 해도를 접어 전투가방에 넣고 희열에 넘쳐 모래불을 차며 일어났다.

이렇게 부르는걸 보니 해군사령부에 갔던 기지장이 돌아온게 분명했다. 그처럼 기다리던 전투명령을 이제야 받게 될것 같다.

그는 기대어린 눈길로 자기를 지켜보는 정대원들에게 호기있게 한손을 흔들어보이고나서 기지지휘소로 냅다 달려갔다.

구분대지휘관들이 다 모여든 지휘소에서 김군옥을 각별히 반갑게 맞이해준 사람은 기지장이 아니라 뜻밖에도 함선건조위원회 위원장인 채정보대좌였다.

《어! 군옥이! 정말 오래간만이요!》

채정보는 수상보안간부학교시절 자기가 그처럼 믿고 사랑하던 제자를 만나게 된것이 매우 기뻐서 평소의 그답지 않게 큰소리로 떠들어댔다.

《정대원들은 다 잘있소?》

김군옥도 어제날 부교장을 만난게 반가와서 그의 손을 잡고 인차 놓지 못했다.

《예, 다 잘있습니다. 기정동무두요.》

이렇게 아들을 상기시켜주자 채정보는 빙그레 웃었다.

《그 애가 21호정에 갔다지?》

《예, 어서 만나보십시오.》

채정보는 문득 정색해지며 채머리를 흔들었다.

《그럴새가 없소.》

초조한 기색으로 그들의 상봉을 지켜보던 한백천은 이 기회를 타서 《군관동무들!》하고 소리쳤다.

웅성거리던 지휘관들은 얼른 자세를 바로잡고 채정보대좌에게 주의를 집중했다.

《쉬엿하시오.》

채정보는 방 한가운데 놓인 해도탁앞으로 다가서며 다들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다. 지휘관들은 해도탁에 둘러섰다.

《동무들도 알겠지만 어제부터 미7함대가 조선전쟁에 참가하여 동서해에서 작전수행에 착수했습니다. 놈들은 함포사격으로 남진하는 인민군부대들의 앞길을 막고 우리가 해방시킨 지역들을 불바다로 만든 다음 원산과 인천을 비롯한 전략적지점들에 대규모의 상륙작전을 진행하여 지금 대대적으로 투입하고있는 미지상군과 함께 반공격을 하려고 시도하고있습니다.》

김군옥은 마음의 탕개를 더 바싹 조이며 채정보대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해군사령부에서는 이에 대처하여 기뢰부설조들을 시급히 편성하여 주요항구들의 입구와 연안을 봉쇄함으로써 적함들의 기동을 저지시키고 상륙작전을 사전에 파탄시킬데 대한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채정보는 기뢰부설에 참가할 함정들을 선정하고 기뢰부설조들의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륙상구분대들에 필요한 인원수를 할당하였다. 마감으로 그는 기뢰부설에 나가는 함정들의 기뢰적재완료시간과 출항시간을 알려주고 모임을 끝냈다.

명령을 받은 지휘관들은 한초라도 지체할세라 서두르며 급히 돌아갔다.

김군옥은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명령도 지시도 받지 못했다. 아쉽다기보다 랑패한 기색으로 서있던 그는 채정보에게 우린 어떻게 하라느냐고 물었다.

《어뢰정대에 대해서는 따로 지시할게 없소.》

《그럼 저더러 해도작업도구는 왜 가지고오라고 했습니까?》

채정보는 그제서야 손으로 머리를 툭 쳤다.

《아, 이 정신 보지. 어서 해도를 꺼내오.》
김군옥은 어리둥절한 기색으로 전투가방에서 해도를 꺼내 펼쳤다.
채정보는 지시봉을 들고 해도탁에 이미 펼쳐진채로 있는 커다란 해도에서 필요한 지점들을 가리키기 시작했다.
《여기… 그리고 여기 또 이곳에 기뢰를 부설하게 되오.》
김군옥은 기뢰부설구역을 재빨리 해도에 표시했다. 어뢰정대가 기뢰부설구역을 피해서 항만을 드나들수 있게 해도작업을 다시 해야 했다.
《앞으로 기뢰부설구역이 더 늘어나는데 따라 그시그시 동무에게 통보해주겠소. 이상이요.》
일껏 기대를 가졌던 김군옥은 허전하기 그지없었다. 남들은 포탄수송을 한다, 기뢰부설을 한다 하고 법석 끓어대는데 우리 어뢰정대는 여전히 대기상태에 있어야 한단 말인가? 이건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도저히 견딜수가 없었다.
《아니, 해군사령부에서 무슨 련락이 온게 없습니까? 우에서 우리 어뢰정대를 잊어버린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뢰정대를 잊다니?! 원, 그게 무슨 소리요.
너무 조급해서 그러지 마오. 아마 큼직한 대상을 맡겨줄거요.》
김군옥은 터갈라진 입술을 감빨았다.
《기다리기에 지쳐서 요즘엔 입맛을 다 잃었습니다. 모두들 속이 새까맣게 탔지요.》
《참, 내 깜박 잊을번 했군.》
채정보는 부랴부랴 배낭에서 보자기에 싼 고추장단지를 꺼내주었다.
《받소, 고추장이야. 이걸 가지고가서 입맛을 돋구게. 내가 원산기지에 나간다니까 어뢰정대원들에게 가져다주라고 집사람이 이걸 꾸려주더란 말이요. 거 재작년 봄에 새로 온 정치부교장이 맛좋은 해삼회를 쳐준적이 있지?》
김군옥은 반색을 하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날 맛있게 먹은 해삼회를 생각하니 입안에 스르르 군침이 돌았다.
《그 해삼회에 우리 집사람이 담근 고추장을 넣었던거요. 그래서 맛있었다니.》
《아, 그렇습니까.》
《내가 그날 조정철동지를 우리 집에 데리고가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지. 조정철동지가 고추장이 맛있다고 칭찬하기에 한단지 주었더니 글쎄 그걸 가지고가서 해삼회를 쳤더란 말이요. 그런즉 사연이 있는 고추장이니 어서 가지고가서 수상보안간부학교시절을 추억하며 나누어먹소.》

김군옥은 부글부글 끓던 속이 스르르 가라앉는것 같았다. 초조감이 씻은듯 사라지고 여유작작해진다.

《고맙습니다. 대좌동지, 저와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아들을 잠간이라도 만나보십시오.》

채정보는 약간 미간을 찌프렸다. 그는 그럴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설사 있어도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어뢰정대원들은 다 젊은 동무들이다. 기정이가 아버지를 만나는걸 보면 모두들 얼마나 부러워하겠는가. 전투를 앞두고 부모생각, 집생각을 더할수 있게 된다. 지금은 그런 생각보다 한목숨 바쳐서라도 놈들을 족칠 생각을 해야 했다.

《후에 만나지.》

채정보는 작별을 못내 서운해하는 젊은 정대장의 어깨를 두손으로 꽉 쥐였다.

《동무와도 회포를 나누고싶지만 그럴 시간이 없구만. 앞으로 기회가 생기겠지. 그만 헤여지기요.》

김군옥은 묵직한 고추장단지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기뢰부설조원으로 선발된 륙상구분대 해병들이 전투복장에 구명조끼를 입고 렬을 지어 활기있게 부두로 가고있었다. 지난 상륙작전때처럼 부두에는 주변 수산합작사들의 고기배들까지 다 모여들기 시작했다. 발동선도 있고 돛배와 지어는 전마선들도 있었다. 김치독처럼 둥글고 고정고리가 달린 검은색기뢰들을 운반대차에 싣고 밀고가는 해병들도 보인다.

부두는 전투적인 분위기로 들끓는데 어뢰정들이 대피하여 위장하고있는 도래굽이의 가설잔교는 조용했다. 지금 정대원들도 기뢰부설준비로 설레는 부두를 바라보며 전투명령을 받고올 정대장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있을것이다.

김군옥은 가설잔교로 가던 도중 고추장단지를 두려고 식당에 들렸다.

주방에 들어가니 멸치를 간장에 졸이는 냄새가 매울사 하면서도 고소하고 달짝지근하게 풍겼다.

김정인이 위생복을 산뜻하게 입고 부뚜막앞에 서서 멸치를 졸이고 있었다. 식당근무를 서는 량볼이 붉은 애숭이해병은 24호정 기관총수인 강순봉인데 곁에서 담당준의의 료리솜씨를 신기한듯 지켜보는 중이다.

《수고하오!》

김군옥이 큰소리로 인사를 하자 그제서야 그들은 정대장을 알아보고 자세를 바로했다.

《자! 이걸 받소. 21호기관장동무의 어머니가 보낸 고추장이요.》

《야!》

강순봉은 환성을 올리며 달려와 고추장단지를 덥석 받아안았다. 그리고는 제꺽 뚜껑을 열고 손끝으로 살짝 찍어 맛을 보았다.

《야! 깨고추장이구나. 준의동지도 맛보세요.》

정인은 미소를 지으며 하던 일을 계속했다.

《정대장동지, 이 고추장은 항해식품으로 건사해두겠습니다. 싸움판에 나가서 먹어야지요.》

《음, 그게 좋겠소.》

《이건 엊그제 수산합작사에 가서 접수해온건데 졸임을 하려고 꼬득꼬득 말리웠댔습니다.》

강순봉은 제꺽 저가락으로 졸인 멸치를 한마리 꺼냈다.

《정대장동지, 검식을 하십시오.》

《검식이야 준의동무가 해야지.》

《이건 준의동지가 만든 음식이니 정대장동지가 해야 합니다.》

김군옥은 취사병이 억지로 쥐여주는 그것을 받았다. 간장과 기름, 사탕가루와 풋고추를 두고 졸인 멸치는 먹음직스러웠다. 맛을 보니 밥찬으로는 제격일것 같았다.

《동무 정말 재간이 있소. 그냥 지진것보다 이렇게 졸이니 더 맛있구만.》

칭찬을 받은 강순봉은 다소 면구스러워했다.

《전 지금 준의동지에게서 견습을 받고있습니다.

멸치젓도 담그었는데 맛보십시오.》

강순봉은 호박통만 한 꽃단지의 뚜껑을 열어보였다. 그안에 고추가루를 빨갛게 친 멸치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이건 다 항해식품입니다. 참, 우리 정대는 언제 출항합니까?》
김군옥은 짐짓 태연한 기색으로 취사병의 어깨를 툭 쳤다.
《기다리자구. 그러면 때가 오겠지.》
그는 얼른 밖으로 나갔다. 김정인이 위생복을 입은채로 뒤따라나왔다.
《정대장동무, 정말 무슨 소식이 없어요?》
그것은 해군사령부에 올라간 아저씨를 념두에 둔 질문이였다.
《아직은 없소. 참, 조카애는 어떻소?》
김정인은 그 애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즐거워져서 서글서글한 눈동자에 미소를 함뿍 머금었다.
《그 앤 그저 쌔근쌔근 잠만 자지요. 깨여나면 젖을 먹고는 또 자고… 아마 전쟁이 일어난것도 모르는가봐요.》
귀여운 아기의 모습이 방불하게 눈앞에 얼른거려서 김군옥은 벙글서 웃었다.
《아저씨가 빨리 돌아와야 이름을 짓고 출생등록을 할텐데…》
채정보대좌를 만나고나서 마음의 여유가 생긴 김군옥은 의논조로 물었다.
《이름을 우리가 지어볼가?》
《우리가요?》
《응, 동무의 언니가 나에게 그런 부탁을 했었지. 지금은 전쟁판이니 아무 일이나 질질 끌면 안돼. 이름도 전투적으로 짓기요. 내가 앞글자를 지을테니 동문 뒤글자를 지으라구.》
김정인은 쾌히 응했다.
김군옥은 즉흥적으로 말했다.
《앞글자는 바다 해요.》
김정인도 제꺽 말했다.
《뒤글자는 사내 남이예요.》
그런즉 해남이, 바다사나이란 뜻이였다. 어렵게 생각되던 일이 예상외로 수월히 풀려서 김군옥은 흐뭇했다.
《좋구만! 그렇게 부르기요.》

김정인은 곱게 눈을 흘겼다.

《피, 우리 맘에 든다고 되겠나요. 부모의 마음에 들어야지요.》

뭐나 즉석에서 결심하거나 결정하기를 좋아하는 김군옥은 우겨댔다.

《미래의 해병에게 있어서 그 이상 더 좋은 이름이 있을수 없소. 어서 가서 언니에게 이제부터 아기를 해남이라고 부르라고 하오, 어서!》

김정인은 웃으며 살레살레 도리질을 했다.

《전 정대원들의 건강검진을 마저 해야 해요.》

《우리 동무들은 나를 닮아서 다 건강하오. 구태여 검진할 필요가 없소.》

김정인은 그 말이 언짢아서 나무라는 눈초리로 상대방을 바라보았다.

《왜요. 내 보기엔 정대장동무부터 정상이 아닌것 같아요.》

김군옥은 뎬겁을 했다.

《그건 무슨 왕청같은 소리요?》

김정인은 두눈을 내리깔며 실무적인 어조로 랭담하게 말했다.

《정대장동문 지금 몹시 초조해하고있어요. 속에선 불이 일구요. 아마 체온계를 꽂으면 40도가 넘을거예요.》

김군옥은 구태여 자기의 심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옳소. 난 속에서 불이 일어 못 견디겠소.

지금 미제침략자들의 기동분함대가 나타나서 아군의 전진을 가로막고 무고한 인민들에게도 무자비하게 함포탄을 퍼붓고있단 말이요. 자칫하면 그 함포탄이 여기에도 날아올수 있소.

귀여운 아기가 단잠을 자고있는 요람에 함포탄이 날아들면 어쩌겠소.》

그것은 입에 올리거나 상상해보기조차 끔찍했다.

김군옥은 얼른 입을 다물며 부지중 몸서리를 쳤다.

김정인은 그의 심정을 잘 알면서도 도움을 줄수 없으니 애가 탔다. 그래서 입술만 꽉 깨물었다. 그 모양을 보니 김군옥은 자기가 공연히 분풀이를 하는 식으로 우둘렁거린것 같아서 미안하고 멋적기도 했다.

그는 입을 꾹 다물고 도래굽이로 갔다.
김정인도 소곳이 고개를 숙인채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모래불에 무료하게 앉아서 정대장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정대원들은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김군옥은 피로한 기색으로 모래불에 주저앉아 전투가방에서 해도를 꺼내 펼쳤다.
정대원들은 이제야 전투명령이 떨어졌나부다 하고 재빨리 정대장을 에워쌌다. 수십쌍의 긴장한 눈길들이 해도에 집중되였다. 김군옥은 마른 기침을 하고나서 입을 열었다.
《오늘부터 채정보대좌동지의 지휘하에 원산만입구와 주변연안을 봉쇄하기 위한 기뢰부설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에 표시된 곳이 기뢰를 부설할 수역들이요.
정장동무들은 이 수역들을 해도에 기입하고 예비해도작업을 다시 하시오.》
고개를 들고 저으기 실망이 어린 정대원들을 둘러본 그는 눈짓으로 저쪽에 오도카니 서있는 김정인을 가리켰다.
《다른 동무들은 건강검진을 받으시오.》
정장들은 남고 다른 정대원들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채기정은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김군옥은 그가 얼른 아버지를 만나보게 해달라고 제기할줄 알았는데 정작 들어보니 그게 아니였다.
《정대장동지, 어뢰정들을 하가한지 벌써 닷새가 되였습니다. 상가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가요?》
기관장은 기관과 함께 선체관리를 기술적으로 책임지고있다.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때문에 속이 상했던 김군옥은 급소를 찔린듯이 얼굴을 찡그렸다.
《그건 래일 의논해보기요.》
《전 아무리 전시환경이라고 해도 어뢰정의 기술관리를 철저히 함선규정의 요구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군옥은 그를 마뜩지 않게 쳐다보며 신경질을 부렸다.
《아직 이틀이 남아있잖소. 그러니 그 문제는 래일 의논하잔 말이요!》

채기정은 입을 다시며 마지못해 물러났다.

김군옥은 더 부쩍 등이 달았다.

만약 래일까지 전투명령을 받지 못하면 모레는 부득불 어뢰정들을 상가대에 올리고 청수로 선체를 닦아야 한다. 그러자면 상가대차와 권양기를 점검해야지, 상가대에 위장을 해야지, 시끄러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어뢰정들을 물에 끌어올리면 하가공정이 복잡하기때문에 전투명령을 받는다 해도 즉시 출항할수 없게 된다.

그는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을 달래며 정장들과 예비해도작업을 다시 했다.

이때였다.

저 멀리 부두에서 함정들이 다투어 기관을 시동하는 소리가 울리고 검은 배기가스가 물씬물씬 피여올랐다. 뒤이어 리안작업을 지휘하는 함정장들의 호각소리와 구령소리, 해병들의 복창소리가 울리더니 함정들이 련속 출항하기 시작했다.

기뢰부설에 동원된 함정들까지 바다에 나가고나니 군항은 거의나 비여버려서 허전하고 쓸쓸한감을 주었다.

어뢰정대원들은 너나없이 기분이 저락돼서 어깨가 축 처졌다.

어찌 그러지 않으랴. 어제는 포탄을 수송하는 소포정대를 부러움에 찬 눈길로 배웅해주었다면 오늘은 기뢰부설을 하러 나가는 친구들이 부러워서 쳐다보고있는판이였다.

전쟁이니 싸움터에 나가지 못하는 군인은 이처럼 면목이 없고 죄스러운것이다.

문화부정대장이 취사병과 함께 밥국통을 맞들고 다른 손엔 흰 보자기를 씌운 버치를 껴들고 나타났다.

《뭘 멍하니 쳐다보고있소? 자! 식사나 하기요.》

리학섭은 호기있게 소리쳤다. 그제서야 그를 발견한 정대원들은 우르르 마주달려가 버치와 밥국통을 받아쥐였다. 고소한 음식냄새가 기분좋게 풍겼다. 분위기가 저조하던 모래불은 천렵이나 하듯이 삽시에 흥성거렸다.

밥을 푸거나 반찬을 담고 멸치생선국을 떠놓노라 밥차림당번이 따로없이 모두들 분주히 움직였다. 그리고는 푸짐하게 차린 음식앞에 주

런이 둘러앉았다. 김군옥이 살펴보니 반찬이 여러가지인데 아까 김정인이 직접 만들던 멸치졸임이 보이지 않았다.

《순봉동무, 멸치졸임은 왜 안 가져왔소?》

취사병은 생색을 부리며 잡아떼듯이 대답했다.

《그건 항해식품입니다.》

《오늘 저녁엔 빠다도 없구만.》

《그것두 항해식품이지요. 이제라도 출항만 하면 고추장을 비롯해서 고급반찬들을 다 내놓겠습니다. 군관가족들이 해온 항해식품도 일일창고에 다 보관해두었습니다.》

문득 하늘을 썰며 적기들이 북쪽으로 날아갔다.

남쪽 어디선가 웅글진 포성이 간간이 울려왔다.

미제침략군 기동분함대가 가까이에 나타나서 또 함포사격을 들이대는게 아닐가? 그런 경우 포탄수송을 간 소포정대는 무사하겠는가? 기뢰부설을 나간 함선들은?

모두들 이런 생각에 잠겨 묵묵히 식사를 했다.

군항에 밤이 왔다. 저 멀리 수평선으로부터 출렁이는 파도에 실려 어둠이 소리없이 밀려들었다.

당직근무를 제외한 승무원들은 전투장구류를 곁에 벗어놓고 부드러운 모래불에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다. 김군옥은 어뢰정 21호에 올라 비좁은 선수갑판에 네활개를 벌리고 누웠다. 갑판은 활등처럼 휜데다가 리베트를 촘촘히 쳐서 못대가리들이 도드라졌기에 눕기가 말째고 등이 배겼다. 하지만 그는 어뢰정갑판이 따스한 아래목이나 푹신한 고급침대보다 더 좋았다.

갑판에 누우면 어릴적 그 시절로 되돌아간듯 마음이 절로 유정해진다.

찰싹찰싹 배전을 두드리는 파도소리는 어머니가 불러주는 자장가런듯 들을수록 정답다. 여느땐 횡포하고 사납던 거치른 대자연인 바다가 이런 밤이면 이렇듯 상냥해진다. 마치도 어뢰정이 요람이런듯 둥기둥기 흔들어주는것이다.

세살때 어머니를 여의고 먼바다에 나간 아버지를 기다리며 오막살이를 홀로 지키는데 진절머리가 났고 후에는 이국에서 떠돌이생활을 한 그에게 있어서 어뢰정은 전투함선이기 전에 살틀한 정을 붙인 집

이고 보금자리였다. 그러기에 어뢰정을 떠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었다.

정다운 어뢰정아! 너는 나와 함께 훈련으로 날과 날을 보내며 결전의 날을 기다려왔지, 조국의 바다에 감히 기여든 미제침략선들을 까부시는 싸움에서 우리 위훈을 떨치자, 두발의 어뢰를 쏘아 적함을 침몰시키지 못하면 나는 너와 함께 육탄이 되여 적함에 돌진할테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열렬히 속삭이면서 그는 저도 모르게 품속에서 담배쌈지를 꺼냈다.

력사적인 함대출항식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해병들의 생활상문제들을 헤아리시다가 몸소 펼쳐보신 담배쌈지다. 쌈지안에는 그날 장군님께서 손으로 쥐시고 냄새까지 맡아보신 써레기담배가 그대로 들어있었다. 함선승무원들의 손은 늘 바다물에 젖어있거나 기름이 묻어있어 마라초를 말기 말쨀거라고 하시면서 가치담배를 공급해주자고 하시던 그이의 인자하신 당부가 금시 귀에 울려오는듯싶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날 담배쌈지에 어뢰정을 수놓은 김정인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를 소원대로 해군에 입대시키라고 하시였지, 정인이! 동문 정말 복받은 처녀야.

김군옥은 담배쌈지의 보드라운 공단에 수놓은 어뢰정을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쌈지에서는 담배냄새가 아니라 봄이면 군항에 만발하던 아카시아꽃의 향기가 은은히 풍기는것 같았다.

정인이! 사랑스런 처녀야, 아까 동무와 함께 기지장동지의 아들 이름을 짓듯이 우리 관계도 그렇게 수월히 매듭지을수는 없을가? 지금은 전쟁시기란다, 그러니 모든걸 서둘러야지, 이것저것 재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간 후날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될거야, 난 이제 전투명령을 받고 바다에 나가면 돌아오지 못할수도 있어, 그래서 될수록 동무를 멀리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었지, 그러나 그게 아니야, 난 전투출항에 앞서 동무에게 꼭 말해주겠어, 나는 동무를 사랑한다고, 그저 사랑하는게 아니라 저 바다처럼 끝없이, 열렬히 사랑한다고 말이야, 동무를 생각만 해도 난 힘이 솟아, 동무가 지켜보고있기에 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거야, 승리하고 돌아와 이 사연깊은 바다기슭에서 동무를 만나면 난 이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한 사나이가 되는거야.

누군가 슬며시 21호정의 갑판우로 올라왔다.

단꿈을 꾸듯이 달콤한 생각에 잠겨 누워있던 김군옥은 담배쌈지를 얼른 품에 넣으며 서둘러 상반신을 일으켰다.

갑판에 쭈그리고앉은 사람은 문화부정대장이였다. 후방사업에 언제나 관심을 두는 그는 식당에서 취사근무병의 일손을 도와주다가 오는 길인지 몸에서 고소한 음식냄새와 물고기비린내가 났다.

《정대장동무, 이제 전투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너무도 뻔한걸 묻기에 김군옥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뭐 어떻게 할게 있습니까. 즉시 임무수행에 착수해야지요.》

리학섭은 신중하고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그에 앞서 승무원들의 심장마다 불을 달아주어야 하지 않을가요?》

《정치사업을 하자는겁니까?》

《예. 서울해방작전에 참가한 부대들은 전투에 앞서 군인결의모임을 가지고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했더군요.》

그제서야 김군옥은 자기가 너무도 실무적인 태도로 전투명령을 기다리고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문화부정대장은 매일 라지오로 전승소식만을 들은게 아니였다. 그는 남진하는 보병들과 땅크부대들의 혁혁한 전투성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것인가를 연구하였고 전투에 앞서 어뢰정승무원들을 어떻게 분발시키겠는가를 모색해온것이였다.

김군옥은 느닷없이 얼굴을 붉히며 성급히 동의했다.

《문화부정대장동무, 일깨워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맹세문초안은 내가 작성하겠습니다. 정대장동무는 첫 토론을 준비해주십시오.》

김군옥은 대할수록 미더운 문화부정대장에게 의지하고싶은 심정이였다.

《첫 토론을 잘해야 할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우월감이 강한 김군옥이 이렇게 허심하게 방조를 요구하기는 처음이였다.

《그거야 뭐 정대장동무의 심정을 그대로 터놓으면 되는거지요.》

《아, 그래도 문화부정대장동무가 선을 그어주십시오. 정대장인 내

가 한마디를 해도 씨먹은 소리를 해야 할게 아닙니까.》
리학섭은 슬며시 일어나 선미갑판으로 갔다. 김군옥은 의아한 기색으로 따라섰다. 비좁은 선미갑판의 량쪽에 아름드리 어뢰가 한발씩 적재되여있었다. 길둥글고 미끈하게 생긴 어뢰겉면에 밤이슬이 차분히 내렸는데 달빛이 유정하게 어려 윤기가 돌았다.
어뢰머리부를 잠시 손으로 어루만지던 리학섭은 조용하나 의미있게 말했다.
《정대장동무 나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하군 했지요. 수상보안간부학교시절에 조정철정치부교장이 들려준 연길폭탄이야기가 정말 인상에 깊었다고 말입니다.》
김군옥은 내심 긴장해지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나도 중앙당학교에서 공부할 때 항일투사동지들로부터 연길폭탄이야기를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어뢰가 연길폭탄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리학섭은 힘주어 말을 이었다.
《연길폭탄이란 말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항일전의 나날에 강도 일제를 쳐부신 연길폭탄을 오늘은 우리의 손에 쥐여주시였습니다. 우리는 이 폭탄으로 미제침략선을 까부셔야 합니다.》
김군옥은 나직이 탄성을 올리며 크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정말 그렇군요. 어뢰로는 혹시 적함을 까부시지 못한다 해도 연길폭탄으로는 기어이 까부셔야지요. 그래야 항일선렬들앞에 떳떳하지요.》
《모든 승무원들이 그런 결의와 각오를 가지고 전투항해길에 오르도록 하기 위해 해병결의모임을 가지자는겁니다.》
이런 정치일군이 곁에 있으니 김군옥은 마음이 든든해졌다.
《문화부정대장동무 전투를 앞두고 이런 좋은 생각을 했는데 나는… 부끄럽게도 안일한 생각에 잠겼더랬지요.》
리학섭은 오늘따라 별로 허심해져서 자기반성을 하는 젊은 정대장을 친동생인듯 사랑스레 바라보았다.
《원,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전투를 앞둔 준엄한 시각에 너무도 어울리지 않게 처녀생각을 했었지요.》
《담당준의동무 말인가요?》
김군옥은 기꺼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예, 난 그 처녀가 곁에 있으면 그저 환한게 밤도 대낮같더군요. 이거 쓸데없는 객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처녀가 보는 앞에서는 더 용감해지고 더 씩씩해지고싶었습니다. 그 처녀가 곁에 없을 때도 나는 나를 지켜보고있는 그의 눈길을 감촉하군 하지요.
문화부정대장동무도 련애할 때 그랬습니까?》
너무도 솔직하고 천진한 질문이여서 리학섭은 즐겁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예, 나도 그랬답니다.》
김군옥은 불현듯 심각해졌다.
《그러니 우리도 련애를 하는게 분명한데 난 아직 정인동무에게 사랑한다는 소리를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러다가 혹시 그 말을 끝내 못하게 될수도 있지 않을가요? 전쟁이 아닙니까.》
이것은 해상전투에 나갔다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경우를 념두에 둔 소리였다. 그래서인지 목소리가 저으기 비장했다.
리학섭은 그냥 미소를 지은채 사랑하는 동생을 일깨워주듯이 다정하게 조언을 주었다.
《그러게 어서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사랑이란 참 좋은거지요. 뜨거운 사랑을 안고 애인의 배웅을 받으며 항해길에 오르면 불바다속에서도 살아돌아오게 될겁니다. 사랑은 강해서 죽음도 이긴답니다.》
이때 당직근무를 수행하던 무전수가 사령탑에서 불쑥 상반신을 내밀었다.
《정대장동지! 문화부정대장동지와 함께 빨리 기지지휘소로 오랍니다.》
그 소리에 잠에서 깨여난 승무원들이 여기저기서 자리를 차고 벌떡벌떡 일어났다.
드디여 때가 왔구나!
튕기듯 잔교를 거쳐 모래불에 뛰여내린 두 군관은 어둠속을 뚫고 그야말로 비호처럼 내달렸다.

22

한백천의 견해에 의하면 홍동철기지장은 설사 폭풍이 불고 바다가 뒤번져진대도 끄떡하지 않는 성미였다. 그처럼 대범하고 침착하고 여유작작했으며 웬간해서는 절대로 흥분하지 않았다. 그런데 방금전에 기지로 돌아온 그는 한백천의 사업보고를 받으면서 진정을 못하고 구두발소리를 내며 성급히 해도탁주위를 감돌았다.

(웬일일가?)

한백천은 기지장이 자기의 보고를 귀등으로 들으면서 다른 생각에 몰두했음을 알아차리자 그만 입을 다물었다.

문득 멈춰선 홍동철은 작전과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래, 동무는 어떻게 생각하오?》

가뜩이나 어리둥절했던 한백천은 느닷없는 그 질문에 아연해지고말았다.

《예?!》

《우리가 적들의 기동분함대를 까부실수 있을가?》

한백천은 두눈을 크게 뜨고 기지장을 멍하니 마주보기만 했다.

우리란 결국 어뢰정 네척에 불과했다.

홍동철은 작전과장의 심정을 알고도 남았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있었기에… 하지만 지금은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론할 때가 아니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친히 명령을 내리셨으니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적기동분함대를 무조건 까부셔야 했다.

《적정통보에 의하면 적기동분함대는 삼척—강릉앞해상을 순회하며 함포사격을 하다가 밤이면 묵호항앞에 있는 묘박지에 들어와 닻을 떨군다고 하오.

야밤에 묘박지를 들이치면 어떨것 같소?》

깊이 생각해보던 한백천은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건 승산이 있습니다.》
《나는 해군사령관동지와 그런 방향에서 작전을 수립하자고 의논을 했소. 어디 구체적으로 작전을 세워봅시다.》
그들이 한창 작전을 세우는데 어뢰정대장과 문화부정대장이 숨이 턱에 닿아 헐떡거리며 들어섰다.
두 군관의 땀에 젖은 상기된 얼굴과 번쩍거리는 눈동자에는 전투에 대한 갈망이 너무도 적라라하게 비껴있었다.
홍동철은 그들이 전투임무를 받게 될 이 순간을 얼마나 고대했겠는가를 절감하면서 먼저 적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나서 쿡 찌르듯이 물었다.
《어뢰정대가 단독으로 미제침략군 기동분함대와 맞서 싸울수 있겠소?》
그러지 않아도 몸이 달았던 김군옥은 불쑥 한걸음 나서며 즉시 대답했다.
《예, 명령만 내리십시오!》
홍동철은 우정 미타한듯이 고개를 기웃거렸다.
《승산이 있는가 말이요?》
《예, 기어이 이기겠습니다!》
홍동철은 문화부정대장을 돌아보았다.
리학섭은 거무틱틱한 얼굴에 여유작작한 미소를 지으며 나직하나 확신에 넘친 목소리로 말했다.
《기지장동지, 우린 적 대형함선집단과 싸워이기기 위해 지금껏 준비해왔습니다. 어서 명령을 내리십시오.》
순간 홍동철은 가슴을 찌르는 자책감과 후회에 휩싸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나는 어째서 이들처럼 승리의 신심에 넘친 대답을 올리지 못했던가.
여태 자기의 머리속에서 맴돌던 의문이 이제야 풀리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상전투에 앞서 하신 승리에 대한 확신은 바로 이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에 기초한것이였구나!
홍동철은 자기의 가슴이 급작스레 넓어지는듯 한감을 느끼며 자신만만하게 지시봉을 쥐고 해도탁에 다가섰다.
야밤에 적기동분함대의 묘박지를 기습하기 위한 작전토의는 진지하

게 진행되여 한시간후에 일단락 끝났다.

작전수역이 멀리 남쪽에 있기때문에 어뢰정대는 먼저 속초항으로 은밀히 이동하기로 했다. 속초항에서 연유와 물을 보충하고 7월 2일 0시에 기동하면 제일로 어둠이 짙은 새벽 4시경에 적기동분함대의 묘박지에 이르게 된다.

작전의 승패여부는 어뢰정대가 어떻게 신속히 기동하며 은밀성을 보장하는가에 많이 달려있었다. 속초항에 도착할 때까지는 이 작전에 대하여 정대원들에게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홍동철은 임무가 중대하니만치 작전과장과 함께 어뢰정대에 승선하여 속초항에 가서 그때의 정황을 고려하여 작전안을 최종검토해주기로 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 해상전투가 력량상 비할바없이 우세한 적들과의 대결인것만큼 승조원들이 결사의 각오와 승리의 신심을 가지도록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원쑤와의 결사전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동원사업을 잘하라고 각별히 당부하시였소.》

리학섭은 가슴을 들먹이며 짤막하게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로 동무들속에서 공화국의 첫 영웅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하시였소.》

가뜩이나 격동되였던 김군옥은 너무도 벅찬 흥분에 가슴이 파도치듯 설레여서 숨조차 바로 쉬기 어려웠다.

영웅! 공화국의 첫 영웅!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어뢰정대에서 공화국의 첫 영웅이 나오기를 바라신다는것은 이번 해상전투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리라는 확신에 기초한것이 아니겠는가, 장군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믿고계신다, 우리를 믿으시고 친히 전투명령을 내리시였다, 그이께서 몸소 그어주시고 지켜보시는 승리의 항로따라 어뢰정대는 쏜살같이 달려가 미제침략선을 수장시키는 멸적의 폭음을 높이 울리리라! 하여 신성한 우리 령해에 감히 기여든 침략의 무리를 조선의 해병들이 어떻게 쳐부시는가를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리라!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자라나 그이의 명령을 받고 싸우는 조선

의 해병이 된 긍지와 자부심이 그들의 가슴속에 차고넘쳤다.
홍동철은 팔소매를 걷어올렸다. 손목시계를 보니 밤 9시였다.
《앓는 동무는 없소?》
《없습니다. 담당준의동무가 오늘도 건강검진을 했는데 모두 정상입니다.》
《그럼 돌아가서 항해준비를 하시오. 한시간후에 출항합시다.》
두 군관은 반달음쳐서 가설잔교로 돌아갔다.
벌써 기미를 차린 정대원들이 항해용식품과 의약품들까지 다 실어서 고정시켜놓고 각기 자기의 전투초소를 차지하고있었다. 이처럼 항해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있어 구태여 더 손을 댈게 없었다.
김군옥은 사뭇 긴장해서 자기를 지켜보는 정대원들에게 우선 속초항으로 이동한 다음 거기서 전투명령을 받게 된다고 알려주었다.
《출항시간은 밤 10시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 눈을 붙여도 되겠소.》
그는 간단히 지시를 주고 자기의 잠자리인 선수갑판으로 가려고 했다. 문화부정대장이 그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아당겼다.
《왜 그럽니까?》
리학섭은 긴숨을 들이쉬고나서 흥분을 가까스로 누르며 모두에게 말했다.
《당원동무들은 당원증을 바치시오.》
순간 모두들 전신을 쩌르르 울려주는 비장하고 엄숙한 흥분에 사로잡혔다.
당원증을 바치라! 이것은 살아서 돌아올수 없는 만약의 경우를 예상한 요구였다.
그렇다! 우리는 만약이 아니라 십중팔구 기지로 돌아올수 없게 된다.
느닷없이 갈마드는 이런 생각에 지금껏 언제나 각오하고있던 죽음앞에 바싹 다가선듯 한 느낌이 들었다. 신경이 힘껏 당긴 활시위처럼 팽팽해졌다.
김군옥은 마음을 진정시키노라 숨을 길게 들이쉬고나서 먼저 품속에서 당원증을 꺼내 바쳤다.
그러고나니 자기가 방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았다. 바친 당

원증과 함께 자기의 운명은 조국의 운명에 합쳐진듯싶었다. 쿵쿵 울리는 심장의 고동소리조차 더 힘있고 엄숙해진것처럼 느껴진다.

리학섭은 당원증을 다 받아 함에 넣고나서 조용히 권고했다.

《고향에 편지를 쓸 동무들은 건국실에 가시오.

거기에 편지지와 철필이 있습니다. 편지를 다 쓰면 자기 책상우에 놓아두십시오. 그리고…》

리학섭은 정대장에게 의논조로 물었다.

《가족군관동무들은 집에 잠간 다녀오게 해야 하지 않을가요?》

김군옥은 문화부정대장의 섬세한 마음에 감동되면서 자책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여태 벼르고벼르어오던 싸움을 앞두고 거기에 온 정신이 쏠려 다른 일에는 관심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문화부정대장은 싸움에 앞서 정대원들의 생활과 감정에 이처럼 육친적인 관심을 돌리고있었다. 이런 정치일군이 곁에 있으니 마음이 든든해졌다.

《그렇게 합시다. 가족이 있는 군관동무들은 얼른 집에 가서 작별인사를 하고오시오.》

가족이 있는 군관이래야 리완근정장과 두명의 기관장뿐이다. 문화부정대장도 장가를 갔지만 아직 가족들을 여기에 데려오지 못했다.

가족을 가진 군관들은 자리를 뜨려고 하지 않았다.

《22호정장동무, 왜 그러고있소? 어서 집에 갔다오시오.》

독촉을 받은 리완근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난 전쟁이 터진 그날에 이미 안해와 작별인사를 했습니다.》

두 기관장도 같은 소리를 했다.

김군옥은 구태여 더 권고하지 않았다.

《그럼 출항하기 전에 눈이나 좀 붙이시오.》

몹시 흥분된 그는 잠자기를 아예 단념하고 가설잔교에서 내렸다.

바다는 잠든듯이 고요해졌다. 배전을 치는 물결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판가리결전이 벌어질 전투항해를 앞두고 단잠에 든 해병들이 깨여날세라 숨을 죽인듯싶었다. 그는 어둠에 잠긴 바다기슭을 천천히 거닐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흥분되고 격동되여 자신을 다잡기 어려웠다. 이제 출항하면 이 정든 군항으로 돌아오지 못

할수도 있었다. 추억의 발자국이 세일수 없게 찍혀진 이 기슭을 더는 걸어보지 못할수도 있고… 그러기에 누구와 모래불에 나란히 앉아 속을 툭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고싶었다.

문화부정대장이 고향에 편지를 쓰라고 했었지.

결사의 각오를 안고 전투항해길에 오르게 된 이 시각 나는 누구에게 흥분된 이 심정을 터놓아야 하는가? 내가 설사 편지를 써도 고향엔 그것을 반갑게 받아줄 일가친척이 없다.

자기를 참된 길로 손잡아 이끌어준 항일투사들의 미더운 모습이 눈앞에 떠오른다.

오토바이기관의 동음을 요란하게 울리며 제법 배머리를 추켜들고 달리는 전마선, 기관총을 설치한 배머리에 서서 불어치는 해풍에 옷자락을 날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던 김성국의 목소리가 귀에 되살아난다.

《좋소! 아주 좋소. 신통히도 어뢰정같구만.

동문 어뢰정정장감이야. 수상보안간부학교에 가서 어뢰정을 배우게. 어뢰정을 타야 싸움판에서 한몫 할수 있소.》

김성국이 자기를 수상보안간부학교에 보내주었다면 조정철은 정신적인 량식을 안겨주고 충성의 항로를 내달릴수 있게 생의 좌표를 그어주었다.

원항해타격훈련을 위해 청진기지에 갔을 때 그가 간곡히 하던 당부도 귀전에 되살아났다.

《어뢰정대는 인민해군을 대표하는 중요한 전투구분대요. 그래서 당에서는 중앙당학교를 나온 일군을 문화부정대장으로 보내준거요. 정대의 쌍기둥인 동무들이 합심을 하고 협력을 해야 정대원들을 펄펄 나는 싸움군으로 키워낼수 있소.

그래야 일단 유사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그 어떤 대적과 싸워도 이길수 있단 말이요.》

그 당부를 명심했기에 나는 훈련일면에만 치우치고 문화사업을 등한히 하던 결함을 고치고 문화부정대장과 손잡고 해병들의 마음을 이끌수 있게 되였지.

김광민교장과 채정보부교장의 모습도 떠오른다.

수상보안간부학교와 해군군관학교시절의 보람찬 나날들이 이밤따라 소중한 추억을 불러주며 의미깊고 친근하게 되새겨진다. 하기에 고향

이 아니라 자기의 참된 삶이 시작된 해군군관학교에, 스승들과 동창생들에게 편지를 써보내고싶었다.

동창생들가운데서 선참으로 떠오르는건 몇달전 남포기지의 어느 한 해안포구분대로 조동된 리대훈이다.

대바르고 결패가 있어 마음에 들었던 친구다.

그가 원항해타격훈련에서 성과를 거둔 우리 어뢰정대를 축하해주려고 절군 고래고기를 목통으로 두개나 가지고왔었지, 참 좋은 친구야, 지금 아마 남포앞바다에 기여드는 적함들을 해안포로 통쾌하게 까부시고있을테지.

뒤이어 눈앞에 떠오르는것은 해군지휘관으로 자라던 못 잊을 학창시절에 자기와 늘 앞자리를 다투던 고준무의 담차고 영악스런 모습이였다.

그가 지휘하는 소포정대는 포탄수송임무를 받고 출항한지 사흘이 되여오건만 왜서인지 아직 돌아오지 않는다.

혹시 항해도중에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겨 지체되는게 아닐가?

고준무는 수상보안간부학교에 입학한 초기 멋없이 우쭐해서 남들을 눈아래로 보면서 이래라저래라 훈시질을 하기 좋아해서 환영을 받지 못했지, 더우기 일부 교원들의 그릇된 주장에 추종하다가 경을 친적도 있었어, 그래서 나와의 사이도 좋지 않았지, 하지만 대담하게 자신을 뉘우치고 유능한 해군지휘관이 되기 위해 전심전력했지, 오늘까지도 변하지 않은건 남에게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그 승벽심이야.

김군옥은 고준무를 만나 수영을 하든 수구를 하든 팔씨름을 하든 마지막으로 승벽내기를 한번만 더해보고싶었다.

모든 면에서 단연 앞자리를 차지하려는 열정적이고 야심만만한 친구를 곁에 둔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런 상대가 곁에 있어야 노상 분발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교실에서 그와 대판 싸우고 처벌로동을 한 것조차 이 순간에 즐겁게 돌이켜졌다.

그러나 원항해타격훈련이 진행된 이후 자기가 그를 몹시 노엽힌적이 있는데 그것이 속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마침 그날은 하기훈련에 진입하는 첫날이라 군관가족들이 떨쳐나와 요란하게 특식을 차렸다. 어뢰정대는 오늘부터 소포정에 승선하여 항해훈련을 하게 되여있어 모두들 더욱 신바람이 났다. 아침식사를 한

어뢰정대는 해군행진곡을 목청껏 부르며 발맞춰 씩씩하게 소포정들이 계류해있는 부두로 갔다.
갑판에 나와있던 소포정대원들은 그들을 보자 괴로운 표정을 짓더니 슬며시 내부구간으로 들어가버렸다. 주인들이 반갑게 맞아주지 않으니 어뢰정대원들은 거북하고 어색해서 부두에 덤덤히 서있었다. 김군옥도 마찬가지였다.
소포정11호의 사령탑에서 모욕이나 당한듯이 시펄뚱한 기색으로 김군옥을 흘겨보던 고준무는 상대방이 정작 갑판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쭈빗거리는걸 보자 버럭 역정을 썼다.
《젠장! 눈치를 보긴… 왔으면 어서 승선하라구!》
김군옥은 미안해서 차마 그를 마주보지도 못했다. 자기가 너무했다고 생각되였는지 고준무는 애써 언성을 낮추었다.
《자! 어서 배에 오르라구.》
《고맙네.》
《고맙기까지야… 어쩔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러나 부탁이 있네. 동무도 아다싶이 우린 함선도장을 한지 열흘도 안됐네. 그러니 색감이 벗겨지거나 어지러워지지 않게 될수록 주의해주게.》
김군옥은 가슴이 뭉클했고 코허리가 시큰했다.
고준무와 소포정대원들은 자기들의 함선을 이처럼 제 살점과도 같이, 눈동자와도 같이 아끼고 사랑하고있었던것이다.
김군옥은 자책을 금할수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어뢰정을 탄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함선들은 하찮게 여겨왔지, 확실히 나는 겸손치 못하고 허심하지도 못하며 우쭐해서 자신을 과신하기 좋아하지, 그래서 고준무와 공연히 성격을 살리고 티각태각한거야, 이제라도 그 친구를 만나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빌었으면 좋으련만…
고준무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기다렸던듯 그 처녀, 김정인의 억세고 아름다운 모습이 보름달처럼 둥실 떠올랐다. 어둡던 바다기슭이 갑자기 밝아진것처럼 느껴졌다. 바다도 흥분을 누잦히노라 모지름을 쓰는듯싶었다. 넘실넘실 소리도 없이 잔뜩 부풀어올랐다가는 거품인양 푹 꺼져내리고 잠시후 다시 부풀어오르고…
불시에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군의소에 달려가 그 처녀를 만나고싶었다. 나에겐 동무밖에 없다고, 이 세상 수많은 처녀들중에서 동무가 제일로 아름답다고 열정적으로 속삭이고싶었다. 하지만 완강한 의지로 자신을 억제했다.

정인이가 원산기지에 갓 조동되여왔을 때 군의소에 찾아갔다가 그만 자기가 집행해야 할 상학시간을 지키지 못한 일이 생각났다.

이제 군의소에 찾아갔다가 피치 못할 일로 출항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어이하랴, 이것은 전쟁전 상학시간을 지키지 못한것과는 다른 문제다, 지금은 전쟁시기다, 오로지 싸움할 생각만을 해야 한다, 출항준비상태를 다시한번 검열해보자.

잔교에 오르려던 그는 인기척이 나서 돌아섰다.

어둠속의 모래불에 누군가 서있었다. 소독수냄새가 아카시아꽃향기처럼 은은히 풍겨온다. 구태여 얼굴을 보지 않아도 알만 했다. 그 처녀, 정인이였다.

《전투임무를 받았지요?》

몹시 흥분된 처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김군옥은 되물었다.

《누가 그럽디까?》

《제 예감이 그래요.》

김군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는 설레이던 가슴이 진정되며 따스해짐을 느꼈다.

이 처녀를 만나고싶었다. 속을 툭 터놓고 열정적으로 속삭이고싶었다, 나는 동무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정작 만나니 할말이 없다. 하기야 영원한 작별이 될는지 모를 이 시각에 구태여 그런 말을 해선 무엇하리.

김정인은 단호히 말했다.

《정대장동무, 저두 함께 가겠어요.》

김군옥의 가슴에는 행복감이 그들먹이 차올랐다.

세상엔 수많은 청춘남녀가 있다. 그들은 쌍쌍이 사랑을 속삭인다. 개중엔 싸움터로 떠나는 총각을 눈물로 배웅해주는 처녀들도 적지 않으리라. 그러나 생사를 기약할수 없는 싸움터에 함께 가자고 서슴없이 따라서는 처녀는 몇이나 될가? 정인이, 동무말고 또 있을가?

김군옥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건 안되오.》

총각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처녀의 눈동자가 어둠속에서도 별빛인양 반짝이였다.

《우린 다시 만나지 못할수도 있잖나요. 난 헤여지고싶지 않아요.》

김군옥은 여유있는 미소를 지었다.

《무슨 소릴 하는거요? 난 꼭 돌아오겠소. 그때 우리가 던지는 계류바줄을 정인동무가 받아주길 바라오.》

더는 말이 없었다. 바다도 숨을 죽인듯 고요했다. 쿵! 쿵! 두 심장이 높뛰는 소리만 들릴뿐…

밤하늘에서는 별들이 아름답게 반짝이였다.

문득 어뢰정들의 갑판우에서 부산스런 소리가 나더니 김도형정장의 부름소리가 울려왔다.

《정대장동지!》

꼼짝없이 서있던 김군옥은 펀뜩 정신이 들어 얼른 손목시계를 보았다. 시간은 그야말로 쏜살같이 흘러서 벌써 10분전 10시였다.

《자, 그럼…》

그는 가설잔교를 향해 날듯이 달려갔다.

김정인은 정신조차 혼미해져서 잠시 그대로 숨죽이고 서있었다. 마치도 자기가 한낮의 따스해진 바다물에 고요히 잠겨있는것 같기도 하고 달콤한 꿈을 꾸는것 같기도 했다.

가설잔교에 계류한 어뢰정들의 갑판우에서 불빛들이 반짝거리더니 보조기관들이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뒤이어 정대장과 정장들의 구령소리와 해병들의 복창소리, 갑판을 구르며 달려가는 소리, 쇠붙이가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그는 모두었던 숨을 호 내쉬고나서 흐트러진 머리칼을 손으로 찬찬히 비다듬고 군복매무시도 바로잡고나서 천천히 잔교에 올라갔다.

《너 정인이 아니냐?》

잔교우에 작전과장과 함께 서있던 홍동철은 어둠속에서 불쑥 나타난 처제를 보자 놀라와했다.

《어떻게 왔니?》

김정인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아저씨의 질문이 저으기 고까왔다.

내가 어뢰정대 담당준의라는걸 아저씨는 모른단 말인가? 알면서야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수가 있어?
처제의 토라진 속마음을 뒤미처 헤아려본 홍동철은 우정 소리내여 허허 웃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손으로 이마를 툭 쳤다.
이것 봐라! 정인이를 보니 생각나는군, 내가 아직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못했지, 하마트면 까먹고 그냥 바다에 나갈번 했군, 이거 어쩐다?!
《여보, 작전과장동무.》
《예.》
《거 부르기 좋고 뜻도 깊은 이름을 하나 제꺽 지어주구려.》
그야말로 때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부탁이라 한백천은 어정쩡해졌다.
《내 갓 낳은 아들에게 아직 이름을 지어주지 못해서 그러오. 빨리 생각해내라니까.》
한백천은 저으기 급해맞았다.
《이거 갑자기 좋은 이름이 생각날수가 있습니까. 좀 궁리해봅시다.》
《시간이 없소. 7분후엔 출항이야!》
21호정의 사령탑에서 정장들로부터 출항준비정형을 보고받던 김군옥이 잔교쪽에 대고 큰소리로 웨쳤다.
《기지장동지! 걱정마십시오. 아들이름은 우리가 벌써 지었습니다.》
홍동철은 이게 웬 떡이냐? 하듯이 그쪽을 얼른 바라보았다.
《뭐라고 지었나?》
김군옥은 그저 싱글벙글 웃기만 했다. 김정인이 얼른 귀띔을 해주었다.
《홍해남이라고 지었어요.》
그런즉 바다사내란 뜻이다. 홍동철은 즉시 쌍수를 들어 찬성했다.
《좋다! 어서 가서 언니에게 알려주거라.》
《아니, 아저씨도 어뢰정대와 함께 가세요?》
홍동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뢰정21호의 선수갑판에 뛰여올랐다. 한백천도 뒤를 따랐다.

쾅! 짜르릉—

21호정의 주기관이 선참으로 폭음을 울렸다.

이에 호응하여 세척의 대렬정들도 별안간 선체를 푸들푸들 떨면서 다투어 요란하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짜릉! 짜릉! 하는 소리가 따웅! 따웅! 하고 울부짖는 호랑이의 노성처럼 울렸다. 도래굽이에 차분히 깃들었던 정적은 순간에 산산쪼각이 났다. 후끈하고 매캐한 배기가스가 어뢰정들의 꽁무니에서 삼단같이 뿜어나와 삽시에 가설잔교와 모래불을 휩쌌다.

정인에게는 숨이 턱턱 막힐것 같이 역한 배기가스냄새가 오늘따라 구수하게만 느껴졌다. 배기가스에 쏘여 눈물이 나왔지만 처녀는 삼단같이 자옥한 연기속에 그냥 지켜서서 어뢰정들의 출항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보았다.

짙은 배기가스속에서 호각소리, 구령소리, 복창소리가 씩씩하게 울렸다.

《선수바줄 올렷!》

졸지에 가설잔교에 홀로 남은 김정인은 부랴부랴 계류바줄의 올가미를 벗겨 힘껏 던져주었다.

《선미바줄 올렷!》

김정인은 그쪽으로 얼른 달려가 선미바줄의 올가미도 벗겨주었다.

《삿대 밀엇! 미속으로 전진!》

고속기관들이 더 용을 쓰니 어뢰정들의 꽁무니에서 세찬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추진기가 돌면서 바다물을 힘껏 비틀어 차던지는것이다. 반작용으로 어뢰정들은 씽하니 앞으로 달려나갔다.

김정인은 가설잔교끝에 서서 어둠속 저 멀리로 사라져가는 어뢰정들의 동음에 이슥토록 귀를 기울이였다. 뜨거운 눈물에 가리워 어뢰정들의 사령탑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천만갈래로 부서졌다.

《동무들! 꼭 승리하고 돌아오세요.》

처녀는 마음속으로 절절히 당부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기다리겠어요.》

짙은 배기가스는 사라지고 청신한 해풍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못박힌듯 서서 어뢰정대가 사라진쪽을 지켜보던 처녀는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섰다. 모래불의 어둠속에 여러 사람이 서있는게 어

슴푸레 눈에 띄였다. 그는 서둘러 잔교에서 내려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어린애를 안고 나온 언니와 군관가족들이였다.

마음을 언제나 남편들의 전투함정에 싣고 사는 녀인들은 방금전 군항을 통채로 뒤흔들며 요란하게 울린 어뢰정들의 동음을 듣고 잠자리에서 뛰쳐나 허둥지둥 달려나온 참이였다. 야속하게도 어뢰정대는 이미 출항하고 보이지 않았다. 저 멀리로 사라져가는 고속기관의 동음만 알릴듯말듯 울려올뿐…

《언니, 아저씨도 함께 갔어요.》

정녀는 의례히 그럴줄 알았던지라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아기의 이름은 해남이라고 지었어요.》

정인은 차거운 바다바람을 맞을세라 포단과 머리수건으로 꽁꽁 감싼 조카애를 소중히 받아안았다. 어뢰정의 지독한 배기가스냄새와 너무도 대조되는 달콤한 젖냄새가 몰몰 풍기며 코끝을 간지럽힌다. 불시에 목이 꽉 메였다.

《해남아! 요 귀염둥이야! 네 아버지는 용감한 어뢰정대원들과 함께 미제침략선을 까부시는 싸움터로 떠나가셨단다. 너의 요람을 지키기 위해, 너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서늘한 해풍이 불어왔다.

녀인들은 이젠 거의나 들리지 않는 어뢰정들의 동음에 그냥 귀를 기울인채 오래도록 움직일줄 몰랐다.

23

요란한 동음으로 하늘과 바다를 뒤흔들며 어뢰정대는 종대를 지어 내달렸다. 선두에 선 기정에는 홍동철기지장이, 22호정에는 한백천작전과장이 타고있었다. 리학섭은 바다에 나갈 때면 언제나 그러하듯이 24호정사령탑에 있었다.

따웅! 따웅!

짜릉! 짜릉!

고속기관들은 겨끔내기로 련이어 폭음을 울리며 추진기를 돌렸다. 그 동음에 귀를 기울이노라니 김군옥은 은근히 초조하고 불안스러워졌다.

출항을 앞두고 그는 어뢰정들의 기관사용시간을 다시한번 따져보았었다. 21호정과 22호정은 상륙작전에 참가하고나니 남은 사용시간이 25시간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두척도 35시간정도다. 이번 전투를 치르고나면 설사 어뢰정들이 기지로 돌아온다고 해도 더는 쓸모가 없게 된다.

결국 이번 해상전투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다시는 싸워볼 기회가 없다, 다시는…

짜릉! 짜릉!

요란한 동음과 함께 기관사용시간은 각일각 줄어들고있었다.

감시근무를 서는 박원협갑판장이 소리쳤다.

《지휘소! 전방 좌우에서 기뢰부설작업을 하는 함선들 발견!》

김군옥은 전방 좌우를 살펴보았다.

어둠속에서도 여기저기 널려있는 함선들의 형체가 얼핏얼핏 눈에 띄웠다.

《정대 속력감소!》

정대장의 명령에 따라 어뢰정들은 즉시 속도를 떨구고 채정보대좌가 해도에 그어준 안전항로를 따라 조심스레 나아갔다.

기뢰부설함에서 반짝반짝 불빛신호가 왔다.

《안전항해를 바람!》

입출항을 할 때면 함정들사이에 의례히 주고받던 해병식인사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신호에 담겨진 의미가 각별하게 여겨지면서 코마루가 쩡해졌다. 갑판장은 불빛신호로 답례를 보냈다.

김군옥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큰소리로 채기정을 불렀다. 해도실에서 기관실에 필요한 조종신호를 보내던 채기정은 웬일인가 해서 사령탑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아버지와 작별인사를 하라구.》

《그건 무슨 소립니까?》

김군옥은 저쪽에서 반짝거리는 불빛들을 가리켰다.

《저기서 채정보대좌동지가 기뢰부설전투를 지휘하고있단 말이요.》

채기정은 씩 웃더니 돌아앉아 정색해서 기관조종간을 틀어잡았다.
《여! 작별인사를 안하겠어?》
김군옥이 해도실에 대고 큰소리로 묻자 채기정은 조종간을 억세게 틀어쥔채 고개짓으로 옆에 준비해놓은 속사첩을 가리켰다.
《난 〈볼티모〉 호가 격침되는 통쾌한 장면을 속사해서 아버지에게 기념으로 드리자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김군옥은 일순 긴장하고 불안해졌던 마음이 평온해졌다.
《왜 아버지에게만 보여드리겠나. 〈볼티모〉 호의 격침장면을 잘 그려서 인민군미술전람회에 출품하면 틀림없이 1등을 하게 될거요.》
고사총좌지에 앉아서 해상감시를 하면서도 귀동냥을 하던 박원협이 석쉼한 목소리로 덩달아 홍에 겨워 소리쳤다.
《왜 그림만 그리겠습니까. 난 이번 해상전투를 노래한 서사시를 쓰겠습니다.》
타륜을 잡고있는 김도형정장이 맞장구를 쳐주었다.
《서사시의 주인공은 누구로 선정하겠나?》
《우리 정대장동지지요.》
《이 김도형이도 나오겠지?》
《물론이지요. 기정의 정장이 아닙니까. 주요인물로 형상하겠습니다. 대신 전쟁이 끝나면 이 시인을 안변에 초청해서 감을 실컷 먹여줘야 합니다.》
《아직 쓰지도 않은 작품을 놓고 받아먹을 생각부터 하는걸 보니 케가 글렀어.》
하하하! 즐거운 웃음소리가 파도소리를 뚫고 울렸다.
어뢰정들은 한참후에야 기뢰부설구역을 조심스레 벗어나 압룡단을 돌아섰다.
《속력증가!》
어뢰정들은 박차를 가한 준마들처럼 속력을 올리고 린광이 번뜩거리는 잔파도를 쭉쭉 가르며 남으로 내달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어둠속에서 저기 해안쪽에 웅기중기 일어선 거대한 돌기둥같은것이 어슴푸레 보였다.

《총석정이요!》

정대장의 말을 들은 채기정은 얼른 사령탑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천하절승이라는데 잘 보이지 않는군요. 낮에 보았으면 속사를 해두는건데…》

《놈들을 족치고 돌아올 때는 여기서 발동을 끄고 해뜨는 시간을 기다리자구. 그래야 총석정의 해돋이를 볼수 있지. 마음놓고 그림도 그리라구.》

《고맙습니다.》

김도형이 끼여들었다.

《여긴 도미가 많다는데 이왕이면 낚시질을 해서 둬두름 잡아갑시다. 해남이 어머니랑 아주머니들에게 주면 좋아할겁니다.》

《거 욕심이 지나치구만. 우린 그저 〈볼티모〉호만 잡으면 되는거야. 바싹 정신차리라구. 도미생각을 하다간 고래를 놓칠수 있어.》

김군옥은 이렇게 주의를 주었다.

이윽고 장아대단과 삼일포앞을 지나갔다. 푸름푸름 날이 밝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는 군사분계선 남쪽해상이다. 출렁이는 파도도 어서오라고 어뢰정대를 반겨주는듯싶었다.

날이 훤히 밝아서야 속초항에 들어섰다.

시계를 보니 열시간나마 장기항해를 했다.

속초항은 그리 크지 않은 항구인데 놈들의 함포사격에 몹시 파괴되여 한산하고 어수선했다. 깨진 고기배의 잔해들과 불에 그슬린 나무통들이 여기저기 떠있어서 자칫하면 어뢰정에 부딪칠수 있었다. 속력을 죽이고 모두 삿대를 들고나서서 부유물체들을 밀어던지면서 가까스로 입항을 했다.

깨진 부두에 나와있던 해상륙전대원들이 몹시 반가와서 수고했다고 큰소리로 인사를 하며 계류바줄을 받아주었다.

홍동철은 정대장에게 빨리 위장포를 치고 항해후정비를 하라고 지시를 주고나서 작전과장과 함께 부두에 내렸다.

대원들과 함께 어뢰정대의 계류작업을 도와준 소위가 거수경례를 하며 자기가 항을 경비하는 구분대를 책임졌다고 보고했다.

《소위동무, 어뢰정들에 연유를 보충해줄수 있소?》

《예, 련락을 받고 준비해놓았습니다.》
《연유창은 무사했던 모양이군.》
홍동철은 피곤이 거미줄마냥 잔뜩 엉켜붙은 얼굴을 손바닥으로 비비고나서 텅 비다싶이한 부두를 주의깊게 둘러보았다.
《소위동무, 혹시 우리 소포정들을 보지 못했소?》
정장들에게 임무를 주던 김군옥은 그 물음에 귀가 솔깃해져서 소위를 돌아보았다.
《소포정들은 어제 아침 여기에 들려서 연유와 청수를 보충받고 주문진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돌아서지 못했을가?
난 그들을 여기서 만나게 될줄 알았는데…》
홍동철은 소위를 앞세우고 정박장초소로 올라갔다. 한백천도 그들의 뒤를 따랐다. 김군옥은 정장들과 함께 묘박지를 습격할 때 있을수 있는 여러가지 정황에 대처한 전술방안을 토의하였다. 정대원들은 밤을 꼬박 밝히며 항해해서 몹시 피곤했지만 어뢰정들에 위장포를 씌우고 항해후 정비를 하면서 동시에 연유와 청수를 보충받을 준비를 하노라 분주히 돌아쳤다.
리학섭은 위생지도원과 함께 부두에서 좀 떨어진 그늘진 장소에 땅가마를 걸었다. 그는 식빵을 비롯한 항해용식품이 있지만 출전을 앞둔 해병들에게 따끈한 흰쌀밥에 더운 국을 먹이고싶어서 가마와 쌀을 싣고왔다. 마른 나무가지를 주어다 불을 지피고 쌀을 일어 가마에 안치고 반찬을 만드는 솜씨가 여간이 아니였다. 가뜩이나 텁텁하게 생긴 그는 이럴 때 보면 푸수한 취사원아바이같았다.
이윽고 흥겨운듯 들썩들썩 춤을 추는 가마뚜껑밑에서 흰김이 뿜어나오고 밥잦는 구수한 냄새가 안정감과 친근감을 안겨주며 풍겼다.
또이요, 또이요, 또이또이또이요!—
식사시간을 알리는 함선호각소리가 군항에 있을 때나 다름없이 신나게 울려퍼졌다.
김군옥은 해도를 접었다.
《자, 식사를 합시다.》
정장들은 일손을 뗀 정대원들과 함께 시원히 세면을 하고나서 식사를 푸짐하게 차려놓은 바다기슭의 나무그늘안에 빙 둘러앉았다.

장시간 항해를 하고 뭍에 오르면 누구나 식욕이 부쩍 당기는 법이다. 더우기나 해방된 남쪽지역의 항구에 들어와 처음으로 하는 식사인지라 그 맛이 정녕 각별했다.
정대원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함께 한 홍동철은 탄복을 금치 못했다.
《어허! 이거 요란한걸, 어뢰정대의 식사질이 이렇게 높은줄은 몰랐구만. 허, 이것 봐라! 고추장까지 있군.》
아닌게아니라 반찬접시 가운데 한숟갈씩 떠놓은 새빨간 깨고추장이 각별히 눈길을 끌었다.
김군옥은 자랑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채기정동무의 어머니가 보내온겁니다.》
《음, 료리솜씨가 대단하오.》
정박장초소에까지 오르내리노라 식욕이 부쩍 동한 홍동철은 부지런히 수저를 놀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곁에 앉은 한백천은 속이 말짼지 상을 찡그리고 음식을 먹는둥마는둥했다.
《이 오이김치가 과연 별맛이군.》
기지장의 칭찬에 김군옥은 빙그레 웃었다.
《그건 해남이 어머니의 솜씨랍니다.》
《음, 글쎄 어쩐지… 요거 밥도적은 누구 솜씨지?》
기지장이 풋고추를 곁들여 졸인 멸치를 가리키자 강순봉이 기다렸던듯 얼른 대답했다.
《담당준의동지가 만든겁니다.》
홍동철은 허허 웃었다. 자기가 전번엔 안해를 칭찬했고 이번엔 처제를 칭찬한셈이였던것이다.
《이 완자는?》
위생지도원 오익섭이 말없이 식사를 하고있는 리완근정장을 슬쩍 눈짓으로 가리켰다.
《아주머니의 솜씨랍니다.》
김도형정장은 문득 수저를 멈추더니 짜장 근심스러운듯 말했다.
《이번에 우리가 잡아도 집채같은 고래를 잡아가지고 가야지 빈손으로 돌아갔다가는 아주머니들을 볼 낯이 없겠소. 아마 완근정장은 집뜨락에 들어서지도 못할걸.》
리완근은 그저 빙그레 웃기만 하는데 정대의 막내이며 24호정의 고

사촌수인 강순봉이 꽉 틀어쥔 주먹을 흔들었다.
《그러게 기어이 까부셔야지요.》
깊은 생각에 잠긴채 식사를 하던 채기정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기관사용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번에 일을 치지 못하면 더는 기회가 없소.》
《수류탄을 다 꺼내여 선수갑판에 무져놓읍시다.》
《그건 어째서?》
《어뢰 두발을 쏴갈기고도 적함을 침몰시키지 못하면 선체육박을 해야지요.》
《옳소! 우리 몸이 육탄이 되여서라도 기어이 적함을 까부셔야 해!》
모두들 기가 뻗쳐 웅웅대는데 오익섭이 국자를 휘두르며 돌아갔다.
《자! 어서 국곱배기를 청하게. 배집이 든든해야 싸움도 잘할수 있소!》
저마다 국그릇을 내밀며 곱배기를 청했다.
한백천은 심사가 좋지 않았다.
거의나 승산이 보이지 않는 해상전투를 앞두고 어쩌면 모두들 이렇게 등산이나 천렵을 나온것처럼 히히덕거리며 식사를 할수 있는지 리해되지 않았다. 그는 몹시 긴장해서 그런지 밥과 반찬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다. 적정을 두고봐야 했다.
만약 적함들이 야간에 묘박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난사다.
아! 이게 뭐야?
공교롭게도 물고기가시가 목구멍에 걸렸다. 그는 얼른 돌아앉아 입을 크게 벌리고 카! 카! 구토질을 했다. 가시는 반발하듯 목구멍을 더 아프게 따끔따끔 찔러댔다.
여느때없이 별로 말도 안하고 불안해하는 작전과장에게 마음이 씌여있던 김군옥은 얼른 수저를 놓고 그에게 다가갔다.
《왜 그럽니까?》
한백천은 고통스럽게 오만상을 찡그렸다.
《젠장, 물고기가시가 목에 걸렸소.》
《어디 좀 봅시다.》
한백천은 어쩔수없이 입귀가 찢어질 정도로 입을 크게 벌렸다. 김군옥은 눈정기를 모아 그의 목안을 들여다보았다. 물고기가시는 눈에

띄우지 않았다.

《위생지도원동무, 이거 어쩌면 좋소?》

오익섭이도 난감한 기색이였다.

《글쎄요. 참, 이걸 대충 씹어서 넘겨보십시오.》

그는 오이김치 한토막을 작전과장의 입에 넣어주었다. 한백천은 그것을 고통스럽게 넘기더니 더 상을 찡그렸다.

《그럼 식초를 마셔보십시오.》

그것도 소용이 없었다. 오익섭은 당황해났다.

《이거 야단인데… 목구멍에 걸린 물고기가시를 인차 뽑지 못하면 잘못될수 있습니다.》

한백천은 급한통에도 신경질을 부렸다.

《여보! 그따위 소린 그만두오. 전쟁판인데 바다에 나가서 싸우다 죽으면 몰라도 물고기가시가 목에 걸려서 죽는다는게 말이 되오? 아! 아이고!》

그는 두눈이 빨개지도록 련속 구토질을 했다.

《그러게 담당준의동무를 데리고올걸 그랬습니다.》

채기정이 어뢰정에 달려가서 정비용알콜병을 들고왔다.

《자, 이걸 마셔보십시오.》

그것도 효과가 없으니 정말 야단이 났다.

박원협갑판장은 무슨 생각이 났는지 무너진 부두에 달려가 찢어진 그물쪼박을 주어가지고 왔다.

《자! 이걸 목에 감아보십시오.》

한백천은 오만상을 찡그린채 도리질을 했다.

박원협은 약장사처럼 그럴듯하게 엮어댔다.

《내 어릴적에 해녀출신인 할머니에게서 들은건데 물고기가시가 목에 걸렸을 땐 고기그물을 목에 감는게 상책이라더군요. 그러면 물고기가시란 놈이 무서워서 톡 튀여나와 도망친다는겁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래기라도 쥔다고 한백천은 그물쪼박을 받아 목에 감았다.

세계해전사를 강의하던 《뽀쫌낀》이 그물쪼박을 목에 감고 행여나 해서 앉아있는 모습이 실로 가관이여서 모두들 와하하! 폭소를 터뜨렸다. 한백천은 얼굴을 왈칵 붉히며 그물쪼박을 풀어 내동댕이치더니

저도 우습던지 큰소리로 웃어댔다. 그러다가 떡 굳어졌다.
《어! 이게 뭐야?》
놀란 소리를 치는 그를 모두 눈이 둥그래서 바라보았다.
한백천은 얼굴이 환해서 손바닥에 튀여나온 머리칼처럼 가느다란 물고기가시를 그 무슨 자랑거리나 되는듯이 보여주었다.
《가시가 나왔소. 요렇게 쪼꼬만게 말썽을 부렸다니까.》
모두들 안도의 숨을 내쉬며 한마디씩 했다.
《그러게 작다고 숫보면 안되지요.》
《작아도 고추알이라는 말이 있잖나.》
《맹수도 가시가 목에 걸리면 꼼짝없이 죽는다고 하더군요.》
박원협은 큰 공로나 세운듯이 으쓱해서 한백천이 내동댕이친 그물쪼박을 주어들었다.
《보십시오. 이게 은을 냈다니까요. 위생지도원동무, 이걸 잘 건사해두게.》
오익섭이 한수를 더 떴다.
《그건 작전과장동지에게 드리게. 그걸 건사하고있으면 두번다시 물고기가시가 목에 걸리지 못할거요.》
또다시 폭소가 터졌다.
식사후 함선정비가 계속되였다. 초소정비를 먼저 진행한 후 모두가 달라붙어 어뢰정의 마스트로부터 사령탑과 갑판, 현측에 이르기까지 먼지 한점, 소금이 한알갱이라도 있을세라 깨끗이 닦아냈다. 전투를 앞두고 하는 마지막정비여서 이처럼 정성을 다 쏟아붓는것이였다. 선체청소까지 끝내고나서 모두들 모래불에 나가앉아 숨을 돌리며 새서방처럼 멀끔해진 어뢰정들을 정이 담긴 만족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채기정은 속사첩을 펼치고 어뢰정들의 모습을 그렸다. 그의 속사첩에는 보람찬 해병생활의 이모저모가 다 담겨져있었다. 그는 전투출항을 앞둔 어뢰정대의 모습을 속사한 다음 아래에 《속초항에서 1950년 7월 1일》이라고 써넣었다.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정대원들이 감탄을 했다.
《야! 정말 멋지게 그렸소!》
《솜씨가 있다니까요.》

채기정은 겸손하고 어줍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솜씨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어뢰정들이 아주 멋지게 잘 생겼지요. 외국의 한 작가는 세상에 아름다운게 세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돛을 올린 전함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달리는 준마의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춤추는 처녀의 모습이라는겁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전속으로 달리는 어뢰정의 모습이 더 아름답고 멋이 있더군요.》

정말로 그랬다. 볼수록 아름답고 정이 가는 어뢰정들이였다.

박원협이 격정에 북받쳐서 더는 견딜수 없었던지 벌떡 일어나 한손을 높이 추켜들었다.

아! 볼수록 정답구나
어뢰정이여
조국에 바치는 이내 청춘을
긍지로 꽃펴주는 나의 집이여

파도에서 구을던 옥돌인가
네 모습 빠짐없이 다듬어져
곡선미로 아름다운 선체허리엔
은띠인가 잠김선이 선명하구나

이제 당장 기운차게 배고동 울고
마스트에 공화국기 펄펄 날리면
저 바다 쭉 가르며 수평선을 당겨오리
나의 사랑 나의 자랑 어뢰정이여

풍어의 노래높던 우리 바다에
미제침략선들 침입했으니
너도나도 리별없이 달려나가자
기다려 마지않던 습격의 항로

우리 어찌 바라랴

살아서 군항에 돌아오기를
그 항로에 내가 육탄이 되면
너 또한 육탄이 되여야 하리

오! 어뢰정이여!
네 모습 크지 않아도
내 목청껏 자랑하고싶노라
동해천리 너와 함께 주름잡으며
일생토록 전속으로 내달리고싶어라
이 심장속엔 언제나
조국의 바다가 출렁이기에…

박수갈채가 일어번졌다. 21호정의 사령탑에서 작전안을 다시 검토하던 김군옥도 박수를 쳤다. 박원협이가 어뢰정을 사랑하는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자작시에 담아 읊은것만 같았다.

《여! 갑판장! 동문 정말 해병시인이요! 전쟁이 끝나면 시인이 되라구!》

정대장의 값비싼 칭찬을 받은 박원협은 흐뭇해서 싱글벙글 웃었다.

이때 홍동철기지장이 다가왔다.

《정대장동무, 위대한 장군님의 전투명령을 전달할 시간이 됐소. 문화부정대장동무가 어디에 있소?》

김군옥은 야외취사장에 대고 소리쳤다.

《문화부정대장동무!》

위생지도원과 함께 점심밥을 짓노라 땀을 철철 흘리며 돌아가던 리학섭은 얼른 일손을 놓고 군복매무시를 바로잡으며 달려왔다.

가뜩이나 거무틱틱하게 생긴 그의 얼굴은 숯검뎅이와 나무재가 붙은데다가 땀이 줄줄 흘러내려서 보기 흉했다. 그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대충 문지르고 기지장에게 차렷자세를 취했다.

《문화부정대장동무, 위대한 장군님의 전투명령을 어떤 형식으로 전달했으면 좋겠소?》

리학섭은 이미 계획했던지라 즉시 대답했다.

《해병결의모임을 엽시다.

먼저 기지장동지가 전투명령을 전달한 다음 결의토론들을 하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 삼가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홍동철은 손목시계를 보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준비를 해야 하겠구만. 시간이 얼마나 요구되오?》

《다 준비되여있습니다.》

홍동철은 저으기 놀랐다.

정대원들과 꼭같이 항해를 하고 입항을 하자 식사준비로 누구보다 바삐 돌아친 문화부정대장이 어느 하가에 해병결의모임을 준비했는지 알수 없기때문이였다.

리학섭은 전투가방을 열고 종이를 꺼냈다.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맹세문초안입니다. 보시고 의견을 주십시오.》

홍동철은 몸가짐을 바로하고 정중히 그것을 받았다.

맹 세 문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장군님이시여!

조국의 바다에 오만하게 기여든 미제침략선들을 수장시키고야말 결의에 충만된 우리들은 전투출항을 앞두고 당신에게 이 글월을 드립니다.

조국의 바다는 끝없이 넓지만 미제침략선이 떠있을 자리는 한치도 없다는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의 가슴은 조선로동당의 참다운 전사답게, 항일선렬들의 고매한 뜻을 이은 조선청년답게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용감히 싸워 미제침략자들을 바다속깊이 수장해버릴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습니다.

우리들은 판가리결전장으로 나가면서 경애하는 수령이신 당신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는바입니다.

7월 1일

제2어뢰정대 해병일동

홍동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맹세문 초안을 정대장에게 넘겨주었다. 김군옥은 그것을 자자구구 새겨가며 읽어보았다.

맹세문은 길지 않았지만 어뢰정대원들의 심장에 차넘치는 결사의 각오와 필승의 신념이 글줄마다 뜨겁게 맥박치고있었다. 조국의 바다는 끝없이 넓지만 미제침략선이 떠있을 자리는 한치도 없다는 대목이 각별히 마음에 들었다.

《그럼 점심식사후에 인차 해병결의모임을 시작합시다.》

적들의 공습에 대처하여 바다기슭의 나무그늘속에 들어가 모임을 하기로 했다.

식사를 한 정대원들이 나무그늘아래 렬을 지어 앉는데 불쑥 저 멀리 남쪽해상에서 쿵! 쿠쿵— 하고 둔중한 포성이 울려오기 시작했다.

미제침략군 기동분함대의 함포사격소리가 분명했다. 각이한 구경의 함포들이 련이어 울부짖고있었다. 그 소리에 놀랐는지 격분했는지 별안간 바다가 무섭게 울부짖으며 태질을 했다. 허연 거품을 물고 날뛰는것이 꼭 미치광이같았다. 사납게 달려들어 기슭을 때리고 물어뜯었다.

미역과 다시마를 비롯한 바다풀들이 파도에 갈기갈기 찢기여 기슭에 밀려나왔다.

그것은 마치도 포악스런 야수가 짓씹다가 뱉아버린 연약한 짐승의 뼈부스레기나 껍질과 흡사했다.

갈매기를 비롯한 바다새들이 기겁해서 날아예며 피터지는 소리로 귀아프게 울어댔다.

대기를 흔들며 계속 울려오는 둔중한 함포소리, 사납게 울부짖는 파도소리와 바다새들의 울음소리는 모임에 참가한 정대원들의 피를 더욱 끓게 해주었다.

모임이 시작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2어뢰정대에 직접 하달하신 전투명령문을 홍동철기지장이 전달하였다.

명령 1950년 7월 1일

조국의 령해에 침입하여 야수적인 함포사격으로 평화적건축물들을 파괴하고 인민들을 살해하며 인민군지상부대들의 진출을 저지시켜보려고 책동하는 미제침략군 해군함선들을 7월 2일 새벽 묵호앞해상

에서 어뢰야간공격으로 격침시킬것.

토론이 시작되자 김군옥이 먼저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동무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각을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우리는 바로 오늘을 위해 평화로운 나날에도 사나운 날바다우에서 훈련 또 훈련으로 피처럼 진한 땀을 아낌없이 흘려왔습니다.
우리가 타격해야 할 미제침략군 기동분함대는 지상의 군단에 맞먹는 너무도 엄청난 무력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출명장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몸소 심어주신 백두의 공격정신과 우리 식의 전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필승의 무기입니다.
하기에 우리 어뢰정들에 장진한것은 단순한 어뢰가 아니라 항일선렬들이 물려준 연길폭탄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폭탄을 적중순양함의 심장부에 명중시켜 기어이 침몰시키겠다는것을 맹세합니다!》
모두들 일제히 박수를 쳤다.
이어 정장들을 대표하여 리완근이가, 기관장들을 대표하여 채기정이 결의토론을 했다. 모임을 끝내려는데 24호 조기조장 리시찬이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평소엔 말이 없어서 하루종일 그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 없었다. 그저 짬만 있으면 기관실에 들어박혀서 말없이 수걱수걱 정비나 하던 그였지만 오늘은 흥분된 심정을 터놓고싶은 모양이였다.
《동무들! 다 알다싶이 고속기관은 어뢰정의 심장입니다. 이 심장이 고동을 멈추면 어뢰정은 움직일수 없으며 적함을 까부실수 없습니다. 때문에 나는 피끓는 나의 심장을 바쳐서라도 전투항해의 전기간 고속기관의 만가동을 보장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다집니다.》
그러자 정대의 막내인 강순봉이도 일어났다.
《나는 고사총수로서 공중과 해상감시를 잘하여 적함을 제때에 발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무엇때문인지 머뭇거리던 그는 다시 고개를 추켜들며 챙챙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전투출항을 앞두고 민청원인 나는 조선로동당원으로 받아줄것

을 청원합니다.》

모임이 끝나자 취침구령이 내렸다. 야간전을 하려면 낮에 잠을 충분히 자야 했다. 당직근무성원들을 제외한 정대원들은 나무그늘아래 주런이 드러누워 잠을 청했다.

김군옥은 습관대로 21호정의 선수갑판에 드러누웠다. 전투를 앞두고 긴장해질대로 긴장해져서 그런지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서 잠이 오지 않았다. 억지로라도 잠을 자야 했다. 그는 두눈을 지그시 감고 속으로 셈세기를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잠이 올사하는데 공교롭게도 누군가 갑판에 올라서는 소리가 들렸다. 초조감과 짜증이 어린 목소리…

《무전수동무, 아직 소식이 없소?》

작전과장의 목소리다.

《없습니다.》

《혹시 동무가 무전을 받지 못한게 아니요?》

억울해하는 목소리.

《예?! 난 레시바를 순간도 벗은적이 없습니다.》

《무전이 오면 즉시 나에게 알려주오. 이거야 어디 기다려먹겠나.》

작전과장은 선미갑판쪽으로 걸어가더니 잠시후에 다시 선수갑판으로 뚜벅뚜벅 걸어왔다. 구두발소리가 신경을 자극해서 김군옥은 부아가 났다. 그는 우정 크게 코고는 소리를 냈다.

드르렁! 드르렁!

구두발소리는 곁에 와서 멎었다.

《어허… 놀라운걸, 정대장이라는 량반이 전투를 앞두고 이렇게까지 곯아떨어질수가 있나?》

한백천은 아연한듯 소리내여 중얼거리더니 킁킁 코소리를 내며 사령탑에 대고 다드락다드락 손장단을 치다가 다시 무전수에게 물었다.

《무전수동무! 소식이 없소?》

《예.》

《귀를 바싹 강구고있소.》

또 다드락다드락 손장단소리, 뚜벅뚜벅 구두발소리…

김군옥은 코고는 소리를 멈추고 다시 하나, 둘 속으로 셈세기를 시작했다.

《여보! 정대장동무!》

작전과장이 찾았으나 그는 못 들은체 했다. 사령탑에서 기지장이 나무랐다.

《좀 조용하오. 정대원들이 깨나겠소.》

《속이 타서 그럽니다. 왜 아직 적정통보가 오지 않을가요?》

《이제 오겠지. 우리 저기 나가서 장기나 한판 두기요.》

《예?! 장기를요?》

《왜 놀라오. 장기를 두면서 전술연구를 하잔 말이요.》

정말 장기를 두러 나가는지 두사람의 구두발소리가 선미갑판쪽으로 멀어지더니 사위는 조용해졌다. 찰싹 찰싹! 배전을 치는 파도소리만이 단조롭게 울려올뿐… 김군옥은 저도 모르게 잠들어버렸다.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지… 누군가 소리치며 자기를 와락 잡아흔들기에 그는 깊은 잠에서 깨여났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는지 사위는 캄캄했다. 자기를 흔들어깨운 사람은 작전과장이였다. 기지장이 곁에 서서 자기를 굽어보고있었다. 김군옥은 얼른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적정통보가 왔소.》

홍동철은 그에게 방금 변신한 무전문을 보여주었다.

《어뢰정대앞.

주문진앞바다에까지 올라와 함포사격을 한 적함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묵호항근처의 만으로 돌아갔음.》

됐구나!

김군옥은 온몸이 거뜬해지는감을 느끼며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이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여태 안절부절을 못하던 한백천은 큰소리를 쳤다.

《여보! 이젠 승산이 확고하오! 확고해!》

그렇다! 야밤에 감쪽같이 접근하여 어뢰를 쏘면 아무리 덩치가 큰 적함들도 용빼는 수가 없다.

김군옥은 승전의 예감에 가슴이 파도치듯 설레여서 진정하기 어려

웠다.
홍동철은 작전과장과 함께 어뢰정대의 묘박지습격안을 최종검토해주었다. 김군옥은 그에 따라 정장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주었다. 해상시계가 밤 11시 50분을 가리켰다.
《정대 전투항해준비!》
구령에 따라 정대원들은 날쌔게 전투초소를 차지했다. 항만에 깃들었던 고요와 정적을 들부시며 고속기관들이 다투어 폭음을 울렸다. 홍동철은 정대원들과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잘 싸우시오. 성공을 바라오.
바로 동무들속에서 공화국의 첫 영웅이 나오기를 바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신임에 꼭 보답하시오.》
《알았습니다!》
모두들 승리의 신심에 넘쳐 큰소리로 대답했다.
한백천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자기가 승선지도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해상전투를 놓고 그닥 신심을 가지지 못하고 동요하던 작전과장이 전투출항을 앞두고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오는통에 홍동철도 김군옥도 어리둥절해졌다.
《동무가 승선지도를 하겠다구?》
《예, 저두 어뢰정대와 함께 싸우겠습니다. 원항해타격훈련때도 제가 승선지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군옥은 거절했다.
《고맙지만 그건 안됩니다.》
《어째서?》
《그럴 필요가 없기때문이지요. 이번 항해는 훈련이 아닙니다. 편제전투성원외에는 누구도 승선할수 없습니다. 초과승선은 오히려 짐이 됩니다.》
승산이 보이기에 나섰던 한백천은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떠들어댔다.
《여보! 작전과장이 승선지도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아무렴 짐이 되겠소? 정대장동문 나를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요?》
《우린 돌아오지 못할수도 있어서 그럽니다.》

《나도 죽는걸 겁내지 않소. 생사운명을 함께 하기요.》
《글쎄 안됩니다. 이 시각부터 어뢰정대는 전적으로 내가 책임집니다.》
홍동철은 몸이 와짝 달아오른 작전과장의 손을 잡아끌고 배에서 내렸다.
《정대장동무의 말이 옳소. 우린 내리기요.》
아쉬운듯 실실하며 서있던 한백천은 출항구령이 내리자 서둘러 계류바줄을 벗겨서 던져주었다.
《정대장! 다시 만나자구.》
이렇게 부르짖는 그의 목소리는 갈렸다.
김군옥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순간에 작전과장의 인간됨을 보았기때문이였다. 그는 목이 잠겨서 아무런 응대도 할수 없었다.
기정의 뒤를 따라 어뢰정들은 차례로 부두를 떠났다. 홍동철은 작전과장과 함께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어뢰정대를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문득 경적소리가 울렸다.
돌아보니 아까 륙전대에 부탁했던 야전차가 왔다. 그들은 야전차를 타고 기지로 돌아가게 되여있었다. 그러나 선뜻 차에 오를수 없었다.
운전사가 어서 가자고 다시 경적을 울렸다.
홍동철은 깊은 생각에 잠긴채 야전차에 올랐다.
한백천도 말없이 차에 올랐다.
《부르릉!》
야전차가 출발했다. 항을 벗어난 야전차가 북쪽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자 홍동철은 여태 꾹 다물고있던 입을 열었다.
《운전사동무! 묵호항으로 가기요.》
《예?!》
운전사가 펄쩍뛰면서 급정거시켰다.
《왜 그러오?》
《거긴 위험합니다.》
《해방지역이 아닌가?》
《해방지역이지만 밤이면 놈들의 기동분함대가 항근처에 들어와 해안과 항구에 함포사격을 하군 해서 그 주변엔 얼씬을 못한다고 하던

데…》

홍동철과 한백천은 그 소리에 오히려 빙그레 웃으며 서로 마주 보았다.

홍동철은 영문을 몰라하는 운전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었다.

《자! 어서 가기요.》

묵호항근처의 작은 만은 수심이 깊고 잠풍해서 묘박지로는 그저 그만이였다.

여기를 묘박지로 정한 기동분함대는 첫날에 함포사격을 들이대여 묵호항과 주변해안을 초토화시켰다. 지금도 도처에서 그물그물 연기가 피여오르고 사람은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았다. 중순양함과 경순양함, 원양구축함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닻을 떨구었다. 낮에는 해안을 따라 기동하며 전진지휘소가 불러주는 사격제원에 따라 미친듯이 함포사격을 하다나니 모두들 피곤했다. 하기 싫은 포신소제를 억지로 대충 하고나서 위스키를 한잔 마시고 저녁식사를 끝내자 저마다 병실에 달려들어가 침대에 기여올라 즉시 곯아떨어졌다.

낮에 잠을 자거나 팔짱을 끼고 함포사격을 구경한 고사포병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전투직일근무를 섰다.

그날도 자기가 직접 장탄을 하고 조준도 하면서 포사격에 열을 올렸던 웨리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해일기를 쓰려고 펜을 들었다. 그런데 덧쌓인 피곤에 충혈진 눈이 거불거려서 도무지 사색할수가 없었다. 하루도 번지지 않고 그날에 받은 인상을 글로 남긴다는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하품이 련속 터져나왔다.

재깍거리는 해상시계의 초침소리는 귀고막이 아프도록 크게 들려오다가 난데없이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다시금 조심스레 들려오기도 했다.

에라! 모르겠다. 펜을 내던진 웨리크는 침대에 벌렁 드러누웠다.

몸이 노그라드는것 같았다. 그는 누가 해군단검으로 자기의 매부리코를 쑥 베여가도 모를 지경으로 녹초가 되였다.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지… 누군가 자기를 흔들어깨워서야 그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겨우 눈을 떴다. 웬일인지 잭슨함장이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으로 자기를 지켜보고있었다. 웨리크는 겨우 상반신을 일으켰다.

《왜 그럽니까?》

《전진지휘소에서 무전이 왔소. 어제 초저녁부터 북조선해군이 고기배들까지 다 동원시켜 주요 항들의 입구와 연안에 기뢰를 대대적으로 부설한다는거요.》

웨리크는 기지개를 켜며 입귀가 째질 정도로 하품을 하고나서 짜증이 어린 어조로 물었다.

《그래서 어쨌다는거요?》

《묵호항주변은 이미 인민군의 수중에 들어갔거던. 여기서도 기뢰를 부설하지 않을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게 어쩐지 께름직하구만.》

조선전선으로 떠나기에 앞서 잭슨함장에게 그 무슨 경적필패에 대하여 운운했지만 사실 웨리크는 북조선해군을 싸움상대로 여기지 않고있었다.

그들이 기뢰따위나 부설하는데 어쨌단 말인가?

이 주변해안가는 함포사격으로 콩마당질을 해놔서 인민군수중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얼씬을 못하고있다.

웨리크는 별치 않은걸 가지고 자기의 단잠을 깨운 잭슨함장이 못마땅하게 여겨졌다. 아주 기고만장하던 그가 왜 갑자기 이러는지 리해되지 않았다.

《별걱정을 다하는군요. 우린 아직 북조선해군함선의 그림자도 구경하지 못했지요. 우리가 나타나자 그들은 감히 움쩍도 못하고있단 말입니다.》

잭슨은 퍼그나 신중한 기색이였다.

《어쨌든 난 조짐이 좋지 않소. 빨리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수역으로 기동해야 하겠소.》

웨리크는 달갑지 않아서 입을 쩝쩝 다시며 손목시계를 보았다.

새벽 2시 15분이였다.

《함장님, 잠이나 잡시다. 깊은밤에 공연히 들볶아댈 필요가 없잖소.》

《당신은 몹시 피곤한것 같은데 그냥 쉬오. 필요한 인원들만 깨워

서 조용히 기동하겠소.》
　잭슨은 방에서 나갔다.
　잠시후 주기관이 돌아가는 소리가 나더니 함은 유유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함의 동요에 맞춰 침대가 요람처럼 흔들거렸다. 이럴 땐 잠이 더 잘 오기마련이다.
　웨리크는 다시 침대에 드러누워 태연히 눈을 감고 꿈나라로 찾아갔다.

　야전차가 주문진항에 도착한것은 이무렵이다.
　거의나 비여있는 부두에 소포정 2척이 위장을 하고 붙어있었다. 소포정들은 주문진아래 방진리에 전개된 5사소속의 포련대에 포탄을 수송해주고 오던길에 12호정의 기관상태가 시원치 않아 주문진항에 들렸다. 홍동철이 부두가에 야전차를 세우고 내렸을 때는 기관수리가 거의 끝날무렵이였다.
　기름투성이가 되여 기관수리를 도와주던 고준무는 사다리를 타고 기관실에 내려오는 기지장과 작전과장을 보자 너무도 뜻밖이여서 깜짝 놀랐다.
　《아니?! 기지장동지! 어떻게 여기엘 다 오셨습니까?》
　홍동철은 번듯한 이마를 손으로 쓸어만지며 호인다운 미소를 지었다.
　《우린 묵호항으로 가는 길인데 동무네 행처가 궁금해서 잠간 들렸소.》
　고준무는 더우기나 어리둥절해서 기지장과 작전과장을 번갈아보았다.
　《묵호항엔 왜 가십니까? 거긴 위험합니다.
　지금 항입구에 미군 중순양함과 경순양함, 구축함이 닻을 떨구고있으니까요. 놈들이 걸핏하면 함포사격을 해대지요. 묵호항근처엔 새들도 얼씬을 못합니다.》
　한백천은 호기있게 장담했다.
　《오늘 새벽엔 그놈들이 혼쌀나게 될거요. 우린 그 멋진 장면을 구경하러 간단 말이요.》
　고준무의 두눈이 번쩍거렸다.

《그러니 어뢰정대가 출항했단 말입니까?》

홍동철은 여전히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렇소. 인차 주문진항앞을 지나가게 될거요.》

고준무는 몸이 와짝 달아올라서 펄펄 뛰였다.

《야! 그 친구들이 정말 부러운데요.

기지장동지, 저두 묵호항에 함께 가서 통쾌한 해상전투를 구경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홍동철의 안색은 대뜸 엄해졌다.

《무슨 소릴 하는거요? 동무넨 빨리 기지로 돌아가오. 지금 기뢰부설을 하노라 숱한 배들이 바다에 나왔는데 동무네가 그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겠소.》

홍동철은 작전과장과 함께 부랴부랴 소포정에서 내려 야전차에 올랐다. 야전차는 즉시 부르릉— 하고 발동을 걸었다.

홍동철은 미타한 생각이 들어서 배웅을 나온 고준무정대장에게 어뢰정대에 절대로 무전을 날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고준무는 저으기 풀이 죽어서 두덜거렸다.

《걱정마십시오. 제가 뭐 그런것두 모르는줄 아십니까?》

야전차는 배기가스를 확 뿌려놓고 씽하니 부두가를 떠났다.

고준무는 속이 달아서 도무지 진정할수 없었다.

《아! 내가 왜 어뢰정을 타지 못했던가. 이제 군옥이 그 친구가 되게는 으시되겠는걸. 드디여 적순양함을 까부시러 간단 말이지.》

몹시 부러워하던 그는 문득 그 자리에 굳어졌다.

적들은 순양함이 2척이고 구축함이 1척이다.

그런데 우리 어뢰정은 고작 4척에 불과하다.

어뢰정 4척으로 어떻게 놈들의 기동분함대를 까부실수 있단 말인가? 이게 과연 가능한것인가?

그는 고개를 들고 이제 어뢰정대가 지나가게 될 항구앞을 바라보았다. 때맞춰 귀에 익은 어뢰정들의 발동소리가 해풍에 실려 알릴듯말듯 울려왔다. 소포정대원들은 너도나도 갑판과 부두에 떨쳐나와 목을 길게 빼들고 어둠속을 뚫어지게 지켜보며 귀를 강구었다.

고준무의 눈앞에는 수상보안간부학교시절부터 자기와 늘 앞자리를 다투던 김군옥의 얼굴이 막 얼른거렸다. 그는 부지중 뇌이

였다.

《그 친구, 정말 괜찮아. 지내볼수록 마음에 들거던.》

이것은 고준무의 진심이였다.

승벽이 강한 그는 수상보안간부학교시절부터 자기의 경쟁대상인 서해친구를 될수록 얕잡아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방은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자기를 앞서는것이였다. 그에게는 무엇이나 하면 된다는 배심이 있었고 실천으로 기어이 해내는 완강성과 결단성이 있었으며 무지막지하게 내미는게 아니라 그것을 성사시킬 기묘한 방도를 찾아내는 탐구심과 창발성이 있었다.

그 기초엔 무엇이 있을가?

《군옥이! 서해친구야, 인젠 네가 동해의 주인이 된셈이구나. 난 네가 정말 부러워서 못 견디겠다. 그런데 너를 다시 만날수 있을가?

승리하고 꼭 살아서 돌아오게.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는통에 하지 못한 해상체육경기를 할게 아닌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웨치는 그의 두눈에선 핑글 뜨거운것이 고여넘쳤다.

스르릉— 쾅! 하고 기관이 시동됐다.

기관장이 죽은 사람이라도 살려놓은듯이 기뻐서 환성을 지르며 갑판에 뛰쳐나왔다.

《정대장동지, 이젠 정상입니다! 빨리 출항합시다!》

고준무는 입술을 감쳐물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뢰정대가 안심치 않구만. 적들의 력량이 너무도 우세하니 마음을 놓을수 없단 말이요.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수 없을가?》

기관장은 난감해했다.

《도와줄수만 있다면 죽기내기로 도와주어야지요.

그런데 우리야 속도가 느려서 그 친구들과 행동보조를 맞출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미처 뒤따라가기도 전에 전투는 끝날텐데요.》

《음, 기관을 끄오. 어뢰정대가 적함을 까부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기지로 함께 가기요.》

고준무는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가벼워질것 같았다.

24

어뢰정대는 주문진항 입구에 있는 등대앞을 지나갔다.

짙은 어둠속에서 바다는 불안스레 뒤설레고있었다. 숨이 턱턱 막힐 지경으로 해풍이 세차게 불었다. 칼날같은 배머리에 찢기운 파도가 아우성치며 련속 갑판우에 날아들었다. 사령탑에까지 물보라가 흩날렸다.

사령탑에 나란히 서있는 김군옥과 김도형정장은 물론 고사총좌지에 앉은 박원협갑판장도 소나기를 맞은듯 물참봉이 되였다.

얼굴에 쫙쫙 끼얹어지는 바다물이 눈섭에 맺혀 앞을 감시하기 불리했다. 손으로 자주 얼굴을 문질러도 찝찔한 바다물은 계속 줄줄 흘러내려서 과연 짜증이 날 지경으로 거치장스러웠다. 푹 젖은 항해복이 연추처럼 무거워졌다. 차거운 바다물은 가슴팍을 적시고 아래도리에까지 습배여들었다. 으스스 오한이 났다.

해도실에서 채기정이 훈훈한 기운을 풍기며 고개를 불쑥 내밀었다.

《정대장동지, 잠간 기관실에 들어와 몸을 녹이십시오. 후끈후끈합니다.》

김군옥은 말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속초항으로 올 때는 김도형정장과 교대로 타를 잡으며 기관실에 들어가 몸을 녹이고 식사도 했지만 전투를 앞둔 지금은 그럴수 없었다.

《자! 그럼 거기서라도 한고뿌씩 드십시오.》

김군옥은 그가 주는 법랑고뿌를 얼른 받아쥐였다. 고뿌에는 진한 빠다물이 담겨져 하얀김을 몽몽 뿜어올렸다. 고뿌를 감싸쥔 손바닥이 기분좋게 따끈따끈했다. 그는 빠다물고뿌를 정장과 갑판장에게 넘겨주고나서 세번째로 받은걸 한모금 마셨다.

뜨겁고 달콤하고 고소한것이 목구멍을 지지며 넘어갔다. 차겁던 배속이 대뜸 화끈하게 달아올랐다. 오한이 즉시에 멎었다.

《자! 이것도 잡수십시오.》

얼결에 받아쥐니 말린 김에 싼 주먹밥이다. 안에 고추장과 졸인 멸치토막을 박아넣은 주먹밥은 과연 꿀맛이였다. 차거운 바다물이 날아드는 날바다우에서 따거운 빠다물을 국삼아 먹는 이 주먹밥이야말로 땅우에 차려놓은 진수성찬에도 비길수 없었다.

해병식식사를 간단히 하고나니 몸이 화끈 달아오르고 기운이 솟구치고 눈정기가 밝아지는게 헨둥하니 알렸다.

김군옥은 거치장스러운 항해복을 벗어던졌다.

어뢰정대는 어느새 타격지점인 묵호항입구에 거의 접근하고있었다.

《주의! 전방감시를 더욱 강화할것!》

모두들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전방을 지켜보았다.

산이나 언덕, 전호와 은페호가 없는 허허날바다에서는 상대방을 먼저 발견하고 때리는쪽이 주도권을 쥐기마련이다.

연안순찰용으로 건조한 이 구식어뢰정에는 전파탐지기가 없었다. 하기에 말그대로 눈이 보배였다.

육안감시로 적함을 발견하고 재빨리 돌격침로에 들어가 어뢰공격을 해야 했다.

《볼티모》호를 비롯한 적함들은 조선전쟁을 앞두고 반경 십여마일을 원형감시할수 있는 신형전파탐지기를 장비하였다고 한다. 놈들의 전파탐지기에 걸려들면 즉시 함포탄이 소나기처럼 쏟아진다. 그러면 어뢰정들은 적함을 구경도 하지 못한채 산산쪼각이 나고만다.

벌써 놈들의 전파감시에 걸려들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당장 백수십문에 달하는 함상포들이 어뢰정대를 겨누고 포문을 열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아짜아짜했다. 금시 하늘이 무너져내리거나 바다가 통채로 뒤번져질듯싶다.

그런데 피어린 격전을 눈앞에 둔 묵호항입구는 너무도 고요했다. 산중의 호수인양 잠풍하다. 적함은 그림자도 없었다.

묵호등대가 바라보일 때 어뢰발사준비를 갖추고 최고속으로 질풍같이 달려든 어뢰정대는 아연해서 멈춰섰다. 기관을 공회전시키고 아무리 사위를 둘러봐도 적순양함은 고사하고 쪽배 한척 눈에 띄우지 않았다.

너무도 예상밖인 정황에 부딪치자 김군옥은 당황하지 않을수 없

었다. 놈들이 어딜 갔을가? 혹시 항만에 들어간게 아닐가?
《전진! 항만을 수색할것! 목표가 나타나면 즉시 공격하여 어뢰를 발사할것! 24호정은 항입구를 지킬것!》
세척의 어뢰정이 쏜살같이 항만에 들어갔다. 탐조등으로 부두를 샅샅이 훑으며 항만을 한바퀴 빙 돌았지만 역시 적함들은 눈에 띄우지 않았다.
김도형정장은 악이 날대로 나서 주먹으로 사령탑 앞턱을 치며 고아댔다.
《빌어먹을, 이 개자식들이 다 어디로 갔어?》
성미가 유순하고 거친 말이라고는 전혀 입에 올리지 않던 리완근정장도 욕사발을 퍼부었다.
《개놈들! 우리가 나타나니 지레 꼬리를 사렸구나. 내 기어코 붙잡아서 묵사발을 만들테다!》
김군옥은 가슴속이 새까맣게 타버리는것만 같았다.
투묘지나 정박장에 있는 적함들을 습격하지 못하면 부득불 넓은 바다에서 전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엔 어뢰정대측이 결정적으로 불리했다.
그저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나 승산이 없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돌아갈수는 없다. 동해를 다 뒤져서라도 적함들을 기어이 찾아내여 까부셔야 했다.
그는 정장모를 시원하게 벗어쥐고 수화기가 달린쪽을 입에 가져다댔다.
《나의 명령을 들으라! 즉시 항밖으로 나가 3마일씩 사이를 두고 횡대대형을 지어 남쪽으로 내려가며 수색할것!》
항입구를 벗어난 어뢰정대는 어둠에 잠긴 해상을 샅샅이 훑으며 남하하기 시작했다.
홍동철과 한백천은 방금전에 등대탑이 있는 나지막한 봉우리에 올라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들이 천번중 단 한번의 기회를 노려 면밀하게 짜고들었던 묘박지 습격안은 공든 탑처럼 일시에 무너져버렸다. 너무도 억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들은 경악하여 돌처럼 굳어졌다.
남쪽으로 멀어져가는 어뢰정들의 동음에 멍하니 귀를 기울이던 한

백천은 별안간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며 무너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으흐! 이젠 다로구나!》

일껏 바라던 요행수를 놓친 그의 입에서는 절망적인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기지장동지, 어쩌면 좋습니까? 이젠 어뢰정대가 설사 적함들을 발견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허허날바다에서 기동분함대와 싸운다는건 닭알로 바위치기지요. 무모한 자살행위란 말입니다.》

홍동철은 가뜩이나 신경이 더 날카로와져서 상대방을 흘겨보았다.

《여보! 우는 소리는 그만하오.》

그는 경우에 따라 불처럼 확 붙다가는 얼음처럼 싸늘하게 식어버리군 하는 작전과장의 경망스러운 성격이 기질상 질색이였다.

한백천은 여전히 락심천만해서 웅얼거렸다.

《무전련락을 취합시다. 이제라도 어뢰정대를 돌려세워야 합니다.》

홍동철은 일순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작전과장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야간에 진행하는 묘박지습격은 승산이 있다. 그러나 날이 밝았을 때 어뢰정대가 적기동분함대와 맞다들리면 어뢰 한발 변변히 쏴보지도 못한채 포탄소나기를 뒤쓰고 풍지박산날수 있는 우려가 다분했다.

그렇다고 하여 이제와서 물러설수도 없었다. 이 싸움은 승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만둘 그런 싸움이 아니였다.

전투출항에 앞서 어뢰정대는 위대한 장군님께 심장의 맹세를 다지였다.

우리들은 조선로동당의 참다운 전사답게, 항일선렬들의 고매한 뜻을 이은 조선청년답게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용감히 싸워 미제침략자들을 바다속깊이 수장해버리겠다고…

수령께 다진 맹세는 피로써 지켜야 한다.

여기에 전사의 참다운 행복과 기쁨이 있고 최상의 영광이 있다.

한백천은 절망이 어린 목소리로 재삼 독촉했다.

《기지장동지! 빨리 돌아서라고 어뢰정대에 무전을 보냅시다.》

홍동철은 버럭 고함을 쳤다.
《그건 안돼! 난 그들을 믿소.》
한백천은 주저앉은 상태로 절레절레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게 어디 믿는다고 될 일입니까? 이젠 용빼는 수가 없습니다. 혹시 기적이 일어난다면 몰라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랄게 아니라 창조해야지.》
《아니?! 누가 기적을 창조한다는겁니까? 교육과정안도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싸움도 전혀 해본적이 없는 그 동무들이 기적을 창조한다구요?》
한백천은 허거프게 웃다가 정황에 어울리지 않게 경망스레 처신하는 자신에게 스스로 화를 내며 오만상을 찡그렸다.
작전과장이 락심천만해서 우는소리를 할수록 홍동철은 마음이 안정되고 더욱 신심이 생겼다.
《자, 어서 가기요.》
홍동철은 언덕아래로 달려내려갔다.
야전차곁에서 긴목을 빼들고 바다쪽을 바라보며 서성거리던 운전사가 그에게 성급히 물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뢰정대는 적함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가고있소. 우리도 어서 따라가기요.》
운전사가 급히 발동을 걸었다. 한백천이 허둥지둥 뒤따라 내려와 뒤좌석에 올랐다. 항구를 에돈 야전차는 해안가를 따라 내달렸다.
수평선상이 알릴듯말듯 희읍스름해지기 시작했다.
바다를 뒤덮었던 흰안개가 해안가로 소리없이 느물느물 기여올랐다. 어디선가 잠을 깬 새들이 청아하게 우짖었다. 동녘하늘도 훤해진다. 날이 밝아오는것이다.
홍동철은 다시금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졌다.
날이 밝으면 어뢰정대의 전투행동이 결정적으로 불리해지기때문이다.
입술을 깨물고 바다쪽을 주시하던 그는 운전사의 옆구리를 팔굽으로 쿡 찔렀다.
《차를 세우오!》

야전차는 급제동하며 곤두박힐듯 멈춰섰다.

《저기를 보오. 어뢰정대가 돌아섰구만.》

뒤좌석에 후줄근해서 앉아있던 한백천은 벌떡 일어나 기지장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에서 물보라가 하얗게 일어번지는것이 알릴듯말듯 눈에 띄웠다. 그 물보라는 북쪽으로 움직이고있었다. 점차 어뢰정들의 독특한 동음도 미세하게 울려왔다.

《왜 돌아섰을가?》

기지장의 물음에 한백천은 한숨을 소리나게 내쉬는것으로 대답했다.

그야 뻔하지 않는가, 어뢰정대는 아무리 생각해봐야 승산이 없는 전투를 포기하고 기지로 돌아가는것이다.

홍동철은 벙글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음, 대형을 지은걸 보니 북상하면서 수색을 계속하는게 분명하오. 운전사동무, 빨리 차를 돌리시오.》

야전차는 되돌아서서 어뢰정대와 나란히 해안가를 내달렸다.

어뢰정대는 묵호항입구를 지나쳐서 강릉앞바다에 들어섰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주문진앞바다다. 호상 바라볼수 있게 일정한 간격으로 벌려선 어뢰정들은 사냥감을 찾는 풍산개들처럼 중속으로 여유있게 나가면서 해상을 면밀히 감시하였다.

날이 밝는게 위험했지만 감시에는 유리했다.

마침 날씨가 맑아서 시정이 좋았다. 하늘과 바다를 경계짓는 수평선이 뚜렷하게 한눈에 안겨왔다. 수평선까지의 거리는 시정이 좋은 경우 대체로 12마일정도다.

적기동분함대의 작전구역이 삼척—강릉앞바다이기에 김군옥은 남하하던 어뢰정대를 돌려세워 북상하며 수색을 계속하고있었다. 보아하니 놈들은 공해쪽으로 나간것 같았다. 날이 밝으면 함포사격을 하려고 연안에 기여들것이다.

정대장과 정장, 갑판장과 고사총수는 모두 눈이 아프도록 수평선쪽을 긴장하게 감시하고있었다.

수평선쪽에 선 24호정의 고사총수인 강순봉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곁에 있는 문화부정대장에게 소리쳤다.

《저게 연기가 아닙니까?》
리학섭은 그가 가리키는쪽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수평선우로 검은 실오리같은것이 가물가물 피여오르고있었다. 함선에서 내뿜는 배기가스가 분명했다.
《옳소, 배기가스요.》
강순봉은 목표를 남먼저 발견한 기쁨을 담아 큰소리로 웨쳤다.
《지휘소! 우현 30도 거리 12마일 연기 발견!》
그러지 않아도 그쪽을 지켜보던 양판익정장은 즉시 무선통화로 정대장에게 정황을 보고했다.
《알았다! 모두 우현 30도 거리 12마일에 감시를 집중할것!》
김군옥은 이렇게 지시하고 수평선상에 솟아오르는 검은 연기를 긴장하게 지켜보았다.
잠시후 수평선상에 마스트가 나타났다.
하나, 둘, 셋.
세개의 마스트아래 사령탑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구경포신들도 얼마든지 가려볼수 있었다.
정대원들모두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찾던 미제침략자들의 기동분함대가 분명했다.
됐구나!
김군옥은 내심 탄성을 올리며 후련히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긴장되기는 고사하고 가슴을 옥죄였던 긴장의 탕개가 탁 풀리는것이였다.
《종대대형을 지을것!》
그는 풍산개전술로 넘어가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구령을 쳤다.
기정이 속도를 내며 불쑥 앞으로 나가자 대렬정들은 전술번호대로 줄줄이 따라섰다.
《현침로로 계속 북상하면서 적함들을 감시할것!》
《알았다!》
그새 날은 더 밝아서 5마일정도 떨어져있는 해안가까지 바라보였다. 적함들의 모습도 완전히 드러났다.
선두에 선건 경순양함 《야이카》호다. 가운데 선것은 바다의 《움직이는 섬》이라고 소문난 중순양함 《볼티모》호다. 뒤에서는 원

양구축함이 호위하고있었다. 포신들이 숲을 이루었다. 요새화된 섬들이 통채로 움직이는것 같았다. 기동분함대의 출현으로 하여 바다가 비좁아진것처럼 느껴졌다.

방금 주문진등대에 오른 홍동철과 한백천도 사슴떼를 발견한 맹수들마냥 해안을 향하여 유유히 다가오는 적함들을 쌍안경으로 지켜보았다.

적함들의 기동을 주시해보니 우리 어뢰정대를 이미 발견하고 두들겨패려고 작정한게 분명했다.

적함들을 고래에 비긴다면 우리 어뢰정들은 멸치나 까나리에 비겨야 할는지… 너무도 상대가 되지 않았다. 어뢰정들은 종대를 지어 속도를 높이며 계속 북상하는데 마치도 적 대형군함들의 출현에 겁을 먹고 허겁지겁 도망치는것처럼 보였다.

한백천은 너무도 긴장해서 가슴이 막 졸아드는것 같았다. 그는 어뢰정대에 대고 적함들이 나타났으니 빨리 주문진항으로 피하라고 고함을 지르고싶었다. 이제라도 항에 피신하면 무사할수 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왜서인지 아직도 기지로 돌아가지 않고 항입구쪽에 나가 표류해있던 소포정 두척이 부리나케 기관을 돌리며 바다로 나간다.

한백천은 경악을 했다.

《고준무가 눈이 멀었나? 적함들이 달려드는데 왜 출항하는가? 항구에 그냥 숨어있을게지.》

홍동철도 소포정들이 왜 급기야 바다로 나가는지 알수 없었다. 그렇다고 어째서 그러느냐고 물어볼수도 없으니 그저 지켜볼수밖에… 그러자니 가슴속에선 심장이 뛰는게 아니라 시한탄이 찰칵찰칵 초침소리를 울리는것만 같았다.

웨리크는 누군가 자기가 덮은 모포를 우악스레 잡아채는통에 굳잠에서 깨여났다.

침대곁에 나타난 부함장이 좀 흥분한 기색으로 재빨리 말했다.

《여보, 굉장한 구경거리가 생겼소. 빨리 기본지휘소로 올라오시오.》

《뭐라구요?》

부함장은 의미있게 눈을 껌벅이더니 바람처럼 사라졌다.

웨리크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수 없었다.
그는 여러날째 반복되고있는 해상기동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목표에 대고 쏘아대군 하는 함포사격에 이젠 그만 싫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굉장한 구경거리란건 도대체 뭔가? 북조선해군함정이 나타나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외에 굉장한 구경거리란 있을수 없다.
문득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그는 흥분해서 부랴부랴 군복을 주어입고 기본지휘소로 올라갔다.
여느날과 다름이 없이 례복차림을 한 잭슨함장은 연기가 몰몰 피여오르는 파이프를 왼손에 쥐고 앞창에 바싹 다가서서 뭔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있었다. 부함장과 항해장, 당직장교도 그쪽을 바라보는데 여념이 없었다.
웨리크는 호기심을 느끼며 서둘러 함장곁에 다가갔다.
《웬일입니까?》
《저길 보오.》
잭슨은 손에 쥔 파이프로 창밖을 가리켰다.
《저기에 급해서 도망치는 네척의 소함정이 보이지 않소. 저건 당신이 그처럼 보고싶어하던 북조선해군함정들인것 같소.》
웨리크는 함장이 넘겨주는 쌍안경을 받아들고 그쪽을 주의깊게 살폈다.
7～8마일정도 떨어진 연안에서 자그마한 함정 네척이 하얗게 물갈기를 날리며 종대를 지어 북상하고있었다. 아직은 형태가 뚜렷이 안겨오지 않아 어떤 종류의 함정인지 가려보기 어려웠다. 속도는 비교적 빠른축이다.
《30분전에 저것들이 전파탐지기에 걸려들었소.
너무 작아서 식별하기 곤난하더군. 그래서 대관절 어떤 놈들인가 구경하려고 기동을 했소.》
앞에서 전진하던 《야이카》호에서 함장의 무선통화가 날아왔다.
《〈볼티모〉! 불명목표는 북조선해군 어뢰정들인것 같다. 우리의 연안순찰용어뢰정들과 비슷하게 생겼다.》
웨리크는 확성기로 울려나오는 《야이카》호 함장의 보고를 들으며 눈정기를 한껏 모아 목표를 주시했다.
점차 날씬하게 생긴 선체가 드러났다. 선수갑판엔 아무것도 없었다.

사령탑뒤쪽에 고사총이 설치되여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선미쪽이 무겁게 잠긴걸 보면 선미갑판에 어뢰를 적재한게 분명했다.

《함장님, 어뢰정들입니다.》

잭슨은 자기도 그렇게 보고있다고 고개를 끄덕이였다.

《어떻게 할가?》

그는 적함을 발견하고 싸움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의논한다기보다는 잡아놓은 물고기를 놓고 어떤 방법으로 료리할것인가를 묻는것 같았다.

웨리크는 잭슨을 마주보며 징그럽게 웃었다. 그 역시 로획물을 놓고서 맹수들이 그러하듯이 좀 장난을 치면서 혼쭐을 쑥 뽑아놓고 재미를 보다가 뜯어먹고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던것이다. 그래야 심심풀이가 될것 같았다.

《저놈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앞을 가로막고 어쩌는가 봅시다. 흰기를 올리면 자비심을 베풀어주어야지요.》

그런즉 기동분함대의 위용으로 보잘것 없는 상대의 기를 눌러 손쉽게 나포하자는 소리였다.

장난삼아 해볼만 한 놀음이다. 잭슨은 기꺼이 응했다.

《〈야이카〉! 놈들을 나포하자. 침로를 가로막으라!》

《알았다!》

《야이카》호는 속도를 높이며 앞으로 쑥 나갔다.

수천명에 달하는 미군해병들은 모두 갑판에 떨쳐나와 큰 구경거리나 생긴듯이 목을 길게 빼들고 연안쪽에서 북상하고있는 어뢰정들을 바라보고있었다. 그저 바라보는게 아니라 손짓을 하며 떠들어댔다.

《여! 저게 뭐야?》

《혹시 한국해군의 어뢰정이 아닐가?》

《아니야, 북조선해군의 어뢰정들이래.》

《모를 소리다. 북조선해군의 어뢰정들이 남쪽에서 나타날수가 있나.》

토니가 장탄하는 흉내를 냈다.

《하여튼 주포로 한방 갈겨보자구. 아마 포소리만 내도 저런 잔고기들은 휘딱 놀라서 뒤번져질거야.》

와하하! 웃음통이 터졌다.

극도로 자고자대하는자들의 오만방자하기 그지없는 너털웃음이였다. 안하무인격인 이들은 전투준비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지휘소에서도 전투경보를 울리지 않는걸 보면 어뢰정 서너척같은건 정식으로 싸워볼만 한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걸 의미했다.

《저놈들을 다 사로잡아 부산항으로 끌고가자구.》

주포1호의 조준수가 능글맞게 웃으며 이런 제의를 하자 모두들 승벽내기로 맞장구를 쳤다.

《마침 24사단이 인차 부산항에 상륙한다니 그들에게 보여주세. 그러면 희한한 구경거리가 될거네.》

《공산군에게 뒤쫓겨 정신없이 도망쳐온 한국군놈들에게도 우리가 나포한 어뢰정을 보여주자구.》

《좋아! 미해군의 실력을 과시하고 절망에 빠진 한국군놈들에게 바람을 불어넣어줘야지.》

그들은 《세계1등급》의 해군에서 복무하는 우월감과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느끼며 성수가 나서 지껄여대는것이였다.

25

김군옥은 파도에 젖은 사령탑 앞턱을 왼손으로 꽉 틀어쥔채 오른손에 쌍안경을 들고 주타격대상인 《볼티모》호를 노려보았다.

《볼티모》호는 놈들이 《움직이는 섬》이라고 떠들어댈만큼 요란했다. 갑판과 구조물우에는 커다란 철갑모를 방불케 하는 포탑들이 위엄있게 번들거리고 포신들이 아가리를 벌리고있었다. 사령탑과 마스트에 수풀처럼 돋아난 각종 안테나들, 중갑판과 선미갑판에 장비된 5련발 어뢰발사관과 각종 폭뢰들… 그저 움직이는 섬이 아니라 떠다니는 요새화된 섬이였다.

나는 수상보안간부학교시절부터 네놈과 한번 맞서보려고 벼르어왔는데 오늘에야 그 기회가 왔구나. 마침이다. 어디 결판을 지어보자.

가슴에선 피가 설설 끓어번졌다.

어뢰의 유효사거리는 500메터안이다. 그런데 아직 적함과의 거

리는 2천메터가 넘었다. 서뿔리 공격을 시도하다가는 유효사거리 안에 접근하기 전에 포탄소나기를 얻어맞고 정대가 순식간에 격파될수 있었다.

경순양함이 정대의 앞을 가로막으려고 재빨리 기동하면서도 포사격을 하지 않는걸 보니 놈들은 우리를 하찮게, 우습게 여기는게 분명하다. 거동을 보니 놈들은 감히 우리를 나포하려고 허세를 부리고있다. 기술적우세와 수적우세를 뽐내며 잔뜩 기고만장하고 허장성세하는 바로 여기에 놈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 약점에 강타를 들이대야 한다. 그러자면 절호의 기회를 노려야 한다.

덤비지 말자. 랭정하게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타를 잡고 침로방향이 아니라 주타격목표가 있는쪽을 쏘아보던 김도형정장이 더는 참지 못하고 간청했다.

《돌격합시다!》

김군옥은 여전히 입을 꾹 다문채 적함을 지켜보기만 했다. 신경이 바늘끝처럼 곤두섰다.

23호정장 최정수도 무선통화로 피타게 독촉했다.

《정대장! 빨리 돌격명령을 달라!》

어뢰정대와 적함들과의 거리는 2천메터이내로 각일각 좁혀지고 있었다.

산처럼 덩치가 큰 세척의 적함이 여유작작하게 슬슬 포위망을 좁히며 다가드니 바다가 더욱 좁아진것처럼 느껴졌다. 수평선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을 지경이였다. 적함들의 선수선미갑판과 중갑판, 상갑판에 설치된 백수십문에 달하는 각종 구경의 함상포들이 어마어마하게 안겨왔다. 야수의 아가리처럼 입을 벌린 포신들마다에서 이제 당장 화광이 번뜩이고 포탄이 우박치듯 쏟아져나올것만 같았다.

신경이 약한 사람은 그 광경만 보아도 숨이 막혀 지레 기절해버릴 지경이였다.

적함들과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 24호정의 양판익정장도 더는 참지 못하고 돌격을 간청했다.

저도 모르게 초긴장상태에 들어간 김군옥은 온몸이 강직된것만 같았다. 관자노리의 피줄만이 잔뜩 부풀어나서 당장 튀여나갈듯 맹렬히 펄떡거렸다. 적함들을 될수 있는 한 더 접근시켜야 했다.

그러자면 강한 의지를 발휘해야 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그

렇게 할수 없었다.
그는 여태 꾹 다물고있던 입을 열고 침착하게 지시했다.
《침착하라! 현침로를 계속 유지하면서 명령이 내리는 즉시 변침할 수 있게 준비할것!》
김군옥은 언짢아서 미간을 찡그렸다. 자기의 목소리가 어쩔수없이 떨리는것을 감촉했기때문이다.
이게 뭔가?! 침착하려고, 태연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후드득 후드득 속이 떨려나고 온몸이 푸들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오한이라도 만난듯이…
그가 경련을 멈추려고 입을 악물고 두손으로 바다물이 질벅한 사령탑 앞턱을 으스러지게 틀어쥐는데 수화기로 문화부정대장의 목소리가 소곤소곤 울려나왔다.
《정대장동무, 날이 밝기 시작하는군요.》
마치도 바다경치에 심취된듯 한 목소리였다.
이처럼 위험하고 긴박한 정황에서 상대방이 그런 목소리로 말한다는 그자체가 놀라왔다.
수평선상이 더 훤해졌다. 점차 뚜렷하게 갈라지는 하늘과 바다의 경계선에서 장미빛아침노을이 우렷이 비끼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반한듯이 바라보는 김군옥은 떨리던 가슴이 진정되면서 따스해짐을 느꼈다.
《정대장동무, 국기를 올려야지요.》
문화부정대장이 의논하는듯 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일깨워주어서야 김군옥은 자기가 너무도 긴장하다나니 초보적인 함선규정의 요구조차 망각하고있음을 알아차렸다.
항해중이거나 표류하는 해군함선은 날이 밝으면 마스트에 국기를 올렸다가 날이 저물 때 내린다.
이 경우 군항에 있을 때처럼 해병들을 갑판에 정렬시키지 않고 그저 합선호각만 분다. 그래, 국기를 올리자!
오만무례한 미제침략자들이 기절초풍하게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를 올리자.
이렇게 결심하는 그의 눈앞에는 가증스런 적함의 몰골이 아니라 불타는 아침노을을 배경으로 물갈기를 하얗게 날리며 쏜살같이 내달리는 어뢰정의 모습이 안겨왔다. 마치도 어뢰정은 수면을 박차고 창공

으로 나래쳐가는것만 같았다.

수평선을 이글이글 불태우며 붉은 태양이 솟아오른다. 아침해빛에 물든 바다는 금빛으로 춤을 춘다. 파도쳐 노래부른다.

《장군님!》

김군옥은 목메여 소리내여 불렀다.

파도가 날아드는 사령탑에 몸소 오르시여 자기의 어깨를 주먹으로 쾅쾅 두드려주시며 큰소리로 고무격려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목소리가 우렁우렁 귀전에 되살아났다.

높은 공격정신을 지니고 기묘하고 령활한 전법을 쓰라! 그러면 어뢰정을 가지고 그 어떤 큰 적함도 얼마든지 까부실수 있다! 얼마든지!

그날의 격정, 그날의 환희가 급작스레 파도치듯 설레며 가슴에 차올랐다. 가슴을 옥죄였던 긴장의 탕개가 탁 풀려나갔다. 신심과 용기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이것은 그가 지금껏 한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비상한 정신적인 앙양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

위대한 태양의 품에서 조선함대의 주인으로 자라난 어뢰정대원들은 몸이 열두쪼각나서 파도우에 뿌려진대도 기어이 적함을 까부시겠습니다.

미해군의 상징이며 기함인 〈볼티모〉호를 바다깊이 수장하고 기술적우세와 수적우세를 뽐내는 적들에게 조선해군의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맹세를 다진 그는 별안간 두눈을 부릅뜨며 목청껏 웨쳤다.

《주의!》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정장들은 즉시 복창했다.

《주의!》

《공화국기를 올릴것!》

갑판장들은 재빨리 기류함에서 공화국기를 꺼내여 마스트에 올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무비의 영웅성을 발휘할 시각은 왔다. 한목숨 바쳐서라도 적함을 기어이 까부시자!》

정대원들은 주먹을 추켜들며 호응했다.

《까부시자!》
《우현 40도로 변침할것!》
김도형정장은 얼른 허리를 약간 굽히면서 타륜을 재빨리 잡아 돌렸다.
기정을 따라 다른 세척의 어뢰정도 적함을 향하여 동시에 칼날같은 배머리를 돌렸다. 어느새 적함과의 거리는 1 500메터이내로 가까와졌다.
갑판에서 개미떼처럼 와글거리는 승무원놈들도 얼마든지 가려볼수 있었다. 놈들을 보니 모두들 눈에서 불이 일었다.
《속도 증가! 전속 앞으로!》
어뢰정들은 박차를 가한 준마들처럼 선체를 부르르 떨더니 파도머리를 휘휘 스치며 날듯이 내달렸다. 짜릉짜릉 울리던 동음은 흡사 호랑이들이 울부짖는듯 한 따웅! 따웅! 하는 소리로 승화되였다. 그 기세에 놀라서 뒤설레던 바다조차 흠칫 굳어진듯싶었다.
급변한 정황에 웨리크는 일순 당황해졌다.
꼬리가 빳빳해서 내빼는척 하던 어뢰정들이 당돌하게도 공화국기를 올리더니 즉시 변침하여 돌격침로에 들어선것이였다. 어찌도 속도가 빠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수가 힘껏 뿌린 네개의 해군단검이 희뜩번뜩거리며 날아오는것만 같았다.
심상치 않은 예감에 눈앞이 아찔해졌다.
불현듯 그의 눈앞에는 3년전 원산만에서 자기의 잠수함을 허겁지겁 따라오던 매생이가 떠올랐다. 그 매생이가 오늘은 저렇게 어뢰정으로 변하여 휘두르는 장검인양 파도머리를 쳐갈기며 발동소리도 드높이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고있었다.
《함장님! 빨리 전투경보를 울립시다.》
잭슨함장은 별로 놀라와하지 않았다. 입에서 파이프를 뽑으며 비죽이 웃는걸 보니 상대도 안되는 어뢰정들이 도전하는걸 가소롭게 여기면서 오히려 반가와하는것 같았다.
《어랍쇼. 북조선해병들은 담이 크구만. 제법 국기까지 올리고 달려드는구만.》
잭슨함장이 야유조로 뇌까리자 부함장과 조타수는 껄껄 소리내여 웃었다.
《그런즉 우리와 감히 정식으로 맞서 싸워보자는거지요.》

《좋아! 부함장, 어서 성조기를 올리라구.》
하늘을 찌를듯이 높이 치솟은 《볼티모》호의 마스트에 대문짝처럼 큰 성조기가 펄럭이며 올라갔다. 경순양함과 구축함에서도 성조기를 올렸다.
전투함선들은 배수량이 많든지 적든지 일단 바다에 나가면 해당 국가의 령토의 한 부분으로서 자기의 나라를 대표하게 된다. 그런즉 조선동해의 연안에서 창건된지 이태도 못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세계 《최강》을 뽐내는 미합중국이 승패를 겨루어 마주섰다.
잭슨함장은 파이프를 쥔 왼손을 위엄있게 내밀며 구령을 쳤다.
《분함대 전투준비!》
아아 앙!—
짜르릉!—
배고동과 싸이렌소리가 요란하게 울려퍼졌다.
갑판에 나와서 북조선해군의 어뢰정을 구경하며 희죽벌죽 지껄여대던 승무원들은 이제야 번쩍 정신을 차린듯 자기의 전투초소로 달려갔다. 함상포에 달라붙은 포수들은 전투준비를 부리나케 끝냈다. 토니를 비롯한 장탄수들은 포탄고를 열어제끼고 아름드리 포탄을 맞들어 날라다가 장탄했다.
신속정확히 움직이는 그들을 보니 웨리크는 일순 긴장됐던 가슴이 안정되는듯싶었다.
잭슨함장은 연기가 몰몰 피여오르는 파이프를 흔들며 련속 구령을 쳤다.
《목표, 북조선해군 어뢰정들! 발사준비!》
백수십문에 달하는 함상포들은 횡대를 지어 쏜살같이 달려드는 네척의 어뢰정을 함장과 포병장들이 불러주는 사격제원에 따라 재빨리 조준경의 십자선에 잡아넣었다.
바로 이 순간이였다. 박원협이 다급히 웨쳤다.
《지휘소! 좌현 75도 거리 3마일 소포정 두척 발견!》
소포정이라니?!
온 정신이 주타격대상인 《볼티모》호에 쏠려있던 김군옥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홱 돌렸다. 갑판장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소포정 두척이 어뢰정대의 뒤를 따라 돌격침로에 들어서고있었다.

소포정은 중속기관을 놓았기때문에 속도가 어뢰정의 3분의 1도 되나마나했다. 화력장비는 선수갑판에 놓은 37미리함상포 한문과 선미갑판에 놓은 고사총이 고작이였다. 하기에 적순양함을 공격한댔자 맨발로 바위차기였고 얻어맞기나 좋았다.
김군옥은 목청껏 소리쳤다.
《갈매기! 갈매기! 나 새매다!》
고준무의 침착한 목소리가 정장모에 달려있는 수화기로 울려나왔다.
《군옥이! 우리도 돌격한다! 우리 함께 〈볼티모〉호를 기어이 까부시자.》
김군옥은 가슴이 뭉클했다.
고준무는 어뢰정대에 우박치듯 쏟아질 적의 화력을 조금이라도 분산시키려고 희생을 무릅쓰고 무모한 공격을 단행한것이였다.
가뜩이나 격동되였던 김군옥의 가슴은 불이 달린듯 뜨거웠다.
고준무! 이 친구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소포정대의 동무들! 우리를 믿어달라! 우리는 동무들의 심정까지 어뢰에 실어 적순양함의 심장부를 기어이 강타할테다!
고속기관들의 동음은 더 우렁차게 높아졌다.
날이 선 배머리에 부딪쳐서 천쪼각, 만쪼각이 난 파도가 아우성치며 사령탑우로 휙휙 날아갔다.
한편 잭슨함장은 포병장들로부터 각기 담당한 목표들에 대한 발사준비가 끝났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웨리크를 돌아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어디 시작해볼가?》
웨리크는 이제 당장 벌어지게 될 멋진 장면을, 장엄한 포성과 더불어 즉시 산산쪼각나 파도우에 처참하게 휘뿌려질 어뢰정들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였다.
잭슨함장은 오른손으로 턱수염을 매만지면서 연기가 감실감실 피여오르는 파이프를 감싸쥔 왼손을 불쑥 앞으로 내질렀다.
《일제사격!》
그의 명령을 각 함선들의 포병장들이 복창했다.
꽈르릉! 쿵쾅!—
백수십문에 달하는 각종 구경의 함상포들이 거의 동시에 울부짖었

다. 《볼티모》는 지진을 만난듯이 세차게 흔들렸다. 푸들푸들 떨리는 포신아구리에서 시뻘건 불줄기가 쭉쭉 뻗어나가고 검은 연기와 매캐한 화약가스가 뭉클뭉클 피여올랐다. 세척의 군함은 화재라도 난듯이 삽시에 포연에 휩싸였다.

통나무토막같은 시누런 탄피들이 반충에 화약내와 단내를 물씬 풍기며 튕겨나 챙강! 챙강! 소리를 내며 갑판에 나뒹군다. 화약내와 포연에 숨이 컥컥 막혔고 눈이 쓰려났다.

일순 당황했던 웨리크는 귀고막을 북치듯 하는 요란한 포성에 인차 용기를 가다듬었다. 그는 자기가 승선지도장교임을 새삼스레 자각하며 위엄있게 쌍안경을 들고 포탄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며 파도우에 무수한 물기둥을 일으키는 전방을 지켜보았다. 이때 문득 뇌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북조선해군이 감히 어뢰정 네척으로 우리 기동분함대를 공격할 용단을 내릴수 있을가? 아니다.

모름지기 어디서인가 절호의 기회를 노리는 다른 어뢰정들이 또 있을것이다. 혹시 그들은 항공대와 련합작전을 할수도 있다.

《항공감시를 강화할것! 일체 고사무력은 대공방어준비를 할것!》

이렇게 명령을 내린 그는 쌍안경의 렌즈를 조절하며 전방뒤쪽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전투서렬의 왼쪽에서 공격해오던 어뢰정이 포탄에 맞았는지 비칠거리며 속도를 늦추더니 얼마 못 가 멈춰서고야말았다. 선체에 불이 달렸다.

《좋아! 어뢰정 한척을 격상시켰소.》잭슨은 흡족해서 소리쳤다.

그는 이 정도의 위력시위를 하면 어뢰정대가 공격을 포기하고 꽁무니를 빼는데 급급할거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나머지 세척의 어뢰정들은 맹수의 피냄새를 맡은 사냥개인양 물갈기를 하얗게 날리며 더 기승스레 달려들었다.

《오냐! 본때를 보여주지.》

잭슨은 바싹 열이 올라서 파이프를 쥔 손을 휘저으며 《쏫! 쏫!》하고 련속 구령을 쳤다.

함상포들은 포신을 식힐 사이도 없이 다투어 울부짖었다. 포신들 아구리마다에서 번개불같은것이 번쩍거렸다. 몰방으로 터지는 요란한 포성에 하늘이 무너져내리고 바다가 통채로 펄펄 끓는것 같았다. 도처

에서 솟구치는 물기둥과 흩날리는 물보라, 짙은 포연때문에 앞을 가려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웨리크는 지금 돌격침로에 들어선 어뢰정들의 뒤에서 불쑥 나타난 두척의 소함정을 놓치지 않고 발견했다. 어뢰정들이 분명한것 같았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눈앞의 정황처리에만 급급하고있는 잭슨의 어깨를 툭 쳤다.

《함장! 저기에 어뢰정들이 또 나타났소.》

《뭐라구? 어디? 어디에?》

뜻밖의 정황에 잭슨은 어지간히 당황해서 허둥거리며 웨리크에게서 쌍안경을 받아쥐였다.

《아! 저것두 어뢰정인가?》

《먼저 공격하는건 허위고 저게 진짜인것 같소. 놈들이 묘한 수를 쓰고있소.》

《글쎄 내 어쩐지 이상하다 했지.》

잭슨은 정황이 급한지라 목표를 정확히 확인해볼 사이도 없이 부랴부랴 명령을 내렸다.

《주포들은 뒤에 나타난 어뢰정들을 타격하라!》

포병장들이 필요한 구령을 내렸다.

세척의 군함에 장비되여있는 도합 25문에 달하는 주포들이 새로운 목표를 찾아 포문을 돌렸다. 짙은 화염과 물보라때문에 목표를 찾지 못한 조준수들이 정확한 좌표를 불러달라고 소리쳤다. 미처 입을 벌리지 못하는 잭슨함장을 대신하여 웨리크가 큰소리로 좌표를 불러주었다.

《발사!》

쾌르릉!— 수십발의 대구경포탄이 불꼬리를 뒤에 달고 대기를 찢으며 동시에 날아갔다. 돌진하는 소포정 두척을 둘러싸고 폭음이 울리고 수십개의 물기둥이 일제히 솟구쳤다. 바다가 통채로 곤두섰다가 일시에 무너져내리는듯싶었다.

소포정들은 요행 직탄을 맞지 않았지만 솟구쳐올랐다가 쏟아져내리는 물사태에 가랑잎처럼 당장 뒤집혀질듯 흔들거렸다.

《잘한다! 잘해! 어서 쏴라! 어서 쏴! 이놈들아!》

어뢰정대에 쏠린 적의 화력을 분산시키는데 성공한 고준무는 너무

기뻐서 춤이라도 출듯이 날뛰며 고함을 쳤다.
《어서 쏴라! 어서!》
고준무는 소포정을 그야말로 자기의 눈동자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소포정들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김군옥에게 천둥같이 화를 낸것이였다. 하지만 이 시각엔 돌격하는 어뢰정대를 위해 자기의 소포정들을 서슴없이 희생시키면서 이리도 기뻐하는것이였다.
소포정이 흠칫 멈춰섰다.
기관실에서 다급한 웨침소리가 울렸다.
《지휘소! 파편에 맞아서 기관이 파괴됨!》
무전실에서도 파공이 됐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파편이 휙휙 날아들었다. 정장이 푹 꼬꾸라졌다. 더 지체하면 무의미한 희생을 내게 된다.
《모두 정에서 탈출할것!》
정대원들은 날쌔게 정에서 뛰여내렸다.
고준무는 갑판장과 함께 부상당한 정장을 고무단정에 실었다. 온통 화염과 물보라에 휩싸여서 어느쪽이 바다기슭인지 분간할수 없었다. 그는 고무단정의 노를 힘껏 저으며 소리쳤다.
《함선에서 될수록 빨리 멀어질것!》
하늘이 찢겨져나가는 굉음이 울리더니 또다시 포탄소나기가 쏟아졌다. 고무단정은 솟구치는 물기둥을 타고 아찔하게 허공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홀떡 뒤집혀졌다. 흩어졌던 해병들은 다시금 모여들며 필사적으로 고무단정을 붙잡았다. 고준무는 해병들의 도움을 받으며 부상당한 정장을 뒤집혀진 고무단정에 가까스로 올려놓았다.
《후—》
그는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소포정을 돌아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기동력을 잃어버린채 떠있던 두척의 소포정이 간곳없이 사라져버렸다. 소포정이 있던 곳엔 박산난 함선의 잔해와 불타는 포탄상자들이 둥둥 떠돌뿐이였다.
《아! 저… 저거… 이럴수가 있나?》
고준무는 너무도 억이 막혀서 입을 항 벌린채 굳어졌다.
해병들은 동시에 악! 하고 비명을 질렀다. 모두들 가슴이 터져나가는것만 같았다.

어뢰정에 비하면 속도는 느린 대신에 선체가 두배나 큰 소포정들은 집중적인 포탄세례를 받고 형체도 찾아볼수 없게 산산쪼각난것이였다.
웨리크는 통쾌해서 쌍안경을 높이 추켜들며 환성을 올렸다.
《명중이다! 만세!》
잭슨은 철부지처럼 분수없이 곁에서 떠들어대는 웨리크를 사납게 흘겨보았다.
《빌어먹을! 저건 어뢰정이 아닌것 같애.》
웨리크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부쩍 우겨댔다.
《무슨 소릴 하는거요? 어뢰정들이 분명하오.》
잭슨은 악이 받쳐서 눈을 부라리며 고래고래 목이 터지도록 소래기를 질렀다.
《아니래두! 그놈들이 포사격을 분산시킨 틈을 타서 어뢰정들은 쏘구역을 뚫고들어왔어!》
그제서야 웨리크는 피뜩 정신을 차렸다.
순간 눈앞이 아뜩했다.
이게 뭔가? 어쩌면 이럴수가 있단 말인가?
무차별적인 집중포격으로 하여 세찬 불길과 룡트림하는 화염이 파도치는 그속을 뚫고 세척의 어뢰정이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전속으로 달려오고있었다. 그것은 정녕 불속에서도 죽지 않고 나래쳐오른 불사조들이였다.
웨리크는 그 모습, 그 정신에 위압되여 전신이 마비되는것만 같았다.
《여! 조타수! 뭘 멍청히 서있어? 빨리 변침하라! 어서!》
잭슨은 다급히 소래기를 질렀다.
기세등등하여 달려드는 북조선해군의 어뢰정들을 얼친듯이 멍하니 쳐다보기만 하던 조타수는 그제서야 정신이 펄쩍 들었던지 부랴부랴 타륜을 돌렸다.
《포사격 중지!》
뒤늦게야 중순양함은 부질없는 불질을 그만두고 꼬리를 사리려고 황급히 배머리를 돌리기 시작했다. 미친듯이 함상포를 갈겨대던 경순양함과 원양구축함도 급작스레 조성된 절망적인 사태앞에서 몹시 당황망조해서 꼬리에 불이 달린 맹수들처럼 갈팡질팡 헤덤벼쳤다.

26

아! 골이 빠개지는것 같구나. 가슴은 왜 이리도 답답한가? 목이 마르구나. 물이라도 한모금 마시면 좋으련만…

이랑이랑 줄지어 파도가 밀려오는 도래굽이에 퐁퐁 솟구치던 맑은 샘, 언젠가 박원협갑판장이 읊은 자작시처럼 한모금만 마셔도 수평선 천리를 내달릴 억센 용기를 안겨주던 샘, 그 샘을 김정인준의가 발견했었지. 함대사령관이 될 꿈을 안고있다는 처녀, 우리 정대장이 사랑하는 처녀.

원항해타격훈련을 앞두고 그 처녀가 정성껏 만든 오미자단물을 가지고 찾아왔었지. 빛갈이 발기우리하고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그걸 다시한번 맛볼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그 생각을 하니 마른 목구멍이 젖어들면서 몸에 기운이 생기는것 같았다.

일어나자! 일어나야 한다!

쇠몽둥이로 뒤통수를 후려치는듯 한 타격을 받고 꼬꾸라졌던 리학섭은 가까스로 의식을 차리고 손더듬을 하며 고개를 들었다.

귀가 멍멍했다. 그래서인지 기세좋던 고속기관의 동음도, 요란하던 폭음도 들리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는 상반신을 일으키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령탑이 파괴되였다. 탐조등의 깨진 유리쪼각과 꺾어진 철판쪼각들이 바닥에 너저분했다. 다행히도 조타기의 타륜은 성한채로 붙어있었다. 조타기밑에서 누군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중이다. 부축해주며 보니 양판익정장이였다. 무너진 해도실안에는 기관장이 피투성이가 되여 쓰러져있었다.

리학섭은 안깐힘을 쓰며 기관장을 끌어냈다.

《기관장동무! 영호동무! 정신차리오!》

구영호기관장은 아무런 응대도 없었다.

별안간 얼굴이 따가와졌다. 둘러보니 여기서도 저기서도 우지직 부지직거리며 불길이 널름거렸다.

기관이 파손되여 공격도중에 멈춰선 어뢰정 24호는 순식간에 하나의 불덩어리로 화했다.

《야! 분하구나! 어뢰 한발 쏴보지 못한채 이 지경이 되다니!》

양판익은 너무도 절통하고 억이 막혀서 주먹으로 사령탑을 후려쳤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돌격침로에 들어설 오늘의 이 순간을 위해 자기의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해온 어뢰정이다. 쓰다듬고 또 쓰다듬으며 정을 기울여준 어뢰정이 조국을 위해 큰 공을 세워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절통하게도 적의 함포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멈춰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저 멈춰선 정도가 아니라 폭발될 위험에 처했다.

선미에 있는 연유탕크에까지 불이 달렸던것이다.

와지직 탁탁! 소리를 내며 불길이 탐욕스런 맹수의 혀처럼 곁에 있는 두발의 어뢰를 핥고있었다. 어뢰 두발이 가열되여 터지면 어뢰정은 산산쪼각이 난다.

승무원들을 시급히 탈출시켜야 했다.

둘러보니 위생지도원 오익섭은 강순봉이와 함께 연유탕크와 어뢰에 달린 불을 끄느라 갑판에서 방화호스를 늘이고있는데 그들의 잔등에 선 불이 펄펄 붙었다.

양판익정장이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여! 이젠 틀렸소. 빨리 바다물에 뛰여들라!》

오익섭은 강순봉을 억지다짐으로 바다물에 밀쳐버리더니 손에 잡히는대로 구명환을 벗겨서 던져주고나서 사령탑으로 훌쩍 뛰여올라왔다.

리학섭은 정장과 위생지도원에게 부상당한 기관장을 맡기고 손더듬, 발더듬을 하며 해도실을 거쳐 기관실로 내려갔다.

내부구간엔 연기가 꽉 차서 한치앞도 분간할수 없었다. 내부도색을 한 에나멜과 고무바킹이 타는 냄새는 코를 찌르고 눈을 쓰리게 했다. 눈을 뜰수도 없었고 숨도 쉴수 없었다. 질식되여 당장 쓰러질 지경이였다.

가까스로 기관실의 수밀문을 찾아 열어제꼈다.

기다렸던듯 화염과 증기가 확 뿜어나왔다. 리학섭은 두손을 허우적거리며 조기조장과 조기수를 애타게 소리쳐 불렀다.

《시찬동무! 병하동무! 어데 있소?》

기관본체는 달대로 달아 뜨거워서 손을 댈수가 없었다. 리학섭이 손

더듬하며 두개의 기관사이로 나가는데 누군가 발에 걸채였다. 조기조장 리시찬이다. 그는 기관옆에 엎드린채 설설 끓는 물이 분수처럼 뿜어나오는 파손된 청수관을 두손으로 꽉 감싸쥐고있었다.

리학섭은 그를 부둥켜안고 갑판으로 내가려고 했다. 하지만 리시찬은 몸부림치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빨리 기관을… 돌리시오, 기관을…》

저쪽에서는 쓰러졌다가 간신히 상반신을 일으킨 조기수 민병하가 시동변을 쥐고 당기려고 모지름을 쓰고있었다. 리학섭은 어쩔수없이 리시찬을 놓고 민병하를 도와 함께 시동변을 잡았다.

숨이 막히고 전신이 나른해서 제대로 힘을 쓸수가 없었다.

여느땐 한손으로도 얼마든지 당기던 시동변인데 지금은 왜 이럴가?

민병하가 시동변을 놓고 맥없이 쓰러졌다.

리학섭도 화염과 증기에 거의나 질식되여 의식조차 혼미해졌다. 이제라도 갑판에 뛰쳐나가면 후련히 숨을 쉴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숨이 막혀 죽더래도 기관은 살려내야 했다. 그래야 어뢰정을 다시 돌격침로에 들여세우고 어뢰를 발사하든가 그럴수 없는 경우엔 적의 포화력이라도 얼마간 유인할수 있었다.

입을 앙다물고 숨을 죽인채 비지땀을 흘리며 지그시 시동변을 당기는 그의 귀전에는 전투출항을 앞두고 해병결의모임에서 자신이 랑독한 맹세문의 구절구절이 툭툭 관자노리를 치는 맥박과 함께 또렷이 되살아나고있었다.

그렇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 맹세를 다지였다. 조국의 바다는 끝없이 넓지만 미제침략선이 떠있을 자리는 한치도 없다고, 조선청년인 우리는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용감히 싸워 미제침략무리를 바다속깊이 수장해버릴것이라고…

별안간 두손에, 두팔에, 온몸에 부쩍 기운이 뻗쳤다.

《아!—》

그는 입을 쩍 벌리고 고함을 지르며 시동변을 와짝 잡아챘다.

짜르릉!— 폭음을 울리며 기관이 돌아갔다.

부상당한 기관장을 위생지도원에게 맡겨 먼저 탈출하게 하고 문화부정대장과 조기수들이 나오기만을 초조히 기다리던 양판익은 놀랍게도 기관 한대가 짜르릉거리며 돌아가자 환성을 지르며 타륜을 잡았다.

《전진!》
멈춰섰던 어뢰정24호는 다시 앞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사령탑에로 번진 불길이 맞받아 부는 해풍에 홰불처럼 펄펄 나붓겼다. 이대로 냅다 내달리다가 적함을 들이받으면 얼마나 통쾌할것인가. 그에 때맞춰 어뢰까지 터지면 좋으련만…
별안간 하늘이 찢겨나가는 소리가 머리우에서 울리더니 함포탄이 련속 날아와 터졌다.
좋다! 어디 더 쏴봐라. 우리가 놈들의 포사격을 유인한것만도 대단한거지.
양판익은 내심 쾌재를 올리고나서 기관실에 대고 목청껏 웨쳤다.
《문화부정대장동지! 빨리 나오시오, 어뢰정이 위험합니다.》
기관실에서는 응답이 없었다.
짜릉짜릉 기관이 돌아가는 소리만 요란히 울려나올뿐… 어느새 불길은 혀를 날름거리며 양판익의 몸을 휩쌌다. 하지만 부릅뜬 두눈에 시퍼런 불이 달린 그는 제몸이 불타는건 전혀 개의치 않았다.
조금만… 조금만 더 달리자! 사랑하는 나의 어뢰정아, 너와 나 그대로 어뢰가 되여 가증스러운 미제침략선을 들이받을수만 있다면… 아! 그러면 너도 나도 더 바랄게 무엇이랴!
달대로 달아오른 연유탕크와 두발의 어뢰가 더는 견디여내지 못하고 동시에 폭발했다.
꽝!— 짜르릉— 눈부신 화광에 사위는 대낮처럼 밝아졌다.
거대한 물기둥이 해병들의 위훈을 전하는 기념비런듯 포연이 짙은 하늘을 찌르며 올라갔다가 쏴아!— 하고 폭우처럼 쏟아져내렸다.
어뢰정24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어뢰정이 있던 장소엔 불의 파도만이 세차게 일렁일뿐…
《문화부정대장동무!》
《양판익이!》
주문진등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홍동철과 한백천은 목터지게 부르짖었다.
문화부정대장을 비롯한 24호승무원들은 물에 뛰여들면 살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적의 포화력을 조금이라도 유인하기 위해 불타는 어뢰정과 함께 돌격침로를 내달리다가 자폭하는 길을 서슴없이 택한것이였다.

세척의 어뢰정들은 전우들이 피로써 얻어준 절호의 기회를 타고 쏘구역을 무사히 통과하여 800메터계선까지 뚫고들어갔다. 이제는 적함들의 대구경포들이 어뢰정을 보면서도 때릴수 없게 되였다. 고사총탄따위는 아무리 날아들어도 무서울게 없었다.

김군옥은 더욱 자신만만해서 침착하게 정대를 지휘했다.

《목표! 적중순양함, 23호가 먼저 공격하라!》

《알았다!》

《볼티모》호쪽에 제일 가깝게 접근한 23호정은 500메터계선에 들어서는 순간 연막을 치는 동시에 오른쪽에 적재한 어뢰를 발사했다.

어뢰는 뒤로 주르르 미끄러져내리더니 첨벙! 하고 바다물에 떨어졌다. 동시에 어뢰기관이 시동되여 힘차게 추진기를 돌렸다. 강한 추진력을 얻은 어뢰는 철갑상어마냥 어뢰정의 배밑창아래로 빠져나가 빠른 속도로 전진했다.

짱짱하게 생긴 최정수정장은 온 정신을 두눈에 집중시키고 포화에 죽가마처럼 설설 끓어번지는 수면을 스치며 그야말로 쏜살같이 나가는 어뢰를 지켜보았다.

《비켜!》

급해맞은 잭슨은 낯이 해쓱하게 질려서 어쩔바를 몰라 전전긍긍하는 조타수를 밀쳐버리고 자기가 직접 타륜을 잡았다.

로장인 그에게는 태평양전쟁때 일본해군의 어뢰정들이 쏜 어뢰를 솜씨있게 피해본 경험이 있었다. 그때는 멀리에서 쏴갈긴 어뢰여서 회피기동이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뢰정이 지나치게 바투 접근하여 어뢰를 발사했기때문에 회피기동을 제대로 할만 한 시간적여유가 없었다.

《볼티모》호는 지그자그로 침로를 변경시켰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철천지 원쑤에 대한 복수심으로 만장약된 어뢰는 《움직이는 섬》이라고 뽐내는 중순양함의 중심부 흘수선에 정확히 명중했다.

요란한 폭음과 함께 《볼티모》호의 철갑선체엔 직경 7메터가 넘는 커다란 파공이 생겼다. 만수된 언제의 수문을 열어놓은것처럼 그 구멍으로 바다물이 룡트림을 하며 쓸어들어갔다.

어뢰가 터질 때 생긴 강한 충격에 《볼티모》호는 지진을 만난 고층살림집처럼 심하게 뒤흔들렸다.

타륜을 돌리던 잭슨함장은 앞창을 이마로 힘껏 들이받으며 꼬꾸라졌다. 앞창이 산산쪼각났다.

보호손잡이를 우악스레 틀어쥐고 이 살인적인 충격을 가까스로 이겨낸 웨리크는 함장을 대신하여 전투지휘에 나섰다.

《파공된 부분의 격실들을 밀페할것! 파공을 빨리 퇴치할것!》

이런 경우 파공된 부분의 격실들에는 방수포를 치고 특수타입물을 처넣어야 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맞다들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승무원들은 경악해서 미친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뛸뿐 파공퇴치를 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볼티모》호에 바싹 접근해들어온 어뢰정이 계속하여 또 한발의 어뢰를 발사하여 명중시키면 아무리 산처럼 덩치가 큰 중순양함도 침몰의 위기를 면치 못하게 된다.

웨리크는 고래고래 고함을 쳤다.

《모든 고사무력은 방금 어뢰를 발사한 어뢰정을 집중타격할것!》

사거리가 긴 대구경포들은 무용지물이 되였지만 고사포와 고사총들은 근거리사격도 얼마든지 할수 있었다.

《볼티모》호에 설치되여있는 40미리고사포 36문과 20미리고사포 12문이 어뢰정23호에 포신을 돌리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두눈을 부릅뜨고 침착하게 전방을 살피던 김군옥은 적들의 화력이 그쪽에 쏠린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21호정, 전투침로로!》

《알았다!》

김도형은 신이 나서 어뢰정을 전투침로에 들여세웠다.

《전속으로!》

채기정은 최대회전수로 올렸다.

어뢰정21호는 파도를 박차고 날아가는듯싶었다.

김도형은 이미 한방 얻어맞고 비칠거리는 중순양함의 연유탕크와 기관실이 있을 선미쪽을 어뢰조준기로 정확히 겨누고 불을 뿜듯이 웨쳤다.

《주의! 발사!》

발사장약이 터졌다. 뒤로 주르르 미끄러져내린 어뢰는 자체기관이 시동되자 즉시 상어처럼 날쌔게 어뢰정의 배밑창아래로 쑥 빠져나갔다.

순간 김군옥은 다급히 소리쳤다.
《우현 25도로 변침할것!》
김도형은 자기가 쏜 어뢰가 정확히 적함의 심장부에 명중되는것을 지켜보고싶었지만 그럴수가 없었다.
그는 허리를 굽히며 타륜을 왼쪽으로 힘껏 잡아돌렸다. 한발의 어뢰를 토해버리고 홀가분해진 어뢰정21호는 급히 배머리를 우측으로 돌렸다.
《좋아! 중순양함과 구축함사이를 빠져나가면서 적들을 유인하라!》
《알았다!》
21호정이 쏜 어뢰는 물속으로 질주하여 그 순간 《볼티모》호의 선미쪽 흘수선을 힘껏 들이받았다.
쾅!— 짜르릉—
눈부신 화광이 번쩍이였다. 바다가 뒤번져지고 하늘이 무너져내리는듯싶었다. 솟구쳤던 물기둥이 무너져내리는데 다른 물기둥들이 여기저기서 사선으로 내뿜었다. 그것은 파손된 연유탕크에서 뿜어나오는 배기름이였다. 거기에 불이 확 당겼다. 《볼티모》호의 연유탕크는 거대한 화염방사기로 변했다. 불타는 배기름이 아우성치는 파도우에 뿜겨졌다. 도처에서 불이 일렁거렸다. 바다가 통채로 불타올랐다. 활활 불타올랐다.
과연 장관이였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젊은 정대장의 가슴속에서는 일찌기 느껴본적이 없는 벅찬 환희와 쾌감이 분수처럼 솟구쳐올랐다.
오호라! 장쾌하구나! 바다가 노호한다. 바다가 불탄다.
외적들이 발동소리를 울리고 검은 연기를 뿜으며 침노할제 구슬프게 울기만 했던 바다, 침략자들에게 뜯기울대로 뜯기우고 빼기울대로 빼앗기고도 잠잠해있던 바다가 오늘은 분연히 고개를 추켜들고 일떠섰구나. 분노로 치솟고 날뛰며 미제침략선을 후려갈기고 불태우고 삼켜버리누나.
오! 바다여, 조국의 바다여!
불타오르고 불비가 쏟아지는 바다의 한복판에서 그 불을 지른 사나이는 이 순간 자신이 시인이 된듯싶었다.

27

재차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볼티모》호는 괴물처럼 신음소리를 지르며 불길과 연기에 휩싸인채 속도를 떨구고 맥없이 왼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마스트에서 펄럭이던 커다란 성조기도 화염에 구슬려서 데쳐낸 시래기마냥 축 늘어졌다.

내부격실들과 선수선미, 중갑판에서 아우성소리가 터져올랐다. 파공퇴치를 단념한 승무원들이 다투어 갑판으로 뛰쳐나왔다. 갑판에 있던 승무원들은 어쩔바를 몰라 쿵덩거리며 돌아갔다.

앞창을 들이받고 산산쪼각나 흩어진 유리쪼각들우에 어푸러진채 숨이 죽은듯 기척이 없던 잭슨함장이 가까스로 고개를 들었다. 구레나룻을 위엄있게 길렀던 그의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여서 보기에도 으쓸몸서리가 쳐질 지경으로 끔찍했다.

코구멍과 량쪽귀구멍에서도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어뢰가 폭발할때 생긴 충격파로 귀고막이 터진 모양이였다.

《웨리크! 자네 어데 있나?》

자신심과 위엄을 졸지에 잃어버린 잭슨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두손을 허우적거렸다.

웨리크는 허리를 굽히며 큰소리로 대답했다.

《나 여기에 있소!》

잭슨은 가늘게 떨리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당부했다.

《모든걸 자네에게 맡기네. 난 통 앞이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도 않으니 어쩌는 수가 없구만.》

잭슨은 고개를 떨구었다.

《안심하십시오, 함장님.》

웨리크는 어푸러져있는 잭슨함장을 바로 눕혀주었다.

생사위기에 처한 이 급박한 정황에서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미해군의 기함으로 명성을 떨쳐온 《볼티모》호가 눈에도 들지 않는 소형어뢰정의 공격을 받고 침몰된다는건 너무도 어이가 없는 일이

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된다. 침몰되면 미해군은 아니, 대아메리카는 이 수치를 두고두고 씻을수 없게 된다.
그는 자꾸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몸의 균형을 가까스로 잡으며 전송판에 대고 소리쳤다.
《함은 침몰되지 않는다! 한명도 함에서 탈출하지 말라! 있는 수단을 다해서 파공을 막고 화재를 진압하라! 장교들은 명령에 불복하는 자들을 즉시 쏴갈기고 바다에 처넣으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듯 장교들이 권총을 빼들고 소래기를 지르며 공포를 탕! 탕 쏘아댔다.
갑판에 뛰쳐나왔던 승무원들은 물이 차오르는 내부구간으로 황급히 쫓겨들어갔다. 각자와 목침, 망치와 도끼를 비롯한 생활력투쟁기재로 파공을 막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겨끔내기로 울렸다. 각 구간에 설치되여있는 비상뽐프들이 돌아가며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반정신이 나간채 갑판에 쓰러졌던 토니를 비롯한 포수들도 불을 끄기 위해 부랴부랴 방화호스를 늘이였다.
웨리크는 함선구조에 달라붙은 승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려고 전축과 련결된 확성기스위치를 돌렸다.
마스트에 매달린 대형확성기와 내부구간들에 설치되여있는 방송에서 《해군행진곡》이 비장하게 울려나왔다.
웨리크는 눈을 비비고 포연과 화염에 잠긴 무시무시한 전장을 둘러보았다.
방금전에 《볼티모》호를 향해 어뢰를 발사한 어뢰정21호가 어디론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어디에 갔을가? 그놈을 복수해야 할텐데…
두리번거리는데 원양구축함에서 급해맞은 함장의 비명이 날아왔다.
《아! 〈볼티모〉! 어뢰정이 우리 함을 공격한다.》
웨리크는 구축함쪽을 바라보았다.
자옥한 포연과 불길을 뚫고 어뢰정 한척이 마치 불사조마냥 날아가는게 언뜻 보였다.
《어뢰정을 타격하라!》
《볼티모》호의 선미갑판과 원양구축함의 선수갑판에 설치된 함상포들이 어뢰정21호를 노리고 황급히 포신을 돌렸다. 그런데 어뢰정과의 거리가 너무도 가까와서 조준을 할수가 없었다. 자칫하면 중

순양함과 구축함이 서로 때릴 내기를 할수 있었다. 포병장과 조준수들이 어찌할바를 몰라하는 사이에 어뢰정21호는 두 적함사이를 무사히 빠져나갔다.

《어디 죽어봐라! 양키놈들아!》

박원협은 포연에 더 거쉬여진 목청으로 쌍욕을 하면서 원양구축함의 선수갑판에서 갈팡질팡하는 적들에게 고사총련발사격을 퍼부었다.

김군옥은 적들의 시선이 21호정에 쏠린 틈을 타서 22호정에 어뢰돌격을 명령했다.

어뢰정의 속도를 최대로 올려 300메터계선까지 뚫고들어갔던 리완근정장은 두군데나 치명상을 입은 《볼티모》호의 선체중심에 대고 어뢰를 발사했다. 그리고는 재빨리 타륜을 왼쪽으로 돌려 좌현25도로 변침했다. 이것은 지난 기간의 거듭되는 훈련을 통하여 익숙할대로 익숙해진 동작이였다. 이처럼 22호정은 기정과 반대방향으로 회두하며 자옥한 포연과 물보라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발사한 어뢰는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는 맹수의 멱을 노리는 풍산개처럼 파도를 헤가르며 쏜살같이 나가 이미 파공이 난 중순양함의 심장부를 재차 강타했다.

요란한 폭음, 번쩍이는 화광과 함께 《볼티모》호의 거대한 선체는 지진을 만난 섬처럼 진동했다. 승무원들이 악전고투하여 파공된 격실들을 폐쇄하고 물을 퍼내던 구간이 다시 수메터 직경으로 펑 뚫어져 우현으로 관통되였다. 파공된 선체의 량쪽에서 바다물이 폭포치듯 소리치며 쏠어들었다. 혼비백산한 승조원들 대다수는 아우성을 칠 사이도 없이 사품치는 물속에 휘말려들었다.

다른 구간에 있던 승무원들은 경악하여 앞을 다투어 다시 갑판에 뛰쳐나갔다.

포좌지를 차지하고있던 승무원들은 어뢰가 폭발할 때의 강한 충격에 타박상을 입고 갑판에 굴러떨어졌다. 세찬 불길과 지독한 연기가 갑판과 사령탑을 휩쌌다. 중갑판에 설치되여있는 5련발어뢰발사관에도, 선미갑판의 량쪽에 렬을 지어놓은 폭뢰들에도 불이 펄펄 붙었다. 포탄고에도 불이다.

《볼티모》호는 언제 터질지 모를 거대한 폭탄으로 변했다.

함의 운명이 경각에 달했지만 승조원들은 제 목숨부터 살리겠다고

구명조끼함과 구명환에 달라붙었다. 먼저 구명조끼를 입겠다고 필사적으로 아귀다툼을 했다.

벌써 바다에 뛰여내리는 놈들도 있었다.

《개새끼들! 함과 생사를 함께 하는건 미해군의 전통이야! 함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도망을 쳐? 빨리 화재를 진압하라! 어뢰가 터질수 있다! 포탄이 터질수 있어! 어뢰를 쏴갈기라! 폭뢰를 다 바다에 떨구라! 어서!》

다행히도 수뢰장이 이 명령을 받아물고 용약 불길속에 뛰여들어가 어뢰를 발사했다. 5련발어뢰발사관에서 련속 발사된 어뢰는 목표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선미갑판에서도 폭뢰를 바다물에 마구 떨구었다. 큰 위험이 가셔진셈이다.

웨리크가 안도의 숨을 내쉬는데 미처 떨구지 못한 불달린 폭뢰들이 요란한 폭음을 울리며 터져나갔다.

선미갑판에서 폭뢰를 떨구던 승무원들과 포좌지에서 뛰여내린 승무원들이 좌현중갑판으로 도망쳐왔다. 일순 바로 서려던 중순양함은 다시 왼쪽으로 기울어졌다.

《야! 개새끼들! 밥통들아! 경사지는쪽에 몰켜서면 되는가? 우현으로 가라!》

승무원들은 목동의 채찍을 맞은 양무리처럼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자식들! 멍청히 서있지 말고 포탄상자와 전투예비품상자들을 다 꺼내서 바다에 처넣으라!

식품창고를 까고 술상자, 통졸임상자들도 빨리 내던지라! 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웨리크는 자꾸만 기울어지는 몸의 중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허둥거리다가 뒤로 벌렁 나가넘어졌다. 뒤통수가 바닥에 쾅 부딪쳤다. 타격이 얼마나 센지 눈알이 툭 튀여나가는것만 같았다. 무서운 아픔이 머리속을 징징 울렸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있다가 아픔이 좀 가라앉자 전송관을 붙잡고 비칠거리며 일어났다.

할수 있는껏 노력했지만 함은 이미 좌현으로 20도이상 기울어졌다.

무엇을 붙잡지 않고서는 지휘소에 서있기도 어렵게 되였다. 이런 지경에 처한 함을 구원한다는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였다.

《야! 통분하구나!》

웨리크는 피나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하는수없이 탈출을 명령했다.
《구명뽀트를 내리우고 전원탈출할것!》
갈팡질팡하던 승무원들은 살판을 만난듯 급기야 활기를 띠면서 상갑판에 달려올라가 거기에 활차와 바줄로 고정시켜놓은 구명뽀트들을 내리우기 시작했다. 구명뽀트들이 수면에 떨어지자 저마다 타겠다고 밀치고닥치고 야단이였다.
그 꼬락서니를 보니 웨리크는 또 쌍욕이 터져나갔다.
《이 개자식들아! 네놈들에겐 상관도 없고 상급도 없나? 부상당한 함장을 먼저 구명뽀트에 태울것!》
지휘소 한쪽구석에 얼친듯이 멍하니 주저앉아있던 부함장과 당직장교는 그 소리를 듣고 부시시 일어나더니 쓰러진채 기척이 없는 잭슨함장을 맞들고 나가려고 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던지 잭슨은 자기를 다치지 말라고 몸부림치며 소래기를 질러댔다.
《비켜! 난 함장이다! 함과 운명을 함께 하겠단 말이다!》
부함장이 자못 난처해진 기색으로 웨리크를 힐끔 돌아보더니 함장에게 사정했다.
《함장님, 그건 무의미한 죽음입니다. 어서 탈출합시다.》
잭슨은 두눈을 부릅뜨고 턱수염을 덜덜 떨며 웨쳤다.
《아니다! 너희들이나 목숨을 건지라. 그리고 미해군의 전체 장병들에게 말해주라. 그들의 뼈에 사무치게 말해주라. 이 못난 잭슨처럼 북조선해군을 우습게 알고 허장성세하다가는 참패를 당한다고 말이다. 아! 〈볼티모〉호가 이 신세가 되다니… 정말 절통하구나!》
주먹으로 지휘소바닥을 탕탕 치며 울부짖던 잭슨은 피를 토하며 고개를 구겨박았다. 실로 바라보기조차 스산한 광경이였다.
비감에 잠겨 말없이 잭슨함장을 주시하던 웨리크는 엉거주춤 굳어진채 자기의 눈치만 살피는 부함장과 당직장교에게 본인의 의사엔 관계없이 어서 함장을 데리고 탈출하라고 눈짓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에게 함께 탈출하자고 권하기를 은근히 바랐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경황이 없는지 그들은 함장을 맞들고 도망치듯 부리나케 지휘소에서 나갔다.
잭슨이 애용하던 파이프는 주인의 버림을 받고 바닥에 나딩굴었다.

둘러보니 조타수녀석은 언제 꼬리를 사렸는지 모르겠다.

《개새끼들! 비겁쟁이들! 갈테면 가라!

이 웨리크는 마지막까지 〈볼티모〉호와 운명을 함께 할것이다!》

그는 내심 이렇게 웨치며 무선통화기를 손에 쥐였다.

《원양구축함! 어뢰정21호를 추격하라!》

《알았다!》

《포탄을 다 쏴도 좋다! 그놈을 기어코 침몰시키라!

〈야이카〉! 어뢰정22호를 추격하라!》

어뢰정23호는 고사무력의 집중사격을 받고 이미 산산쪼각이 났다. 그러니 나머지 두척의 어뢰정만 때리면 된다. 이놈들을 격침시켜야지 그러지 못하면 미해군의 명성이 바다속에 처박히우게 된다.

오! 하느님, 도와주옵소서.

원양구축함은 어뢰정21호의 꼬리를 물고 속도를 내며 함포사격을 들이대고있었다. 경순양함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춘 어뢰정22호를 찾느라 크게 반원을 그리는중이다. 전투장엔 포연이 자옥해서 앞을 가려보기 어려웠다.

원양구축함을 뒤에 달고 위험한 유인기동을 하면서 김군옥은 자신만만하게 열정에 넘쳐 계속 전투를 지휘했다.

《22호, 중순양함은 끝장이 난거나 마찬가지다.

경순양함을 공격하라!》

《알았다!》

《볼티모》호에 어뢰를 명중시키고 신속히 빠져나왔던 어뢰정22호는 자기를 찾아서 갈팡질팡 돌아치는 경순양함을 향해 다시 돌격침로에 들어섰다.

리완근정장은 어뢰사격조준기로 적함을 겨누며 불을 뿜듯이 목청껏 웨쳤다.

《동무들!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전속 앞으로!》

어뢰정22호는 불길과 포연속을 뚫고 동음을 높이 울리며 전속으로 내달렸다. 가증스러운 경순양함의 거대한 선체가 마주칠듯 눈앞에 다가왔다.

《발사!》

어뢰조준기로 적함을 겨누고 발사구령을 내린 리완근은 발사된 어뢰를 긴장하게 주시했다.

어뢰는 불과 연기가 출렁거리는 수면을 헤가르며 쏜살같이 나아간다. 급해맞은 경순양함은 급기야 속도를 내며 어뢰를 피하려고 했다. 어뢰는 경순양함의 선미에 명중되였다.

요란한 폭음이 울리고 물기둥이 솟구쳤다.

경순양함은 꼬리가 잘라진 맹수처럼 속도를 늦추고 꽁무니로 불길과 검은 연기를 내뿜었다. 이제 어뢰를 한발만 더 명중시키면 꼼짝없이 침몰될텐데 벌써 어뢰 두발을 다 쏴버렸으니 그는 아쉽기 그지없었다.

정대장의 목소리가 수화구로 울려나왔다.

《새매 둘! 빨리 전장에서 탈출하라! 위험하다!》

《알았다!》

리완근은 그제서야 어뢰정을 돌려세웠다. 경순양함에서 쏘는 총포탄소나기가 날아왔다. 그는 어뢰정을 몰고 탄우속을 뚫고 전장을 재빨리 빠져나갔다. 22호정이 무사히 탈출하는것을 지켜보던 김군옥은 김도형정장의 어깨를 툭 쳤다.

《우리도 빨리 돌아서서 원양구축함을 때리자!》

《알았다!》

김도형정장은 약간 허리를 굽히고 타륜을 재빨리 돌리면서 소리쳤다.

《어뢰발사준비!》

선미갑판에 뛰여내려 좌현에 적재한 어뢰의 제동장치를 풀기에 앞서 정상상태를 확인하던 박원협은 그만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게 뭔가?! 파편에 맞아 어뢰추진기가 뭉청 끊어져 날아갔던것이다. 하긴 그것도 다행인셈이다. 파편이 장약을 한 어뢰 앞부분이나 곁에 있는 연유탕크실을 쳤다면 어뢰정이 무사치 못할번 했다.

《지휘소! 어뢰고장!》

어뢰정을 날쌔게 한바퀴 잡아돌려서 추격해오는 원양구축함과 일직선상에 마주 세운 김도형은 어뢰가 고장이라는 소리에 아연실색해졌다.

《뭐라구?!》

《파편에 추진기가 꺾어졌습니다.》

《젠장! 빌어먹을…》

김군옥은 악에 받쳐 박원협을 쏘아보는 김도형정장의 어깨를 툭

쳤다.
《그래도 어뢰공격을 하오!》
결국 선체육박을 하라는 명령이였다.
《알았다! 전속 앞으로!》
어뢰정21호는 원양구축함을 맞받아 물갈기를 날리며 내달렸다.
《연막을 칠것!》
박원협은 재빨리 연막장치의 변을 열었다.
화살처럼 나가던 낙지가 먹물을 확 뿜은듯이 검은 연기가 뿜어나와 어뢰정을 감쌌다.
어뢰발사직전에 연막을 친다는걸 모를리 없는 원양구축함 함장은 급해맞아서 변침을 명령했다.
원양구축함은 오른쪽으로 황급히 배머리를 돌리고 최대속도로 도망을 쳤다. 어찌도 빠른지 어뢰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다.
그 꼬락서니를 지켜보던 웨리크는 억이 막혔다.
《구축함! 구축함!》
구축함에선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이 개자식아! 비겁쟁이야! 도망치지 말고 돌아서서 어뢰정21호를 때리라! 격침시키란 말이다!》
구축함에 대고 주먹질을 하며 목이 쉬도록 고함을 지르던 그는 갑자기 반신불수라도 된듯이 몸의 균형을 잃고 모짜로 나자빠졌다. 머리에 재차 심한 타박을 받아서 정신이 아찔했다. 일어나려고 모지름을 썼지만 선체가 너무 기울어서 바로 설수가 없었다. 가까스로 일어서던 그는 비칠거리다가 이마로 타륜을 들이받으며 꼬꾸라졌다.
리성을 잃은 광증이 꺼지자 무시무시한 공포가 전신을 휩쓸었다.
그는 침몰을 앞둔 중순양함의 기본지휘소에 자기가 어째서 홀로 남았는지 알수 없었다.
해상전투도중에 함이 침몰의 위기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경우 함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해야 할 사람은 함장이다. 그런데 내가 무엇때문에 잭슨함장을 대신하여 《볼티모》호와 함께 본국에서 수천마일이나 멀리 떨어진 여기 조선동해에 수장되여야 한단 말인가?
급작스레 전신이 와들와들 떨렸다.
그런즉 《볼티모》호가 침몰된단 말이지. 어쩌면 이럴수가 있나? 이

게 악몽이 아닐가? 정말이지 믿어지지 않는다. 난 믿을수가 없어! 대아메리카의 상징이자 미해군의 상징인 《볼티모》호가 경순양함과 원양구축함까지 거느리고도 불과 네척밖에 안되는 북조선해군 어뢰정들과의 싸움에서 여지없이 대패하다니… 정녕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구나!

문득 절망에 빠진 그의 눈앞에는 견장을 뗀 해군장교복차림의 로회하게 생겨먹은 사나이가 나타났다. 그 사나이인즉 언젠가 자기 잠수함의 수로안내를 해준적이 있는 패전당한 일본의 소해함함장 시마무라였다.

력대 해군명장들가운데서 처음으로 조선사람인 리순신을 꼽던 그의 목소리가 귀전에 쟁쟁 되살아났다. 유명한 《셔먼》호사건도 상기시켜주던 그의 목소리가…

《**김일성**장군의 령도를 받기때문에 북조선은 빠른 기간에 강력한 해군함대를 창설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칫하면 당신들은 〈셔먼〉호의 신세가 될수도 있는거지요.》

혹시 저 어뢰정에 **김일성**장군이 타고있는게 아닐가? 그렇지. 모름지기 **김일성**장군이 어뢰정대에 명령을 내렸을것이다. 우리 기동분함대를 타격하라고… 빨찌산으로 백만관동군과 맞서싸워 이긴 장군만이 어뢰정대로 기동분함대를 공격하라는 대담무쌍한 명령을 내릴수 있는것이다.

정녕 조선은 무서운 나라다. 근 백년전에는 포함외교로 문호개방을 해보려던 《셔먼》호가 불타서 대동강에 수장됐다면 오늘은 조선전쟁의 앞장에 섰던 《볼티모》호가 불타서 조선동해에 침몰되고있지 않는가. 이것은 피할수 없는 미국의 운명인것 같구나.

어푸러진채 통탄하여 마지않던 웨리크는 생에 대한 급증하는 애착에 떠밀려 이를 악물고 일어나 비칠거리며 지휘소를 나섰다.

상갑판과 하갑판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여기저기에 피가 랑자하고 시체들이 나딩굴었다. 골수가 터져나왔는지 허옇고 흐들흐들한것과 살점들이 매닥질된 갑판은 미끄러워서 발을 제대로 옮겨디딜수가 없었다. 동료들의 시체를 마구 짓밟으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승무원들이 여기저기서 헤덤벼치고있었다. 모두들 침몰의 위기에 처한 함에서 빨리 탈출하여 목숨을 건질 오로지 그 욕망에 불타서 발악적으로

날뛰는것이였다.

도처에서 화염이, 열풍이 몰아쳐서 숨을 쉴수가 없었다. 살 타는 냄새와 피비린내가 역하게 풍겼다.

이대로 몇분만 서있다가는 질식되든가 미쳐버릴것만 같았다.

말그대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인 상갑판과 중갑판을 거쳐 하갑판에 내려온 웨리크는 구토감을 참으며 무작정 바다물에 뛰여들려다가 무춤 굳어졌다. 구명조끼를 입지 못한 자신을 뒤늦게야 발견한것이였다. 그는 광기어린 두눈을 사납게 희번득거리며 사위를 둘러보았다.

목숨을 건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승무원들은 구명조끼나 항해복을 입은것도 부족해서 구명환을 메거나 구명띠를 몸에 두르고 다투어 바다물에 뛰여들고있었다. 구명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바다물에 뛰여든 작자들은 파도에 삼키웠다가 가까스로 머리를 추켜들고 손을 내밀며 구원을 청했다. 갑판에서도 바다에서도 울부짖음이 터져올랐다. 온통 아우성이였다.

웨리크는 구명수단을 찾느라 숨이 졌거나 부상당한 승무원들을 재빨리 살펴보았다. 웬놈이 구명복을 입고서도 구명환을 어깨에 멘채로 나자빠져있었다. 구명환을 벗기려고 다가가던 그는 경악을 했다.

고사총탄에 면상을 주어맞고 피투성이가 된 젊은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불티모출신의 장탄수 토니였던것이다. 벌써 숨이 끊어졌는지 토니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굳어져있었다. 웨리크는 눈을 꾹 감고 그의 몸에서 구명환을 벗겨냈다. 구명환에 머리와 한쪽 팔을 꿰면서 허겁지겁 현측으로 달려간 그는 몸서리를 치며 굳어졌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도 처참하고 무시무시했다.

주문진해상은 활활 불타면서 썰썰 끓고있는 커다란 지옥의 기름가마를 련상시켰다.

파도가 아니라 불이 이글거렸고 출렁거렸다. 불타는 시체들과 포탄상자들, 식료품상자와 지함들, 구명환과 구명띠들이 이리저리 밀리우며 선체에 부딪쳤다. 배기름과 뼁끼가 타는 냄새, 살이 타고 피가 타는 냄새가 짙은 연기에 뒤섞여 지독하게 코를 찔렀다. 흉떡이는 불바다우에서 무주고혼이 된 미해군장병들의 시체가 미친듯이 춤을 추는것만 같았다.

그 광경을 보니 웨리크는 전신이 와들와들 떨렸다. 갑판에 그냥 서 있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불바다에 뛰여들 용기도 나지 않아 망설이는데 별안간 요란한 폭음이 련이어 울렸다.

이건 뭔가? 또 어뢰에 맞았는가?

그것은 미처 바다에 내던지지 못한 포탄들이 다투어 터지는 소리였다. 불속에서 달대로 달아오른 포탄들은 더는 견디여낼수 없었던지 아우성치듯 작렬했다. 폭음에 절반이나 바다에 잠긴 선체가 진동했다. 불길과 연기에 휩싸인 중순양함은 위엄있던 자태를 이미 잃어버리고 커다란 파철더미로, 불무지로 변했다.

마스트에 매달렸던 성조기는 형체도 없이 불타버렸는데 확성기에서는 《해군행진곡》이 계속 울려나오고있었다.

주여! 보살펴주소서!
나의 령혼 천당에 갈수 있게
세찬 파도여 나를 도와주렴
나의 주검 바다깊이 수장해다오

그것은 씩씩한 행진곡이 아니라 비통한 장송곡이였다.

조선전쟁에 참가하려고 사세보항을 떠날 때 잭슨함장의 선창에 따라 씩씩하게 《내리워지지 않는 성조기》를 합창했던 승무원들 대다수가 그 장송곡을 들으며 불바다밑으로 깊이깊이 가라앉고 있었다.

문득 웨리크의 눈앞에는 이 시각 저 멀리 미국의 아늑한 해안도시 자기 집 서재에서 《태평양전쟁사》를 집필하고있을 니미쯔의 모습이 떠올랐다.

세계제패의 명성을 떨친 미해군이 여기 조선동해의 연안에 기여들었다가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한줄 니미쯔는 알기나 하는지?

《주여, 보살펴주소서!》

웨리크는 두눈을 감고 두손을 합장한채 무시무시한 불바다에 몸을 던졌다.

28

주문진등대에 서있는 홍동철과 한백천은 넓은 해상을 뒤덮은 불길과 짙은 연기때문에 이 통쾌한 전투장면을 제대로 볼수가 없어 몹시 안타깝고 속이 탈대로 탔다.

도처에서 널름거리는 불길, 련이어 치솟는 물기둥들, 룡트림하는 포연속에 언뜻언뜻 보이는건 덩치가 큰 적함들의 모습이였다. 우리 어뢰정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눈에 띄우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옥죄여들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24호정처럼 다른 어뢰정들도 격침되거나 격파되였단 말인가?

한백천은 꺼지게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다.

해쓱해지고 이지러진 그의 얼굴엔 체념의 그늘이 비꼈다.

어뢰정대는 전쟁의 법칙을 어기는 무모한 싸움을 하고있다. 역시 현대전은, 특히 해상전은 군사기술적우세가 승리의 결정적요인이다. 장비가, 포탄이, 기름이 싸움을 하는것이다. 배수량이 작거나 장비수준이 낮고 속도가 뜨면 견딜수가 없다.

물론 우리 어뢰정대는 력량상, 기술장비상 너무도 엄청난 적기동분함대와 맞서 높은 공격정신을 발휘하여 용감히 싸웠다. 그것은 실로 감동적이고 경탄할만 했다. 그러나 결국 무모한 희생을 냈다.

그는 이런 생각을 차마 입밖에 낼수 없었다.

그는 승무원들 이상으로 어뢰정대를 사랑했다.

그처럼 아끼고 애지중지하던 어뢰정대를 전쟁이 시작된지 도무지 한주일밖에 안되는 이날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 너무도 억이 막혀서 땅을 치며 통곡이라도 하고싶었다.

그런데 기지장은 무슨 미련이 있는지 끄떡없이 서서 해상전투장을 지켜보고있다.

한백천은 승산이 전혀 없는 이 해상전투를 사전에 저지시키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고 타매했다.

《저게 뭐요? 우리 어뢰정이 아니요?》
놀라움과 기쁨에 넘친 기지장의 목소리에 한백천은 어느새 감겨졌던 두눈을 번쩍 떴다.
저 멀리 포연이 자옥한 불바다속에서 소함정 한척이 물보라를 하얗게 날리며 전속으로 빠져나오고있었다.
기지장은 뭐라고 격정에 넘쳐 웨치며 바다기슭으로 달려내려갔다. 한백천도 얼른 일어나 허둥지둥 기지장의 뒤를 따랐다.
바다기슭을 향하여 전속으로 달려온 어뢰정은 제동장치가 고장났는지 모래불에 배머리를 박으며 턱 멈춰섰다. 갑판우에 서있던 승무원들은 관성에 떠밀려 쏴갈긴 어뢰처럼 휙 날아가 모래불에 떨어져 나딩굴었다.
홍동철과 한백천이 달려가니 승무원들은 모래불에 어푸러진채 죽은듯이 기척이 없었다.
홍동철은 먼저 군관복을 입은 승무원을 두손으로 잡아일으켰다. 화염에 꺼멓게 그슬린 얼굴을 보니 22호정장 리완근이다. 그는 정장모도 없이 맨머리바람이였다.
《정장동무! 완근이!》
홍동철은 상반신을 일으켜세운 그의 두어깨를 잡고 우악스레 흔들었다.
깊은 잠에 곯아떨어진듯 가슴만 들먹이던 리완근은 불시에 얼굴을 찡그리더니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듯 가까스로 눈을 떴다.
《이게 어떻게 된거요?》
기지장의 성급한 물음에 그는 터갈라진 입술을 겨우 놀리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한백천은 그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니 〈볼티모〉호를 까부셨다는거요?》
《예, 어뢰를 세발이나 명중시켰습니다.》
한백천은 다우쳐물었다.
《적함이 침몰되는걸 동무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리완근은 얼굴을 찡그리며 입술을 감빨더니 더는 말할 기운이 없는지 스르르 눈을 감았다.
홍동철은 작전과장과 함께 모래불에 어푸러져있는 정대원들을 바로

눕혀주고 얼굴에 묻은 피와 그을음을 닦아주었다. 모두들 맥을 탁 놓아서인지 아니면 화염에 질식됐는지 기척이 없다. 찢어진 항해복의 가슴부위가 출렁이는 물결처럼 오르내릴뿐… 부상은 더러 당했지만 희생된 정대원은 다행히도 없다.
홍동철은 모래불에 반쯤 올라온 어뢰정의 갑판에 서둘러 올라갔다. 사령탑으로 가니 부러져나간 조타기의 타륜에 리완근이 벗어던진 정장모가 걸려있었다. 정장모에 달린 무선송수신기에서 어뢰정22호를 애타게 찾는 김군옥정대장의 귀에 익은 목소리가 앵앵 울려나왔다.
《새매 둘! 새매 둘! 왜 대답이 없는가?》
홍동철은 진주보석을 발견한듯 두눈을 번쩍이며 얼른 전화모를 쥐고 송수신기를 울대에 댔다.
《나 기지장이다! 홍동철이야!》
그는 너무도 반갑고 기쁘고 격한김에 대호를 쓸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무랍없이 웨쳤다.
김군옥은 놀라도 이만저만 놀라지 않았다. 순양함을 타격하고 사라진 어뢰정22호를 찾는데 왕청같이 기지장이 나오니 놀랄수밖에…
《아! 기지장동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주문진해안가에 있소. 22호정은 무사히 빠져나왔소. 동무넨 어디에 있나?》
《우리도 전투장에서 방금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아직 기관사용시간이 여섯시간이나 남아있습니다. 곧장 기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주 여유작작한 목소리였다.
《그렇게 하오! 참, 적함은? 〈볼티모〉호는 어떻게 됐소?》
《선체가 기울어져 바다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원양구축함이 지금 구조작업을 하는데 아마 소용이 없을겁니다.》
저절로 통화가 끊어졌다. 거리가 멀어져서 더이상 초단파무선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좋아! 아주 잘했어!》
홍동철은 바다쪽을 바라보며 크게 소리를 쳤다.
한백천은 바삐 어뢰정으로 다가갔다.
《기지장동지! 뭐라고 합니까?》

홍동철은 홱 돌아섰다.

《어뢰를 세발이나 명중시켰다는 리완근정장의 말이 옳소! 지금 〈볼티모〉호가 침몰되고있다오.》

한백천은 너무도 놀라 입을 항 벌렸다.

《그…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이고말고, 우리가 이겼소!》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해보이듯이 바다의 전장에 짙게 드리웠던 화염과 포연, 검은 연기가 해풍에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보기 흉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검은 연기를 토하며 출렁이는 파도속에 잠기는 중순양함의 처참한 몰골이 점차 뚜렷이 안겨왔다.

한백천은 눈앞에 펼쳐진 이 놀라운 현실을 더는 믿지 않을수가 없게 되였다.

정녕 놀라왔다. 아직 세계해전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없는 전대미문의 기적이 바로 우리 어뢰정대에 의하여 우리 바다에서 창조되였다. 김군옥과 채기정을 비롯한 20대의 젊은 어뢰정대원들이 세계《최강》을 뽐내는 미해군의 《강대성》의 신화를 보기 좋게 깨버린것이였다. 단지 그것만이 깨진게 아니였다. 자기의 머리속에 그 어떤 군사교범이나 전쟁의 법칙처럼 굳어져있던것도 산산쪼각이 났다. 그것은 사대주의였고 기술만능주의였으며 결국은 패배주의였다.

그는 신음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기지장앞에서 가슴을 풀어헤치고 자신을 반성하며 용서를 빌고 싶었다.

어뢰정21호는 드디여 격전장의 불길과 포연속에서 빠져나갔다. 시원한 해풍이 불어와 심신을 거뜬하게 해주었다. 김군옥은 욕심스레 해풍을 들이키며 번쩍 고개를 추켜들었다.

언제 솟았는지 저 멀리 꿈틀거리는 수평선우에서 불덩이같은 아침해가 눈부시게 빛을 뿌리고있었다.

태양은 세계해전사에 아직 없었던, 적아간의 력량상차이가 너무도 엄청난 치렬한 격전이 벌어진 주문진해상을 바라보며 장엄하게 더 높이 떠올랐다. 찬란하고 황홀한 그 빛을 받은 바다는 환희에 겨워 넘실넘실 춤추며 설레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김군옥의 가슴은 승전의 긍지와 격정으로 끓어

올랐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승전하고 귀항의 배길에 오른 어뢰정대원들을 축하해주시는것만 같았다.
《동무들! 해가 솟았소! 태양이 솟았소!》
정대장이 웨치는 소리에 기관실에 있던 채기정을 비롯한 승무원들까지 갑판에 뛰쳐나왔다.
《만세!》
모두들 찬란한 태양을 우러러 두손을 흔들며 목청껏 환호성을 터쳤다. 포연과 화염에 그슬린 얼굴마다 쇠물처럼 뜨거운 눈물이 화락하니 흘러내렸다.
칠색무지개빛으로 아롱지는 그 눈물에 얼비쳐 이 승전소식을 듣고 기뻐할 그 처녀 김정인의 모습이 눈앞에 우렷이 떠올랐다. 방금 해산한 몸으로도 항해식품을 성의껏 마련해준 기지장의 아주머니를 비롯한 군관가족들의 모습도 안겨왔다.
전쟁이 터진 날에 태여난 미래의 어뢰정대원인 해남이가 손에 쥔 함선호각을 흔들며 엄마의 품에 안긴채 밝게 웃고있다.
승전의 기쁨을 안고 기지로 돌아가는 배길에 갈매기들은 춤추며 날아들고 파도는 꽃보라같은 물보라를 뿌려주었다.

세발의 어뢰를 련속 얻어맞고 만신창이 된데다가 함장과 승선지도장교를 비롯한 수많은 승무원들의 버림을 받은 중순양함 《볼티모》호는 해상전투가 시작된지 다섯시간후인 오전 9시 10분에 침몰되여 해상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다.
마치도 분노하여 길길이 일떠선 조선동해가 침략의 원흉인 중순양함을 훌떡 삼켜버린듯싶었다.
이로써 반세기가 넘는 기나긴 세월 거만하게 치솟은 마스트에 대통령기와 해군대장기를 펄펄 날리며 태평양과 대서양을 제멋대로 쏘다니며 주인행세를 해온 《볼티모》호는 자기의 화려한 존재를 너무도 비참하게 끝마쳤다. 침몰이 일으킨 소용돌이가 잦아들자 배기름이 번들거리고 시체들이 흥떡이는 수면우에는 산산쪼각난 중순양함의 잔해들이 쓰레기처럼 너저분하게 떠올랐다.
원양구축함은 어뢰정21호의 검질긴 추격에서 겨우 벗어나 안도의 숨

을 내쉬고 전투장에 북조선해군의 어뢰정이 더는 없다는것을 재삼 확인하고나서야 구조작업에 착수했다. 불타는 바다에 떨어져 반정신이 나갔던 웨리크는 다행히도 구명뽀트를 붙잡았다. 그는 구축함갑판에 올라서야 의식을 회복했다. 하지만 죽지 못하고 살아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겨우 목숨을 건진 대가로 자기의 눈앞에서 침몰되는 《볼티모》호의 처참한 광경을 낱낱이 목격하지 않으면 안되였기때문이다.

정신적인 고통에 못이겨 다시 까무라쳤던 그는 강심제를 주사해서야 가까스로 눈을 떴다.

한쪽눈에 붕대를 감은 잭슨함장이 무전문을 내밀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전진지휘소와 맥아더사령부에 보낼거요. 당신이 수표하시오.》

전투정형을 종합한 무전문을 보니 새삼스레 기가 막혔다.

기동분함대는 도무지 네척밖에 안되는 북조선해군의 어뢰정들과 싸워 중순양함은 침몰되고 경순양함은 격상되였고 살상된 승무원수는 무려 7백여명에 달했다.

웨리크는 악이 치받쳐서 무전문을 와락 그러쥐고 잭슨함장을 물어뜯을듯이 노려보았다.

《왜 내가 수표하라는거요? 어째서?》

잭슨은 어깨를 으쓱하며 한숨을 소리나게 내쉬더니 랭담하게 응대했다.

《당신이야 승선지도장교가 아니요. 함선을 잃어버린 이 잭슨은 여기에 수표할 자격조차 없소.》

웨리크는 이를 갈면서 하는수없이 무전문에 수표를 했다.

29

가뜩이나 무덥던 평양의 날씨는 소서에 접어들자 찌물쿠는듯 했다. 남진하는 인민군부대들에서 련이어 들어오는 전승소식이 수도의 대기를 뜨겁게 달구어주는듯싶었다. 군관숙박소에는 수많은 장령들과

군관들이 갑자기 모여들어서 침대가 모자랄 지경이였다.
며칠전에 최고사령부가 조직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명령에 따라 전선사령부와 1군, 2군집단지휘부도 조직되였다. 각 군종, 병종들에서 장령들과 군관들이 새로운 직무에 임명받기 위해 왔다.
주문진해상전투에서 영웅적인 위훈을 세운 어뢰정대원들에 대한 수훈추천문건을 가지고 올라온 홍동철은 군관숙박소에 가기에 앞서 먼저 해군사령관을 찾아갔다.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한일무는 자기 방에 들어서는 홍동철을 보자 약간 계면쩍은 표정을 짓더니 환성을 지르며 떠들썩하게 맞이했다.
《아! 기지장동무가 왔구만! 축하하오. 지금 주문진해전의 승리를 두고 전선과 후방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격찬하고있소.》
적기동분함대를 까부실데 대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명령이 제2어뢰정대에 하달된 순간부터 한일무는 통신지휘소를 떠나지 못했다. 그는 해군사령관이기에 그 전투에 자기의 운명을 걸고있었다. 긴장, 초긴장속에서 이틀밤을 꼬박 밝히며 전투소식을 기다리는데 드디여 승전소식이 날아왔다.
미제중순양함을 격침시키고 경순양함을 격상시켰다.
너무도 놀라운 전과여서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이게 사실이요? 다시 확인해보시오. 기지장은 어디에 있소? 기지장을 찾아서 다시 확인해보란 말이요.》
이때 엉뚱하게도 쏘련태평양함대에서 축하전문이 불쑥 날아들었다. 태평양함대의 전파탐지소에서 웨리크가 맥아더사령부에 날린 무전을 잡아 해득했던것이다.
《쏘련동지들이 축하전문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오?
어뢰정 네척으로 기동분함대를 공격한다는건 자기들도 엄두조차 낼수 없는 일이라는거요. 그런데 조선동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볼티모〉호가 침몰됐다니 자기들은 도저히 믿을수가 없다는거지.》
그는 두팔을 쩍 벌려보이며 두눈을 디룩거렸다.
《여보, 솔직히 고백하는데 나도 믿을수 없었소.
이건 군사상식과 해상전법상으로는 도저히 성립될수 없고 따라서 리해될수도 없는 수수께끼같은 전투였단 말이요. 정말이지 제 눈으로 보

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수 없다니까. 기지장동문 작전과장과 함께 주문진등대에서 전투진행의 전과정을 지켜보았다고 했지?》

《예.》

《그럼 어디 말해보오. 동무가 목격한 그대로 이야기를 하란 말이요.》

한일무는 차까지 한잔 각근히 부어주었다.

홍동철은 차를 한모금 마시고나서 그날 자기가 벅찬 감동과 흥분속에 지켜본 해상전투진행정형을 좋은 언변으로 방불히 펼쳐보이였다.

한일무는 두눈을 잔뜩 쪼프리고 긴장해졌다가 입을 하 벌리며 깜짝 놀라는가 하면 아! 하고 탄성을 지르기도 했고 오른주먹으로 왼손바닥을 철썩 때리며 그래! 잘했소!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내 이미 말하지 않았나 하고 소리치기도 했다.

보매 그는 과장된 배우같은 연기로 자기가 지난 기간 몇척밖에 안되는 어뢰정을 그저 탐탁치 않게 여겨온것을 슬쩍 무마시키려 하는것 같았다.

홍동철은 넌지시 말을 이었다.

《우리 작전과장 한백천동무가 하는 말이 아주 교훈적이더군요.》

《그가 뭐라고 했소?》

《자기는 쏘련함대에서 복무할 때부터 해상전투는 군함의 성능과 장비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왔는데 이제 보니 그게 바로 기술만능주의고 사대주의며 패배주의라는겁니다.》

자기도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있었을뿐아니라 그것을 고집스레 주장해왔던지라 한일무는 어쩔수없이 얼굴을 붉히며 헛기침을 했다.

홍동철은 그 거북스런 기침소리를 못 들은체 하고 하던 말을 계속했다.

《작전과장동무는 자기의 머리속에 인박혀있던 그 잡사상이 주문진해전을 지켜보는 과정에 여지없이 깨져나갔다고 했습니다.》

한일무는 다소 면구스런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 말이 옳소. 하여간 전투에 참가한 당사자들은 말할것도 없고 기지장동무나 한백천동무도 행운아들이요. 세계해전사에 아직 있어본적이 없는 그런 기적을 직접 목격했으니 말이요.

자! 그럼 수훈추천문건을 보기요.》

문건을 한장한장 주의깊게 보면서 번지던 한일무는 저으기 놀라와

했다.

《아니?! 이건 뭐요?》

손수건으로 대머리에 내배인 땀을 닦던 홍동철은 해군사령관의 놀란 눈동자를 마주보며 왜 그러느냐고 되물었다.

《어째서 공화국영웅을 두명씩이나 추천했소?》

해군사령관이 놀랄만도 했다.

홍동철은 기지당위원회에서 토의한대로 김군옥정대장과 어뢰를 두발 다 명중시켜 전투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리완근정장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추천문건을 만들었던것이다.

아직은 우리 나라에 공화국영웅칭호를 받은 사람이 없었다. 이런 추천문건도 처음 만들어보았다. 처음으로 하는 일이여서 홍동철은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가늠할수가 없었다.

그는 선뜻 대답을 못하고 해군사령관을 마주보기만 했다.

《이런건 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례를 따라야 하오. 제2차 세계대전시기를 놓고봐도 쏘련에서는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큰 전투에서 승리한 경우 훈장이나 메달은 많이 주었지만 영웅칭호는 특출한 군공을 세운 한사람에게만 수여하군 했소.

영웅이란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지는 고귀한 칭호요. 영웅이 되면 력사에 남는거지. 이런 비범한 인물이 어떻게 한 전투에서 두명씩이나 생겨날수 있소?》

홍동철은 그 주장이 잘 납득되지 않았다.

《해군사령관동지, 전과를 놓고보십시오.

중순양함 〈볼티모〉호는 건조비만 봐도 어뢰정 1만 3천척에 맞먹습니다. 우리 정대원들이 주문진해상전투에서 살상한 적은 무려 700명이 넘지요. 이런 놀라운 전과를 올리고도 왜 영웅이 한사람이상은 나올수 없는가 말입니다.》

한일무는 주문진해상전투의 전과에 새삼스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기지장동무, 이번에 어뢰정대가 거둔 전과는 정말 놀랍고 상상을 초월하오. 그런데 말이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전쟁개시 1단계에 륙해공군과 각 병종들에서 특출한 위훈을 세운 군관, 하사관들을 한명씩 엄선하여 처음으로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기로 했단 말이요.》

《하지만…》

한일무는 손사래를 쳤다.
《내 말을 마저 듣소. 어뢰정대는 대대급이요. 다른 군종, 병종들은 사단급에서 영웅을 한명씩 추천했는데 동무넨 한개 대대에서 영웅을 두명이나 추천하면 되겠냐 말이요. 하여간 내 기지장동무의 의견을 고려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해당 부서와 의논은 해보겠소. 그러니 숙소에 가서 기다리시오.》
홍동철은 군관숙박소에 찾아갔다.
그는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서 수훈추천문건과 관련한 문제를 놓고 다시 생각해보고싶었는데 그럴수 없었다. 원산기지장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장령들과 군관들이 다투어 찾아와 요즘 어데서나 화제거리인 주문진해전을 두고 질문의 소나기를 퍼부었던것이다.
그들속엔 해군군관학교 정치부교장으로 사업하던 조정철대좌도 있었다.
그는 앞으로 남해안지역들이 해방되는데 따라 새로 편성하게 될 려단을 꾸릴 임무를 받고 해군사령부에 올라왔다. 남해려단은 남해안의 주요군항들과 항구들, 해군기지들을 관리하고 해안을 방어하며 조국이 통일된 후에는 독자적으로 남해를 지키게 될 해군함대의 모체였다.
전쟁이 터진지 불과 열흘이 남짓하다.
전선은 남쪽으로 쑥 내려가고 남반부의 전지역을 해방할 날이 벌써 눈앞에 다가오고있었다.
조정철은 자기가 손때묻혀 키운 제자들이 이번에 세상을 깜짝 놀래우는 대승리를 거두었기에 혁혁한 그 전과를 두고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김군옥정대장은 수상보안간부학교시절부터 장차 큰일을 할 친구였소. 내가 정치부교장으로 임명되여가니 그는 채정보부교장의 아들과 함께 처벌을 받고 해상부업을 하고있더군. 참, 소포정대장인 고준무도 그때 함께 처벌을 받았댔소. 그들은 학교적으로 실력이 뛰여났지만 서로 승벽다툼이 여간 아니였지.》
《이번에 고준무정대장이 소포정으로 자진하여 화력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놈들의 집중포화를 받고 소포정들이 박산나는통에 하마트면 잘못될번 했지요. 그는 부상당한 몸으로도 정대원들을 이끌고 바다기슭으로 헤염쳐나왔습니다.》
그들의 미더운 모습을 그려보며 고개를 끄덕이던 조정철은 불시에

안색을 흐리며 나직이 물었다.
《듣자니 문화부정대장동무는 전사했다지요?》
홍동철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였다.
바다사나이답게 거쿨지고 거무틱틱하게 생긴 리학섭의 미더운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척 바라보기만 해도 믿음이 절로 가서 속을 터놓고싶고 의지하고싶어지던 그의 모습이… 해상전투를 앞두고 그가 미리 준비한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맹세문초안의 격동적인 글발들이 자자구구 뇌리에 되살아난다.
그는 말로써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정대원들을 위훈에로 이끈 정치일군이였다.
그렇다! 이번 해상전투에서는 가슴아픈 희생도 있었다. 적순양함에 선참으로 어뢰를 명중시킨 최정수정장과 일부 승무원들은 기지에 돌아오지 못했다.
떠들썩하던 방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수적, 기술적우세를 자랑하는 미제침략자들과의 판가리싸움에서 희생적인 영웅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어뢰정대원들을 그려보며 모두들 비장하고 숭엄한 생각에 잠겨들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일무가 나타났다.
《기지장동무! 빨리 나오시오.》
뭔가 급한 일이 생긴것 같아서 홍동철은 풀어헤쳤던 군복상의의 단추도 미처 채우지 못한채 서둘러 복도에 나갔다.
《복장정돈을 바로하고 어서 갑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동무를 친히 부르셨소.》
《예?!》
그리도 바라던 소원이 이처럼 정작 이루어지니 홍동철은 이것이 현실로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동무네가 제출한 제2어뢰정대원들의 수훈추천문건을 몸소 보아주시였소.》
갓 조직된 최고사령부에 일감이 얼마나 많을것인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전선과 후방의 모든것을 돌보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가 올린 수훈추천문건까지 보아주셨다니 홍동철은 감격을 금할수 없었다.
그는 서둘러 복장정돈을 바로하고 뒤설레이는 가슴을 진정시키노라

무진 애를 쓰며 해군사령관을 따라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사령부작전실에서 그들을 접견해주시였다.

견장이 없는 군복차림을 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홍동철이 삼가 올리는 인사를 받으시고 보시던 문건을 밀어놓고 일어나시여 그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였다.

《기지장동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난 어뢰정대원들이 몹시 보고싶었는데 동무를 만나니 그들을 만난것처럼 반갑습니다.》

《김군옥정대장을 비롯한 어뢰정대원들은 모두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뵙고싶어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있습니다.》

《고맙소. 내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여 용감한 우리 어뢰정대원들을 꼭 만나서 그들이 거둔 전투성과를 축하해주려고 합니다.》

전화종이 울렸다.

김일성동지께서 전화를 받으시는데 부관이 무전문을 들고 들어왔다. 그이께서는 전화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무전문도 받아보시였다.

《알겠습니다. 김책동무, 내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 군사위원회는 한시간후에 합시다.》

송수화기를 놓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부관에게 이르시였다.

《이제부터 한시간동안 여기에 전화를 련결시키지 말라고 하시오. 무전문도 한시간후에 가져오시오.》

《알았습니다!》

부관은 서둘러 나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홍동철을 돌아보시며 빙그레 미소를 지으셨는데 순간 두볼에 패이는 볼우물이 인상적이였다. 거기에서 다정한 미소가, 뜨거운 사랑이 계속 샘솟아 흘러넘치는것만 같았다.

《동무가 주문진등대에 올라가 주문진해전을 직접 보았다고 하는데 먼저 그 이야기부터 들려주시오.》

홍동철은 저도 모르게 벽시계부터 바라보았다.

그는 될수록 조리있게,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입을 열었다. 이야기도중에 초조해진 그는 또다시 벽시계에 눈길이 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너그럽게 이르시였다.

《기지장동무, 조급해서 그러지 마오. 우정 통시간을 냈으니 마음

을 푹 놓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오. 전투를 앞두고 속초항에서 해병결기모임을 할 때 정대장동무가 첫 토론을 어떻게 했다구?》
《정대장동무는 우리가 타격해야 할 미제침략군 기동분함대는 지상의 군단에 맞먹는 너무도 엄청난 무력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출명장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몸소 심어주신 백두의 공격정신과 우리 식의 전법이 있다, 이것이 필승의 무기다라고 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젊은 정대장의 신심에 넘친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시며 크게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계속하여 정대장동무는 우리 어뢰정들에 장진한것은 단순한 어뢰가 아니라 항일선렬들이 물려준 연길폭탄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어떤일이 있더라도 이 폭탄을 적중순양함의 심장부에 명중시켜 기어이 침몰시키겠다고 맹세를 다졌습니다.》
《그래! 그 말이 옳소! 계속하시오. 전투진행정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작전대앞에 다가가시여 인민해군의 빛나는 위훈이 아로새겨진 주문진앞바다를 이윽토록 지켜보시며 기지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였다.
쏟아져내리는 함포탄소나기속을 뚫고 돌격침로에 들어선 어뢰정들의 기세높은 동음소리, 질겁하여 허둥거리는 침략선들, 발사구령이 내리자 수면을 스치며 쏜살같이 나아가는 멸적의 어뢰들, 하늘을 찌르며 올라가는 물기둥들…
불현듯 그이의 눈앞에는 휘몰아치는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세차게 나붓기던 붉은기가 떠올랐다.
피어린 항일전장에 울려퍼지던 돌격의 나팔소리도 세월을 거슬러 랑랑히 메아리쳐오는것 같으시였다. 항일의 전통, 백두의 공격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 해병들이기에 《최강》을 뽐내던 미제침략자들과의 첫 싸움에서 온 세상을 깜짝 놀래우는 불멸의 위훈을 떨친것이였다.
《용감한 우리 해병들이 미국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단단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싸움은 조선의 해병들만이 할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믿었기때문에 네척의 어뢰정을 가지고 미제침략자들의 중순양함을 까부시라고 명령했던것입니다.》
그이의 우렁우렁한 목소리에는 용감무쌍한 해병들, 영웅적인 전사

들을 수하에 거느린 령장의 자부심과 기쁨 그리고 행복이 가득 넘쳐 있었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여 급변한 정황속에서도 정대장이 제때에 결심채택을 하고 승리의 신심에 넘쳐 전투지휘를 능숙하게 했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김군옥정대장은 높은 공격정신과 우리 식의 해상전법을 소유하면 작은 어뢰정을 가지고도 적들의 대형함선집단과 얼마든지 맞서싸워 이길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원항해타격훈련에 전심전력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것이 크게 은을 냈습니다. 주문진해상전투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상시에 실전과 다름없는 훈련을 통하여 강한 정신력과 우리 식의 령활한 전법을 소유하면 제아무리 수적, 기술적우세를 떠들어대는 적들과 싸워도 반드시 이긴다는것이 주문진해상전투를 통하여 진리로 확증되였다고 각별히 강조하시였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빨찌산식입니다. 빨찌산식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군사령관을 돌아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해방직후에 우리가 수상보안간부학교를 내오고 조정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을 파견하여 학생들에게 백두의 혁명정신을 심어주기를 잘했습니다. 내가 함대출항식때도 말했지만 동무들이 순양함타령이나 하고 학생들을 류학보낼 생각이나 하고있었다면 어떻게 될번 했습니까?》

덤덤히 서있던 한일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였다.

《해군에서는 앞으로 주문진해상전투에서 얻은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작지만 기동이 빠르고 타격력이 강한 함선들로 무장하고 미제침략자들의 대형함선집단과 맞서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현단계에서 우리의 힘으로 바다를 지켜낼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방도입니다.》

이처럼 해군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주문진해상전투를 잘 지휘한 정대장과 두발의 어뢰를 다 명중시킨 22호정장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다른 나라에서는 한 전투에서 영웅을 한명밖에 내지 않는다고 하

면서 정대장에게만 영웅칭호를 수여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였다는데 남이야 어떻게 하든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잘 싸운 동무들에게 공적에 따라 다 영웅칭호를 주어야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해군사령관에게 동무의 생각은 어떤가? 솔직히 말해보라고 하시였다.

한일무는 송구스런 기색으로 조심스레 말씀드렸다.

《그렇게 되면 영웅이 너무 많이 나올것 같습니다.》

《허허! 해군사령관동무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있구만.》

김일성동지께서는 열정적으로 손을 흔드시며 작전실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소리로 언명하시였다.

《나라에 영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전쟁기간에 영웅은 수많이 배출될것이며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 나라는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영웅의 나라로 될것입니다.》

홍동철과 한일무는 일찌기 느껴보지 못한 감격과 환희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오늘은 어뢰정대에서 영웅이 두명이나 나왔다면 래일은 기뢰부설조에서도 영웅이 나올것이고 해안포구분대와 해상륙전대에서도 영웅이 나올것이다.

어찌 그뿐이랴. 보병은 물론이고 비행사들, 정찰병들, 땅크병들과 자동차운전사들, 지어는 공병과 통신병, 간호원들속에서도 영웅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올테니 조국해방전쟁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손길아래 평범한 전사들을 모두다 영웅으로 키워내는 활무대로 전변되고있었다.

그렇다!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무쌍의 배짱가이신 천출명장 **김일성**장군님을 진두에 높이 모셨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때려부시고 포연이 가셔진 내 나라의 푸른 하늘에 전승의 축포를 통쾌하게 쏴올릴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문득 안색을 흐리시며 갈리신 어조로 문화부정대장을 비롯하여 장렬하게 전사한 동무들이 있다는데 그들도 크게 표창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사실 제2어뢰정대 해병들은 다 영웅인셈입니다. 그들은 이 전쟁에서 처음으로 미제침략자들과 싸워이기고 천만군민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

겨주었으며 세계해전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대통령전용함선이였으며 미해군의 기함이였던 중순양함 〈볼티모〉호의 침몰은 결국 미국의 침몰을 의미합니다. 그처럼 강대하다고 뽐내던 미제는 벌써 내리막길에 들어섰습니다. 조선전쟁에서 주문진해전과 같은 기적은 계속 창조될것이며 따라서 미국은 완전침몰의 가련한 운명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나는 조국해방전쟁사에 특기할 위훈을 세운 제2어뢰정대에 근위칭호를 수여하려고 합니다.》
한일무와 홍동철은 더이상 격정을 누를수가 없어 힘껏 박수를 쳤다.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러갔다.
스물두살의 젊은 나이에 공화국의 첫 영웅의 한사람으로 된 어뢰정대장 김군옥의 머리에도 어느덧 흰서리가 내렸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것은 영웅전사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였다.
김군옥이 일흔고개에 거의 올라선 주체85(1996)년 7월의 어느날 그에게는 꿈에서도 바라지 못했고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행운이 찾아왔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를 복대시켜 해군소장의 군사칭호를 수여하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공훈강사로 임명해주시는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대해같은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어제날의 젊었던 어뢰정대장은 칠순나이에 다시 군복을 입고 사랑하는 어뢰정21호가 전쟁시기의 그 모습대로 전시되여있는 영웅들의 집—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으로 찾아갔다, 어제날의 어뢰정대담당준의인 늙은 안해와 함께…

장편소설 **불타는 바다**

저 자 **김 대 성**
편 집 **김 송 봉**
표지, 삽화 **김 정 화**
편 성 **김 남 숙**
교 정 **김 연 옥**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 2
인 쇄 주체100(2011)년 4월 25일
발 행 주체100(2011)년 4월 30일

ㄱ—16025 값 200원

D P R Korea
ISBN 978—9946—22—378—0